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 학위논문

唐 德宗의 국가 운영과 帝國 재건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조종성

唐 德宗의 국가 운영과 帝國 재건

지도교수 조 성 우

이 논문을 문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조 종 성

조종성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安史의 亂이 종식된 이후에 제위에 오른 唐의 첫 번째 황제인 德宗은 제국의 재건을 위하여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특히 唐朝는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江淮 漕運路의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했고, 이는 안사의 난 후 당조의 국가 운영 지침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당 玄宗 시기 長江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長安으로 수송하는 조운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 경제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장강 중하류 지역의 생산력은 당조의 재정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하지만 안사의 난 후 당조는 강회 조운로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反側之地가 汴州·徐州와 같은 강회 조운로가 지나가는 주요 거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들 반측지지의 절도사들은 대부분이 과거 安祿山·史思明 휘하의 장수 출신으로, 당조가 이들을 전쟁 후에도 그대로 節度使로 유임시키면서 하북도와 하남도 일대에는 조정과 일부 대립하는 反側之地가 나타나게 되었다. 당조는 이들 반측지지에 대항하기 위한 병력을 河東道·河南道·淮南道 일대에 배치하고서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통하여 이들 병력에 대한 보급을 진행하였으나, 인접한 강대국인 吐蕃·위구르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병력과 물자가 소모되었기에 당조는 반측지지와 전력을 다해 맞설 수 없었다.

덕종은 즉위 후 약체화된 위구르와의 관계보다 토번과의 화친 관계 형성에 주력하였고, 이로써 당조는 서북 변경에 투입되던 물자와 병력을 반측지지와 전쟁으로 돌림으로써 내부 번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 문제가 정리된 후 당조가 建中 연간 번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반측지지 또한 강회 조운로와 江漢 조운로를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수송할 수로를 끊음으로써 당조와 맞섰다. 당조 또한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결국 두 조운로가 지나가는 영역을 모두 확보하였고, 이에 당조는 반측지지와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 成德 번진 내부에서는 병란이 발생하여 王武俊이 藩帥인 李惟岳을 살해하고 조정에 투항함으로써 전황은 당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반란군 측은 조정에 투항한 번진들에 덕종이 과거 반측지지의 절도사들을

모두 내쫓고 문신으로 대체하려는 생각이라며 유세하였는데, 여기에 여러 번진의 절도사들이 호응함으로써 당조는 재차 위기를 겪게 되었다. 특히 淮西節度使 李希烈은 반란군과 합세하고서 변주를 점령하여 강희 조운로를 재차 단절시킴으로써 당조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여러 방면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당조가 가장 우선시했던 과제는 장안의 안전과 강희 조운로의 확보였으며, 이는 당시 陸贄가 전쟁의 이해를 정리하여 덕종에게 보고한 글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강희 조운로의 상실로 인해 물자 보급이 어려워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덕종은 장안에서 봉천으로 피난하게 된다.

이희열이 강희 조운로와 인접한 지역을 공격하자 당조는 哥舒曜를 지휘관으로 하는 병력을 파견하여 이에 맞서게 하였지만, 가서요가 패배하고 오히려 襄城에서 포위됨으로써 강희 조운로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았고 당조는 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포위된 가서요를 지원하기 위해 장안을 지나던 涇原軍에 황제가 충분한 상을 내리지 못하여 이들이 병란을 일으킨 것 또한 결국 조운로의 차단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에 덕종은 장안을 떠나 奉天으로 피난하는 이른바 ‘涇師之變’을 경험한다. 朔方節度使 李懷光이 봉천에 갇힌 덕종을 구원하였지만, 사후 조치에 있어 불만을 품고 이희광은 오히려 반란군과 연합하여 덕종을 위협하며 장안 동쪽의 하중부에 웅거함으로써 당조는 강희 조운로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물자 보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장안마저 빼앗겨 반촉지지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덕종이 「죄기조」를 반포하여 당시 각 절도사들이 일으킨 반란의 원인을 덕종 황제 본인에게 돌리며, 자기 영역 이외의 주변 번진을 공격하지 않고 涇原軍에 의해 황제로 옹립된 朱泚와의 관계를 끊는다면 어떤 번진의 병력이라도 사면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시 당조가 처한 불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에 반란군 중 일부는 당조에 귀순함으로써 원하던 절도사 자리를 인정받았고, 이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당조는 귀순을 거부한 나머지 반란군을 차례로 진압하였다.

「죄기조」로 인하여 급한 위기는 벗어났지만 당조는 여전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당조는 官俸을 삭감하고 관원 가운데 결원이 생길 경우 이를 채우지 않는 등의 대책까지 동원하여 여유 재정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후 당조가 번진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는 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난이 있었던 것이다. 다만 당조는 조운로가 지나는 전역을 확보하고 하북도와 하남도 일대 이외의 반촉지지를 모두 제압함으로써 번진과의 전선 또한 크게 단축시킴으로써 안사의 난 이후 당조가 맞이했던 과제 중

일부를 해소하였다.

장안으로 돌아온 덕종은 반란에 가담했던 삭방군을 3개의 작은 번진으로 분할함으로써 황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만 삭방군은 서북 변경을 방어하는 핵심 번진이기에 삭방군의 약화는 자칫 서북 변경 방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당조는 이에 다수의 신책군 병력을 서북 변경 지역에 배치하고 그 총괄을 宦官이 맡은 神策中尉에게 맡김으로써 약화된 서북 변경의 방어력을 보강한다. 신책중위는 황제가 전적인 임명권을 지닌 使職으로, 덕종은 이를 통해 서북 변경의 방어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번진이 황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었다. 이상의 방책은 한편 수도 인근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지방 번진의 병력에 맞서는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強幹弱枝)’ 효과도 지닌 이중적인 조치였다.

문제는 토번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였다. 貞元 3년(787) 발생한 ‘平涼劫盟’으로 인해 덕종 즉위 초부터 이어져오던 토번과 당조 간의 화친 관계는 무너졌고, 이로써 장안의 안전은 위협받게 되었다. 하지만 당조는 아직 전쟁 후의 재정난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서북 변경 지역의 번진이 강한 군사력을 지니는 문제 또한 황제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당조는 위구르·南詔·大食·天竺 등 토번의 여러 인접국과 외교적으로 교섭하여 토번을 협공함으로써 당조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변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시도는 효과를 보아 덕종 후기로 가면서 토번의 당조의 서북 변경에 대한 위협은 점차 약해졌고, 이로써 덕종은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후 당조는 번진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정원 15년(799) 덕종은 17개 번진의 병력을 동원하여 회서 번진을 토벌함으로써 그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당조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회서 번진이 강회 조운로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회서절도사 吳少誠이 陳許節度使 曲環이 사망한 틈을 타 許州를 공격하자 덕종은 회서 번진에 대한 토벌을 명령하는데, 이는 진허절도사의 기본 직능이 회서 번진의 강회 조운로에 대한 접근을 저지하는 것이었다는 사실과도 유관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덕종은 전체 토벌군을 지휘할 통수를 두지 않은 채 환관이 맡은 감군사를 통하여 전황을 통제하려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황제를 위협할 수 있는 거대 무력 집단의 성립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통수의 부재로 인해 지휘력에 문제가 생긴 토벌군은 계속적으로 패배하였다. 이후 韓全義가 招討使로 임명되었지만 그 또한

신책중위 竇文場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군사적 재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한전위가 군사적 무능을 노출하며 패진을 거듭하자 덕종은 명장을 초토사로 임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소성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올린 표장을 구실로 삼아 정원 16년(800) 9월에 그를 사면하고 토벌군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내린다. 해당 전쟁에서 당조는 회서 번진을 토벌하는 데에 실패하였지만, 그럼에도 강희 조운로라는 1차 방어 목표를 지켜내는 데에는 성공했으며 이를 위협하는 번진이 있다면 대규모 토벌군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 번진에 과시하였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때문에 정원 15년의 회서 번진 토벌의 실패는 오히려 덕종 말기 당 제국의 재건을 위한 기초 작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당조가 안사의 난 이후 안고 있던 여러 문제를 덕종이 재위 기간 동안 온전히 해결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덕종이 최소한 조운로의 확보와 외교 관계의 정립, 번진들로 하여금 자기 영역 밖을 침공하는 것을 제지하는 등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을 마련하였음은 사실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덕종 시기를 통해 당 제국이 '재건'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덕종의 사후에도 당조가 100여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존속할 수 있었던 사실은 덕종 시기의 여러 정책이 효과를 보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현종을 포함한 덕종 이후의 황제들이 번진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바탕은 덕종 시기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주요어 : 唐 德宗, 安史의 亂, 漕運路, 陸贄, 藩鎮, 財政, 外交, 吐蕃,
위구르, 宦官, 神策軍, 제국 재건

학 번 : 2014-30024

목 차

국문초록

서 론	1
I. 安史의 亂 후 唐朝가 당면한 과제	15
1. 詔勅 목록에 드러난 德宗 시기의 과제	15
2. 唐朝의 江淮 漕運路 장악력과 藩鎮	25
1) 安史의 亂 이전 唐朝의 漕運路 운영	25
2) 肅·代宗의 漕運路 안정화 시도와 그 한계	31
3. 德宗 즉위 이전의 藩鎮 형세	38
1) 安史의 亂 이후의 反側之地와 ‘河朔舊事’	38
1) 代宗 시기 河南·淮南道の 藩鎮 상황	43
4. 吐蕃·위구르와의 軍事·外交 문제	49
소 결	58
II. 建中 연간 反側之地에 대한 강경책과 漕運路	61
1. 吐蕃과의 화친과 적극적 藩鎮 정책	61
2. 反側之地의 漕運路 차단과 唐朝의 대응	69
3. 전쟁의 장기화와 江淮 漕運路	75
4. 陸贄의 상황 인식과 唐朝의 藩鎮 대책	82
소 결	88
III. 貞元 연간 內憂外亂의 극복	90
1. ‘涇師之變’의 발발과 그 수습	90
1) 奉天 피난 전후의 武將들의 행보	90
2) 「罪己詔」의 반포와 藩鎮에 대한 대처	101
2. 朔防軍의 분할과 神策中尉 설치	111

1) 朔防軍 재분할과 그 문제	111
2) 서북변에서의 神策軍의 역할과 神策中尉	115
3. 吐蕃과의 관계 악화와 唐朝의 대처	127
1) ‘平涼劫盟’과 唐-吐蕃의 관계 경색	127
2) 唐朝의 吐蕃 협공 요청과 그 결과	131
4. 貞元 15년(799)의 淮西 藩鎮 토벌과 漕運路	146
1) 吳少誠 토벌 결정의 배경	146
2) 淮西 藩鎮 토벌의 실패와 그 의미	154
소 결	159
결 론	163
부 록	170
참고문헌	171
Abstract	190

서론

唐朝는 隋에 이어 618년부터 907년까지 300년 가까이 존속했던 왕조이다. 일반적으로는 755년에서 763년에 걸쳐 발생한 安史의 亂 이전을 당 전기, 그 이후를 당 후기로 구분하여 安史의 난을 거치며 당조가 크게 변화했음을 강조하곤 한다.¹⁾ 그 가운데 당 전기가 이른바 ‘律令體制’ 하에서 당조가 전성기를 누린 시기로 여겨져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은 반면, 당 후기는 藩鎮과 宦官 등 각종 문제로 인하여 당조가 쇠락한 시기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기에 당 전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시리라 할 수 있다. 물론 당 후기의 황제 가운데 ‘元和中興’을 이룩한 憲宗과 會昌廢佛을 일으킨 武宗 등 특기된 황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들에 대한 기술 또한 전반적으로 쇠락해가는 당 후기를 설명하는 가운데 특이 사례로서 거론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게다가 憲宗과 무종 외의 다른 황제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德宗 황제 또한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²⁾

당 덕종의 諱는 适로 唐朝의 제9대 황제이며, 당조의 제8대 황제인 代宗과 어머니 睿眞皇后 沈氏 사이에서 태어난 長子이다. 李适은 天寶 元年(742) 4월 長安 大内の 東宮에서 태어나 그 해 12월 奉節郡王으로 봉해졌고, 대종이 즉위한 寶應 元年(762) 5월에 天下兵馬元帥가 되었으며 魯王으로 改封되었다가 같은 해 8월 雍王으로 改封되었다. 당시 史朝義가 東都인 洛陽에 웅거하였기에 대종은 10월 雍王 适을 陝州에 파견하였는데, 그는 사조의 세력을 격파하고 11월에는 낙양을 수복하는 공을 세웠다. 이후 사조의의 수하였던 李懷仙이 사조의의 머리를 베어 헌상함으로써 당조가 河北을 평정하고 安史의 亂이 종식되자, 雍王은 전공을 인정받아 太宗 이후 항상 闕席이던 尚書丞의 직위를

1) Pulleyblank, Edwin G., *The Background of the Rebellion of An Lu-Sh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p.1.

2) 金子修一, 「德宗朝という時代」, 『國學院中國學會報』65, 2019, p.2. 金子修一은 日本 학계에서 唐 前期에 비하여 唐 德宗, 더 나아가 唐 後期에 주목하는 연구가 적었던 이유를 日本古代史를 이해함에 있어 律令이 강조되는 학문 전통 때문에 唐 前期가 큰 주목을 받은 데에서 찾았다. 金子修一은 日本 내의 唐 後期 연구에 있어서 ‘元和中興’을 이룬 憲宗과 廢佛을 행한 武宗 외에는 개별 皇帝의 치세가 연구자들의 주목을 끈 경우가 없었음을 언급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日本 외의 學界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받았을 뿐 아니라 郭子儀 등 8명과 凌煙閣에 圖像이 그려지게 되었다. 雍王은 廣德 2년(764) 2월 皇太子가 되었으며 大曆 14년(779) 5월에 代宗이 崩하자 太極殿에서 皇帝로 즉위한다.³⁾

덕종은 大曆 14년(779)에서 貞元 21년(805)까지 26년여를 황제로서 집권하였는데, 이는 안사의 난 이후 당조의 황제 재위기간 가운데 가장 길다. 덕종은 안사의 난이 종식된 이후 등극한 첫 번째 황제로서 안사의 난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당 제국을 재건해야 할 책임을 맡았고, 이에 덕종은 긴 재위 기간 중에 각종 정책을 통하여 당조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우선 덕종은 재위 직후 兩稅法을 도입함으로써 稅制에 있어 큰 변혁을 가져왔고, 안사의 난 이후에도 조정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던 藩鎮들과도 큰 전쟁을 치렀다. 게다가 덕종 시기를 거치면서 당조의 外交 노선 또한 크게 전환되는 등, 덕종 재위 기간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에는 당 후기의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 주목해야만 할 사안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있어 덕종의 치세는 본인의 손자인 당조의 11대 황제 현종이 ‘원화중흥의 英主’로 부각되는 것과 대조되는 ‘因循姑息’의 시대로 인식되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물론 덕종 시기에는 상기한 사건과 더불어 宰相을 맡았던 陸贄의 존재 등 저명한 인물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룬 연구가 적지 않아 덕종 시기를 다룬 연구의 전체 수가 적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당 후기 덕종 시기의 중요성에 집중하여 해당 시기의 여러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한 사례로 그 범위를 좁힐 경우, 덕종의 치세를 전문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덕종 시기를 전문한 연구가 적은 이유로는 사료 상에서 드러나는 덕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唐鑑』을 저술한 宋代 范祖禹(1041-1098)의 당 덕종 비판은 특히 강렬하였다.

당은 20대에 걸쳐 300년을 존속하였는데, 덕종이 26년 간 나라를 통치하였으니 또한 (그 치세가) 길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시대를 고찰해보면 糶政이 매우 많지만 큰 폐단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번진에 고식책을 취한 것이요, 둘째는 宦官에게 업무를 맡긴 것이요, 셋째는 재화를 마구 거두어들인 것이다.⁴⁾

3) 『舊唐書』(이하의 正史類는 모두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의거) 卷12 「德宗本紀」上, p.319.

4) 『唐鑑』(范祖禹 ; 呂祖謙 音注, 『唐鑑』(國學基本叢書), 上海: 商務印書館, 1937) 卷16 「

덕종은 唐室의 재앙을 만들어낸 군주로, 그는 宗社가 覆亡하게 된 근본이었다.⁵⁾

범조우는 덕종 시기의 문제로 크게 변진에 대한 고식적 태도, 환관 증용, 지나친 재화 취렴을 들며 덕종을 ‘당실의 재앙을 만들어낸 군주’이자 ‘종사가 복망하게 된 근본’이라고 비판하였다. 범조우의 이러한 덕종 비판의 바탕에는 宋朝의 번영을 위해서 당대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宋代 史家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⁶⁾, 혹자는 범조우의 다소 과격한 덕종에 대한 비판 또한 어느 정도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덕종 치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덕종의 사망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단순한 후대인의 평가로만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현종이 즉위한 직후인 元和 元年(806) 당시의 재상 杜黃裳은 덕종이 변진들의 반란 이후 변진에 대해 고식책으로 일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환관들이 막대한 사리를 챙겼다고 비판하였는데⁷⁾, 이는 덕종 시기의 문제를 변진·환관·재화 취렴으로 정리한 범조우의 이해와도 맥을 같이한다. 당조의 역사를 정리한 正史인 『舊唐書』와 『新唐書』에 있어서도 덕종의 치세에 대한 비판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다. 『구당서』는 덕종이 즉위 초기에는 제국 통치에 열성을 다하였지만 재위 후기로 가면서 점차 간신들의 말을 들으며 패망으로 치달았다고 평가하면서⁸⁾ 덕종에 이어 황제가 된 현종을 당 후기 중흥을 이룬 영주로 평가한 것에 반해 그에 앞선 ‘群盜가 날뛰’ 덕종의 치세를 현종이 이룬 중흥과 대비되는 암울한 시기로 묘사하였다.⁹⁾ 『신당서』는 덕종을 ‘시기하고 각박하였으나 스스로 굳세고 밝다 여긴’ 愚君이자 변진의 발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채 고식으로 일관한 暗君으로 그린 반면, 현종에게는 강명하고 과단성이 있는 명군으로 변진을 제압하는 데 성공한 황제라는 찬사를 보냈다.¹⁰⁾ 이에서 보듯

德宗』5, p.152.

5) 『唐鑑』 卷14 「德宗」3, p.128.

6) 王德毅, 「宋代史家的唐史學」, 『文史哲學報』50, 1999, pp.20-21. 이하에서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인용하는 연구는 ‘저자, 논문 제목’ 식으로 약칭한다.

7) 『資治通鑑』(司馬光 撰, 胡三省 音注, 『資治通鑑』(全10冊), 北京: 中華書局, 2005) 卷237 「唐紀」53 憲宗元和元年, p.7627.

8) 『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p.400-401.

9) 『舊唐書』 卷15 「憲宗本紀」下, p.472.

10) 『新唐書』 卷7 「憲宗本紀」, p.219.

덕종에 대한 여러 부정적 평가의 중심에는 번진 정책에 있어서의 실패와 환관의 발호가 있었다. 반면 현종 시기는 정사에서부터 번진 정책에 있어 덕종의 실패와 대비되는 성공을 거둔 시기로 묘사되었고, 때문에 이후의 덕종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기를 다룬 연구에서는 자연스럽게 당 후기 번진 대처에 있어 현종이 거둔 성취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¹¹⁾

역대 사가들은 당 후기를 ‘왕조의 몰락기’로 보고 왕조 몰락의 원인을 환관과 번진에서 찾는 경향이 있었다. 趙翼은 『廿二史劄記』에서 당 후기를 다룸에 있어 당조가 처한 위기를 크게 2가지로 지적하였는데 하나는 ‘권세가 군주의 위에 있어 군주를 세우거나 시해하거나 폐위하는 것이 아이들 장난과 같아’ ‘실로 고래로 일찍이 없던 변고’를 일으킨 환관 문제였고¹²⁾, 하나는 ‘당의 관제에 그보다 더 不善한 것이 없다’고 한 節度使 문제였다.¹³⁾ 이처럼 안사의 난 이후 당조의 퇴조를 거시적으로 논함에 있어 환관과 절도사로 대표되는 번진 문제를 논하는 것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¹⁴⁾ 사가들이 당조가 쇠망한 원인을 환관과 번진으로 찾았기에, 해당 문제의 심화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덕종의 치세 또한 단순한 한 암군의 재위 기간을 넘어 당조 멸망을 불러온 ‘造禍之主’의 시대로까지 묘사된 것이다.¹⁵⁾

덕종에 대한 역대의 평가가 이처럼 부정적이었던 만큼, 당 전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던 당 후기의 암군인 덕종에 대해 굳이 전문한 연구가 없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다. 덕종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초기에는 열성을 띠었지만 재위 말기로 갈수록 고식책으로 일관한’ 황제라는 『구당서』에 제시된 덕종의 상을 재강화하는 경향성을 띠는 현상¹⁶⁾ 또한 사료에서 묘사된 덕종의 상이 이후의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덕종 시기를 전문한 연구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11) 辻正博, 「唐朝の對藩鎮政策について -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 『東洋史研究』46-2, 1987; Charles A. Peterson; 김정희 譯, 「중흥의 완성: 憲宗과 藩鎮」, 『唐代史의 조명』, 서울: 아르케, 1999.

12) 『廿二史劄記』(趙翼; 王樹民 校證, 『廿二史劄記校證』(全2冊), 北京: 中華書局, 1984) 卷20 「唐代宦官之禍」, p.449.

13) 『廿二史劄記』 卷20 「唐節度使之禍」, p.454.

14) 『新唐書』 卷9 「僖宗本紀」, p.281.

15) 『唐鑑』 卷14 「德宗」3, p.128.

16) 劉玉峰, 『唐德宗評傳』, 齊魯書社, 2002; 侯怡利, 「從「重振朝綱」到「姑息養奸」-唐德宗時代政局研究-」, 『通識研究集刊』10, 2006.

물론 덕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도 없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덕종 시기의 변진 정책을 재평가하는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덕종과 헌종 시기 당조의 對藩鎮政策을 분석한 大澤正昭의 연구는 덕종과 헌종이 변진에 대한 강력한 통제라는 목표를 공유한 황제들이었으며, 헌종의 성공은 덕종 시기 마련된 기반에 근거하여 비로소 가능하였다는 주장을 펼쳐 큰 주목을 받았다.¹⁷⁾ 이후 孟彦弘 또한 대종 시기와 비교할 때 덕종 시기는 조정이 河北三鎮을 중심으로 한 ‘대변진정책’을 성립시킨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헌종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성과를 낸 황제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⁸⁾ 최근에는 변진과 당조와의 관계라는 측면을 벗어나 이른바 ‘反側之地’ 간의 상호 결속 및 내부 상황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연구도 발표되었는데, 그 중 덕종 시기에 대한 분석은 해당 시기 변진들의 내부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 참고가 된다.¹⁹⁾

변진 문제와 더불어 재정 문제 또한 덕종 시기를 분석함에 있어 반드시 살펴야 할 주제이다. 특히 당대 재정사에 있어 덕종 즉위 초년에 제정된 양세법의 중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덕종 시기의 재정 문제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더욱 자세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胡鈞과²⁰⁾ 鞠清遠²¹⁾, 일본의 경우 玉井是博 등이²²⁾ 일찍부터 양세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194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양세법에 대한 많은 성과를 제출한 日野開三郎의 연구²³⁾가 발표된 이후, 당대 재정사 연구자들은 日野開三郎의 연구에게서 큰 영향을 받았다. 이후에도 중국 재정사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 외에 양세법을 전문한 연구서도 집필된 바 있으며²⁴⁾ 근래에도 양세법을 중점적으로 다룬 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는 등²⁵⁾ 양세법은 중국 재정사에 있어

17) 大澤正昭, 「唐末の藩鎮と中央權力 -德宗·憲宗朝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32-2, 1973.

18) 孟彦弘, 「“姑息”與“用兵” -朝廷藩鎮政策的確立及其實施-」, 『唐史論叢』12, 2010.

19) 新見まどか, 『唐帝國の滅亡と東部ユーラシア』, 京都: 思文閣出版, 2023.

20) 胡鈞, 『中國財政史』, 上海: 商務印書館, 1920.

21) 鞠清遠, 「唐代的兩稅法」, 『北京大學社會科學季刊』6-3, 1936 ; 鞠清遠, 『唐代經濟史』, 上海: 商務印書館, 1940 ; 鞠清遠, 『唐代財政史』, 長沙: 商務印書館, 1940.

22) 玉井是博, 「唐時代の土地問題管見」, 『史學雜誌』33-8·9·10, 1922.

23) 日野開三郎의 兩稅法 관련 연구는 본인의 연구를 정리한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중 3·4권으로 각각 前篇·本篇의 제목을 통해 정리되어 있다.(日野開三郎,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全20冊)3·4, 東京: 三一書房, 1981·1982)

24) 船越泰次, 『唐代兩稅法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6 ; 古賀登, 『兩稅法成立史の研究』, 東京: 雄山閣, 2012. 古賀登의 연구는 예전에 발표된 논문을 수정·편집하여 재출간한 것으로, 실제 논문이 발표된 시기는 船越泰次の 연구보다 앞선다.

여전히 중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세법과 관련된 연구의 수는 대단히 많으나 중점을 둔 주제 별로 간략히 소개하자면 양세법의 성립 과정 및 과세 원칙에 대한 연구²⁵⁾, 定額制로서의 양세법의 성격에 주목한 연구²⁷⁾, 당조의 주요 세원으로서의 長江 中下流 지역의 부상과 양세법 간의 관계를 논한 연구²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양세법을 제창한 楊炎과 그와 대립하였던 劉晏 간의 정치적 갈등에 대한 분석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²⁹⁾, 양세법 제도 하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나³⁰⁾ 양세법의 성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문제³¹⁾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다룬 주제이다. 그 외에도 양세법을 전론한 연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 후기 재정사를 다룬 연구의 경우 결국 양세법 체제 하에서의 재정 운영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³²⁾, 당 후기 재정사를 다룬 연구에서는 양세법이 제정된 덕종 시기의 재정에 대한 분석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왔다.

한편 덕종 시기의 국제 외교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어 주목을 요한다. 菅沼愛語의 경우 7세기 후반에서 8세기에 걸친 시기 당조의 외교를 ‘東部 유라시아’라는 맥락을 통하여 검토하였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8세기 말의 덕종 시기를 당조와 인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정리되는 전기로 파악하며 덕종 시기

-
- 25) 吳明浩, 『唐宋變革期の國家と經濟 -唐代の財政・稅法・貨幣をめぐって-』, 京都大學博士學位論文, 2022.
- 26) 王仲榮, 「唐代兩稅法研究」, 『歷史研究』1963-6; 黃永年, 「唐代兩稅法雜考」, 『歷史研究』1981-1; 金寶詳, 「安史亂後唐代封建經濟的特色」, 『甘肅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1961-2; 鄭學稼, 『中國賦役制度史』,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0; 渡邊信一郎, 「唐代兩稅法の成立: 兩稅錢を中心に」, 『唐宋變革研究通訊』7, 2016; 島居一康, 「楊炎兩稅法の課稅構造 -日野“六原則”不成立の論証-」, 『唐宋變革研究通訊』5, 2014.
- 27) 陳明光, 「論唐朝兩稅預算的定額管理體制」, 『中國史研究』1989-1; 渡邊信一郎, 「定額制の成立 -唐代後半期における財務運營の轉換-」,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79, 2013.
- 28) 袁英光·李曉路, 「唐代財政中心的南移與兩稅法的產生」, 『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985-3; 黃永年, 「論建中元年實施兩稅法的意圖」, 『陝西師大學報』1988-3; 李志賢, 「唐建中元年財政改革與黨爭關係新探」, 『中國社會經濟史研究』1999-2; 高瀨奈津子, 「楊炎の兩稅法施行と政治的背景」, 『駿台史學』104, 1998.
- 29) 林偉洲, 「政治衝突與中唐稅收 -以劉晏·楊炎爲中心-」, 『中國唐代史論文集』, 臺北: 臺北文史哲出版社, 1991; 鄭學稼, 「唐代德朝黨爭和兩稅法」, 『歷史研究』1992-4; 黃永年, 「論建中元年實施兩稅法的意圖」, 『陝西師大學報』1988-3; 陳明光, 「“兩稅法”與唐朝財政管理體制變革之我見」, 『唐代史研究會報』10, 1997; 吳明浩, 「楊炎の“量出以制入”と兩稅法の成立再考」, 『東洋史研究』78-1, 2019.
- 30) 陳明光, 「論兩稅法與唐朝前後中央與地方財權關係的變化」, 『廈門大學學報』1987增刊.
- 31) 趙和平, 「唐代兩稅法實行後的兩個突出問題」, 『唐史學會論文集』,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6; 瞿愷, 「唐代兩稅法與錢荒」, 『思想戰線』1990-2.
- 32) 丸橋充拓, 『唐代北邊財政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2006.

의 외교 정책을 재평가하였다.³³⁾ 그 외에 덕종 시기의 외교에 대해서는 당조와 서북방의 여러 이민족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와³⁴⁾ 당조와 위구르 간 絹馬交易에 집중한 연구³⁵⁾ 등이 국내에서 발표되어 연구자들이 덕종 시기 국제 외교의 상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다. 주로 당조의 서북방 변경을 중심으로 진행된 덕종 시기 외교에 대한 연구는 당시 서북방의 강국이었던 吐蕃·위구르를 방어하는 기능을 담당한 변진에 대한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안사의 난 이후 당조의 서북변의 방어를 전론한 연구에서도 외교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³⁶⁾

당 후기 官制史와 관련해서는 중국·대만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른바 ‘中樞體制論’에 대한 논의가 덕종 시기 이후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보통 ‘당조’라고 총칭되는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 유용하다. ‘중추체제론’은 당조의 정책 결정 주체를 ‘중추체제’라 명명하고 이 ‘중추체제’의 구성에 대하여 분석하는 연구 방식으로, 1994년 袁剛의 연구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袁剛의 경우 당 전기의 ‘중추체제’를 三省, 당 후기의 ‘중추체제’를 中書門下(재상)·翰林學士·樞密使로 이해하고 ‘중추체제’가 황제의 통치에 협조하며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³⁷⁾ 이후 ‘중추체제’라는 분석틀은 이후의 연구에서도 활용되면서 보강되어 오늘날 당 후기의 ‘중추체제’는 재상(중서문하)·신책중위·추밀사·한림학사로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³⁸⁾ 물론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주체를 이상의 관직 담당자만으로 확정짓기는 어렵다는 비판도 없지 않으며³⁹⁾, 덕종 시기 한림학사와 재상을 모두 역임한 육지의 문집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한림학사가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는 존재라기보다는 황제가 정책

33) 菅沼愛語,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廣島: 溪水社, 2013.

34) 丁載勳, 「唐 德宗時期(779-805)의 對外政策과 西北民族의 對應」, 『中國古中世史研究』 18, 2007.

35) 李琬碩, 「唐·回紇의 絹馬交易에 관한 研究」, 『中國古中世史研究』 28, 2012.

36) 李鴻賓, 『唐朝朔方軍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0.

37) 袁剛, 『隋唐中樞體制的發展演變』, 1994.

38) 李全德, 「晚唐五代時期中樞體制變化的特點及其淵源」; 李全德, 『唐宋變革期樞密院研究』; 賈玉英, 『唐宋時期中央政治制度變遷史』.

39) 劉後濱, 『唐代中書門下體制研究 -公文形態·政務運行與制度變遷-』, 濟南: 齊魯書社, 2004, p.41. 劉後濱은 袁剛의 분석이 唐 前期의 三省制를 그대로 唐 後期の ‘新參頭’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며, 논증의 중요한 부분이 상당 부분 추측에 근거하여 서술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다만 劉後濱의 해당 연구에서도 中書門下와 樞密使, 翰林學士가 皇帝를 보좌하여 政策을 결정하는 주체로 묘사되었다는 점은 마찬가지로, 劉後濱이 본인의 연구를 통하여 袁剛의 견해를 극복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을 결정함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음을 논증한 바도 있다.⁴⁰⁾ 이상에서 제기된 한계를 감안할 때 ‘중추체제’라는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더 나아가 과연 당 후기에 이상에서 제시한 ‘중추체제’라는 존재가 실존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해당 연구는 덕종 시기 이후 당조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추려내는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적지 않다. 특히 당 후기 ‘중추체제’의 구성원으로 꼽히는 신책중위와 추밀사의 권력이 활성화되는 시기가 대종·덕종 시기이기 때문에, 당 후기 ‘중추체제’에 대하여 진행된 연구들의 결과 값은 덕종 시기의 정책 결정 담당자를 확인하는 지침으로서 유효하다.

덕종 시기의 ‘중추체제’의 구성원으로는 크게 재상과 환관들을 들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연구 또한 적지 않게 진행된 바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덕종 시기의 명재상으로 알려진 육지에 대한 연구는 다수 발표되었다. 한림학사 시절부터 ‘內相’으로 불릴 정도로 덕종의 신임을 받았던 육지는⁴¹⁾ 덕종 시기를 대표하는 명신 중 하나로, 『신당서』에서는 덕종이 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육지의 계책을 따르더니 정작 안정됨에 이르러서는 육지의 충간을 마다하고 심지어는 裴延齡과 같은 간신의 꾀에 놀아났다고 하며 덕종의 실패를 육지와 같은 명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까닭으로 돌리기도 할 정도였다.⁴²⁾ 이에 육지의 문집인 『唐陸宣公奏議』의 내용을 분석하여 한림학사와 재상이 각각 정사에 간여하는 방식을 확인한 연구가 주목받은 바 있고⁴³⁾, 그 외에 육지 개인의 儒學 사상에 집중한 전론서도 있을 정도로⁴⁴⁾ 덕종 시기의 대표적인 재상인 육지에 대한 사례 연구는 이미 자세하게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韓愈·李絳 등이 급제한 정원 8년(792) 進士科를 살펴본 연구와 같이⁴⁵⁾

40) 葉煒, 「信息與權力 -從『陸宣公奏議』看唐後期皇帝·宰相與翰林學士的政治角色-」.

41) 『舊唐書』卷139 「陸贄傳」, p.3817.

42) 『新唐書』卷157 「陸贄傳」, p.4932. 陸贄에 대한 평가는 高麗·朝鮮朝에서도 높았던 관계로 국내에서도 근래 陸贄의 奏議를 모은 『唐陸宣公奏議』에 대한 譯註書を 간행할 정도로 陸贄 개인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陸贄 撰; 沈慶昊 등 譯註, 『譯註 唐陸宣公奏議』(全2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18-2019)

43) 葉煒, 「信息與權力 -從『陸宣公奏議』看唐後期皇帝·宰相與翰林學士的政治角色-」, 『中國史硏究』2014-1.

44) Chiu-Duke, Josephine, *To rebuild the empire : Lu Chih's Confucian pragmatist approach to the mid-T'ang predicament*,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45) Lee, John, "The Dragons and Tigers of 792 : The Examination in T'ang

사인들의 행보에 주목한 연구, 사인들이 덕종 시기 관인으로 등용된 방식에 대하여 덕종 시기의 冬薦에 대한 연구⁴⁶⁾ 및 덕종 시기의 한림학사와 관련된 연구⁴⁷⁾ 등이 해당 시기 문신 관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바 있다.

‘중추체제’의 또 다른 구성원인 환관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橫山裕谷은 황제의 측근으로서의 덕종의 환관 중용을 강조하였는데⁴⁸⁾, 해당 연구는 황제가 귀족에 대항하기 위하여 환관을 등용하는 ‘중세적’ 정치의 일단에 대해 논함으로써 구체적 논증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인 분석 차원에 머물렀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 이후 중국 학계에서는 신책중위가 성립한 덕종 시기를 기점으로 환관이 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경향성이 나타남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⁴⁹⁾ 이들 연구는 ‘중추체제론’과 맞물리면서 환관 使職에 해당하는 신책중위·추밀사와 황제 권력의 밀접성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⁵⁰⁾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덕종이 추밀사와 신책중위 등 환관이 정책 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은 奉天으로 피난했다 장안으로 돌아온 정원 연간 이후부터라는 사실이다. 정원 연간 이후에는 內諸司使라고도 불리는 환관 사직이 정비되며, 이에 해당 시기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하여 환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외에도 문화사의 측면에서 볼 때 대종에서 현종에 이르는 시기(766~820)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강조되는 등⁵¹⁾, 당 덕종 시기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과정에서 덕종에 대한 재평가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 덕종 시기를 전론한 연구서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지만, 근래에는 대종·덕종 시기의 정책 목표가 안사의 난의 극복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종 시기의 이른바 ‘원화중흥’이 가능했던 것은 대종·덕종 시

History”, *T'ang Studies* vol.6, 1988.

46) 李永哲, 「唐 德宗時期 冬薦의 施行과 藩鎮 幕職官」, 『中國古中世史研究』25, 2011.

47) 傅旋琮·施純德, 「唐德宗朝翰林學士考論」, 『燕京學報』10, 2001.

48) 橫山裕谷, 「唐の官僚制と宦官 -中世的側近政治の終焉序說-」, 『中國中世史研究 -六朝隋唐の社會と文化-』, 東京: 東海大學出版會, 1970.

49) 陳仲安, 「唐代後期的宦官世家」, 『唐史學會論文集』,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6 ; 賈憲保, 「神策中尉與神策軍」, 『唐史論叢』5, 1990.

50) 袁剛, 『隋唐中樞體制的發展演變』, 臺北: 文津出版社, 1994 ; 李全德, 「晚唐五代時期中樞體制變化的特點及其淵源」, 『中國人民大學學報』2005-6 ; 李全德, 『唐宋變革期樞密院研究』,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09 ; 賈玉英, 『唐宋時期中央政治制度變遷史』, 北京: 人民出版社, 2012.

51) 葛兆光, 『增訂本中國禪思想史 -從六世紀到十世紀-』,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p.390.

기의 성과가 기반이 되었음을 강조한 연구서가 발표된 바 있다.⁵²⁾

이상과 같은 대종·덕종 시기에 대해 연구자들이 재평가를 시도한 배경에는 이전과 같이 현종 시기의 성공만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안사의 난이 종식된 이후로도 140여년을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대종과 덕종 이외에도 근래에는 文宗과 武宗 시기나⁵³⁾ 宣宗 시기를 전문하는 연구서가⁵⁴⁾ 발표되어 연구자들이 안사의 난 이후 여러 시기를 살펴봄으로써 당조가 장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기제가 무엇이었는지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종·덕종 시기를 전문한 胡平의 저서는 그 부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분석의 대상이 거의 장안에서의 정치 상황에 국한되어 있으며, 심지어 황제를 둘러싼 정치 상황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宦官들을 문신 관료들에 비하면 부수적인 존재처럼 대하며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해당 연구에서도 대종·덕종 시기의 핵심 과제가 변진임을 언급하며⁵⁵⁾ 본문에서도 조정의 지방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다루었지만, 연구 방식 자체는 황제와 재상 등을 중심으로 한 당조, 그리고 조정과 대립하는 하북 인근의 변진간의 정치적 대립을 살펴보는 형태를 취할 뿐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재정사 방면 연구에서 이미 장강 중하류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을 논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과 장안을 연결하는 漕運路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안 인근을 중심으로 한 정치사의 서사구조에만 집중한 점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당대 장안과 장강 중하류 지역을 연결하는 운하의 중요성에 주목한 연구는 사실 일찍부터 이루어졌다.⁵⁶⁾ 운하 관련 사료 선집을 비롯하여⁵⁷⁾ 운하와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중 조운로의 노선에 대한 연구로는 특히 流路의 변경이 있었던 汴河(通濟渠)의 노선에 대한 연구가 자세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⁵⁸⁾ 그리고 조운로 운영과 관련된 당 후기의 대표적인 使職인 鹽

52) 胡平, 『未完成的中興：中唐前期的長安政局』, 北京: 商務印書館, 2018.

53) 黃日初, 『唐代文宗武宗兩朝中樞政局探研』, 濟南: 齊魯書社, 2015.

54) 黃樓, 『唐宣宗大中政局研究』,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12.

55) 胡平, 『未完成的中興：中唐前期的長安政局』, p.24.

56) 張昆河, 『隋唐河考』1·2·3, 『禹公』7-1·2·3, 1937 ; 外山軍治, 『唐代の漕運』, 『史林』22, 1937 ; 全漢昇, 『唐宋帝國與運河』, 上海: 商務印書館, 1944.

57) 朱傑, 『中國運河史料選輯』, 北京: 中華書局, 1962 ; 王雲·李泉 主編, 『中國大運河歷史文獻集成』(全80冊),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4.

鐵使·轉運使에 대한 연구⁵⁹⁾, 송대 이후의 조운로와 당대의 조운로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많으며⁶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唐宋變革期’라는 맥락 속에서 운하 인근 지역의 경제 발전과 도시의 발달에 대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⁶¹⁾ 한편 당대의 조운 정책 및 조운의 기능과 그 규모 등에 대한 연구⁶²⁾, 그리고 漕倉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⁶³⁾ 또한 이루어져 재정사 가운데에서 조운로가 차지하는 중요성 역시 상당 부분 규명된 상태이다. 또한 9세기 중반에 당에서 10년여의 시간을 보내며 『入唐求法巡禮行記』를 남긴 엔닌(圓仁) 및 5년여를 당에서 보낸 엔친(圓珍)의 기록을 바탕으로 운하와 관련된 재당 외국인의 활동을 연구한 사례 또한 적지 않다.⁶⁴⁾

이처럼 조운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안사의 난 당시 반군이 조운로를 차단한 이후 당조가 이를 어떻게 회복해왔는지

-
- 58) 青山定雄, 「唐宋汴河考」, 『東方學報』2, 1931(후에 「唐宋の汴河」, 『唐宋時代の交通と地誌地圖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9로 재출간); 劉希爲, 「通濟渠流經路線辨析」, 『運河訪古』,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6; 冀和, 「隋開通濟渠流經區域路線考綜述」, 『第二屆淮河文化研討會論文集』, 2003.
- 59) 礪波護, 「三司使の成立について」, 『唐代政治社會史研究』, 京都: 同朋舍, 1986; 吳志宏, 「唐代延資庫の性格と財政運營」, 『東洋學報』97-1, 2015; 賴瑞和, 『唐代高層文官』, 北京: 中華書局, 2017.
- 60) 陳峰, 「試論唐宋時期漕運的沿革與變遷」, 『中國經濟史研究』1999-3.
- 61) 何榮昌, 「唐宋運河與江南社會經濟的發展」, 『運河訪古』,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6; 史念海, 「隋唐時期運河和長江的水上交通及其沿岸的都會」, 『中國歷史地理論叢』1994-4; 周懷宇, 「論隋唐淮河流域商業發展」, 『安徽大學學報』24-5, 2000; 西岡弘晃, 「唐末期揚州的盛衰と水利問題」, 『中村學園大學短期大學部研究紀要』34, 2002; 陳勇, 『長江下流經濟發展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06.
- 62) 濱口重國, 「唐の玄宗朝に於ける江淮上供米と地稅との關係」, 『秦漢隋唐史の研究』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6; 楊希義, 「略論唐代的漕運」, 『中國史研究』1984-2; 潘鏞, 『隋唐時期的運河和漕運』, 西安: 三秦出版社, 1987; 李俊衡, 「唐玄宗時期運河利用과 그性格-江淮漕運의樣相을中心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27, 2012.
- 63) 礪波護, 「隋唐時代の太倉と含嘉倉」, 『東方學報』52, 1982; 葛承雍, 「唐代太倉試探」, 『人文雜誌』1985-4; 張弓, 『唐朝倉廩制度初探』, 北京: 中華書局, 1986; 陳明光, 「試論安史之亂對唐前期國家財政體系崩壞的影響」, 『求是學刊』1990-01; 曹鐵圈, 「隋唐時期洛陽及其周圍地區倉儲初探」, 『中州學刊』1996-5; 陳朝雲, 「唐代河南的倉儲體系與糧食運輸」, 『鄭州大學學報』34-6, 2001; 楊海民, 「唐代糧食物流活動中的倉廩系統研究」, 『貴州民族學院學報』2005-5.
- 64) 李侑珍, 「9世紀 在唐新羅人の活動에 대하여」, 『中國史研究』13, 2001; 朴根七, 「唐後期 江淮運河와 新羅人の活動」, 『漢城史學』19, 2004; 崔宰榮,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 新羅人社會 -唐朝의 外來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 『한국고대사연구』35, 2004; 權惠永,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서울: 일조각, 2005; 林韻柔, 「唐代社會網絡中的宗教性場域 -以圓仁巡禮行歷中的人物交往爲例-」, 『駿台史學』149, 2013.

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안사의 난 이후 각종 使職의 활용이나 창고 제도 등 당 후기 운하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당조가 운하가 지나는 영역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당조가 조운로가 지나는 영역을 확보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변진 문제를 다룬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덕종 시기의 변진 정책을 재평가하는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현종 시기의 ‘원화중흥’에 가려진 덕종 시기의 중요도를 재평가하는 형태를 띤다. 이는 곧 당조가 군사적으로 직접 마찰을 빚은 변진에 대응하기 위해 펼친 군사 정책에 대한 분석 혹은 작전을 펼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충족시킨 방식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장안의 조정이 전선 상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연구라는 형태를 띠게 된다. 현종이 그 이전까지는 당조와 대립하던 지역의 변진을 재차 통치 질서 내로 편입하는 ‘順地化’ 과정을 분석한 연구의 경우 조정이 조운로의 거점이 되는 변진을 장악하는 과정을 분석하기도 하였고⁶⁵⁾ 당조가 강회 지역을 통치한 방식을 살펴본 연구도 있었지만⁶⁶⁾ 이들 또한 당조가 조운로를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장안이 아닌 지방의 변진 내의 권력구조에 집중한 연구들의 경우 河北·山東 일대 변진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⁶⁷⁾, 이들 연구가 다루는 범위 또한 당조와 대립하는 하북 인근 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조운로가 지나는 지역은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당대 변진 연구에 대한 전제로 가장 널리 알려진 張國剛의 연구에서도 주된 논점은 할거하는 하북의 변진들과 그에 대한 당조의 대응이라 할 수 있으며, 당조가 그 외 변진을 통치하기 위하여 조운로를 어떻게 확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⁶⁸⁾

물론 이후 현종 시기 하북의 변진들이 조정에 귀순함으로써 ‘원화중흥’이 완성되었다는 변진에 대한 인상이 있는 한, 이에 앞선 덕종 시기의 변진 정책에 대한 분석 또한 하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은 분명하다. 그

65) 辻正博, 「唐朝の對藩鎮政策について -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 pp.106-109 ; 118-120.

66) 中砂明德, 「後期唐朝の江淮支配 -元和時代の一側面-, 『東洋史研究』47-1, 1988.

67) 堀敏一, 「藩鎮親衛軍の權力構造」, 『東洋文化研究所紀要』20, 1960 ; 谷川道雄, 「河朔三鎮における節度使權力の性格」,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74, 1978 ; 谷川道雄, 「河朔三鎮における藩帥の承繼について」, 『中國古代の法と社會 : 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 東京: 汲古書院, 1988 ; 渡邊孝, 「魏博と成徳 -河朔三鎮の權力構造についての再検討-, 『東洋史研究』54-2, 1995.

68) 張國剛, 『唐代藩鎮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0.

러나 덕종은 안사의 난으로 피폐해진 제국을 재건해야 할 책임을 진 황제로, 덕종의 관심사가 다만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변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북 인근에서의 전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 토번·위구르 등과 인접한 서북 변경의 안정과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해가던 동남 지역의 물자를 운송하는 문제 또한 제국의 재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이었다.

요컨대 당조는 안사의 난 이후에도 140여년을 존속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적어도 안사의 난 이후 등극한 첫 번째 황제인 덕종 시기의 여러 정책적인 시도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덕종은 조운로 회복 등을 중심으로 ‘제국 재건’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쳤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다면 이후 1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당조가 존속할 수 있었던 요인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당조가 덕종 시기에 여러 정책을 통하여 안사의 난 이후 무너졌던 제국 전역에 대한 통치 질서를 재구축하는 ‘제국 재건’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안사의 난 이후 당조에게 있어 재정 운영을 위한 핵심 과제인 강회 조운로의 온전한 장악이 덕종 시기에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덕종 시기의 당조가 어떻게 제국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다. 필자는 이를 통하여 덕종 시기에 대한 재검토하는 한편, ‘변진체제’라는 표현으로 알려진 당 후기 당조의 변진에 대한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함으로써 안사의 난 이후 당조가 제국을 운영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상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우선적으로 덕종의 즉위 당시 당조가 당면한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덕종의 대응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덕종의 치세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덕종 시기 당조가 당면한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 반포된 詔勅을 살펴보는 편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이에 I장에서는 우선 덕종 시기 반포된 조칙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당시 당조가 해결해야 했던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덕종은 당조가 안사의 난 이후 제국을 운영함에 있어 겪은 이상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후 살펴볼 각종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II장에서는 덕종 건중 연간에 당조는 강회 조운로가 지나는 지역을 확보하려 하였던 반면 변진 측은 조운로를 차단함으로써 당조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당시 조정과 변진 간의 갈등의 중심에 조운로가

있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덕종은 즉위 직후 토번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 서북 변경에 투입되었던 병력까지도 번진과의 전쟁에 투입하였고, 이에 번진 측에서는 조운로를 차단함으로써 당조의 재원이었던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의 물자 수송로를 맞대응한다. 이후 淮西節度使 李希烈이 반란에 가담한 시점에 육지가 덕종에게 올린 글을 살펴봄으로써 덕종 시기 당조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조운로의 확보였음을 논할 것이다.

Ⅲ장에서는 회서절도사 이회열이 반란군에 가담하여 조운로의 경로 상에 있는 변주를 공격하고, 이에 당조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덕종이 장안을 버리고 봉천으로 피난한 후 「罪己詔」를 반포하는 과정 및 이후 번진과의 전쟁이 일단락된 후 당조가 취한 후속 조치를 살펴볼 것이다. 이 시기 당조는 조운로를 확보하고 번진의 반란을 종식시켰으며, 장안으로 돌아온 이후 덕종이 삭방군을 분할하고 신책군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토번과의 화친 관계가 파국을 맞이하자 당조는 위구르·南詔·大食·天竺 등 여러 국가에 토번을 협공할 것을 제의함으로써 서북 변방을 안정화시켜 당조는 전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또한 정원 15년(799) 회서 번진에 대한 당조의 공격이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당조는 강회 조운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하였다. 본 장은 이상의 조치를 통해 덕종의 재위 후기 당조가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사의 난 종식 이후 등극한 당조의 첫 황제인 덕종은 전쟁으로 인해 붕괴된 제국 운영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제국 재건’의 기반을 다진 황제로서 재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장강 중하류 지역과 정치 중심지인 장안을 연결하는 조운로의 확보가 전 제국의 안정적 통치에 있어 중요한 요소였음을 감안할 때, 이후 현종의 ‘원화중흥’을 비롯한 이후 100여 년간 당 제국이 존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새로이 조명될 여지가 있다.

I. 安史의 亂 후 唐朝가 당면한 과제

1. 詔勅 목록에 드러난 德宗 시기의 과제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당조는 제국에 대한 통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때문에 당 후기 조정은 안사의 난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국의 통치 질서를 ‘재건’할 필요가 있었다. 제국을 재건하는 과정은 여러 방식으로 추진되었지만, 각종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책임자는 황제였다. 중국 왕조에 있어 황제는 단순히 한 국가 또는 정부의 최고 주권자를 넘어 이른바 ‘天命’을 受任하여 통합된 ‘天下’를 일원적으로 지배하는 주권자를 의미하며⁶⁹⁾, 그런 만큼 황제는 ‘제국 재건’이라는 과제를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때문에 안사의 난 후 당조가 당면한 과제를 무엇이라고 인지하였으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황제의 의지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王言 문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⁷⁰⁾

당대의 왕언 문서는 冊書·制書·慰勞制書·發日敕·敕旨·論事敕書·敕牒의⁷¹⁾ 7가

69) 李成珪, 『中國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的 王權』, 서울: 한울, 1993, p.7.

70) 中村裕一, 『唐代制勅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1, p.4. 왕언 문서는 황제의 의지를 반영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기타 官文書에 비해서 더욱 엄중하게 관리되어, 위법 시 적용되는 형량의 기준 또한 여타 관문서에 비해 더 무겁게 규정되어 있었다.(朴根七, 『唐代 官文書와 문서행정 -敦煌·吐魯番 출토문서의 이해-』, 서울: 주류성, 2023, pp.16-17)

71) 『唐六典』(李林甫 等 撰 ; 陳仲夫 點校, 『唐六典』, 北京: 中華書局, 1992) 卷9 「中書省」, pp.273-274. 『唐六典』의 기록에 따르면 각 문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한다.

문서 종류	사용 목적
冊書	皇后·皇太子의 책봉, 藩屏의 책봉, 尊賢한 자의 특별 임명, 臨軒하여 예를 갖추어 관리 임명(3品 이상 관직의 수여)
制書	큰 상·벌의 행사, 5品 이상 관직의 수여, 죄의 사면·감면
慰勞制書	賢能한 이의 포상, 힘써 노력한 이를 권면
發日敕	官人 정원의 증감, 州·縣의 廢·置, 兵馬의 징발, 官爵의 除·免, 6品 이하 관직의 수여, 流刑 이상 죄의 처분, 일정액 이상의 창고의 물품 사용
敕旨	모든 관사에서 황제의 뜻을 받들어 규정으로 삼게 하는 경우, 상주으로써 시행하기를 청한 것에 대한 황제의 승인
論事敕書	公卿을 위로·깨우치는 경우, 신하에게 경계·약조하는 경우
敕牒	사안에 따라 황제의 뜻을 받들긴 하나, 기존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7 종류의 王言 文書를 크게 冊書·制書·勅書의 3가지로 나누어 볼 경우, 그 내용이 다양한 勅書 외에 冊書는 皇室 및 3品 이상의 고관의 인사 조치, 制書는 5品 이상 관리

지로 나뉜다.⁷²⁾ 다만 왕언 문서를 통하여 황제의 의지를 확인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으니, 당대의 왕언 문서가 전수 보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언 문서에 대한 분석이 가지는 의미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그것이다. 당 후기의 경우 樞密使가 禁中에서 받은 聖旨를 中書省으로 보내면 이를 宣이라 하고 中書省에서 이를 접수하고 나면 宣底라 불리는 문서대장에 정리하였다고 하지만⁷³⁾, 宣底는 현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왕언 문서를 통하여 특정 시기 황제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료에 산일되어있는 당대의 문서를 모아야만 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확인함에 있어서는 일본의 연구자들이 정리한 『唐代詔勅目錄』⁷⁴⁾을 활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당대조칙목록』은 『冊府元龜』·『唐會要』·『文苑英華』·『唐大詔令集』·『舊唐書』·『新唐書』·『資治通鑑』·『唐六典』·『通典』 등 여러 문헌사료를 비롯하여 敦煌·吐魯蕃 문서 등 각종 출토자료에 실린 왕언 문서를 포괄적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목록에 기재된 왕언의 종류에는 앞서 언급한 7종의 왕언 문서와 더불어 誥·勅·口勅·手勅까지 포함되어 있다.⁷⁵⁾ 물론 80년대 이후에 발굴된 자료는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현존 당대의 왕언 문서 전반을 살펴보기에 『당대조칙목록』이 매우 유용한 공구서임은 분명하다.⁷⁶⁾ 『당대조칙목록』은 왕언 문서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본 절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한 자료로, 본 절

의 인사 조치 및 상·벌과 사면 관련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거칠게 정리할 수 있다.

72) 그 외에 경우에 따라 皇太子의 令書, 親王·公主의 教書 또한 王言 文書에 포함될 수 있지만(『唐六典』 卷3 「尙書都省」, p.10), “王言의 제도는 일곱 가지가 있다”는 『唐六典』의 표현에 따라 위에 제시된 7가지의 문서를 王言 文書로 지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73) 『夢溪筆談』(沈括 撰, 『夢溪筆談』,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 卷1 「故事」1, pp.3-4.

74) 東洋文庫唐代史研究委員會 編, 『唐代詔勅目錄』, 東京: 東洋文庫, 1981.

75) 『唐代詔勅目錄』, pp. ii -xx.

76) 『唐代詔勅目錄』은 王言 文書を 詔勅이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내세워 정리하는데, 이러한 표현 방식은 여타 연구서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크게 볼 때 冊書·制書·勅書로 구성되는 唐代 王言 文書 가운데 制는 본래 詔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詔書가 制書로 명칭이 바뀐 것은 載初 元年 正月(689년 11월)이긴 하나 唐代史 연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制와 詔는 통용되는 용어이다. 詔勅 혹은 制勅은 7가지의 王言 중 원칙적으로 冊書를 제외한 6종의 문서를 가리켜야 하겠으나, 실질적으로 詔勅 혹은 制勅을 제목으로 한 연구는 冊書를 포함한 王言 일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詔書(制書)와 勅書의 종류를 상세히 분류함으로써 詔書와 勅書의 기능적 차이를 자세히 설명한 中村裕一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中村裕一, 『唐代制勅研究』, 東京: 汲古書院, 1991, p.39)

에서 『당대조칙목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만큼, 조칙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왕언 문서 전체를 지칭하는 편이 오히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용어의 길이까지 감안하면 조칙이라는 표현이 왕언 문서라는 표현에 비하여 장점을 지닌 측면도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편의상 조칙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왕언 문서 전체를 지칭하도록 하겠다.

본 절에서는 『당대조칙목록』에 제시된 조칙을 통하여 덕종 시기 당조가 ‘제국 재건’을 위해 중요하게 받아들인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덕종 시기는 당 후기의 황제 가운데 재위 기간 중 가장 많은 조칙을 남긴 황제로, 다량의 조칙 수는 해당 시기가 안사의 난 이후 당조가 급변하는 시기에 대응하려 각종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황제	肅宗	代宗	德宗	順宗	憲宗	穆宗	敬宗	文宗	武宗	宣宗	懿宗	僖宗	昭宗	哀帝
조칙 수	320	638	793	37	702	644	123	645	300	445	180	232	531	151

<表-1. 당 후기 황제 별 조칙의 수>77)

덕종은 26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재위하였으며 조칙의 개수 또한 당조의 황제 가운데에서 현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793건이 남아있는 황제이다. 재위 기간이 긴 만큼 남아있는 조칙의 수도 많기에, 덕종 시기는 조칙을 분석함으로써 황제의 정책적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을 만한 母數를 지닌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처럼 다량의 조칙이 확인된다고는 하나 현존하는 조칙의 목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남아있는 조칙의 주제를 분석하고 각 주제 별 조칙의 비중을 확인함으로써 당시의 정책적 지향을 역추적하는 방식은 높은 신뢰성을 갖추기에는 어렵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선지와 같은 문서대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 목록에 기재된 조칙들은 당시 작성된 조칙 가운데 일부일 수밖에 없고, 이들의 존재가 오늘날에도 확인되는 까닭은 오히려 전체 조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던 시기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들 조칙이 다루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조칙 중 다수의 출처가 오대 시기에 편찬

77) 『唐代詔勅目錄』, pp.263-615. 기본적으로는 『唐代詔勅目錄』의 각 皇帝 별 詔勅目錄에 기재된 詔勅 수를 기반으로 하나, 각 연도 혹은 年號 별 詔勅 가운데 배치된 皇帝와 무관한 詔勅은 사실 관계를 반영하여 수정·정리하였다.

된 『구당서』와 송대에 편찬된 『신당서』·『당대조령집』·『당회요』·『자치통감』·『책부원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상 『당대조칙목록』을 통해 확인되는 조칙에서는 당대가 아니라 오대에서 송에 이르는 시기의 편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사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만이 확인 가능할 것이라는 비판 또한 완전히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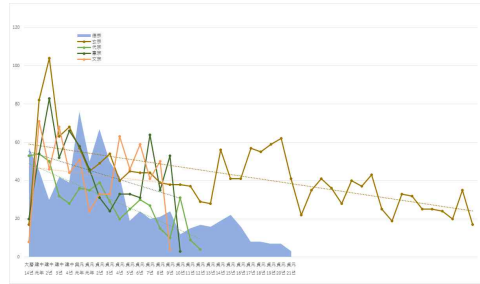
다만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 덕종 시기에 내려진 조칙의 수가 다수 확인되며 또한 그 조칙에서 나타나는 경향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다면, 그 사안이 적어도 송대까지의 편찬자들이 이해하기에 당시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조칙은 황제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담긴 문서이기에 당시의 정책적 지향을 확인하기에 가장 적절한 사료인 것만은 분명하며, 특히 덕종 시기의 경우 당 후기의 어떤 황제보다도 다량의 조칙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조칙을 통해서 해당 시기 당조가 맞이한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덕종 시기의 조칙 수 및 그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여러 사료의 편찬자들이 덕종 시기에 당조가 맞이한 주요 과제가 무엇이라고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이하에서는 덕종 시기 각 연도별 조칙의 수를 도표로 정리하고, 이를 기초 자료로 삼아 각 시기의 주요 현안 및 정책적 지향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덕종 시기의 연도별 조칙 수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 불완전한 일부 표본만을 이용하여 과장된 해석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덕종 이외에도 당조의 황제 가운데 가장 많은 조칙이 남아있는 현종과 당 후기 각 600건 이상의 조칙이 확인되는 대종·헌종·문종의⁷⁸⁾ 연도별 조칙 수를 함께 도표화함으로써 가능한 한 연도별 조칙의 수라는 분석 대상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른쪽의 도표에서 덕종의 연도별 조칙 수는 푸른 영역으로 표시하였고, 그 외 각 황제의 연도별 조칙 수 또한 색을 달리하여 선으로 표기하였다. 이 도

78) 穆宗 시기 또한 644건의 詔勅이 남아있으나, 穆宗의 경우 재위 기간이 5년여에 그침에도 불구하고 즉위 이후 3년에 걸쳐 총 600건이 넘는 막대한 양의 詔勅을 남긴 특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자는 穆宗의 연도별 詔勅 수는 唐代 皇帝들의 詔勅 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군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점선으로 표기된 각 그래프의 추세선이 공통적으로 우하향한다는 사실이다. 새로운 황제로 즉위하는 첫 해의 경우 즉위한 月이 언제인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총 조칙 수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음을 감안할 경우, 해당 경향은 제시된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 더욱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圖-1. 각 황제의 연도별 조칙 수>

황제 즉위 초에 많은 조칙이 내려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칙의 수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은 상당 부분 황제가 즉위 초 선대 황제와 황태후 관련 조칙을 내릴 뿐 아니라 기타 황실 구성원을 새로이 王·郡王·公主 등으로 冊封해야 할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 만큼 황실 구성원들의 爵位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선대 황제와 황태후 등 황제보다 윗 항렬의 사람들과 자손 등 아래 항렬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덕종 시기의 조칙 목록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확인된다. 종실 구성원을 새로이 책봉하는 데 쓰이는 冊書의 수가 가장 많은 해는 황제에 등극한 해인 대력 14년(779)으로, 여타 연도에서는 대부분 3건 미만의 책서가 검출되는 것에 반해 대력 14년의 책서는 8건으로 그 수가 가장 많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황제는 선대 황제 시기의 신료들로 구성된 조정을 재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⁷⁹⁾ 새로이 등극한 황제는 선대의 공신들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숙청할 수도 있었는데, 덕종 또한 즉위 직후부터 재상 常袞을 潮州刺史로 쫓아내고 朔方節度使로서 강력한 병권을 지닌 郭子儀를 은퇴시키는 등 대종 시기의 주요 인사에 대한 교체 작업을 진행한다. 대

79) 太宗이 임종 즈음 李勣을 貶職한 뒤 高宗으로 하여금 그를 재등용하게끔 한 일화나(『舊唐書』 卷67 「李勣傳」, p.2487) 玄宗이 즉위 이듬해인 先天 2년(713) 사냥 중에 姚崇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후에 宰相으로 임명한 사건은(『新唐書』 卷124 「姚崇傳」, p.4383) 모두 새로운 皇帝가 자신을 보좌할 새로운 인사를 직접 등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다만 자신을 보좌할 목적으로 인물을 등용함에 있어 전대 皇帝를 섬기던 功臣들을 그대로 기용하는 것은 새로운 皇帝에게 있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었다. 太宗이 자신을 섬긴 功臣 李勣을 두고 高宗에게 ‘너는 李勣에게 베푼 은혜가 없으니 내가 지금 그를 책망하며 貶黜하겠다. 내가 죽은 후 네가 당장 그에게 僕射를 제수하여 너의 은혜를 입게 하면 그는 죽을 힘을 다할 것이다’(『舊唐書』 卷67 「李勣傳」, p.2487) 라 한 것은 선대의 功臣이 새로운 皇帝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중 시기와 비교해 보아도 즉위 후 첫 3년간 관료 인사 관련 조치는 대종의 경우는 54건, 덕종의 경우는 23건으로 대종은 관료 인사 관련 조치가 전체 조칙의 1/3을 상회하며 덕종 또한 16%를 넘어설 정도로 즉위한 직후 대규모 인사 개편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황제가 즉위한 직후에는 황실 구성원 관련 조칙과 관료 인사 관련 조칙이 다수 나타나게 되므로, 전체 조칙의 수 또한 즉위 직후에 높은 수치를 기록하다가 해당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줄어드는 경향 또한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만 연도별 조칙 수의 그래프 상에는 종종 전체적인 우하향 추세를 거슬러 중간에 조칙 수가 확연히 증가하는 시기가 있다. 조칙 수의 우하향 추세가 역전되는 현상은 해당 시기 특정 사안에 관련된 조칙이 다수 작성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조칙 수의 확연한 증가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기에는 위에 제시된 그래프에서 추세선과 연도별 조칙 수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현종과 문종의 사례가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현종과 문종의 치세 가운데에서도 특히 두드러지게 많은 조칙이 내려진 시기로는 현종 元和 12년(817)과 문종 大和 9년(835) 및 開成 2년(837)을 들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연도의 조칙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조칙 수 급증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의미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원화 12년(817)의 조칙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33건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화 12년과 전년도의 조칙 내용을 비교해보면 吳元濟가 절도사로 있던 회서 번진에 대한 토벌 관련 조칙의 증가라는 현상이 가장 눈에 띈다. 당조는 원화 12년 초까지 王承宗이 절도사로 있던 成德 번진과 회서 번진에 대한 토벌을 동시에 진행 중이었으나, 5월에 河北行營을 파함으로써 10여만의 병력을 회서 번진에 추가로 투입하면서 회서 번진에 대한 토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⁸⁰⁾ 이를 전후한 원화 12년의 조칙 가운데 회서 번진 토벌과 직접 관련된 조칙만 해도 20건에 달하며, 이와 관련하여 助軍의 명목으로 바쳐진 進封의 반환 및 重陽節 연회의 정지, 10월에 오원제의 사망으로 회서 번진 토벌이 마무리된 이후 토벌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책봉 및 인사 이동 조치 등 5건 정도 또한 관련 조치로 보인다.⁸¹⁾ 원화 11년(816)에 내려진 조칙 가운데 회서 번진과 관련된 조칙이 3건 정도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

80) 『資治通鑑』 卷240 「唐紀」56 憲宗元和十二年, p.7734. 『唐代詔勅目錄』의 「權罷河北行營詔」에 해당한다.

81) 『唐代詔勅目錄』, pp.404-406.

한다면⁸²⁾, 원화 12년(817)의 전년도 대비 33건에 달하는 조칙 수 증가는 회서 변진 토벌이라는 특수한 사안에 기인한 것이라고 정리해도 무방할 것이다.

대화 9년(835)의 조칙 수는 전년 대비 30건이 증가하는데, 전년도와 대비하여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甘露之變이 발생한 11월 이후 22건의 조칙이 집중적으로 내려진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³⁾ 대화 8년(834)의 경우 11월 이후 내려진 조칙이 전체 33건 중 4건⁸⁴⁾, 개성 원년(836) 또한 전체 46건의 조칙 가운데 11월 이후에 내려진 조칙이 5건에 불과한 반면⁸⁵⁾ 대화 9년 전체 63건의 조칙 가운데 1/3에 달하는 조칙이 11월 이후에 내려진 모습은 특이한 현상이다. 조칙의 내용 또한 감로지변에 참여한 인물들의 주살과 이를 대신할 신료들의 인사 이동, 감로지변 진압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 조치가 대부분으로⁸⁶⁾, 감로지변의 발생이 해당 연도의 조칙 수 급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개성 2년(837)의 조칙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13건이 증가하는데, 이는 10건에 달하는 천재지변 및 검약 관련 조칙 수와 거의 비슷하다. 개성 2년에는 메뚜기와 가뭄, 홍수가 연달아 발생하여 누차에 걸쳐 기우제를 지내고 기우에 효험이 있다 하여 終南山을 廣惠公으로 봉하는 등 천재지변과 관련된 조칙이 다수 내려졌다.⁸⁷⁾ 『구당서』 「五行志」는 이보다 2년 후인 개성 4년(839)의 가뭄과 메뚜기를 함께 엮어 당시 宰臣들이 천재는 時數라며 황제를 위로하였음에도 문종이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자책하는 내용을 특필한 바 있다.⁸⁸⁾ 이를 통

82) 『唐代詔勅目錄』 기준으로 正月의 「命群臣議討吳元濟可否詔」와 2월 「陳州所送東都防禦五百人回附汝州詔」, 月이 표기되지 않은 「命河中鄜坊騎兵二千益李愬軍詔」(『資治通鑑』 기준으로는 元和 12년 正月의 詔勅)이 이에 해당한다.

83) 甘露之變은 大和 9년(835) 11월 文宗 皇帝가 宰相 李訓과 工部尙書 鄭注 등을 중심으로 하여 宦官 세력을 일소하기 위해 일으킨 사건으로 거칠게 요약할 수 있다. 당시 文宗은 金吾仗舍의 석류나무에 甘露가 맺혔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환관들을 金吾仗舍에 모은 후 숨겨둔 병력을 통해 이들을 제압할 계획이었으나, 먼저 도착한 환관들이 숨어있던 병사들을 발견하고서 도망침으로써 해당 계획은 실패하였다. 이후 환관들은 禁軍을 동원하여 해당 계획에 참여했다고 의심되는 인물 및 관련자를 대규모로 처단하였는데, 당시 살해된 外朝 士人の 숫자만 해도 1,600명이 넘었다고 알려져 있다.(何燦浩, 「『甘露之變』性質의探析」, 『寧波大學學報』1990-1, pp.8-9) 근래에는 환관 세력이 甘露之變을 통해 오히려 내부 상황을 정비하고 환관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는 계기로서 활용했음을 지적한 연구도 발표된 바 있다.(柳浚炯, 「唐 文宗 시기 甘露之變에 대한 재고찰」, 『中國古中世史研究』35, 2015, pp.415-421)

84) 『唐代詔勅目錄』, pp.484-486.

85) 『唐代詔勅目錄』, pp.490-492.

86) 『唐代詔勅目錄』, pp.486-489.

87) 『唐代詔勅目錄』, pp.492-495.

하여 볼 때 개성 2년 당시 10건에 달하는 천재지변은 특필될 만한 사건이라 할 수 있고, 그래프 상에서 나타난 변화를 통하여 이를 감지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래프에서 전년 대비 조칙 수의 증가 폭이 큰 경우는 당시에 특수한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정리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즉 각 황제의 연도별 조칙 수는 기본적으로 우하향하되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경우 조칙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위의 도표는 조칙의 수가 급증하는 연도의 조칙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시기 당조의 중요한 정책 안건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유용성을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덕종 시기의 연간 조칙 수를 살펴볼 때 먼저 눈길을 끄는 시기는 興元 원년(784)에서 貞元 4년(788)에 걸친 5년여 간으로, 해당 시기의 조칙 수는 전반적인 우하향 경향을 거스르고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덕종 시기 가운데 전년도 대비 조칙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연도는 37건이 증가한 흥원 원년(784)이며, 이후에도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정원 4년(788) 42개의 조칙을 내리는 등 즉위 10년차까지 꾸준히 많은 조칙이 내려지다가 정원 5년(789)이 되면 전년 대비 詔勅의 수가 23건 급감하게 된다. 정원 5년(789) 이후 덕종 시기 연간 조칙의 수는 정원 6년(790)과 9년(793)의 24건을 최대로 하여 전반적으로 우하향하여 회서 번진에 대한 대규모 토벌이 이루어진 정원 15년(799) 즈음을 제외하면 조칙 수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므로, 덕종 시기의 주된 정책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이 5년여의 조칙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조칙의 수가 가장 많은 흥원 원년(784)의 조칙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연도의 조칙 가운데 유달리 制書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흥원 원년에 내려진 조칙은 총 76건으로, 이 가운데 제서가 68건인데 반해 勅書는 6건, 冊書는 2건에 그쳐 제서는 전체 조칙의 89%에 달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연도의 제서 가운데에는 절도사, 특히 조정과 전쟁을 벌이고 있던 절도사를 ‘임명’하는 사례가 눈에 띄는데 平盧節度使 李納⁸⁹⁾, 魏博節度使 田緒⁹⁰⁾ 이미 해당 번진에서 실질적인 藩帥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던 인물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 시기에 제서를 통해 절도사로 ‘임명’된 것일까? 이들을 임

88) 『舊唐書』 卷37 「五行志」 蝗旱, p.1365.

89) 『冊府元龜』 卷436 「繼襲」, p.4925.

90)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42.

명하는 제서의 문장만으로는 해당 맥락이 드러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罪己詔」라 불리는 「奉天改元大赦制」⁹¹⁾와 이들을 함께 살펴보면 당조가 이들을 그 이전까지 공식적으로는 이들을 절도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가 「죄기조」의 반포 이후 이들을 공식적으로 절도사로 임명한다는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제서들 중 다수는 번진에 대한 토벌군의 장수를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조칙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기의 주요 현안이 번진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번진 문제에 대한 조칙 수는 정원 2년(786)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지만 정원 3(787)까지 연도별 조칙의 수는 40건을 상회한다. 이 시기에는 다른 시기와 비교하면 외교 관련 조칙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정원 3년의 토번 관련 기사는 총 41건의 조칙 가운데 14건으로 전체의 1/3을 상회하여 해당 시기에 토번과 당조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듬해인 정원 4년(788)의 경우 토번과 관련된 기사는 축성 등 방어와 관련된 3건으로 줄어드는 대신 위구르 관련 기사로 咸安公主의 혼인 관련 4건의 조칙이 확인되는데, 이는 당조의 외교 방침 상에 변화가 생긴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하자면 덕종의 즉위 연도인 대력 14년(779)의 조칙 내용에서 나타나는 재정, 특히 검약에 대한 강조라는 경향성을 들 수 있는데, 해당 연도의 총 57개의 조칙 가운데 13개 조칙을 검약 관련 조치로 분류할 수 있다.⁹²⁾ 같은 해 令狐峘이 덕종의 검약을 언급한 기록도 남아있어⁹³⁾ 당시 덕종 즉위년의 검약 경향에 대해서는 신료들도 인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덕종의 검약에 대한 강조를 덕종의 ‘聖德’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당조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는 덕종 즉위 초부터 나타나는 다수의 재정 관련 정책과도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다. 덕종은 즉위 2년차인 건중 원년(780)에 兩稅法을 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각종 재정 관련 정책을 내놓는데, 다수의 검약 관련 조칙 등 재정 정책에 대한 강조는 덕종이 즉위했을 당시 그리 안정적이지 않았던 당조의 재정 상태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연도별 조칙 수의 전반적인 우하향 경향에서 벗어나 조칙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의 조칙 내용을 살펴보면 번진과 외교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여기에 즉위 초 재정 문제 관련 조칙의 수가

91) 『陸贄集』 卷1 「奉天改元大赦制」, pp.1-16.

92) 『唐代詔勅目錄』, pp.323-326.

93) 『舊唐書』 卷149 「令狐峘傳」, p.4012.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덕종 시기의 주요 현안에는 번진·외교·재정 문제가 있었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은 재정 문제일 것이다. 덕종이 즉위한 대력 14년(779) 당시의 조칙 목록에서 특히 검약을 강조하였다는 점을 보아도 덕종의 즉위 직후 당조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에 재정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때문에 이하에서는 절을 바꾸어 덕종 즉위 시점의 재정 문제가 어떠한 배경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

2. 唐朝의 江淮 漕運路 장악력과 藩鎮

1) 安史의 亂 이전 唐朝의 漕運路 운영

南北朝 시대 이래 장강 중하류 지역은 꾸준한 경제력의 발전과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며, 안사의 난 이후인 현종 원화 연간에는 江南東·西道の 戶數가 河南道·河北道·關內道·河東道の 총 호수를 넘어서기에 이른다.⁹⁴⁾ 물론 宋代 강남의 농업 혁명의 정의 방식에 따라 그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있는 등⁹⁵⁾ 당송 시기 장강 중하류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탐구의 여지는 남아있으나⁹⁶⁾, 안사의 난 이후에 장강 중하류 지역이 당조의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부상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⁹⁷⁾ 이는 장강 중하류와 장안을 연결하는 조운로의 중요성 증대와도 표리 관계를 이루며, 이 때문에 수대 운하의 개착 이후 조운로는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왔으리라 생각하기 쉽다.

이러한 인상은 당 후기 이후의 문인들이 남긴 작품을 통해 강화된 면이 없지 않다. 당말을 대표하는 문장가 중 한 명인 皮日休(834-883)가 江都의 물자를 운송하는 조운로의 존재가 수의 백성에게는 해악이 매우 심했으나 당의 백성들에게 이익이 매우 큼을 강조하는 한편⁹⁸⁾ 수 양제가 龍舟를 타지 않았다면 변하를 개착한 공로는 夏禹와 견줄 만 했을 것이라고 한 데서 보듯⁹⁹⁾, 문학 작품에서는 수대 이래 당 후기까지 조운로가 지속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처럼

94) 楊子慧 主編, 『中國歷代人口統計資料研究』, 北京: 改革出版社, 1996, pp.576-580.

95) 李伯重 ; 이화승 譯, 『중국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서울: 책세상, 2006, pp.103-129.

96) 근래 崔德卿은 宋代 江南 지역의 農業 생산물 증가와 施肥法의 발달 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증함으로써 宋代 農業 발전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崔德卿, 『동아시아 농업사상의 뚝 생태학』, 서울: 세창, 2016, pp.137-158)

97) 袁英光·李曉路, 『唐代財政中心的南移與兩稅法的產生』, pp.41-47.

98) 『皮子文藪』(皮日休 撰 ; 蕭滌非·鄭慶篤 整理, 『皮子文藪』,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卷4 「汴河銘」, p.41. 『皮子文藪』는 皮日休의 전기 작품이 정리된 文集으로, 이 文集은 皮日休 본인이 咸通 7년(866) 科擧에 낙방한 후 이듬해 科擧에 재응시하기 전에 行卷의 목적으로 10권으로 정리한 것이다.(『皮子文藪』 「文藪序」, p.2) 皮日休가 이듬해인 咸通 8년(867) 進士科에 급제한 것으로 보아, 해당 文集에 담긴 글의 내용은 적어도 당시 進士科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官僚들에게 큰 무리 없이 읽힐 만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99) 『文苑英華』(李昉 等 編, 『文苑英華』(全6冊), 北京: 中華書局, 1966) 卷308 「汴河懷古二首」, p.1581.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송 시기에 편찬된 『신당서』의 관련 기록에서도 당조는 고종 이래 조운로를 통해 동남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계속해서 수송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¹⁰⁰⁾

하지만 덕종 시기 재상을 역임한 杜佑가 편찬한 『통전』과 『구당서』의 조운 관련 기록을 검토해보면, 현종 시기 초까지 당조가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를 조운로를 통해 장안까지 수송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통전』 권10 조운 항목에는 秦漢 시기에서 당대에 걸친 시기의 수운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 이 가운데 인공적으로 개착된 수로라는 의미에서의 운하에 대한 기록은 수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두우는 수 양제 대업 원년(605) 변하(혹은 通濟渠)의 개착을 기록하면서 이로부터 천하에 운하를 통한 조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¹⁰¹⁾ 하지만 수조의 멸망 이후 이를 계승한 당의 전반기에는 수대에 개착된 운하를 활용하여 京師인 장안으로 물자를 조운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장강 중하류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통전』 조운 항목의 당대 기사 가운데 현종 개원 18년(730) 이전의 조운로와 관련된 기록은 咸亨 3년(672)의 岐州 陳倉縣(오늘날의 陝西省 寶雞市)에 대한 짤막한 기사가 전부이다. 그나마 진창현은 장안의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대에 개착한 운하와는 무관한 지역이기 때문에, 『통전』 내에는 당 현종 이전까지 당조가 수대에 개착한 운하를 물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실제 사례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수대에 이미 운하를 개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조는 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구당서』 「食貨志」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구당서』 권49 「식화지」 下의 조운 항목에는 『통전』에서도 언급된 개원 18년 기사에 앞서 7개 기사가 배치되어 있다.¹⁰²⁾ 해당 7개 기사의 배경은 隴州·滄州·晉州·絳州·洛陽(東都)·汴州·鄭州인데, 이 가운데 농주는 장안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창주는 하북에 위치하여 있으며 해당 기사 또한 개별 지역의 수로를 개착하는 내용으로 장안으로의 물자 운송과는 무관하다. 유일하게 물자 수송과 관련된 기사는 진주·강주를 언급하는 함형 3년(672)의 기사로, 이 기사의 내용은 당시 당조가 黃河와 渭水를 통하여 장안 동쪽의 곡

100) 『新唐書』 卷53 「食貨志」3, p.1365.

101) 『通典』(杜佑 撰, 『通典』(全5冊), 北京: 中華書局, 1988) 卷10 「食貨典」10, p.220.

102) 『舊唐書』 卷49 「食貨志」 下, pp.2113-2114.

물을 경사로 운반했다는 것이다. 그 외의 낙양·변주·정주에 관한 기사는 해당 지역의 수로를 통하여 장안으로 물자를 수급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앞선 기사들과는 구별된다. 이 기사들은 당대에도 수대와 마찬가지로 장안의 부족한 곡물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중 동쪽 일대의 자원을 활용하였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당조가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까지 수송했음을 확인시켜주지는 않는다.

개원 연간의 조운로 상황은 개원 2년(714)과 개원 15년(727)의 2개 기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원 2년 기사는 강희 조운로가 막혀 통하지 않자 당조가 이를 개통시키는 공사를 진행시켰음을 언급하며, 개원 15년 기사는 새로운 조운로를 개착하려 시도하였으나 해당 조운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자 다시 원래의 조운로를 활용하였음을 보여준다.¹⁰³⁾ 이상의 검토 결과 당조는 개원 15년 이전까지 조운로를 유지·보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통해 많은 물자를 수송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특히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장안으로 물자가 수송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설령 후대의 문인들이 묘사한 것처럼 수조가 운하를 개착할 당시에 조운로를 통해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옮기려는 의도를 지녔다 하더라도, 개원 18년(730) 이전까지 당조가 해당 목적에 따라 조운로를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까지 운송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확인되는 것은 개원 18년(730)이 되어서이다. 『통전』과 『구당서』·『신당서』에 모두 기재된 개원 18년의 기사는 강남서도 宣州(오늘날의 安徽省 宣城市)의 자사 裴耀卿이 올린 글에 관한 것이다. 배요경은 강남의 호구가 점차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세수도 늘어나는데, 장안과의 거리가 멀고 전운 과정에서 수로에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곡물 등의 물자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한다.

삼가 매 주에서 조용조로 거둔 물자를 보내는 것을 보면 본주는 正二月에 도로 올리는데, 揚州에 다다라 斗門에 들어가려 하면 곧 수심이 낮은 때를 만나 막히게 되니 여기에서 반드시 1개월 이상을 머무르게 됩니다. 4월이 된 이후에나 비로소 회수를 건너 변하로 들어서게 되는데, 변하가 말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또다시 운반 작업이 멈추게 되면

103) 강희 조운로의 水路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靑山定雄의 연구를 참고하라.(靑山定雄, 『唐宋時代の交通と地誌地圖の研究』, pp.227-249)

6·7월은 되어야 비로소 河口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때는 황하의 물이 붙어있을 시기라 배들은 황하로 진입하지 못하고 또다시 1·2개월을 기다려 황하의 물이 줄어든 이후에야 비로소 황하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洛水에 들어서면 조운로는 말라붙어 있어 배들이 지나가기 어려워 배에 실린 물자도 정체되니 모두 극히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강남에서 동도(낙양)까지 이르는 과정을 헤아려보면 정체되는 날이 많고 갈 수 있는 날은 적으니, 양식이 모두 부족해지는 사태는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입니다.¹⁰⁴⁾

배요경이 본주에서 정이월에 올린다고 표현한 물자는 租로 거둔 粟에 해당한다. 『통전』에 기록된 조용조 제도 하에서 조로 거둔 속의 경우 본주에서 11월에는 출발하여 정월 30일 내에는 수납을 마치게 하였으며 본주에 납부하는 조의 경우 12월 30일을 수납 기한으로 하였다.¹⁰⁵⁾ 배요경의 설명에 따르면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가을에 수확한 속은 이듬해 8·9월은 되어야 황하로 진입하므로 장안에 도달하는 것은 그보다 더 늦은 시기로 상정된다. 그렇다면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거두어진 속이 장안에 도달하는 데에는 거의 1년이 걸리는 셈으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장강 중하류 지역의 속을 장안에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배요경이 제안한 방식은 각 구간마다 運船을 따로 두어 해당 운선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구간만을 운행하는 것, 그리고 두 구간이 만나는 지점마다 倉을 세워 운선이 실어온 물자를 저장했다가 수로에 물이 차면 그 때 물자를 다음 구간으로 운송하는 것이었다.¹⁰⁶⁾ 간단하다면 매우 간단한 이 제안에 따르면 확실히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낙양까지 보다 빠르고 쉽게 운반할 수 있을 터였으나,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⁰⁷⁾

104) 『舊唐書』 卷49 「食貨志」下, p.2114.

105) 『通典』 卷6 「食貨典」6, p.109.

106) 『舊唐書』 卷49 「食貨志」下, pp.2114-2115.

107) 裴耀卿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이유를 추론해보자면, 裴耀卿의 안은 당장 선박을 건조하고 運河를 정비해야 하는 즉시적 비용을 요구하는 반면 江南에서의 穀物 운송이 얼마나 실질적인 효용을 가져올지는 아직 불확실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裴耀卿의 제안이 있기 전까지 唐朝의 運河 관련 조치는 어디까지나 汴河까지에 그쳐 있었는데, 이는 華北 일대 내의 물자 운송을 위한 것이지 長江 中下流 지역의 물자를 長安까지 옮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長江 中下流의 대규모 물자가 長安까지 수송된 적이 없었다면, 玄宗이 裴耀卿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또한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배요경의 제안은 몇 년 지나지 않아 현실화되기에 이르니, 이는 당조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도달하였기 때문이었다. 개원 21년(733) 배요경은 京兆尹이 되었는데, 그 해 관중 지역은 수해로 인하여 곡물 수확에 큰 타격을 받아 장안에는 기근이 들고 곡가가 뛰어올라 太倉米 200萬石을 풀어야 할 정도로 식량 문제가 심각하였다.¹⁰⁸⁾ 위기 상황을 맞아 현종은 동도로 行幸할 준비를 하는 한편 경조윤인 배요경에게 대책을 물었고, 배요경은 제차 강남의 물자를 장안으로 옮김으로써 식량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⁰⁹⁾ 배요경의 제안의 골자는 앞선 개원 18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개원 22년 현종은 각지에 창을 세워 배요경의 제안을 실천하였고, 배요경을 강남에서 낙양까지의 진운 과정 전반을 관장하는 江淮·河南轉運都使로 삼았다. 『구당서』는 개원 22년(734) 이후 3년간 운하를 통하여 운송된 곡물이 모두 700만석이며 이를 통하여 당조는 곡물을 육로로 운송할 때에 비하여 40만관의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고 기록하였으니, 당조는 배요경의 제안에 따른 조운로 운영을 통하여 식량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¹⁰⁾

현종 시기에 들어 수로를 정비함으로써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수송하게 된 배경에는 당 전기까지만 해도 장강 이북 지역에 비하여 개발 상황이 뒤쳐져있던 장강 중하류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있었다. 해당 지역의 경제적 발전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는 강남서도에 위치한 江州 彭澤縣(오늘날의 江西省 九江市 彭澤縣)을 들 수 있다. 팽택현은 남조의 陶淵明이 현령으로 근무하다가 「歸去來兮辭」를 짓고 낙향하였던 지역으로도 유명한데¹¹¹⁾, 팽택현은 도연명이 현령으로 임직할 당시에도 公田에서 난 秬로 술을 빚을만 하다는 평가에 그친 것으로 보아 그리 부유하지는 않은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듯하다. 狄仁傑이 지적하였듯 그 1차적인 원인은 팽택현의 지리적 입지 때문이었다. 적인걸은 팽택현을 보고 ‘땅이 좁고 산이 험준하여 진지가 없어 백성이 일구는 밭은 1호에 5~10무를 넘지 못한다’며 全熟한 경우에도 양식이 충분치 않다고 상주하였는데¹¹²⁾, 오늘날의 지도를 보아도 팽택현의 지리 환경에 대

108) 『舊唐書』 卷8 「玄宗本紀」上, p.200.

109) 『舊唐書』 卷98 「裴耀卿傳」, pp.3080-3081.

110) 『舊唐書』 卷49 「食貨志」下, pp.2115-2116.

111) 『宋書』 卷93 「陶潛傳」, p.2287 ; 『陶淵明集箋注』(袁行霈,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卷5 「歸去來兮辭」, p.460.

112) 『全唐文』(董誥等編, 『全唐文』(全11冊), 北京: 中華書局, 1983) 卷169 「乞免民租疏」,

한 적인걸의 판단은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종 시기에 작성된 『元和郡縣圖志』에서는 팽택현을 6,000戶가 넘는 上縣으로¹¹³⁾ 분류할 정도로¹¹⁴⁾ 안사의 난 이후 팽택현은 사람들이 도망하는 빈곤한 지역에서 벗어나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시비법의 발달 및 계단식 농지 등 새로운 농지를 개간할 수 있게 된 농법 상의 발전은 이러한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한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¹¹⁵⁾, 아래의 『피자문수』에 실린 팽택현 관련 기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볼 수 있다. 피일휴는 팽택현의 農戶 逢氏가 자신의 밭이 매우 넓었는데 이를 경작할 소가 없자, 남의 소를 빌려서 하루 종일 심하게 부리고서 저녁에야 돌려주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¹¹⁶⁾ 이는 적인걸이 전지가 극히 부족한 지역으로 파악했던 팽택현이 당말까지 상당량의 농지를 새로이 개간하는데 성공하였음을 암시한다. 팽택현의 발전에서 보듯 당대 장강 중하류 지역은 경제적 발전을 계속하였는데, 현종 시기에 조운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운송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경제적 발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당조는 조운로를 통하여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적극적으로 장안까지 운송하였다. 天寶 2년(743) 당조의 조운량은 400만석에 달하게 되었으니¹¹⁷⁾, 당조의 재정 운영에 있어 장강 중하류 지역과 장안을 연결하는 조운로는 현종 시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중요한 존재로 부상하였다고 평할 수 있다. 조운로가 지나는 주요 거점 가운데에서도 揚州는 극히 변화하여 ‘양주가 최고이며 그 다음은 益州(揚一益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¹¹⁸⁾, 당 후기가 되면 당 제국의 남부 지역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다. 다만 현종 시기에 발생한 안사의 난으로 인하여 당조는 강회 조운로가 지나는 지역 중 상당 부분에 대한 장악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조운로의 최종 종착지인 장안에서 도망하게

p.1728.

113) 『唐六典』 卷3 「尙書戶部」, p.73.

114) 『元和郡縣圖志』(李吉甫 撰 ; 賀次君 點校, 『元和郡縣圖志』(全2冊), 北京: 中華書局, 1983) 卷28 「江南西道」, p.676.

115) 朴喜眞, 「南宋代 南方地域 稻麥 二毛作의 發展 情況 -江南의 麥作 擴散을 中心으로-」, 『中國史研究』99, 2015, pp.110-120.

116) 『皮子文藪』 卷7 「惑雷刑」, p.65.

117) 『新唐書』 卷53 「食貨志」3, p.1367.

118) 『容齋隨筆』(洪邁 撰, 『容齋隨筆』(全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卷9 「唐揚州之盛」, p.122. 南宋 시기의 인물인 洪邁(1123-1202)는 당시의 양주의 규모는 당나라 때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당대 양주가 매우 번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됨으로써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수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조는 재정 운영에 있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2) 肅·代宗의 漕運路 안정화 시도와 그 한계

안사의 난은 늘어난 전비 문제 이외에도 당조의 재정 운영에 두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첫째는 당초에서 현종 시기까지 당조가 주된 세원으로 삼아 온 河北道와 河南道 일대가 安祿山 진영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세수가 끊어진 것이었고, 둘째는 안록산 진영이 낙양을 점령하는 등 장강 중하류 지역과 장안을 연결하던 강회 조운로를 통한 물자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었다. 세수의 총량이 줄어든 만큼 조운로를 통해 동남 지방의 물자를 보급받지 못할 경우 전쟁을 치르기 위한 충분한 물자를 수급받기 어려워졌기에, 당조의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조운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肅宗이 第五琦가 제안한 새로운 보급로의 개척을 시도하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至德 元載(756) 10월 제오기는 강회 지역의 租·庸을 漢水를 통하여 洋川(洋州)까지 수송하고, 이를 재차 육로로 扶風까지 수송하는 계획을 제안하였다.¹²⁰⁾ 당조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해당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당조는 이후에도 강회 조운로가 막힐 때마다 한수를 이용한 조운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게 된다.



<圖-2. 강회 조운로(붉은 색)와

강한 조운로(푸른 색으로 洋州까지 표시)¹¹⁹⁾>

제오기가 제안한 대체 조운로의 존재 자체는 몇몇 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조운로를 ‘江漢漕運’¹²¹⁾ 혹은 ‘上津路’¹²²⁾로 지칭하였으며, 안사의 난 등 강회 조운로를 사용할

119) 青山定雄, 『唐宋時代の交通と地誌地圖の研究』, <圖板 1> 중 일부.

120) 『資治通鑑』 卷219 「唐紀」35 肅宗至德元載, pp.7001-7002.

121) 日野開三郎, 「肅·代二朝の大漕運と轉運使」,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3, 1981, pp.118-130.

122) 嚴耕望, 『唐代交通圖考』3,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85, pp.801-809.

수 없을 경우 대체 조운로로서 한수를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밝혀 놓았다.(이하에서는 강회 조운로와의 통일성을 기하여 江漢 조운로로 호칭) 다만 당조가 강한 조운로를 활용한 기간은 숙종에서 덕종에 이르는 시기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덕종 정원 3년(787) 당조가 강회 조운로가 지나는 전역을 장악하면서부터 강한 조운로의 활용도는 크게 저하되었다. 이 때문에 강한 조운로를 언급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조운로와 교통로 상에 나타난 일시적 특이 현상으로 다루었을 뿐, 강한 조운로를 번진 문제 등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과 엮어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미 강한 조운로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해당 현상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소략하게 다룬 강한 조운로는 8세기 후반 당조가 강회 조운로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상실한 이후, 유사시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를 장안까지 수송하는 운송로로 기능하였다. 때문에 강한 조운로가 주된 조운로로 활용된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조운로가 적극적으로 운영되던 시기에 그 중요도는 매우 높았다. 寶應 元年(762) 史朝義가 宋州를 포위했을 당시의 기록은 제오기가 강한 조운로의 활용을 제안한 이후에도 강회 조운로가 막힐 경우 당조가 강한 조운로를 통하여 물자를 공급받았음을 보여준다. 송주는 강회 조운로가 지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친 송주 포위는 곧 강회 조운로의 단절로 이어졌는데, 이 당시 당조는 강한 조운로를 활용하여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¹²³⁾

다만 강한 조운로의 물길은 강회 조운로에 비하여 멀고 험하였기에, 강한 조운로의 운송 비용 또한 강회 조운로에 비하여 더 높았다. 이에 대종은 막힌 변하를 다시 정비함으로써 강회 조운로를 재개하여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보다 쉽게 운송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廣德 2년(764) 3월 劉晏(716-780)을 河南·江·淮以來轉運使로 삼아 변하를 개통하는 방안을 議하게 하였다. 대종은 유안에게 轉運使로서 조운로와 관련된 전권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여러 節度使에게 賦役을 균등히 분배시키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한 이후 결과를 보고하게 하였다.¹²⁴⁾

이후 유안이 취한 조치를 종합해 보면 그는 배요경과 거의 흡사하게 운하의 각 구간을 나누어 구간 별로 선박을 따로 두고 각 구간이 끝나는 지점마다 倉을 설치하여 운송해온 물자를 여기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하를 운영하였

123) 『新唐書』 卷53 「食貨志」3, p.1368.

124) 『資治通鑑』 卷223 「唐紀」39 代宗廣德二年, p.7164.

다.¹²⁵⁾ 운영 방식만 보면 유안의 정책은 사실상 배요경의 방식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책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었다. 물론 대종은 유안에게 인력 및 재원을 각 번진의 절도사에게서 나누어 거둘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하였다고는 하나, 현장에서 실무를 진행해야 했던 유안의 입장에서는 대종의 언명만으로 절도사들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듯하다. 유안이 당시 재상이었던 元載에게 보낸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당시 유안이 당면했던 고충을 엿볼 수 있다.¹²⁶⁾

원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유안은 장강 중하류의 물자를 장안까지 수송해야 당조가 정상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¹²⁷⁾ 변화가 재정비하여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까지 수송하기에는 4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중 3가지 문제는 하남도의 황폐화로 인해 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진 점, 변화가 지속적으로 수리되지 못하여 막히는 구간이 많다는 점, 하남도 인근에 도적이 횡행한데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수졸을 제대로 세우기 힘들어 운하를 통해 운송되는 물자가 약탈되기 쉽다는 점이었다. 다만 변화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논하면서 언급한 각종 이점은 당시 조정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던 바이며 뒤이은 3가지의 문제 또한 이미 대종이 유안에게 해결을 명한 바이므로, 굳이 유안이 재상인 원재에게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설명해야 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유안이 마지막 4번째 문제로 지적한 ‘설령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유안이 맡은 전운사의 직임만으로는 이들이 자신의 명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야말로 유안이 보낸 편지의 핵심이었으리라 생각된다.¹²⁸⁾

이듬해인 永泰 元年(765) 4월 대종의 조칙은 이와 관련 깊은 것이었다.

4월, 詔하였다. “듣자하니 동도에서 회수와 泗州에 이르기까지 변화에 인접한 주현이 寇難을 겪어 백성들은 彫殘하며, 땅은 넓지만 사람은 드물어졌고, 또한 도적이 많아 조운과 商旅가 근심을 면하지 못한다 한다. 마땅히 王縉으로 하여금 각 번진의 절도사와 더불어 計會·商量하여 변화에 접한 양안의 두 역마다 防援¹²⁹⁾ 300명을 두게 하며, 이들에게 인접

125) 『新唐書』 卷53 「食貨志」3, p.1368.

126) 『資治通鑑』 卷223 「唐紀」39 代宗廣德二年, pp.7164.

127) 『舊唐書』 卷123 「劉晏傳」, pp.3512-3513.

128) 『舊唐書』 卷123 「劉晏傳」, p.3515.

129) 差夫가 遞送할 때 이를 호위하는 병력.(『李相國論事集』(李絳 ; 冶艷傑 校注, 『李相國

한 비옥한 전토를 지급하여 농사를 짓게 하며 경계를 나누어 捉搦하게
해야 할 것이다.¹³⁰⁾

조문에서 대종은 변하에 인접한 주현이 도적의 약탈로 인하여 ‘땅은 넓으나
사람이 드문’ 곤경에 처하였으며 도적의 약탈은 하남도 일대에 그치지 않고
강희 조운로를 이용한 조운과 상인들의 상업 행위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데, 이는 유안이 원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 일치한다. 여기에 유안이 언급
한 마지막 문제, 즉 여러 인원들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대종은 당시 持節都統河南·淮西·淮南·山南東道節度行營事이자
東京留守였던 왕진의 주재 하에 변하 인접 지역의 절도사들이 조운로를 약탈
하려는 도적을 막고 조운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2개 역마다 300명의 방원을
둘 것을 명하였다.

당대에 역은 매 30리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¹³¹⁾ 300명의 방원
은 60리마다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변하는 1,000여리에 달하므로¹³²⁾ 변
하 인근에 배치된 방원의 수는 약 5천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도적 문제 등으
로 인하여 인구가 희박해진 하남도 인근에서 5천여에 달하는 군사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일은 꽤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터로, 이 때문인지 조문에서는 이들
방원에게 전토를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사실상 둔전병으로서 생산
활동 또한 겸해야 함을 규정한다. 왕진은 지위 상 이들 수비 병력을 배치·통솔
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이었으며, 이를 통하여 유안 또한 기존의 고충을 극복
하고 이후 조운로를 통하여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까지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¹³³⁾

다만 재상이자 하남·회서·회남·산남동도 전역을 도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황
제에게서 부여받은 왕진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변하 인근 번진의 절도사 모두
에게 황제의 지시를 강제할 수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태 원년(765) 당시
변하가 지나는 영역 가운데에는 平盧 번진 등 반측지지가 차지하고 있었던 지

論事集校注』, 武漢: 華中科技大學出版社, 2014) 卷4 「論許遂振進奉請驛遞送至上都狀」,
pp.123-124)

130) 『冊府元龜』 卷64 「發號令」3, p.682.

131) 『舊唐書』 卷43 「職官志」3, p.1836.

132) 『大業雜記』(杜寶 撰 ; 辛德勇 輯校, 『兩京雜記輯校·大業雜記輯校』, 北京: 中華書局,
2020), p.190.

133) 『資治通鑑』 卷223 「唐紀」39 代宗廣德二年, pp.7164 ; 『舊唐書』 卷73 「劉晏傳」,
p.3514.

역이 있었으며, 설령 조정의 명령을 따르는 번진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반측지지로 변모할 수 있는 지역 또한 없지 않았다. 대종 시기 당조는 장강 중하류에서 장안으로 보낸 물자를 수송하는 강회 조운로, 특히 변하가 지나는 하남·회남도 지역을 완벽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종 시기 당조의 변하에 대한 미진한 장악력은 변하의 물자가 반드시 지나 가게 되어 있는 변주에서 일어난 변란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변주는 사주로 이어지는 변하 상에 위치한 행정 구역으로, 황하와 변하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된 汴渠·汴口堰을 통제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하는 지점이었다. 『원화군 현도지』의 汴渠 항목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수 양제 대업 원년(605)에 다시 막힌 수로를 열게끔 하고서 통제거라 이름하였으니, 낙양 西苑에서 穀·洛水를 끌어다 황하에 이르게 하고, 板渚에서 황하 물을 끌어다 변구에 들이고, 또 大梁의 동쪽에서 변수를 끌어다 사주에 들여 회수에 이르게 하여 江都宮에서 바다로 들어가게 하였다... 揚州·益州·湘州에서 남쪽으로 交州·廣州·閩中州 등에 이르러 공가의 조운과 사적으로 다니는 商旅의 고물과 뱃머리가 서로 이어졌다. 수조가 이것을 만들에 비록 수고로웠으나, 후대는 실로 그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汴口堰... 수 문제 개황 7년(587), 梁睿로 하여금 漢의 옛 방죽을 증축하게 하여 황하를 막아 변하로 들이게 하였다.¹³⁴⁾

강회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산양독을 통하여 사주에 도달한 뒤 변하와 합류해 서주를 거쳐 변주로 넘어가서 변구언을 통해 황하로 진입해야 한다. 상술한 대로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산이 당 후기 조정의 세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변주는 당조가 왕조의 존속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조에서도 숙종 시기 변주에 河南節度使·汴州都防禦使·汴滑節度使를 설치하는 등 변주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당조가 변주를 실질적으로 확보한 것은 대종 寶應 元年(762) 겨울에 이르러서였다. 당시 변주

134) 『元和郡縣圖志』卷5「河南道」1, p.137.

를 맡고 있던 인물은 史思明의 부장 張獻誠이었는데, 그는 사사명을 살해한 사조의가 변주로 도망해오자 사조의의 입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당조에 귀부하기를 선택하였다. 대종은 이에 장헌성을 변주자사로 삼고 변주절도사에 충임하였다.¹³⁵⁾ 이 시점이 되어서야 당조는 변주를 다소나마 제어할 수 있게 되었기에, 숙종 시기의 변주 통치와 관련된 조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廣德 2년(764) 당조는 田神功을 汴宋節度使로 임명함으로써 변주를 관장하게 하였고¹³⁶⁾, 대력 8년(773) 전신공이 사망하자 당조는 그의 동생 田神玉을 權汴州留後로 임명하여 변주 일대를 관할하게 하였으며 전신옥은 대력 11년(776)에 사망하기까지 변주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다. 전신공·전신옥 형제는 변주를 도합 15년 가까이 지킨 셈으로, 이들 형제는 대종 시기의 절도사 가운데에서도 조정에 충순한 편으로 분류된다.¹³⁷⁾ 전신옥이 사망한 후 당조는 永平軍節度使로 있던 李勉에게 변송절도사의 영역까지 관장하게 하였는데¹³⁸⁾, 그 과정에서 李靈曜의 반란으로 인하여 당조의 변주 일대에 대한 장악력은 크게 흔들렸다.

변주를 관장하는 절도사가 이면으로 교체되는 틈을 타 변주의 장수 이령요는 대력 11년(776) 5월 濮州刺史 孟鑿을 살해하고 위박 번진의 田承嗣와 연계하여 변주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당조는 이령요에게 복주자사를 주어 회유하려 하였으나 이령요는 해당 조서의 수령도 거부하였다. 이에 당조는 이령요를 변주자사로 임명하고 절도유후로 삼음으로써 당조는 사실상 변주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포기하였고, 영평군이 변·송주까지 관할하는 번진의 통합은 일단 무산되었다.¹³⁹⁾ 하지만 조정의 명에 반항한 이령요의 입지는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었다. 이에 이령요는 8월 재차 반란을 일으켰고, 대종은 회서 번진의 李忠臣·영평군의 이면·河陽 번진의 馬燧 등 인접한 번진의 병력을 동원하여 이령요를 토벌하였다.¹⁴⁰⁾ 이령요는 전승사에게 구원을 요청하였지만 전승사의 병력은 마수·이충신에게 패하여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¹⁴¹⁾, 이에 당조는 이령요를

135) 『舊唐書』 卷122 「張獻誠傳」, p.3497.

136) 『顏魯公文集』 卷14 「宋州官吏八關齋會報德記」, p.88.

137) 『舊唐書』 卷124 「田神功傳」, p.3533.

138) 『舊唐書』 卷124 「田神功傳」, p.3533.

139) 『舊唐書』 卷11 「代宗本紀」, p.309.

140) 『舊唐書』 卷11 「代宗本紀」, p.309 ; 『舊唐書』 卷131 「李勉傳」, p.3635.

141) 『舊唐書』 卷141 「田承嗣傳」, p.3840.

제압하고 변주와 송주를 재차 확보할 수 있었다.

강희 조운로가 지나가는 핵심 지역으로 조정에 충직한 절도사인 전신공·전신옥 형제가 15년여 재직한 변·송 일대의 중요도가 극히 높았다는 사실은, 역으로 대종 시기에 이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조정에 반항한 이령요가 끝내 변주자사로 임명된 사건이 지니는 의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그나마 변주와 송주의 경우 당조는



<圖-3. 대력 14년 하남도·회남도의 변진 배치도와 강희 조운로>

일시적인 반란을 겪고서 재차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강희 조운로가 지나가는 영역 가운데 일부는 반측지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지역도 있었다. 평로 변진이 장악한 서주는 그 예시로, 서주가 평로 변진의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평로절도사는 경우에 따라서 강희 조운로를 차단함으로써 조정의 물자 보급을 저지할 수 있었으며 해당 사태는 이후 덕종 시기에는 실제로 벌어지기도 한다.

일시적인 반란 때문에 조운로가 막히는 것 또한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조정과 대치하는 변진이 조운로가 지나가는 영역 중 일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조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당조가 이러한 변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서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3. 德宗 즉위 이전의 藩鎮 형세

1) 安史의 亂 이후의 反側之地와 ‘河朔舊事’

당 후기 당조에 반발한 변진의 절도사는 대부분 과거 안사의 난 당시 조정에 반기를 들었던 안록산·사사명의 부장 출신이었다. 안사의 난 막바지에 안사 진영 내부에서는 분란이 발생하여 여러 장수들이 조정에 투항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李寶臣·李懷仙·薛嵩·田承嗣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쟁이 종식된 후 이들의 처우를 놓고 고민하던 당조는 여전히 하북 지역에서 실세였던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각각에게 鐵券을 하사함으로써 죽이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¹⁴²⁾ 당조는 또한 이들을 각각 하북에서 절도사로 임명하여 각자의 세력을 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으니 이보신은 成德節度使, 이회선은 幽州節度使¹⁴³⁾, 설숭은 相·衛·洛·邢等州節度觀察使¹⁴⁴⁾, 전승사는 魏博節度使가 되어 하북 전역을 장악하였다.¹⁴⁵⁾ 이들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했던 위박·성덕·유주의 세 변진은 통칭하여 河北三鎮 혹은 河朔三鎮이라 불리며(이하 하북삼진), 이들은 이후에도 당 후기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변진을 대표하는 존재로 남게 되었다.

이로써 안사의 난은 공식적으로 평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조는 안록산과 사사명의 세력이 잔존하는 하북 인근 변진의 할거 경향을 묵인하게 된다. 대종 대력 8년(773) 9월 위박절도사 전승사가 안록산·安慶緒·사사명·사조의 4명을 위한 사당을 세우고 이들을 ‘四聖’이라 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대종이 반역의 무리를 위한 사당을 세운 전승사를 처벌하지 못한 사건은 하북 인근 변진에 대해 당조의 통제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던 현실을 잘 보여준다. 대종은 內侍 孫知古를 파견하여 사당을 허물 것을 명령하고서 10월에 전승사에게 동평장사를 더해줌으로써 포상하였는데¹⁴⁶⁾, 해당 사건은 당시 하북의 변진 수뇌부에 있어 안록산과 사사명이 지니는 중요성과 이들을 최대한 자극하

142) 『舊唐書』 卷142 「李寶臣傳」, pp.3865-3866.

143) 『舊唐書』 卷143 「李懷仙傳」, p.3895.

144) 『舊唐書』 卷124 「薛嵩傳」, p.3525.

145) 『舊唐書』 卷141 「田承嗣傳」, p.3837 ; 『資治通鑑』 卷222 「唐紀」38 代宗廣德元年, p.7141.

146) 『資治通鑑』 卷224 「唐紀」40 代宗大曆八年, p.7222.

지 않는 선에서 안록산·사사명이라는 叛臣의 승양을 막아야 하는 당조의 처지를 확인시켜 준다. 게다가 하북 일대 번진의 수뇌부는 당조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상호 혼인을 채택함으로써 서로 간의 우호를 돈독히 하였고, 이에 당조가 하북 인근에 위치한 번진을 통제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¹⁴⁷⁾

이러한 번진을 통칭하여 反側之地라 하는데, 여기에서 反側은 ‘안정되지 않음’ 혹은 ‘순종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 의미로 반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현전 문헌 가운데 최초의 용례는 『荀子』의 “숨어 도망하면서 안정되지 않은 백성(遁逃反側之民)”이라는 구절이나¹⁴⁸⁾, 반측지지라는 표현 자체는 당대가 되어서야 검출되기 시작한다. 8세기 후반 韓愈는 반측지지를 ‘도적의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였으며¹⁴⁹⁾ 한유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李絳 또한 하북삼진을 반측지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하였으니¹⁵⁰⁾, 안사의 난이 종식된 이후 반측지지라는 표현은 확실히 번진 가운데 조정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반측지지 세력은 하북·하남 및 산둥 일대를 군사·행정적으로 장악하고서 당조에 부세의 上供을 거부하니, 이를 ‘河朔舊事’라 한다. ‘하삭구사’는 ‘河朔故事’ 혹은 ‘河北故事’(이하 ‘하삭구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반측지지에서 통용되는 관습을 의미한다.¹⁵¹⁾ ‘하삭구사’에는 크게 번진의 수장인 절도사를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것, 번진 내의 관리를 임의로 임명하는 권리, 중앙 조정에 호적을 올리지 않고 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행태 등이 포함된다.¹⁵²⁾ 이 가운데 절도사를 번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것은 반측지지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절도사가 사망했을 경우 번진 내에서 차기 절도사 후보자를 留後로 삼고(혹 절도사가 죽기 전 미리 유후를 지정하기도 함) 그를 새로운 절도사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면 조정이 이를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력 8년(773) 하남도 지역의 절도사였던 昭義節度使 설승과 영평군절도사 俞狐彰이 사망한 이후 각 번진이 취한 조치는 반측지지 내에서 차기 절도사를 선임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147) 新見まどか, 「唐代後半期における‘華北東部藩鎮連合體’」, 『東方學』123, 2012, p.12.

148) 『荀子集解』(王先謙 ; 沈嘯寰·王星賢 整理, 『荀子集解』, 北京: 中華書局, 2012) 卷5 「王制」, p.148.

149) 『韓昌黎文集校注』(韓愈 ; 馬其昶 校注, 『韓昌黎文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卷8 「論變鹽法事宜狀」, p.652.

150) 『李相國論事集校注』 卷3 「又上鎮州事」, p.88

151) 大澤正昭, 「唐末の藩鎮と中央權力 - 德宗·憲宗朝を中心として -」, pp.147-148.

152) 『舊唐書』 卷141 「田承嗣傳」, p.3838.

대력 8년(773) 소의절도사 설숭이 사망한 후 그의 아들 薛平이 유후를 맡게 되는 과정은 사료에서 ‘하삭구사(河北故事)’가 언급된 최초의 사례로, 당시 번진의 구성원들은 관습을 이유로 설숭의 아들 설평에게 유후를 맡게끔 협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설평의 나이는 불과 12세로, 그는 거짓으로 유후가 될 것을 승낙한 뒤 숙부 嶺에게 절도사 직을 ‘양위’하고서 조정에 귀순하였다.¹⁵³⁾ 대종이 황제로 있던 보응 2년(763) 안사의 난이 진압되고서 반측지지에 해당되는 번진들이 공식적으로 성립되었고 설숭이 사망한 시점은 안사의 난이 종식된 지 불과 10년 후임을 감안하면, 반측지지의 장병들은 안사의 난 종료 시점에 이미 차기 절도사의 번진 내 선임을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영평군절도사 영호창 또한 대력 8년(773)에 사망하였는데, 그의 경우 사후 처리에서 설숭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영호창은 본래 안록산의 부장 출신으로, 안사의 난이 진행 중이던 上元 2년(761) 조정에 귀순한 인물이었다.¹⁵⁴⁾ 귀순 당시 영호창은 안사 진영에서 滑州刺史를 맡고 있던 중진 장수였기 때문에 숙종은 그를 절도사로 삼아 병력을 맡기고 안사 진영에 맞서게끔 하였으며, 안사의 난이 평정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영평군절도사로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는 사망하는 대력 8년(773) 조정에 遺表를 남겨 절도사 직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대신 조정에서 劉昫 혹은 李勉을 후임 절도사로 보내줄 것을 청하는 의외의 결정을 내렸고, 조정에서는 이면을 그의 후임 절도사로 파견함으로써 그의 요청을 받아들인다.¹⁵⁵⁾ 다만 해당 과정은 결코 순조롭지 않았다. 영호창이 사망한 후 영평군의 장병들은 영호창의 장자 令狐建에게 곧바로 후임 절도사로서 임직할 것을 강요하였는데¹⁵⁶⁾, 이는 같은 해 사망한 설숭의 아들 설평이 유후를 담당하게끔 압박을 받은 것과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호건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를 거부한 뒤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장안으로 귀순하였고¹⁵⁷⁾, 이러한 영호건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조는 해당 번진의 반측화를 막고 직접적으로 통치할 수 있게 되었다.

영호창이 사망 당시 보인 행보는 30여년 이후인 원화 연간 다시금 조정에서의 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원 5년(789) 영호창의 장자 令狐建은 무고한 자를

153) 『舊唐書』 卷124 「薛平傳」, p.3526.

154) 『舊唐書』 卷10 「肅宗本紀」, p.261.

155) 『舊唐書』 卷11 「代宗本紀」, pp.301-302.

156) 『舊唐書』 卷124 「令狐建傳」, p.3530.

157) 『資治通鑑』 卷224 「唐紀」40 代宗大曆八年, p.7220.

죽인 사건으로 인하여 施州別駕同正으로 폄직되었다가 거기에서 죽었고¹⁵⁸⁾, 셋째 아들¹⁵⁹⁾ 令狐運은 전운되던 비단을 빼앗았다는 혐의로 歸州에 유배되었는데 후에 진범이 잡혀 영호운은 무죄임이 입증되었음에도 그는 귀주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 그 곳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다.¹⁶⁰⁾ 영호건의 경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지만, 영호운은 본인의 무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주에서 풀려나지 못하였는데, 여기에는 그의 죄라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사람이 후에 東都留守까지 역임한 杜亞와 재상을 지낸 張弘靖이라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던 듯하다.

이에 현종 시기 영호창의 아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둘째 아들인 令狐通뿐으로, 이는 반측지지를 회유·공격함으로써 조정에 복속시키려는 현종에게 있어 그리 긍정적인 지표일 리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 재상이었던 李吉甫는 살아있는 영호통을 불러 상을 줌으로써 반측지지의 절도사들에게 회유의 뜻을 전하자며 영호창의 귀순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신이 앞드려 보건대 대종 시기의 滑州節度使 영호창은 임종 당시 표를 올려 토지·병갑·호적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며, 자신의 아들을 표문과 함께 조정에 귀순하게 하였습니다. 대종 황제께서는 영호창의 유표를 백료에게 보이셨으니 당시 관위에 있던 자가 이를 듣고 감탄하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둘째 아들 영호통이 살아있습니다. 신은 매번 동 시기 하삭의 여러 변진들이 (절도사 자리를) 자손에게 전해주어 몇대를 세습하지 않은 바가 없었는데도, 오직 영호창만이 충의로써 감격하여 나라를 받들며 집안을 돌보지 않고 아들을 보내어 입조하며 토지

158) 『舊唐書』 卷124 「令狐建傳」, p.3531.

159) 『舊唐書』의 순서에 따르면 令狐運이 次子이고 令狐通이 三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하의 인용문에서 李吉甫는 令狐運을 ‘어린 자식(幼子)’로 표현하고 令狐通을 次子로 표기하였으며, 이는 『新唐書』의 기록에서도 마찬가지이다.(『新唐書』 卷148 「令狐彰傳」, pp.4766-4767) 본고에서는 令狐彰이 귀순한 시점에 이를 직접 목격한 李吉甫의 진술이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 이에 따라 令狐通을 次子로, 令狐運을 三子로 기재하였다.

160) 『舊唐書』 卷124 「令狐運傳」, p.3531. 令狐運이 歸州로 配流된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나, 그 후 몇 년 뒤 齊抗이 진범인 郭鶴과 朱瞿曇 등을 잡았다고 한 기록을 통하여 그 시점을 추측해볼 수 있다. 權德輿가 작성한 齊抗의 神道碑에 따르면 齊抗이 진범을 잡은 것은 그가 河南尹이던 시절로(『權德輿詩文集』(權德輿 撰, 『權德輿詩文集』(全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卷14 「唐故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太子賓客贈戶部尚書齊成公神道碑銘」, p.225), 令狐運이 歸州로 配流된 시점은 齊抗이 河南尹이 된 貞元 10년(『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378)보다 조금 이른 시기였을 것이다.

를 선제계 돌린 것에 매번 감탄합니다... 정원 연간에 장자 영호군은 죄에 걸려서 시주에서 죽었고 어린 아들이었던 영호은 또한 죄도 없이 귀주에 유배되었으니, 충의한 사람을 부리고자 하여도 무엇으로써 격려하며 권하겠습니까? 지금 영호통이 다행히도 생존해 있어 밝은 성인의 때를 만났으니, 엿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그를 불러 더불어 말을 나누고 일을 맡기어 기용하시며 獎錄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종은 영호창의 충성을 기억하고 곧 영호통에게 贊善大夫를 제수하고 宿州刺史로 삼아 출임시켰다.¹⁶¹⁾

이길보는 영호창이 사망한 대종 시기 과거 안사 진영 출신의 절도사들이 절도사 직을 내부 승계하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논하며, 예외적으로 조정에 귀순한 영호창의 사례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논한다. 대종이 영호창의 유표를 신료들에게 보여주자 당시 사람들이 그의 조정에 대한 충의를 보며 감탄하였다는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황제가 영호창의 행동에 이런 태도를 보일 정도로 여타 반측지지의 절도사 내부 승계는 대력 8년(773) 당시 이미 지극히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즉 대종 시기 ‘하삭구사’의 관습은 전적으로 조정의 통제 영역 밖에 있는 영역에 속하는 일이었으며, 조정은 반측지지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덕종이 즉위하기 직전인 대력 14년(779)에도 2월 위박절도사 전승사의 사망 이후 田悅이 위박절도사 직을¹⁶²⁾, 같은 해 3월에는 李希烈이 회서절도사 이충신을 축출하고 조정으로부터 회서절도사 직을 추인받을 정도로 절도사의 내부 승계는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니, 덕종이 즉위하던 즈음 황제가 절도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평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¹⁶³⁾

물론 조정에 순응하는 번진도 없지는 않았다. 당조는 과거 안사 진영 출신이 절도사로서 ‘하삭구사’를 행하는 반측지지 이외의 지역에서 부세를 거두고 해당 지역에서 병력을 운용하며 반측지와 맞서는 등 여러 번진을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였다. 이 때문에 번진은 반측지지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번진의 유형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당대의

161) 『舊唐書』 卷124 「令狐通傳」, pp.3531-3532.

162) 『舊唐書』 卷11 「代宗本紀」, p.315.

163)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3.

인물로는 杜牧(803-852)을 들 수 있다.

2) 代宗 시기 河南·淮南道の 藩鎮 상황

杜牧이 大和 7년(833) 작성한 「戰論」은 당 후기의 변진 문제를 개괄한 문장으로, 비록 덕종 시기 이후의 글이기는 하나 대종·덕종 시기 이래 당 후기 조정에 있어 변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며 그 양상은 어떠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다. 강남서도에 위치한 宣州의 團練判官이었던¹⁶⁴⁾ 두목은 당시 조정의 변진 정책이 고식에 치우쳐져 있다고 여겨 불만을 품었다.¹⁶⁵⁾ 이에 두목은 여러 글을 지어 반측지지가 발호한 원인을 府兵制의 폐지에서 찾고¹⁶⁶⁾ 변진의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를 대종과 덕종이 반측지지에 대해 고식적인 대응에 급급했기 때문이라 하며¹⁶⁷⁾ 조정의 정책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두목은 자신이 국가의 대사를 논할 위치가 아니므로 변진 등에 대한 글을 쓰는 행동이 실로 죄를 짓는 것이라 하며 「罪言」을 지었는데¹⁶⁸⁾, 「죄언」에서 두목은 이미 하북의 변진들이 70여 년간 반독립적인 지위를 누려온 당시의 상황에서 하북의 변진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논한다. 이에 두목은 하북의 변진들에게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상책이며 위박 변진을 공격하는 것이 중책이나, 전쟁을 그만두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¹⁶⁹⁾

두목이 하북의 변진들에게 자치를 허용하는 편이 상책이라고 여긴 이유는 반측지지로 분류되는 변진들 또한 선제적으로 당조를 공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북삼진의 경우 많은 병력을 지닌 강성한 변진이었지만, 변진 내의 생산력만으로는 이들 병력에게 제공할 충분한 군량과 의류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 변진은 재정 운영에 있어 조정의 보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적지 않았고¹⁷⁰⁾, 특히 가장 북쪽에 위치하여 奚·契丹 등 이민족과 지속

164) 『新唐書』 卷166 「杜牧傳」, p.5093.

165) 『資治通鑑』 卷244 「唐紀」64 文宗大和七年, p.7886.

166) 『樊川文集』(杜牧 撰, 『樊川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8) 卷5 「原十六衛」, pp.89-90.

167) 『樊川文集』 卷5 「守論」, pp.94-95.

168) 『樊川文集』 卷5 「罪言」, pp.86.

169) 『樊川文集』 卷5 「罪言」, pp.87-88.

170) 馮金忠, 『唐代河北藩鎮研究』, 北京: 科學出版社, 2012, pp.15-17.

적으로 전쟁을 치렀던 유주 번진의 경우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조정의 보급이 매우 중요하였다.¹⁷¹⁾ 그런 까닭에 하북삼진 또한 당조와 대립함으로써 중대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 또한 굳이 당조와 적대할 이유는 없었으니, 당조가 하북삼진에게 자치를 허용한다면 하북에 반측지지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방 상에 심대한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터였다. 두목이 하북의 번진들에게 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주장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두목의 「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측지지와 전쟁을 벌여 여기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거론한 글로, 그 과정에서 두목은 번진을 군사와 군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유형화함으로써 당시의 사람들 뿐 아니라 후대의 연구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하북은 천하를 마치 진주 구슬과 같이 보고, 천하는 하북을 마치 四肢와 같이 본다. 진주 구슬은 만약에 없어도 어찌 몸이 살 수 없겠나마는, 사지가 만약에 제거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람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천하에 하북이 없으면 안 되니, 하북이 오랑캐가 된다면 곧 정교한 갑옷, 용맹한 병졸, 날카로운 칼, 좋은 활과 긴장한 말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천하의 첫 번째 팔다리인 병력이 제거되는 것이다. 河東·盟津·滑臺·大梁·彭城·東平에는 모두 많은 병사들이 숙위하여 하북의 공격을 막고 있으니, 이는 6군의 병사들이 철저히 경계하고 강역을 수호함으로써 인하여 다른 곳에 쓸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이것이 천하의 두 번째 팔다리인 병력이 제거되는 것이다. 6군의 군사들은 그 수가 30만인데 고개를 숙이고서 보급만을 바라며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회수 이북 황하 이남으로 동쪽으로는 바다에서 서쪽으로는 낙양에 이르는 몇 천리에 달하는 지역이 황폐화되도록 재물을 모조리 취하여야 겨우 그 군비를 댈 수 있으니, 이것이 천하의 세 번째 팔다리인 재물이 제거되는 것이다. 함양 서북쪽에는 戎夷가 크게 주둔하여 위협하는 소리를 지르며 누린내를 풍기고 있어 이것이 황제의 거처까지

171) 馬馳, 「唐幽州境僑置羈縻州與河朔藩鎮割據」, 『唐研究』4, 1998, pp.209-211. 幽州 번진(盧龍軍)의 경우 하북삼진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접한 奚·契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능력이 뛰어난 절도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 때문에 유주 번진은 절도사가 대를 이어 세습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松井秀一, 「盧龍藩鎮攷」, 『史學雜誌』68-12, 1959)

통하는데도 周·秦의 외로운 군대는 이를 물리칠 수 없어 이에 吳·越·荊·楚의 풍요함을 깎아먹으면서 수졸들을 먹이고 있으니, 이것이 천하의 네 번째 팔다리인 재물이 제거되는 것이다.¹⁷²⁾

두목의 견해에 따르면 당시 당조의 강역은 크게 반촉지지가 위치한 하북, 하북을 둘러싸고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하동과 하남, 토변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은 서북변, 방어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재원으로서의 장강 중하류의 네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두목이 묘사한 번진들의 전반적인 형세는 안사의 난 이후 두목의 서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당 말기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張國剛이 이 기록에 의거하여 당 후기의 번진을 크게 河朔割據型, 中原防遏型, 邊疆禦邊型, 東南財源型으로 유형화한 것 또한 두목이 제시한 번진 유형의 큰 틀이 여러 번진의 기능적 차이를 이해하기에 유용하였기 때문이다.¹⁷³⁾

다만 두목이 해당 글을 작성한 시점인 大和 7년(833)은 당조가 덕종과 현종 시기를 거치며 누차에 걸쳐 번진을 토벌한 이후로, 대종·덕종 시기에는 大和 7년에 비하여 반촉지지의 수가 더 많았다. 반촉지지의 영역이 보다 넓었다는 사실은 곧 이들에 대항하기 위한 번진의 수도 더 많았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차이는 특히 하남도와 회남도 인근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다. 때문에 덕종 시기의 번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는 두목의 번진 유형화에 따르더라도, 하남도·회남도에서 반촉지지 및 이들과 군사적으로 대립했던 번진들의 영역이 어떠한지는 살펴보는 편이 좋겠다.

대중이 사망하고 덕종이 황제가 된 대력 14년(779)에는 하북의 번진 외에도 오늘날 산둥 지역의 평로 번진, 襄州를 치소로 한 산남동도 번진까지도 반촉지지에 속하였다. 때문에 덕종이 즉위하는 시점에 당조는 오른쪽 지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 : 문종 시기의 반촉지지(하북삼진)
 ■ : 대력 14년의 반촉지지
 ■ : 절도사가 내부 교체된 회서 번진
 <圖-4. 대력 14년(779) 하남도·회남도에 위치한 번진의 성향>

172) 『樊川文集』卷5「戰論」, pp.91-93.

173) 張國剛, 『唐代藩鎮研究』, pp.43-45.

하북 외에도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에 대한 방어를 위해 상시 병력을 주둔시켜야 했다. 게다가 회서 번진의 경우 대력 14년에 기존의 절도사 이충신이 내부 병란으로 인해 쫓겨나고 이희열이 새로운 절도사로 취임하는 등 안정되지 않은 상태였다.¹⁷⁴⁾ 때문에 덕종이 즉위하였을 때 당조는 두목이 글을 작성한 大和 7년에 비해 반죽지지를 수비하기 위한 전선이 더 길었으며, 이를 위해 투여되는 병력과 물자의 양 또한 더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중·덕종 시기는 문종 시기에 비하여 토번이 보다 강성하던 시점으로, 광덕 원년(763) 토번은 당조를 공격하여 경사인 장안을 점령하고 廣武王 承宏을 황제로 앉힐 정도로 당조를 위협할 수 있었다.¹⁷⁵⁾ 때문에 대중은 서북 변경 지역에도 상당한 양의 병력과 물자를 투여해야만 했고, 이처럼 이후 시기보다 더 많은 물자를 필요로 하던 당조가 현실적으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은 張國剛이 東南財源型 번진으로 분류된 장강 중하류 지역 뿐이었다. 물론 장안이 위치한 관중 일대 또한 농경이 발전한 지역으로 그 생산량이 적지는 않았으나, 지력의 쇠퇴와 지나치게 많은 인구로 인하여 수·당대 관중의 생산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식량을 충당하기에도 충분치 않았다. 수대에서 당 전기 황제들이 식량난의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낙양으로 就食한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개황 14년(594) 관중에 가뭄이 들자 수 문제가 낙양으로 취식하러 갔다는 기사가 있으며¹⁷⁶⁾, 당 고종 또한 누차에 걸쳐 식량을 구하러 낙양에 행차한 바 있었다. 함형 2년(671) 정월, 고종은 동도 낙양으로 향하며 황태자를 경사에 남겨 감국하게 하였다.¹⁷⁷⁾ 고종이 낙양으로 향한 이유는 관중 일대에 가뭄이 들어 곡물이 부족한 상황을 맞았기 때문으로¹⁷⁸⁾, 고종은 이듬해인 함형 3년(672) 10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장안으로 돌아왔다.¹⁷⁹⁾ 永淳 원년(682)에 재차 기근이 들자 고종은 다시 낙양으로 향했는데, 당시 곡물의 가격이 비싸다보니 황제의 호종병을 줄일 정도로 장안의 식량 공급은 원활하지 않았다.¹⁸⁰⁾ 현종 시기까지도 당조의 황제들은 관중 지역에 기근이 들 경우 안정적인 곡물 수급을 위하여 낙양으로 행차하는 경우가 잦았

174)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3.

175)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5237.

176) 『隋書』 卷2 「高祖本紀」下, p.39.

177) 『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p.95.

178) 『冊府元龜』 卷110 「宴享」2, p.1196.

179) 『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p.97.

180) 『舊唐書』 卷5 「高宗本紀」下, p.109.

고, 조운로가 정비되기까지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었다.

다만 현종 시기에 강희 지역에서 조운로를 통하여 많은 양의 곡물을 수급한 것과 달리, 안사의 난 이후 강희 지역을 넘어 당조 전체 수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¹⁸¹⁾ 평가받는 鹽 전매 수익은 대부분 布帛으로 折納되어 운송된 것으로 보인다.¹⁸²⁾ 덕종 시기 이후에는 동전의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현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錢重貨輕’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정원 2년(786)에는 양세전을 동전의 형태로 직접 수송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당시 韓滉이 거절의 이유로 밝혔듯 동전은 수송 비용이 현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기에 동전의 직접 수송 제안은 현실화되지 못하였다.¹⁸³⁾ 이후 정원 12년(796) 당시 河南尹이었던 齊抗이 덕종에게 올린 글은 백성들이 생산한 포백이 동전 단위로 환산되어 징수되는데, 정작 수송할 때에는 다시 포백의 형태로 운송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어 결국 양세전은 포백으로 절납되어 운송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¹⁸⁴⁾ 물론 정원 15년(799)과 같이 가뭄이 있는 경우 곡물 조운의 양을 늘리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덕종 말기에서 현종 초기에 이르는 시기 조운로를 통해 수송되는 곡물의 양은 4~50만석 정도로¹⁸⁵⁾ 현종 천보 2년(743) 당시 400만석에 달하던 곡물 조운량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안사의 난 이후 당조의 재정 운용에 있어 조운된 포백은 和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원이었고, 조정은 이를 활용하여 각지의 변진들에게 보급을 진행해야 했다.¹⁸⁶⁾ 특히 여러 반측지와 인접하여 전쟁을 벌이던 대종·덕종 시기에는 회남도·하남도·산남동도의 변진들이 조정에 상공할 여력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당조는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수급한 제한된 물자를 바탕으로 많은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보급해야 했다. 게다가 방어전을 넘어서 반측지를 공격해야 할 경우 조정은 기존의 3배에 달하는 물자를 出界糧이라는

181) 『新唐書』卷54「食貨志」4 鹽稅, p.1378.

182) 船越泰次, 『唐代兩稅法研究』, pp.133-138 ; 李俊衡, 「唐 玄宗 時期 運河 利用과 그 性格 -江淮 漕運의 樣相을 中心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27, 2012, pp.339-341.

183) 『舊唐書』卷129「韓滉傳」, pp.3601-3602.

184) 『新唐書』卷52「食貨志」2, p.1358.

185) 『冊府元龜』卷498「邦計部」漕運, p.5663.

186) 軍費로 들어가는 물자는 크게 糧과 衣로 나눌 수 있는데, 衣賜의 보급은 기본적으로 唐朝가 책임을 져야 했던 영역이었으며(清木場東, 『帝賜의 構造 -唐代財政史研究 支出編-』, 福岡: 中國書店, 1997, pp.481-483) 변경 지역 및 전쟁 중인 지역에 위치한 藩鎮의 경우 朝廷에서 보급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和糴으로써 모자란 軍糧을 충당해야 했다.(丸橋充拓, 『唐代北邊財政の研究』, pp.38-39)

명목으로 제공해야 했기에 조정의 재정적 부담은 대단히 컸다.¹⁸⁷⁾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살펴보았듯 대령 14년까지 당조가 강회 조운로마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니, 대종 시기까지 당조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당조는 서북방에 위치한 인접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서북 변경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였는데, 앞서 두목이 언급하였듯 이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조는 지속적으로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부세로 거둔 물자를 소모해야만 했다.¹⁸⁸⁾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절을 바꾸어 서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187) 『資治通鑑』 卷228 「唐紀」44 德宗建中四年, p.7346.

188) 『冊府元龜』 卷487 「賦稅」, p.5532. 물론 서북 변경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중 일부는 劍南道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기에, 조정이 조운로를 통해 확보하여 지원하는 물자만으로 군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賈志剛, 『唐代軍費問題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pp.157-159)

4. 吐蕃·위구르와의 軍事·外交 문제

대중에서 덕중에 이르는 시기 당조의 인접국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성한 국가로는 토번과 위구르, 그리고 南詔를 들 수 있다. 이는 『신당서』 외국전의 서두에 위치한 「突厥傳」의 다음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적들이 중국의 근심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다. (당조)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일은 史家들이 능히 기록할 수 있었다. 당조가 일어난 이래로 만 이들이 번갈아가며 번성하고 쇠퇴하였는데, 일찍부터 중국과 대적한 것이 넷 있었으니 突厥·토번·위구르·雲南(南詔)이 이것이다.¹⁸⁹⁾

돌궐은 외국전의 서두에 기록된 북방의 강자로서 당조를 위협한 유목제국이였다. 하지만 현종 즉위 이후 당조가 돌궐에 공세를 취하자 돌궐 내부의 유목 부락들이 반발하며 돌궐은 내부 분열하게 되었고, 이를 틈타 당조는 고비 사막 이남을 확보함으로써 돌궐에 타격을 가하였다. 점차 쇠약해진 돌궐이 주변의 유목 부락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자 돌궐 지배 집단은 남하하여 당조에 투항하였고, 위구르가 돌궐을 대신하여 유목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¹⁹⁰⁾

돌궐이 멸망한 당 후기가 되면 당조의 중요한 외교 상대로는 크게 토번, 위구르, 남조가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당조는 이들 인접국에 비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기미지배의 파국 이후 당조와 인접국의 외교는 다소 수평적인 관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¹⁹¹⁾ 이에 당조는 이들과의 군사적인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견마무역 등을 통하여 화호를 시도하거나 더 나아가 會盟과 같은 敵國之禮까지 활용함으로써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토번과 위구르는 특히 세력이 강대하여 여타 국가와는 달리 大蕃의 禮가 적용되었으며¹⁹²⁾, 지리적으로도 경사인 장안과 국

189) 『新唐書』 卷215上 「突厥傳」上, p.6023.

190) 丁載勳,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 아사나 권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파주: 사계절, 2016, pp.558-577.

191) 동북아역사재단, 『舊唐書 外國傳 譯註(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0)』下,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p.331.

192) 金宗燮, 「唐 大明宮으로 본 대외 관계 - 정전과 편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77, 2019, pp.11-16. 唐朝는 외국을 크게 大蕃과 小蕃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外交儀禮 또한 달리하였다. 해당 분류법 상 大蕃으로는 突厥·吐蕃·위구르가 있고, 나머지는 小蕃에 해당한다.

경선이 가까웠기 때문에 당조는 외교·군사적으로 이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였으므로 당 후기 외교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조와 토번·위구르 간의 관계를 논할 필요가 있다.

당조와 토번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지속적인 전쟁을 벌였는데, 양국 간의 주요 분쟁 지역은 河西回廊을 비롯한 육상 교통로였다. 咸亨 원년(670) 토번이 安西都護府의 영역을 함락시키자 당조는 長壽 2년(693) 재차 安西四鎮을 탈환하는 등 양국은 일진일퇴를 반복하였다. 현종 시기에도 토번과 당조는 지속적으로 충돌하였으며, 이에 개원 18년(730) 양국은 赤嶺에 경계를 나누는 비를 세우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를 약조하기도 한다.¹⁹³⁾ 다만 토번이 당조에 적국 지레를 요구하자 현종이 분노한 것에서 보듯, 이 시점까지 당조는 토번에 비해 자신이 우세하거나 최소한 열세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¹⁹⁴⁾

안사의 난은 이러한 상황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조는 하북을 중심으로 한 안록산 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서북 변경을 담당하던 하서와 隴右의 병력을 동원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조의 서북 변경 방어는 취약해졌다.¹⁹⁵⁾ 토번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하서 지역을 공격하였고, 『구당서』는 토번이 이 때 鳳翔의 서쪽과 邠州의 북쪽을 모두 점령하였다고 기록하였다.¹⁹⁶⁾

토번의 세력이 강대해지는 것에 반하여 당조는 안으로는 반측지지와 맞서면서 토번과는 일부 병력만으로 지속적인 전쟁을 벌여야만 했다. 안사의 난 이후 토번이 처음으로 화친을 제의해온 숙종 至德 元年(756)의 경우, 당조는 이미 토번에 많은 영토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하지 않은 채 토번의 방식에 따라 鴻臚寺에서 세 가지 희생의 피를 마시는 등 낮은 자세로 토번과의 강화 예식을 치러야 했다.¹⁹⁷⁾ 당조가 이만큼이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결국 토번과 반측지지 모두와 동시에 전쟁을 벌이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토번은 대종이 즉위한 후 장안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등 오히려 공세를 강화함으로써 당조를 곤경에 빠뜨렸다.

대종 광덕 원년(763) 토번은 당조를 공격하여 장안을 점령하고 광무왕 승평을 황제로 앉혔다.¹⁹⁸⁾ 한문 사료는 광덕 원년 당시 전쟁이 발발한 원인을 명

193)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5231.

194)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5229.

195) 『舊唐書』 卷40 「地理志」3 安西大都護府, p.1647.

196)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5236.

197)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p.5236-5237.

198)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5237.

확히 기록하지 않았으나, 토번 입장에서 기록된 藏文 사료에서는 그 원인이 숙종 시기에 약조된 세폐를 대종이 바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 속한 많은 주와 요새들이 정복되었다. 중국의 황제 숙종과 그의 대신들은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세폐로 비단 50,000필을 바쳤다. 중국은 공물을 바치도록 강요당하였다. 이후에 황제 숙종이 죽고 그의 아들 廣平王(대종)이 제위를 계승하였는데, 그는 토번에 세폐를 바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지 않았다. 찬보가 이에 분노하자, 딱다루콩이 앞장서서 중국의 중심이자 황제가 있는 京師(장안)의 궁전을 공격할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토번인들은 그들을 도망치게 하였으며 많은 중국인들이 죽었다. 중국의 황제 광평왕은 경사를 떠나 陝州로 도망쳤다.¹⁹⁹⁾

겨울 말, 당의 황제가 죽었고 새로운 군주가 세워졌는데, 그는 계속 비단을 보내고 토지를 할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당의 臨洮·成州·河州 등의 성채 여러 곳을 공격하였고, 상꺄식은 다시 토번의 땅으로 돌아왔다. 상꺄식·딱다루콩·상땡젠·상꺄바 등의 사람들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경사에 이르자 경사가 함락되었다. 당의 황제는 도망쳤고, 이에 새로운 군주를 세우고 강한 군대는 돌아갔다.²⁰⁰⁾

199) Richardson, Hugh, *A corpus of early Tibetan inscriptions*,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1985, pp.12-15. 인용된 본문은 설 碑(The lhasa zhol rdo-rings)의 일부로, 남·북·동 3면에 남아 있는 비문 중 인용부는 남면에 기록되어 있다. 해당 비는 오늘날에도 포탈라궁 앞에 세워져 있으며, 贊普 티송테젠(khri srong-lde brtsan, r.755-796) 시기 연구를 위한 중요한 史料 중 하나이다. Richardson은 비문 내 딱다루콩의 官職에 의거하여 해당 비문이 기록된 시기를 764년 즈음으로 비정하였다.(Richardson, Hugh, *A corpus of early Tibetan inscriptions*, pp.1-2)

200) 『大事紀年』(王堯·陳踐 譯註, 『敦煌本吐蕃歷史文書』, 北京: 民族出版社, 1992), p.156. 『大事紀年』은 敦煌에서 출토된 P.T.1288 문서와 OR.8212 문서를 총칭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Old Tibetan Annals*라는 제목으로 표기된다. 『大事紀年』은 A.D.641에서 765년에 이르는 기간의 吐蕃 역사를 연대기 식으로 정리한 史料로, 해당 시기 吐蕃의 역사를 살펴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史料라고 할 수 있다.(Brandon Dotson, *The Old Tibetan annals :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ibet's first history*, Wien: Verlag der o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9, pp.9-16) 특히 『大事紀年』에는 代宗 시기 吐蕃과 唐 간의 갈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 史料는 특히 代宗 시기 吐蕃史 연구에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상기 사료에 따르면 토변이 당조를 공격한 이유는 대종이 숙종 시기에 약조한 세폐를 보내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으로, 토변이 장안을 점령한 이유는 당조에 자신의 무력적 우위를 과시함으로써 세폐를 보낼 것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영태 원년(765) 토변이 재차 醴泉縣을 공격하자 경사의 사람들은 크게 놀라 도망할 정도였으니²⁰¹⁾, 대종 시기 양국 간의 관계에서 토변이 당조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물론 당조는 앞서 토변에 金城公主를 和蕃公主로 보낸 바 있어 양국 간의 관계는 명목상 舅甥 관계이긴 하였으나²⁰²⁾, 이는 당조와 토변이 수평적인 예를 취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장인’인 당조가 ‘사위’인 토변에 비해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건중 2년(781) 12월 토변이 당조가 보낸 국서 상의 격식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록은 덕종 초기 양국 간 구생 관계의 실질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끔 한다.²⁰³⁾ 토변은 칙서의 격식에 있어 당이 토변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표기한 표현 일체에 대해 지적하며 이를 최대한 수평적인 표현으로 바꾸기를 요구하였고, 당조 또한 이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칙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토변이 당조와의 관계가 구생 관계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국서에 있어 수평적인 표현을 써야만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덕종 초기 양국 간의 구생 관계는 한 쪽의 우위를 허용하지 않는 수평적인 관계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당조는 토변에 해당 문제의 책임을 재상 楊炎의 탓으로 돌리며 격식 상의 문제가 본의가 아니었음을 변명한다. 양염이 앞선 10월 崖州司馬로 폄직되었다가 사사되었기 때문에²⁰⁴⁾ 당조로서는 그에게 해당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국의 전임 재상에게 책임을 지우는 언사는 당시 당조가 토변과의 관계에 있어 결코 우위에 서 있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안사의 난 이후 당조는 토변과의 관계에 있어 수세에 몰려 있었고, 이 때문에 서북 변경에 적지 않은 병력을 파견해야만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당조는 내부의 반측지지까지 막아야 했기 때문에 서북 변경에 충분한 수의 병력을 파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력 9년(774) 延英殿에서 대종에게 삭방절도

201)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5240.

202)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5227.

203)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5246.

204)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0.

사 郭子儀가 당조의 서북 변경 방어에 대해 논한 아래 내용은 당시 당조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대력) 9년 (곽자의가) 입조하자 대종이 연영전에서 召對하였다. 말이 西蕃(토번)의 무리가 늘어나 고전하며 겨울이 없음에 이르자 말을 하면서 눈물을 떨어뜨렸다. 물러난 뒤에 다시 토번에 대비함의 이해를 논하는 글을 봉하여 올려 이르렀다. “삭방은 나라의 북문으로 서쪽으로는 견용을 막고 북쪽으로는 험윤을 경계하니 다섯 성이 서로 3천여리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원·천보 연간에는 전사가 10만에 전마가 3만으로 겨우 (변경의) 한 모퉁이를 상대할 뿐이었습니다. 선대 황제(숙종)께서 靈武로 피난하시면서부터 전사들은 폐하를 따라 양경을 수복하였으며 동서남북에 평안한 해가 없었습니다. 중간에는 僕固懷恩의 반란으로 인하여 또 병력이 소모되고 흩어지게 되어 사람은 3분의 2가 없어졌으니, 천보 연간에 비하면 10분의 1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토번의 무리는 늘어나 그 세력은 10배나 강해졌으며, 河·隴의 땅을 겸병하고 羌·渾의 무리를 섞어 매년 근교를 와서 엿봅니다. 삭방의 10분의 1로 줄어든 군사도 토번의 10배로 늘어난 기병을 상대하려 하니, 제압하여 이기고자 하여도 어찌 쉽게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밖에는 토번의 강한 병력이 있고 나라 가운데에는 배반하여 흔드는 무리가 있으니, 나라의 안팎을 두려워하면 장차 무엇으로써 안정을 찾겠습니까?²⁰⁵⁾

곽자의는 장안의 서북면 방어의 중책을 띤 삭방군의 병력은 현종 천보 연간의 1/10에 불과한 반면, 토번의 세력은 천보 연간에 비하여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고 서술한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전임 삭방절도사였던 복고회은의 반란으로 인하여 삭방군의 병력이 줄어든 데에서도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당조가 ‘나라를 배반하여 흔드는’ 반측지지 세력에 동시에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대종 시기 당조는 토번에 대해서도, 그리고 반측지지 세력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고식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곽자의의 기술에서도 드러나듯 대종 시기는 당조가 약체화된 시점이었던 동

205) 『舊唐書』 卷120 「郭子儀傳」, pp.3464-3465.

시에 토번의 전성기이기도 했다. 대종 재위 당시 토번의 찬보는 티송데젠(khri srong lde btsan, r.755-797)으로, 그는 선대 찬보였던 티데쑤젠(khri lde gtsug btsan, r.704-755)과 금성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다. 티송데젠은 후대의 藏文 사료에서 종교·의학·내정·군사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받는 군주이다.²⁰⁶⁾ 티송데젠은 적극적 불교 진흥 정책을 펼쳐 불교를 토번의 국가 종교로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²⁰⁷⁾, 재위 시기 동안 군사 면에서도 당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종 시기에 당조가 위구르와의 화친을 통하여 토번을 막아내려는 시도를 계속한 것은 이처럼 당시 토번이 강성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종 사후 위구르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지닌 덕종이 황제가 되면서 당조와 위구르 간의 우호 관계는 붕괴되고 당조의 외교 정책 또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안사의 난 이래 당조와 토번·위구르 간 외교 관계에는 곡절이 있었으나, 대종 시기까지 당조는 토번보다는 위구르와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광덕 원년(763) 7월, 당조는 안사의 난 당시 당조를 도와 직접 참전하였던 위구르의 可汗을 頡咄登密施合俱緣英義建功毗伽可汗으로, 可敦을 娑墨光親麗華毗伽可敦으로 책하였고 可汗 및 左·右殺 등에게 모두 실봉 2만호를 더해주면서 양국 간의 관계를 다졌다.²⁰⁸⁾ 그 직후 可敦의 아버지였던 삭방절도사 복고회은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위구르가 참전하면서 일시 양국 간의 관계는 경색되었으나, 광덕 2년(764) 9월 복고회은의 사망 이후에 위구르 측은 각자의와 만나 재차 당조와 강화하고 오히려 토번 세력을 공격하는 등²⁰⁹⁾ 당조와 위구르 관계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대력 4년(769) 5월에 당조에서 복고회은의 딸을 崇徽公主로 삼아 위구르의

206) 최소영,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譯註와 연구』,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9, pp.165-190. 티송데젠은 文殊菩薩의 화신이었다 하여 송젠 감뵤(srong btsan sgam po, r.617-650)에 이은 法王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티송데젠이 즉위 초부터 佛教 진흥 정책을 편 것과는 관련되어 있다.

207) 『贊普傳記』(王堯·陳踐 譯註, 『敦煌本吐蕃歷史文書』), p.167. 『贊普傳記』는 敦煌에서 출토된 P.T.1286 문서와 P.T.1287 문서를 총칭하는 것으로, 영어로는 *Old Tibetan Chronicle*이라는 제목으로 표기된다. 근래 中國에서는 해당 문서를 『吐蕃王臣傳記』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으나(朱麗雙, 『贊普掘松德贊之勳績』 -P.T.1287 第10節譯釋-, 『敦煌學輯刊』2019-4, p.72), 해당 연구 또한 王堯·陳踐의 譯註本을 근간으로 한 것인 만큼 본고에서는 해당 문서의 제목으로 『贊普傳記』를 채택하였다. 해당史料는 각 贊普 별로 吐蕃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여 吐蕃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중요도가 높다.

208) 『冊府元龜』 卷88 「帝王部」 赦宥7, p.972.

209) 『舊唐書』 卷121 「僕固懷恩傳」, pp.3487-3489.

가한과 혼인시키고 繒帛 2만필을 예물로 보냄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²¹⁰⁾ 이후에도 당조는 위구르와의 견마무역에 지속함으로써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대력 8년(773)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말 1마리의 가격이 40緡이었던데 비해 그 질은 너무 낮았으나, 대종은 수레 1,000여승에 달하는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를 모두 구입하게 하였다.²¹¹⁾ 대종 시기 사실상 당조와 위구르 간의 관계는 위구르를 필요로 하였던 당조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유지된 면 또한 없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덕종이 즉위한 후 당조와 위구르 간의 관계는 본격적인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에는 덕종이 과거 위구르의 뇌귀 카간에게 당한 모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사의 난 당시 天下兵馬大元帥로 있던 雍王(훗날의 덕종)은 보응 원년(762) 10월 섬주에 도착하여 당조를 지원하러 직접 참전한 뇌귀 카간과 마주하였는데, 뇌귀 카간은 자신이 대종과 형제 관계이므로 태자인 웡왕 또한 자신의 조카뻘이 된다면 웡왕에게 절하며 춤출 것을 요구하였다.

웡왕 괘이 섬주에 도착하였는데, 위구르의 가한은 하북에 주둔하였으므로 괘은 속료와 수십 명의 기병을 따르게 하여 가서 그를 보았다. 가한이 괘이 절하며 춤추지 않는 것을 책망하자, 藥子昂이 대답하되 예로 보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위구르의 장군 車鼻가 말하였다. “당의 천자와 가한은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였으니 가한은 웡왕에게 숙부가 되는데, 어찌 절하고 춤추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앙이 말하였다. “웡왕은 천자의 장자이고 지금은 원수입니다. 어찌 중국의 저군이 외국의 가한에게 절하고 춤출 수 있겠습니까! 또 兩宮(현종·숙종)이 빈소에 계시니 응당 舞蹈를 해서는 안 됩니다.” 힘써 싸우기를 오래하자 車鼻는 마침내 자앙·魏瑀·韋少華·李進을 끌어내어 각각 채찍 100대를 때렸다. 괘은 나이가 어려 아직 일을 잘 모른다 하여 행영으로 돌려보냈다. 거와 소화는 하룻저녁에 죽었다.²¹²⁾

당시 약자앙과 위거는 어사중승, 위소화는 중서사인, 이진은 급사중으로 모두

210) 『冊府元龜』 卷979 「外臣部」 和親2, p.11336.

211) 『資治通鑑』 卷224 「唐紀」40 代宗大曆八年, p.7221.

212) 『資治通鑑』 卷222 「唐紀」38 肅宗寶應元年, p.7133.

정5품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고관이었으니, 해당 사건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²¹³⁾ 덕종은 정원 3년(787) 재상 李泌이 위구르와의 화친을 청하자 해당 요청을 거부하면서 ‘위소화 등이 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죽었으니 이를 잊을 수 없다’며 후대에는 몰라도 자신의 치세에 위구르와 화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²¹⁴⁾ 이는 덕종이 당시 뵈귀 카간의 행동을 얼마나 모욕적으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이 기억이 위구르와의 외교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또한 확인시켜준다.

한편 덕종이 황제로 있던 시기, 위구르는 더 이상 당조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을만한 입장에 있지 못하였다. 대종이 崩하자 당조는 위구르에 해당 소식을 전하였는데, 뵈귀 카간은 소그드 상인(九姓胡)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기회에 당조를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이 요청은 당시 재상이었던 툰바가 타르칸(頓莫賀達干)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는 당조에 대한 공격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설령 이긴다 하더라도 노획한 양과 말은 위구르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망하므로 실질적 이득이 적음을 지적하였다. 툰바가 타르칸은 이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이득을 얻는 것은 위구르의 유목민이 아니라 소그드 상인 뿐임을 지적한 것으로, 뵈귀 카간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그는 카간을 살해하고 2천에 달하는 카간의 친신과 소그드 상인을 살해한 뒤 스스로 카간의 자리에 올라 알프 쿠틀룩 빌게 카간(合骨咄祿毗伽可汗. 뒤에 唐朝에서 武義可汗으로 冊封)이라 자칭하였다.²¹⁵⁾

위구르의 가한 교체의 빌미가 된 것은 소그드 상인이 아닌 ‘위구르’의 재정 문제 때문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위구르는 당조를 향해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어려웠다. 건중 원년(780) 張光晟이 위구르의 突董이 이끄는 무리를 제거한 사건을 통해서도 당시 위구르의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건중 원년 8월, 振武軍使 장광성은 돌동이 통솔하던 집단 천여 명을 살해하고 낙타와 말 천여마리, 緡錦 10만필을 노획하였다.²¹⁶⁾ 장광성이 돌동 등을 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구르의 가한이 바뀌면서 소그드 상인들이 꺾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데 있었다. 소그드 상인들은 소식을 접하고 귀국을 두려워하였고, 돌동이 이에 도망치는 소그드 상인들을 엄히 단속하자 그들은 장광성에

213) 『舊唐書』 卷195 「迴紇傳」, p.5203.

214) 『資治通鑑』 卷233 「唐紀」49 德宗貞元三年, p.7502.

215) 『舊唐書』 卷195 「迴紇傳」, pp.5207-5208.

216)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26.

게 돌동 등 위구르 인들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²¹⁷⁾

돌동은 가한의 숙부로, 장광성의 행동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당조가 源休를 위구르에 파견하여 돌동의 시신을 돌려보냈음에도, 위구르는 군사적 대응으로 이에 맞서기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²¹⁸⁾ 덕종은 장광성이 위구르의 사절단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처음에는 원휴의 사신행을 막을 생각을 했을 정도로 돌동 등의 사망은 중대한 사안이었다. 게다가 당조의 사신으로 파견한 원휴는 돌동을 살해한 이유를 힐문하는 위구르의 재상 등에게 도발하는 듯한 말을 던지기까지 한다.²¹⁹⁾ 때문에 위구르 내에 원휴를 죽이고자 하는 자의 수는 적지 않았던 듯인데, 武義可汗은 뜻밖에도 ‘모자란 말값’을 청구하는 대가로 원휴를 당조로 귀환시킨다.

가한의 결정은 당시 위구르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준다. 당조는 위구르가 요청한 말값을 갚았지만, 이는 오히려 당조에게 돌동이 살해되면서 많은 양의 물자를 잃은 위구르가 약체화되었다는 인상을 주었다. 위구르의 약체화는 원휴가 위구르로 사행했다가 귀국한 이후 당조와 위구르 간의 교류 관련 기록은 장기간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방증된다. 『구당서』 『迴紇傳』과 『신당서』 『回鶻傳』 모두 원휴의 귀환 후 다음 기사가 정원 3년(787)으로 7년여의 공백이 있으며²²⁰⁾, 『당대조칙목록』에서도 원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건중 3년(782) 기사를 마지막으로²²¹⁾ 정원 3년 이전까지 당조와 위구르 간의 교섭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당조가 7년 가까이 위구르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대종 시기까지 토번보다 위구르와의 관계에 집중하였던 모습과 크게 대비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위구르의 약체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대종이 사망하고 덕종이 즉위한 대력 14년(779) 당시의 당조는 안사의 난이 종식된 이후에도 재정·번진·외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제국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덕종은 즉위 시점부터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 외교 관계의 재정비 등 여러 방면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다.

217) 『新唐書』 卷217上 「回鶻傳」上, pp.6121-6122.

218) 『舊唐書』 卷127 「源休傳」, p.3575.

219) 『舊唐書』 卷127 「源休傳」, p.3575.

220) 『舊唐書』 卷195 「迴紇傳」, p.5208 ; 『新唐書』 卷217上 「回鶻傳」上, p.6122.

221) 『資治通鑑』 卷227 「唐紀」43 德宗建中三年, p.7330.

소 결

조칙 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덕종 시기의 주요한 과제로는 크게 변진·외교·재정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들 문제는 서로 긴밀히 얽여있는 복합적인 과제로, 안사의 난 이후 당조가 강회 조운로를 운영한 방식은 이 가운데 변진과 재정 두 가지 측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대에 대규모로 인공 수로를 개착함으로써 경사 장안에서 장강 중하류 지역까지 수로가 연결되었음은 사실이나, 해당 수로를 통하여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가 장안까지 적극적으로 수송되기 시작한 것은 당 현종 개원 18년(730)에 이르러서였다. 관중 지역의 흉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종은 배요경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강 중하류 지역의 곡물을 수로를 통하여 장안까지 수송하도록 하였고, 이후 천보 2년(743) 강회 조운로를 통해 장안으로 400만석의 곡물이 조운될 정도로 조운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현종 시기에 운하를 통한 조운이 중시된 것은 장강 중하류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배경으로 하였으며, 이에 당조의 재정 운영에 있어 조운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하지만 안사의 난의 발발로 인하여 당조는 낙양과 장안 등 강회 조운로가 지나는 주요 거점을 상실하였고, 이는 당조가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생산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주요 세원이었던 하북도와 하남도 일대가 안록산 진영에 함락된 상황에서 당조는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 없이는 재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숙종은 제오기의 제안에 따라 장강에서 한수를 통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강한 조운로를 통하여 장강 중하류의 물자를 공급받음으로써 급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 다만 강한 조운로는 강회 조운로에 비하여 운송 비용이 높았기에, 당조는 장기적으로는 강회 조운로를 회복해야만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대종은 이에 강회 조운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지만, 대종 시기까지도 당조는 변주와 서주 등 조운로가 지나는 주요 지점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강회 조운로가 지나는 서주가 조정과 군사적 마찰을 빚던 평로 변진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을 정도로, 대종 시기까지 당조는 적극적인 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재정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안사의 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당조는 하북·산둥 일대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안록산·사사명 휘하 부장 출신 장수들을 해당 지역의 절도사로 삼음으로써 하북도와 하남도 일대의 번진들은 할거 경향을 띠는 반측지지로 남게 되었다. 이들 번진은 내부에서 절도사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조정에 호적을 올리지 않고 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하삭구사’를 권리처럼 행사하였다. 대종 시기의 대력 8년(773)과 대력 14년(779)에 걸쳐 하북도와 하남도에 위치한 번진들에서는 절도사가 사망하자 차기 절도사를 내부에서 결정한 후 조정의 추인을 받으려 하였고, 이를 대종이 승인함으로써 반측지지의 ‘하삭구사’는 당조가 인정한 권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당 제국 내부에 반측지지라는 변수가 있었다면, 인접국인 토번과 위구르 또한 당조에게 있어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7세기 후반부터 하서·안서 지역 등을 놓고 당조는 토번과 분쟁을 지속해왔으나, 안사의 난 발발 후 당조가 반란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북 변경의 병력을 차출하여 동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서북 변경에 대한 당조의 방어력은 크게 약해졌다. 안사의 난 이후 당조가 약체화된 상태였다면, 토번은 8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토번은 안사의 난 당시 당조의 서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하서 전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하였고, 대종 광덕 원년(763)에 토번은 장안을 점령할 정도로 당조에게 큰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藏文으로 된 토번 측의 기록을 보면 안사의 난 이후 당조는 토번에 세폐를 보내야 할 정도로 수세에 몰려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되는 변경에 대한 군사적 위협 때문에 당조는 토번을 방어하기 위한 적지 않은 수의 병력을 서북 변경에 배치해야만 했다.

대종 시기에 당조가 토번과 대립 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당조와 위구르의 관계는 보다 유화적이었다. 위구르는 안사의 난 당시 카간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당조를 원조함으로써 동맹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다만 카간은 그 과정에서 태자이자 천하병마대원수인 괄을 능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시 위구르는 자신이 당조에 비해 우세에 있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였고 당조 또한 위구르와의 견마무역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교류함으로써 양국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다만 강성한 토번을 막기 위하여 위구르와의 화친을 선택한 대종의 외교 정책은 지속적으로 토번에 침공을 허용함으로써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당조가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동·하남·회남도 등에 위치한 번진으로 하여금 이들 반측지지와 군사적 충돌에 대응하는 한편, 토번 등 인접국의

침략을 방어하는 서북 변경 지역의 번진에 군사·재정적인 지원을 지속해야만 했다. 이를 위해서 당조는 조운로를 통하여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까지 수송한 뒤 해당 물자를 필요한 지역에 보급해야 했지만, 대종 말기까지 당조는 조운로의 확보나 토번·위구르 등 서북 변경에 인접한 국가와의 마찰 등 각종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기에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덕종은 각종 정책을 통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국을 재건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Ⅱ. 建中 연간 反側之地에 대한 강경책과 漕運路

1. 吐蕃과의 화친과 적극적 藩鎮 정책

당조에게는 제국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외교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변경에서의 병력 소모 및 그에 따른 물자 공급량을 줄일 필요가 있었다. 덕종은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약화된 위구르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토변과 우호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종 시기와 외교 노선을 차별화하였다. 대력 14년(779) 8월 갓 즉위한 덕종은 太常少卿 韋倫을 토변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토변인 포로 500명을 귀국시킴으로써 토변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²²²⁾

당조는 앞선 대종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토변과 전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당조는 상당수의 토변인을 포로로 잡고 있었다. 덕종은 이들을 토변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수호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토변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찬보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²²³⁾ 앞선 代宗 시기 토변과 당조는 반복적으로 화호 관계를 맺었으나 여러 이유로 인하여 양국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틀어졌고, 이 때문에 당조 또한 적지 않은 수의 토변인 포로를 붙잡고 있었다. 새로이 등극한 덕종이 이들 포로를 돌려보내며 화친의 뜻을 전한 모습은 앞서 대종이 즉위하자마자 숙종이 제공하기로 한 세폐의 납부를 거부한 것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 때문에 덕종에 대한 토변의 서술은 대종과 비교하면 훨씬 긍정적인 편으로, 이후의 기록이기는 하나 藏文 사료에서 덕종을 묘사함에 있어서 ‘마음이 넓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대의 대종에 대한 기술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것 또한 이런 면에서 이해할 만하다.²²⁴⁾

건중 4년(783) 당조와 토변이 맺은 淸水會盟은 덕종 시기 당조와 토변의 화친 관계가 무르익었음을 잘 보여준다.²²⁵⁾ 건중 4년 정월, 당조에서는 張鎰을 파견하여 토변의 재상 尙結贊과 국경 지대인 청수에서 회맹을 맺게끔 하였고, 이에 양국은 국경을 획정하고 우호 관계를 다졌다. 『구당서』에 기록된 회맹의

222)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23.

223)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p.5245-5246.

224) 최소영,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譯註와 연구』, p.62.

225) 菅沼愛語,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pp.289-290.

결과를 담은 아래의 글은 덕종이 즉위 직후 토번의 포로를 석방한 사건과 청수회맹이 일련의 사건임을 명기하고 있다.

(당조의 역대 황제들은) 토번의 찬보와 대대로 혼인하여 이웃과의 화평을 굳건히 하였으니, 평화와 위태로움을 함께하는 조카와 삼촌 관계의 나라가 된 지 거의 200년이 되었다. 그간에는 혹 작은 원한으로 인하여 은혜를 버리고 원수가 되어 변경이 소란해지고 평안한 해가 없었다. (덕종) 황제께서 즉위하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포로와 노예를 석방하여 토번으로 돌려보내 주시었다. 토번 또한 예를 갖추어 이에 화답하니, 사신들이 오고가며 여러 차례 화호의 명령을 반포하였다. 이에 서로를 속이는 계책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를 내려놓게 된 것이다. 또한 저쪽에서는 두 나라가 필요로 하는 바 화평을 구하기를 영구히 하기 위하여 과거에 결명한 예를 들어 지금 그것을 쓰고자 청하였다. 국가는 힘써 변경의 백성이 쉴 수 있게 해야 하니, 옛 영토를 논외로 하여 이로움을 버리고 도의를 좇아 굳건히 맹약하고 이를 따르고자 한다.²²⁶⁾

맹문은 양국의 화친이 덕종이 즉위 직후 토번의 포로를 돌려보낸 사건이 그 시발점이 되었을 명기하고 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양국 간의 국경선을 논하는데 여기에서 토번의 영역으로 인정된 영역은 蘭州·渭州·原州·會州와 成州를 경계로 한 서쪽 전역으로, 토번은 이로써 하서·농우 전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다.²²⁷⁾ 당조는 하서와 농우를 포기하는 대신 토번과 안정적인 화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이로써 당조는 토번의 서북 변경 침략에 대한 우려를 덜고 내부의 반측지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갖추었다.²²⁸⁾ 덕종의 즉위 직

226)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p.5247-5248.

227)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5248. 당시 확정된 양국의 국경은 이후 文宗 시기 까지도 유효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늘날에도 라싸에 남아있는 이른바 「唐蕃會盟碑」의 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舊唐書』의 기록에 따르면 唐朝와 吐蕃은 長慶 元年(821)과 長慶 2년(822)에 각각 長安과 라싸에서 2차례에 걸쳐 양국은 당시 관할하던 영토를 지키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會盟하였고(『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p.5264-5266), 이후 長慶 3년(823) 唐朝와 吐蕃은 會盟의 결과를 碑石에 漢文·藏文으로 새겼으니 이것이 오늘날 라싸에 세워져있는 「唐蕃會盟碑」이다. 碑文의 내용은 『舊唐書』보다 조금 더 자세한데 두 언어 모두 양국의 국경을 淸水會盟이 맺어졌던 淸水縣을 기준으로 하며 동쪽은 唐朝가, 서쪽은 吐蕃이 다스리며 서로 침범하지 않을 것을 적시하였다.(王堯, 『吐蕃金石錄』, 北京: 文物出版社, 1982, p.3 ; p.41)

228) 당 후기의 사인들의 작품 가운데에는 토번이 하서와 농우 지역을 차지한 현실에 대

후부터 우호적으로 돌아선 당조와 토번 간의 관계는 이후 토번이 흥원 원년(784) '涇師之變'으로 인하여 奉天으로 피난하였던 덕종에게 원군을 파견한 데에서 보듯 이후 수년간 지속되었다.²²⁹⁾

당조는 토번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반면, 위구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원 3년은 토번이 당조의 사신을 급습하는 '平涼劫盟'이 일어난 해로 양국 간의 화친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시점이었으니, 사실상 당조는 토번과의 외교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토번과의 관계에 진력한 반면 위구르와의 외교 관계는 방기하였다고 평가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위구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唐朝를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약체화되어 있었으니, 그런 면에서 德宗이 吐蕃과의 和親을 선택한 것이 당시에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위구르가 약체화된 상황에서 당조는 토번과의 화친을 통하여 서북 변경 방어에 필요한 병력 및 물자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덕종은 이를 바탕으로 변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안 서북방에 위치한 涇原軍에 대한 대응 양상과 이후 당조가 반축지지에 취한 강경한 대응 과정은 양국 간의 화친이 변진 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덕종이 건중 원년(780) 4월 경원군에서 일어난 병란을 토벌함으로써 변진에 대한 토벌 의지를 처음으로 천명하였다. 원래 涇原四鎮節度使였던 段秀實이 司農卿이 되어 장안으로 가게 되자 당조는 河中尹이자 邠·寧·慶·晉·絳·慈·隰等州節度觀察使였던 李懷光으로 하여금 경원군까지 겸령하게 하였다.²³⁰⁾ 경원

한 悲感을 드러내는 작품이 적지 않다. 이러한 유형의 문학 작품 가운데 유명한 사례로는 白居易가 지은 「西涼伎」를 들 수 있다.(『白居易集箋校』(白居易撰; 朱金城箋校, 『白居易集箋校』(全6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卷4 「西涼伎」, p.210)

229) 『陸贄集』 卷10 「賜尙結贊第三書」, p.312. 당시 德宗은 吐蕃 측에 吐蕃이 長安을 함락시킬 경우 安西四鎮과 北庭을 할양하고 매년 絹 1萬匹을 보내기로 약속하기까지 하였다. 물론 해당 시기 安西四鎮과 北庭은 실질적으로 위구르의 관할 하에 들어간 영역으로 唐朝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지역이었지만, 唐朝가 이 지역을 吐蕃에게 할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교역로를 두고 위구르와 분쟁을 지속하고 있던 吐蕃에게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약속이었다.(丁載勳, 「唐 德宗時期(779-805)의 對外政策과 西北民族의 對應」, pp.58-60)

230)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p.3491-3492. 德宗은 즉위하면서 郭子儀가 총괄하던 朔防軍을 3부분으로 나누어 李懷光을 邠·寧·慶·晉·絳·慈·隰等州節度觀察使로 삼고 朔方右留後 常謙光에게 靈州大都督을 겸직시키면서 西受降城·定遠軍·天德·鹽·夏·豐節度等使로 임명하고, 朔方左留後·單于副都護 渾瑊을 單于大都護 겸 振武軍·東中二受降城·鎮北及綏·銀·麟·勝等軍州節度營田使로 삼음으로써 군사력을 분산시킨 바 있었다.(『舊

변진의 제장은 군령을 엄하게 집행하던 이회광의 절도사 부임을 두려워하였다. 이에裨將 劉文晝를 대표로 한 경원 변진 측은 조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원래 절도사였던 단수실을 유임하거나 아니면 朱泚를 절도사로 보내달라고 상소하였다. 조정은 이에 이회광 대신 朱泚를 절도사로 임명함으로써 경원군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번에는 유문희가 자신을 절도사로 삼아줄 것을 요구하며 반란을 일으키는 한편 토변에 자신의 아들을 인질로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²³¹⁾

하지만 덕종의 즉위 직후부터 토변과 당조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돌아서 있었기에 토변은 유문희의 청을 거절하였고²³²⁾, 유문희는 이에 경원군의 병력만으로 당조와 맞서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토변의 도움을 얻지 못한 유문희가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대종 시기 당조가 ‘하삭구사’를 폭넓게 인정하여 변진의 반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이어지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덕종은 곧장 朱泚와 이회광으로 하여금 경원 변진의 토벌을 명함으로써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당시 조신들 가운데에는 유문희를 사면함으로써 피로한 사람들을 쉬게 하자고 청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덕종은 “작은 적도 제거하지 못하면서 어찌 천하를 호령하겠는가!”라며 해당 요청을 무시하였다. 이에 건중 원년 5월경 유문희의 반란은 진압되었다.²³³⁾

대종과 차별화된 덕종의 기조는 그 해 11월 덕종이 朝集使를 소집한 사건에서도 확인된다. 주 단위에서 파견하는 조집사는 考籍과 貢物 헌상 등을 담당하며, 매년 10월 25일 경사에 도착하게끔 규정되어 있었다.²³⁴⁾ 안사의 난 이래 25년간 파견되지 않던 조집사의 入計가 다시 언급된 것은 덕종의 즉위 직후인 대력 14년(779) 6월로²³⁵⁾, 각 주의 조집사는 이듬해인 건중 원년 10월경 경사에 도착하여 11월 1일 宣政殿에서 덕종을 알현하였다.²³⁶⁾ 해당 사건은 덕종이 당조의 통치력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전후 시기 계속된 변진에 대한 강경 대응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덕종은 반측지지 세력이 황제로서 자신이 향유해야 할 영역 중 일부를 부당하

唐書』卷12「德宗本紀」上, p.320)

231) 『資治通鑑』卷226「唐紀」42 德宗建中元年, pp.7278-7279.

232) 『資治通鑑』卷226「唐紀」42 德宗建中元年, p.7281.

233) 『舊唐書』卷12「德宗本紀」上, p.326.

234) 『唐六典』卷3「尚書戶部」, p.79.

235) 『唐會要』卷69「都督刺史已下雜錄」, p.1436.

236) 『舊唐書』卷12「德宗本紀」上, p.327.

게 접거하고 있다는 인식을 수차례 드러내며 변진과의 전쟁을 이어나가는데, 즉위 직후 덕종의 모습은 이러한 자신의 의지를 현실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덕종의 반측지지에 대한 강경 기조는 이듬해인 건중 2년(781) 정월 성덕절 도사 이보신의 사망 이후 李惟岳의 절도사 세습 불허 조치를 통하여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정월 戊辰, 성덕절도사 이보신이 죽었다. 보신은 군부를 그 아들 行軍司馬 유악에게 물려주고자 하였지만, 그의 나이가 어리고 어리석고 나약하였기 때문에 미리 제장 가운데 제어하기 어려운 자들을 주살하였으니 深州刺史 張獻誠 등 1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같은 날에 죽었다... (이보신)이 죽게 되자 孔目官 胡震과 家僮 王它奴는 유악에게 20여일 정도 匿喪하고서 이보신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유악으로 하여금 (절도사 직을) 계승하게 하기를 구하는 표를 올리라고 권하였다. 황상은 이 요구를 허락하지 않고 급사중 汲(오늘날의 河南省 衛輝市) 사람 班宏을 파견, 이보신에게 가 병문안하고 또 그를 타이르도록 하였다. 유악은 핑에게 후한 뇌물을 주었는데 핑은 이를 받지 않고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유악은 이에 發喪하고 스스로 유후가 되어 將佐들로 하여금 함께 旌節을 구하는 주를 올리게 하였지만, 황상은 또 허락하지 않았다.²³⁷⁾

성덕 변진은 위박·유주와 함께 하북삼진으로 통칭되는 대표적인 반측지지였고, 때문에 사망을 앞둔 절도사 이보신과 그의 아들 이유악은 절도사의 사망 이후 변진 내에서 차기 절도사를 선임하고서 조정에 추인을 요구하는 ‘하삭구사’를 당연시하였던 것 같다. 이보신이 죽기 전 아들이 절도사가 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변진 내의 수하들을 다수 처단함으로써 내부 세력을 정비하는데 집중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에 앞서 덕종이 유문희를 강경 진압하긴 하였으나, 대중 말기까지도 하남도에 위치한 변진의 경우 ‘하삭구사’는 그대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반측지지라고는 볼 수 없는 장안 서북방의 경원군의 사례는 이보신·이유악 부자에게 오히려 특수한 사례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237) 『資治通鑑』 卷226 「唐紀」42 德宗建中二年, pp.7291-7292.

덕종이 이유악의 절도사 계승 요청을 거부하고 급사중 반평을 파견하여 그를 타이르게 한 시점까지도 이유악은 덕종의 결정이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듯하다. 오히려 이유악은 반평의 파견이 덕종의 뇌물 요구라고 여기고 그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하였는데, 이는 덕종이 파견한 급사중 반평이 하북도에 위치한 衛州 汲縣 출신이라 반측지지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사실과도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반평을 통하여 덕종은 재차 이유악의 성덕절도사 계승 요청을 거부하였다. 덕종이 이유악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번에는 위박절도사 전열이 이유악을 대신하여 그의 절도사 계승을 허락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유악과 전열의 앞 세대 절도사들인 李寶臣·田承嗣·李正己·楊崇義는 서로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자고 서로 합의하였고 대력 14년(779)에 전승사가 죽자 이보신이 조정에 청하여 전열이 절도사직을 이어받았기에, 전열이 이보신의 사망 후 이유악의 절도사 계승을 허락해줄 것을 조정에 청한 것은 그 반대급부에 해당하였다. 상기 절도사들은 혼인을 통해 강고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열이 조정에 이유악의 절도사 계승을 요청한 것은 황제라 해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사안이었을 것이다.²³⁸⁾

하지만 덕종은 이 청을 거절하면서 이유악의 절도사 계승을 인정하는 것은 곧 화란을 장기화하는 고식책일 뿐이라는 언급을 남겼다.²³⁹⁾ 덕종은 이유악의 절도사 세습을 불허한 결정이 반측지지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여차하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을 번복하지 않은 이유는 당조가 반측지지를 제압하려면 절도사 교체 시점에서 절도사 세습을 불허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반측지지는 절도사의 내부 선임 후 조정의 추인이라는 ‘하삭구사’를 당연한 권리처럼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는 실상 관습에 불과한 것으로 황제는 반측지지가 내부에서 결정한 절도사 후보를 불허할 권리가 있었다. 이 경우 반측지지의 장병은 자신의 신분을 놓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에 처한다. 반측지지의 장병들은 공식적으로는 조정의 녹을 받는 관건이나²⁴⁰⁾, 이들이 만약 새로운

238) 新見まどか, 「唐代後半期における‘華北東部藩鎮連合體’」, pp.22-25.

239) 『資治通鑑』卷226 「唐紀」42 德宗建中二年, p.7293.

240) 官健은 조정에게서 급여와 春·冬衣를 지급받는 직업적인 군인으로, 이들은 유사시 징집될 수 있는 農民과는 구분되는 존재이다. 官健의 존재 양상은 번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연구로는 번진 내의 권력구조를 분석하면서 官健의 특성에

절도사 후보자를 위하여 반란을 일으킬 경우 이들의 신분은 ‘반란군’의 일원으로 격하되고 만다. 때문에 반측지지 세력의 강약과는 별개로 절도사의 사망과 차기 절도사가 조정의 정식 임명을 받기까지 번진 내부는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²⁴¹⁾ 게다가 성덕 번진의 경우 절도사 이외에도 제장의 발언권이 강한 번진으로, 이 때문에 이보신은 절도사 세습을 위하여 자사 급의 고위 장령들을 다수 제거한 상황이었다.²⁴²⁾

앞서 유문회를 제거하면서 ‘천하를 호령’할 것을 논한 덕종은 반측지지를 제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인 절도사 교체 시기를 노려 해당 지역을 ‘순지화’하고자 하였다. 덕종은 이유악을 ‘나의 토지를 깔고 앉아 나의 位號를 빌림으로써 무리를 모은 것에 불과’한 존재라며 비판하며 이유악을 무력으로 토벌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하는데²⁴³⁾, 같은 해 8월 李納이 사망한 평로절도사 李正己의 절도사 직을 세습하려는 요청을 덕종이 불허한 것 또한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⁴⁴⁾

이어서 덕종은 건중 2년 정월 하남도 번진의 관할 주를 변경하여 영평군절도사 이면이 汴·滑·陳·鄭 4개 주, 宋毫潁節度使 劉洽이 宋·毫·潁 3개 주를 관할하게끔 하였다.²⁴⁵⁾ 해당 조치를 통하여 당시 조정이 확보하고 있었던 조운로 전체를 관장하던 영평군절도사의 영역이 조정되어 2개의 번진에서 조운로를 나누어 맡게 되었고, 영평군절도사는 이에 동쪽에 위치한 반측지지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당조는 토번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防秋兵 1만 2천명을 관동으로 이동시켰으며²⁴⁶⁾, 3월 汴州

대해 정리한 堀敏一의 연구를 들 수 있다.(堀敏一, 「藩鎮親衛軍의 權力構造」, 『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 東京: 汲古書院, 2002, pp.38-43)

241) 谷川道雄, 「河朔三鎮における藩帥の承繼について」, pp.396-397.

242) 渡邊孝, 「魏博と成徳 -河朔三鎮の權力構造についての再檢討-」, pp.112-113.

243) 『資治通鑑』卷226 「唐紀」42 德宗建中二年, p.7293.

244) 『資治通鑑』卷227 「唐紀」43 德宗建中二年, p.7307.

245) 『舊唐書』卷12 「德宗本紀」上, p.327.

246) 『舊唐書』卷12 「德宗本紀」上, p.328 ; 『舊唐書』卷144 「陽惠元傳」, p.3915 ; 『冊府元龜』卷390 「將帥部」, p.4405 ; 『資治通鑑』卷226 「唐紀」42 德宗建中二年, p.7298. 『舊唐書』 「德宗本紀」의 경우 병력을 9만 2천명이라고 표현하였는데, 防秋兵 전체를 다 합쳐도 9만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九’자는 잘못된 것 같다.(『舊唐書』卷11 「代宗本紀」, p.305, “每道歲有防秋兵馬, 其淮南四千人, 浙西三千人, 魏博四千人, 昭義二千人, 成徳三千人, 山南東道三千人, 荊南二千人, 湖南三千人, 山南西道二千人, 劍南西川三千人, 東川二千人, 鄂岳一千五百人, 宣歙三千人, 福建一千五百人. 其嶺南·浙東·浙西, 亦合準例.”) 『舊唐書』에서 언급한 소문은 ‘德宗이 동쪽을 점령(東封 : 『左傳』僖公30年, “夫晉何厭之有, 既東封鄭, 又欲肆其西封. 若不闕秦, 將焉取之. 闕秦以利晉, 唯君圖之.”에서 나온 말로, ‘동쪽을 점령’한다는 의미)하고자 하여 汴州城을 쌓는다’는 말이었다는 것

城을 쌓음으로써 번진과의 충돌에 대비하였다. 건중 2년 당조가 조운로 인접 지역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는 앞서 이유악의 반란을 불사하고 절도사 세습을 불허한 덕종이 조운로를 사수하면서 반측지지 세력과 맞서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측지지의 절도사들 또한 자신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병력을 갖추어 조정에 대응하는 선택을 내렸다. 이유악은 위박절도사 전열·평로절도사 이정기와 더불어 조정에 대항할 의사를 비추었으며²⁴⁷⁾ 여기에 山南東道節度使 梁崇義까지 합세한 반측지지 연합군을 형성함으로써 덕종을 압박하려 하였다.²⁴⁸⁾

로 보인다.(『資治通鑑』 卷226 「唐紀」42 德宗建中二年, p.7295, “會汴州城隘, 廣之, 東方人訛言: 「上欲東封, 故城汴州。」 正己懼, 發兵萬人屯曹州. 田悅亦完聚爲備, 與梁崇義·李惟岳遙相應助, 河南士民騷然驚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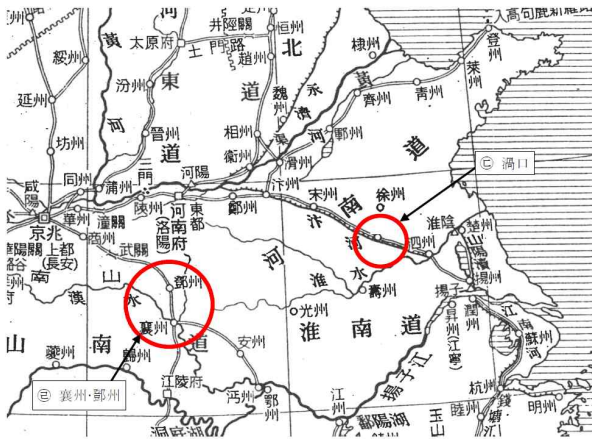
247) 『舊唐書』 卷142 「李惟岳傳」, pp.3868-3869.

248) 『舊唐書』 卷124 「李納傳」, p.3536.

2. 反側之地의 漕運路 차단과 唐朝의 대응

건중 2년(781) 전통적인 반측지지인 하북삼진에 대력 연간부터 ‘가장 강대한 변진’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평로 변진²⁴⁹⁾, 그리고 강한 조운로가 지나는 산남 동도까지 포함된 반란군 진영은 조운로를 끊음으로써 당조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의 물자를 차단하며 당조와의 전면 대결을 선택한다.

전열·이유악·이남·양숭의가 황명을 거역함에 이르러 ㉠ 천하의 병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였는데, ㉡ 여러 군은 경사의 보급에 의지하였다. 그러자 ㉢ 이남·전열의 병사들이渦口를 막고 ㉣ 양숭의가襄州·鄧州를 막자 ㉤ 남북을 잇는 조운로가 모두 끊어져 경사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밑줄과 강조는 필자)²⁵⁰⁾



당조는 강회 조운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강한 조운로를 통해 이를 대체하였으나, 당조가 반복적으로 한수를 대체 조운로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반측지지 측에서도 해당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반측지지 세력은 강회 조운로와 강한 조운로 양측을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당조에 대한 물자 공급을 일시적으로

<圖-5. 건중 2년 당시 반측지지 측에서 조운로를 차단한 지점>²⁵¹⁾ 차단하였다. 반란군 측에서 봉쇄한 ㉢ 와구는 평로 변진의 서주에 속해 있었으며, ㉣ 양주와 등주는 산남동도 변진에 속해 있었기에 당조는 이러한 반란

249) 『舊唐書』卷124 「李正己傳」, p.3535.

250) 『新唐書』卷53 「食貨志」3 漕運, p.1369, “及田悅·李惟岳·李納·梁崇義拒命, 舉天下兵討之, 諸軍仰給京師. 而李納·田悅兵守渦口, 梁崇義搃襄·鄧, 南北漕引皆絕, 京師大恐.”

251) 青山定雄, 『唐宋時代の交通と地誌地圖の研究』, <圖板 1> 중 일부.

군의 대응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조운로 차단 조치가 당조를 크게 압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조가 당시 ㉠ 여러 번진의 부대를 동원하여 반측 지지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 그 보급을 경사에서 도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조운로가 차단되어 경사에의 물자 공급이 끊긴다는 사실은 곧 관중의 물자만으로 번진과의 전쟁에 임하는 부대에 대한 보급을 감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중 연간 관중 지역의 생산량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조는 강남에서 올라오는 물자 없이는 여러 번진의 군대에 보급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대 군량 조달 방식은 크게 ㉠ 직접세 수입 ㉡ 둔전의 수확 ㉢ 和糴·上供의 3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는 해당 부대가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수입이라고 한다면 ㉢ 화적·상공은 조정이 각 부대에 보급하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²⁵²⁾ 관부가 필요한 곡물을 민간으로부터 사들인다는 의미에서의 화적 제도는 당 이전 시기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²⁵³⁾ 당대 화적의 경우 초기에는 주로 군량 조달을 목적으로 서북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현종 시기 관중 지역까지 그 시행 범위가 확대되었으며²⁵⁴⁾, 당 후기에는 화적은 점차 풍·흉과 무관하게 경상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²⁵⁵⁾ 여기에 양세법 시행 이후에는 양세전 가운데 일부를 곡물로 바치는 이른바 ‘折糴’도 시행되어²⁵⁶⁾ 당조는 상당량의 곡물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생산량이 부족한 변경 지역을 지원하였다.

당조가 화적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곡물을 수급하게 되었고, 이에 현종 천보 2년(743) 400만석에 이르렀던 강희 지역에서의 곡물 전운량이 당 후기에는 최대 110-120만석 정도로 감소하였다.²⁵⁷⁾ 덕종 시기에 조정은 평시 관중과 강남 지역에서 거둔 곡물로 변경의 보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으며, 관중에 풍년이 들면 심지어 강희 지역에서 곡물이 수급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원 8년(792) 관중 지역의 풍년과 강희 지역의 수재가 겹친 당시 상황에서 權德輿와 陸贄가 작성한 아래 글은

252) 丸橋充拓, 『唐代北邊財政の研究』, p.16.

253) 朴根七, 「唐 前期 西北地域 和糴制의 운영실태와 그 특징」, 『分裂과 統合 -中國 中世의 諸相-』, 서울: 지식산업사, 1998, pp.212-213.

254) 『新唐書』 卷53 「食貨志」3, pp.1373-1374.

255) 丸橋充拓, 『唐代北邊財政の研究』, p.26.

256) 『唐會要』 卷90 「和糴」, p.1943.

257) 李俊衡, 「唐 玄宗 時期 運河 利用과 그 性格 -江淮 漕運의 樣相을 中心으로-」, pp.336-338.

이러한 당조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강동의 여러 주는 田畝를 업으로 삼고 있어 매년 1년 풍년이 들면 곧 두루 여러 도에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봄비가 여름까지 이어져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소란스러워져 도망친 자도 많습니다. 다행인 것은 경사에 풍년이 들었고 夏麥도 또한 올라오고 있으니, 이는 진실로 근본이 견고함으로써 斯箱(곡식을 싣는 수레)을 유지한 경사입니다. 그러나 부세를 취함에 의지하는 바는 조운에서 나오는 것으로, 군국의 대계는 강회를 의지하게 됩니다.²⁵⁸⁾

금년 관중의 땅에서 백곡이 풍작을 거두니 경조운 및 여러 현령들이 자주 이 일로 말하기를, 경사의 米粟이 너무 싼 것이 근심되니 널리 화적을 행하여 농민을 구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사들일 양을 헤아려보니 모두 100여만석에 이를 것이라 합니다. 또 지금 사들이는 가격을 量定하고자 여러 현의 가격과 아울러 선박과 수레를 빌려 태창으로 운반하는 값을 통틀어 헤아려보니, (석 당) 곡가는 약 40여전이고 미가는 대략 70전 이하입니다. 이런즉 1년 동안 화적하는 액수로 족히 전운 2년치를 당해낼 수 있고 1斗를 전운하는 비용으로 족히 5斗를 화적할만 합니다. 즉시의 이해를 비교해보면 조운의 업무는 또한 마땅히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²⁵⁹⁾

정원 8년 하북·하남·산남·강회 40여주에 걸쳐 일어난 수재는 익사한 자만 2만 여에 달할 정도의 대형 사건이었다.²⁶⁰⁾ 그러나 당시 관중 지역에는 풍년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양의 곡물을 화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중은 여전히 곡가가 지나치게 싼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당 후기 조정은 관중과 강남 지역의 부세 만으로도 변방의 보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관중에 풍년이 들 경우 강남 지역의 물자 없이도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측지지 세력이 두 갈래의 조운로를 모두 막은 건중 2년 당시는 이

258) 『權德輿詩文集』 卷47 「論江淮水災上疏」, p.739.

259) 『陸贄集』 卷18 「請減京東水運收脚價於緣邊州鎮儲蓄軍糧事宜狀」, p.596.

260) 『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375.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강희와 강한 조운로가 막힘으로 인하여 당조는 강남의 물자를 공급받을 수 없었던 데다가 관중 지역은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재정 관련 조칙 등 당조의 움직임을 분석함으로써 관중 지역의 작황을 정리한 연구에 따르면 덕종 재위 초인 건중 원년(780)에서 정원 2년(786)까지 관중 지역은 지속적으로 흉년을 겪고 있었다.²⁶¹⁾ 위에서 언급한 정원 8년(792)에서 정원 10년(794)까지 일시적으로 관중 지역에 풍년이 들기도 하였지만, 이후 정원 20년(804)까지도 계속하여 흉년이 들 정도로 덕종 시기 관중 지역은 전반적으로 흉년 상황이었다.

게다가 건중 2년 당시는 여러 번진의 군대를 동원하여 반측지와 전쟁을 벌이고 있던 중으로 평시에 비하여 필요한 물자의 양은 늘어나 있었다. 때문에 조운로를 차단하는 반측지의 반격으로 인하여 조정은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²⁶²⁾ 덕종은 이에 張萬福을 濠州刺史로 삼고 현지에 파견하여 정박한 進奉船이 일단 埭橋·渦口를 통과하게끔 하였다. 장만복은 이전에 하남도와 회남도 인근에서 자사 직 등을 수행하며 해당 지역에서 위명이 높았던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직접 말에서 내려 배를 움직이도록 지시하자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평로 번진의 병사들 또한 눈치만 보며 일단 통과시켜주었기에 당조는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²⁶³⁾ 하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에 불과하였다. 당시 경사의 미가가 폭등하여 금군에게 지급할 식량 마련도 여의치 않았다는 기사는 당시 조운로가 차단됨으로 인해 당조가 얼마나 큰 곤란을 겪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²⁶⁴⁾

이에 江淮水陸轉運使 두우는 雞鳴岡(오늘날의 安徽省 合肥市에 위치)의 앞뒤를 튼 뒤 일부 육로를 활용하여 潁州·蔡州를 지나 변하로 합류하는 새로운 조운로를 구상하기까지 하였다.²⁶⁵⁾ 두우는 회수를 거슬러 올라가고 황하를 이용해야 하는 기존 조운로보다 이 경로가 더 짧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기실 이는 한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그보다 더 작은 하천들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후 李洧가 서주를 가지고 조정에 귀부하여 강희 조운로가 통하게 되자 해당 제안이 바로 폐기된 것은 두우의 계획이 그리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²⁶⁶⁾

261) 丸橋充拓, 『唐代北邊財政の研究』, p.5의 表5 참고.

262) 『資治通鑑』 卷227 「唐紀」43 德宗建中二年, p.7302.

263) 『舊唐書』 卷 152 「張萬福傳」, p.4076.

264) 『舊唐書』 卷49 「食貨志」下, p.2118.

265) 『新唐書』 卷53 「食貨志」3, p.1369.

반측지지 세력이 강희 조운로 뿐 아니라 강한 조운로까지 차단하는 상황을 맞은 당조는 우선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운송로를 확보하는 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덕종은 두 갈래의 조운로를 막을 가능성이 있는 세력 중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하고 인접한 응원군이 없었던 양숭의에 대한 회유를 우선 진행하였다. 당조는 御史 張著를 파견하여 양숭의에게 동평장사를 더해주고 철권을 사여함으로써 죽이지 않겠다고 그를 회유하였으나, 당조의 진심에 의문을 품었던 양숭의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덕종은 병력을 모아 이희열에게 양숭의를 공격하게 하였고, 양숭의는 패배를 거듭한 끝에 건중 2년(781) 8월 우물에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다.²⁶⁷⁾ 같은 해 9월 당조는 旃緙觀察使 李承을 산남동도절도사로 임명함으로써 양주와 한수 일대의 통제권을 회복하게 되었다.²⁶⁸⁾

당조가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강한 조운로를 확보한 반면, 강희 조운로의 경우 당조가 예상치 못한 행운을 통하여 조운로의 통제권을 확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숭의가 자살한 직후인 건중 2년(781) 10월, 평로절도사 이정기의 從父兄이었던 서주자사 이유는 이정기의 사후 從姪인 이남을 등지고 서주를 가지고서 조정에 투항하였다.²⁶⁹⁾ 이유는 이정기가 살아있을 적에 서주자사가 되었는데, 이정기가 사망한 후에도 이남은 수개월 간 發喪하지 않은 채로 평로 번진을 총괄하였다.²⁷⁰⁾ 앞서 이정기가 조운로를 막기 위하여 서주 지역을 봉쇄할 때에도 큰 마찰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이정기와 이유 간의 관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정기가 49세의 나이로 급사하고²⁷¹⁾ 조정과 대치하는 중에 평로 번진을 맡게 된 이남은 번진 내부의 경쟁자들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이유는 번진 내부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조정에 투항할 수밖에 없었다.²⁷²⁾ 이로써 당조는 앞서 반란군

266) 『新唐書』 卷53 「食貨志」, 3, p.1369.

267) 『舊唐書』 卷121 「梁崇義傳」, pp.3490-3491.

268)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0.

269)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0 ; 『新唐書』 卷148 「李洎傳」, pp.4779-4780.

270)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0 ; 『舊唐書』 卷124 「李正己傳」, p.3535.

271) 李正己가 장기간 등창(疽)을 앓고 있었다는 筆記史料의 존재에 대해서는 鄭炳俊이 정리한 바가 있다.(鄭炳俊, 「德宗의 藩鎮改革 政策과 平盧節度使 李正己」, 『中國史研究』81, 2012, pp.159-161) 하지만 49세라는 李正己의 나이로 볼 때, 병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사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72) 『舊唐書』 卷156 「王智興傳」, p.4138.

진영에서 조운로를 차단한 지점이었던 와구·양주·등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면서 조운로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쟁 물자를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납은 이유의 행동을 무력으로 응징하고자 하였다. 이납은 자신의 부장 王濫과 위박 번진의 장수 信都崇慶과 더불어 서주를 공격하게 하였고, 이에 이 유가 王智興을 통해 당조에 도움을 요청하자 조정은 삭방군의 병사 5천과 인근 지역의 병력을 동원하여 평로 번진과 위박 번진의 병력을 물리침으로써 서주를 구원하였다. 서주 방어의 성공은 『자치통감』에서 평한 바와 같이 안사의 난 발발 이후 ‘강희의 조운이 처음으로 통하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당조의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²⁷³⁾

273) 『資治通鑑』 卷227 「唐紀」43 德宗建中二年, pp.7311-7312.

3. 전쟁의 장기화와 江淮漕運路

건중 3년(782) 윤정월 성덕 변진의 무장 王武俊이 이유탁을 살해하고 그의 수급을 경사로 보내면서 성덕 변진에서 시작된 반란은 일단락되는 듯하였다.²⁷⁴⁾ 반측지지와 조정의 갈등이 이유탁의 절도사 세습 요청에서 시작한 만큼, 이유탁이 사망한 시점에서 전쟁 역시 종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전쟁은 관습화되어 내려온 반측지지의 절도사 내부 선임권을 부정함으로써 반측지지의 존립을 막으려는 덕종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덕종은 반측지지에서는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던 변진 내 절도사 계승 요청을 불허하였으며, 이유탁에게 ‘아버지 이보신은 왕실에 충성되어 노고를 기울였으나, 이유탁은 아버지의 공업을 무너뜨리고 나라의 은혜를 업신여겨 내버렸다’²⁷⁵⁾는 비난을 가하면서 ‘하삭구사’를 전면 부정하였다.

당조는 이유탁의 절도사 세습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이정기의 사후 절도사 세습을 요청한 이남의 요청 또한 기각하였다.²⁷⁶⁾ 이에 이남은 자신의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당조와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하였으니²⁷⁷⁾, 이유탁의 죽음은 조정과 반측지지 간 전쟁의 끝이 아니라 한쪽이 완전한 항복을 선언해야 끝날 수 있는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반측지지와 당조 간의 갈등은 성덕 변진의 진압 후 당조의 사후 처리 방식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다시 점화되는데, 당시의 상황을 『자치통감』은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2월 戊午日, 이유탁이 임명한 定州刺史 楊政義가 항복하였다. 당시 하북은 대략 평정되었고 오직 魏州만이 함락되지 않았으며, 하남의 여러 군대는 濮州에서 이남을 공격하니 이남의 세력은 날로 위축되었다. 조정은 며칠 후에는 천하가 평정되리라 하며 甲子日에 張孝忠을 易·定·滄三州節度使, 왕무준을 恆冀都團練觀察使, 康日知를 深趙都團練觀察使로 삼고 德州·林州의 두 주를 朱滔에 예속시키고 각기 진수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주도는 완고히 심주를 달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니,

274) 『舊唐書』 卷142 「李惟岳傳」, p.3870.

275)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p.330-331.

276) 『資治通鑑』 卷227 「唐紀」43 德宗建中二年, p.7307.

277) 『舊唐書』 卷124 「李納傳」, p.3536.

이로 말미암아 원망하며 심주에 남아 주둔하였다. 왕무준은 본래 장효충을 경시하였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유악을 주살하여 공이 강일지보다 위에 있다고 여겼는데 장효충은 절도사가 되고 자신과 강일지는 모두 도단련사가 되었으며 또 趙州·定州 2개 주를 잃으니 또한 기뻐하지 않았다. 또 조를 내려 군량 3천석을 주도에게 주고 말 500필을 마수에게 주도록 하였다. 왕무준은 조정이 (성덕 변진의) 故人으로 절도사를 삼으려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위박이 이미 함락되고 나면 반드시 恆州와 冀州를 빼앗을 것이며 그런 까닭에 먼저 그 군량과 마필을 나누어 약화시키려는 것이라 여기고, 의심하여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 전열이 이를 듣고 판관 王侑와 許士則을 보내어 셋길로 심주에 가서 주도에게 유세하여 말하였다. “... 또 지금 황상은 하삭을 깨끗이 쓸어버려 변진으로 하여금 (절도사 직을) 세습하지 못하게 하고 장차 모두 문신으로 무신을 대체하려는 뜻을 품으셨습니다...” 또 판관 王瑯을 파견하여 허사칙과 함께 恆州에 가서 왕무준에게 유세하여 말하였다. “대부께서는 만 번 죽음에서 벗어날 계책을 내어 역적의 수괴를 주살함으로써 반란의 근원을 뽑으셨는데, 강일지는 趙州 밖으로도 나가지 않았거늘 어찌 대부와 같이 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 뜻은 아마 대부께서 싸움을 잘하니 후환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일 터로, 먼저 군부를 빈약하게 하고서 훗날 위박 변진이 평정되기를 기다려 마수(馬僕射)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주도(朱司徒)는 남쪽으로 향하여 함께 멸망시키려 할 따름입니다...” 278)

당조는 이유악 사후 성덕 변진을 분할하여 각각의 영역을 제한하려 하였다. 주도는 심주를 자신의 영역에 넣어 유주 변진을 확장하고자 하였지만 그 시도는 저지되었고, 성덕 변진은 장효충·왕무준·강일지 3명이 영역을 나누어 관할하게 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변진을 잘게 쪼개어 여러 사람에게 맡기는 처리 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이들도 있었으니, 이유악을 죽이고 당조에 항복하였던 왕무준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왕무준은 성덕 변진의 항복에 있어 자신의 공이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도단련관찰사에 머무른 반면 장효충이 절도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었고, 이에 여전히 조정과 대치하던 반측지

278) 『資治通鑑』 卷227 「唐紀」43 德宗建中三年, pp.7319-7321.

지 측에서는 주도와 왕무준에게 유세객을 파견한다. 전열은 주도에게 덕종이 절도사 직을 세습하지 못하게 하고, 장차 문신으로 하여금 절도사를 맡게 하고 자신들을 내칠 것이라고 하는 한편 왕무준에게는 훗날 조정이 그를 제거할 것이라며 자신들과 함께 조정에 맞설 것을 종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세 내용은 기실 덕종의 의도와도 어느 정도 합치되는 듯하다.

덕종이 즉위했을 당시 하남도와 회남도 인근의 절도사들은 대부분 무신들이 맡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 정원 연간에 당조와 반측지지 간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 하남도에 위치한 주요 번진의 절도사인 영평군(義成軍)절도사²⁷⁹와 宣武節度使에 어떠한 인물이 임명되었는지를 보면 이러한 경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영평군의 절도사는 과거 안사 진영 소속이었던 영호창이 대력 8년(773)에 죽은 후 영평군절도사는 이면이 맡았는데, 이면은 중실의 일원으로 안사의 난 당시부터 각지에서 군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어²⁸⁰ 그를 무신으로 분류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다. 건중 원년(780) 이면의 후임으로 절도사가 된 張鎰은 삭방절도사 張齊丘의 아들로 門蔭을 통해 관직에 올랐는데 그가 처음 맡은 관직이 左衛兵曹參軍이었을 뿐 아니라 이령요가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 항병을 훈련시켜 수비를 잘 해낸 공으로 포상 받았다는 기록을 보면²⁸¹ 그 또한 무신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며, 건중 4년(783) 영평군절도사가 된 李澄 또한 무예로서 偏將이 된 인물이기에 무신으로 분류하는 편이 적절할 것 같다.²⁸² 하지만 정원 2년(786) 의성군절도사가 된 賈耽은 후에 재상까지 지내는 전형적인 문신 관료이며²⁸³, 정원 9년(793) 절도사가 된 李融 또한 弘文館에서 『續春秋傳』 편찬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문신 관료였다.²⁸⁴ 즉 영평군절도사는 정원 연간에 들어서면서 문신이 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선무절도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대력 11년(776) 변주를 근거로 이령요가 반란을 일으켰다 평정된 이후 절도사로 임명된 이충신은 어려서부터 종군하여 회서절도사까지 역임한 무신이었으며, 대력 14년(779)에 절도사로 임명된 이면 또한 앞서 설명하였듯 무신으로 분류할 수 있고 건중 원년(780)에 절도사로 임명된 劉洽(劉玄佐)²⁸⁵은 滑

279) 貞元 元年(785)에 義成軍으로 개칭.(『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48)

280) 『舊唐書』 卷131 「李勉傳」, pp.3633-3636.

281) 『舊唐書』 卷125 「張鎰傳」, pp.3545-3546.

282) 『舊唐書』 卷132 「李澄傳」, p.3656.

283) 『舊唐書』 卷138 「賈耽傳」, pp.3782-3783.

284) 『舊唐書』 卷84 「裴光庭傳」, p.2807.

州의 牙將 출신으로 무신이 절도사가 된 사례이다. 하지만 정원 8년(792) 절도사로 임명된 吳湊은 太子賓客과 福建觀察使를 지낸 문신이었다.²⁸⁶⁾ 이처럼 당조와 반측지지 간의 전쟁이 종식된 이후 조정이 문관을 절도사로 임명하는 경향성을 보였다는 현상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당조가 반측지지를 토벌하는데 성공한 이후 문관 절도사를 임명하는 현상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덕종 시기에 토벌된 반측지지로는 산남동도가 대표적인데, 양승의의 사후 건중 2년(781) 사이에 차례로 절도사로 임명된 이승과 가탐은 모두 문신 관료이다. 가탐이 문신임은 앞서 언급한 바이며, 이승은 明經科 출신으로 지방관으로서 군사 작전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武職을 맡은 바는 없는 문신 관료이다.²⁸⁷⁾ 이후 헌종 원화 12년(817) 회서 번진을 토벌한 후 進士科 출신의²⁸⁸⁾ 재상 裴度를 회서절도사로 임명한 사례²⁸⁹⁾ 또한 반측지지 토벌 후에 당조가 문신을 절도사로 임명하는 방식이 이후에도 계속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덕종이 반측지지를 제압한 이후 문신 절도사로서 무신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열의 유세 내용은 사실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무장들 가운데에 이러한 의구심이 퍼져있는 상태에서 덕종은 성덕 번진을 셋으로 분할함으로써 개별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였으니, 왕무준 등의 무장들이 이에 반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²⁹⁰⁾ 또한 수십 년간 ‘하삭구사’를 행해온 하북삼진의 한 축을 이루는 성덕 번진에 대한 분할 시도는 여타 반측지지로 하여금 조정이 자신들을 완전히 평정하려 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치로, 이들이 서로 유세하면서 단합을 꾀한 것 역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왕무준은 조정에 반기를 들 계획을 세웠으며, 전열과 이남 등 기준에 당조와 맞서고 있던 반측지지와도 연계하였다. 다만 전체 전

285) 貞元 元年(785)에 玄佐라는 이름을 하사받음.(『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48)

286) 『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364 ; p.373.

287) 『舊唐書』 卷115 「李承傳」, pp.3378-3379.

288) 『舊唐書』 卷170 「裴度傳」, p.4413.

289) 『舊唐書』 卷15 「憲宗本紀」下, p.460.

290) 唐朝가 藩鎮을 통제하기 위하여 藩鎮을 분할하여 단일 藩鎮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식은 이후 憲宗 시기에도 거의 똑같이 이용된다. 王武俊의 사후 그의 아들 王士真을 거쳐 손자 王承宗이 3대에 걸쳐 成德節度使를 세습하고자 하였던 元和 4년(809) 당시에도 조정에서는 새로운 節度使를 인정해주는 대신 번진의 영역을 분할하여 그 힘을 약화시키자는 논의가 나온 바 있었다.(『舊唐書』 卷142 「王承宗傳」, p.3878) 이러한 시도는 조정이 새로운 절도사를 임명하는 시점 외에는 반측지지를 제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다.

황은 이미 당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기에, 이들에게는 당조에 충순한 모습을 보이던 절도사들을 추가적으로 설득함으로써 반란군의 세력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유세를 통하여 반란군 진영에 합류한 절도사로는 회서절도사 이희열을 들 수 있다. 이희열 또한 앞선 대력 14년(779) 기존의 절도사 이충신을 축출한 이력이 있었던 것이 이희열의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당조는 이충신을 대신하여 이희열을 절도사로 추인하는 대신 회서 번진에게서 강회 조운로의 주요 거점인 변주를 빼앗아 영평군절도사 이면에게 귀속시킨 바 있었는데²⁹¹⁾, 대력 14년의 상황과 당시 성덕 번진의 상황 간에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희열은 건중 3년(782) 평로절도사 이남 공격에도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남 등과 모의하여 오히려 변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²⁹²⁾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이희열은 建興王·天下都元帥를 참칭하여 당조에 대한 반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²⁹³⁾

하지만 이희열은 절도사가 된 이후 당조에 지속적으로 충순한 모습을 보이며 양승의 토벌에 앞장서기도 하였고, 덕종 또한 이희열을 신임하고 있었기에 이 시점에 갑자기 반측지지 세력에 합류하게 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양승의가 토벌되면서 조정이 산남동도 인근을 확보하면서 반측지지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이에 당조가 이들을 모두 토벌하리라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²⁹⁴⁾ 이희열의 행보에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희열의 결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건중 2년 당시 산남동도를 토벌한 이희열이 襄州를 자신의 영역으로 흡수하려 했지만, 그 시도가 저지당한 데에서 찾아온 불만으로 인해 당조를 등졌다는 해석이다. 『奉天錄』에서는 이희열이 자신이 적을 이긴 공이 있다며 襄州를 차지하려 하였으나 본진으로 귀환하라는 조서가 내려오자 불만을 품고서 해당 지역을 약탈한 후에야 회서로 귀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²⁹⁵⁾, 산남동도 토벌 당시 淮南西道黜陟使로서 이희열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승 또한 이희열이 자신의 공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음을 당시에 언급한 바 있다.²⁹⁶⁾ 다만 襄州는 산남동도의

291)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3.

292)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p.3943-3944 ; 『新唐書』 卷225中 「逆臣傳」中, p.6438.

293)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4.

294) 『舊唐書』 卷141 「張孝忠傳」, pp.3855-3856.

295) 『奉天錄』(趙元一 撰, 『奉天錄』(『奉天錄(外三種)』, 北京: 中華書局, 2014) 卷1, p.20.

치소이기 때문에 이희열이 襄州까지 자신의 영역으로 삼을 경우 이희열은 회서와 산남동도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역을 총괄하게 되는데, 이희열이 전공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포상을 기대하였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미 절도사가 되는 시점에서 변주를 회서 변진에서 분리시키는 당조의 조치를 경험한 이희열이 당조가 강한 조운로가 지나는 핵심 지역인 襄州를 자신의 영역으로 인정하리라 기대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당조 또한 이희열의 반란 소식에 당혹감을 느낀 것 같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희열에게 太子太師 顏眞卿을 파견하여 그를 선위하고자 시도한다.²⁹⁷⁾ 당대를 대표하는 명필로도 이름난 안진경은 당시 일흔이 넘는 나이로, 사료에서는 이희열에게 안진경의 파견을 결정한 배후에는 그와 사이가 좋지 않던 재상 盧杞의 농간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기의 표현대로 안진경은 ‘사방에서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쓰지 않고 이희열을 회유하기에 안진경과 같은 명성 있는 인물이 적절했던 것만큼은 사실이다. 게다가 덕종 또한 이희열의 반란에 당혹감을 느꼈기 때문에 안진경 정도의 인물을 파견하면 이희열을 회유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희열은 안진경 앞에서 폭언을 쏟아내며 당조의 제안을 거절하였다.²⁹⁸⁾ 이후 이희열은 여주와 변주를 공격하였고, 건중 4년(783) 12월에는 변주를 점령함으로써 당조의 강회 조운로를 재차 단절시켰다.²⁹⁹⁾

그러자 당조는 앞서 양송의를 토벌하면서 확보한 강한 조운로를 다시 활용하여 물자를 공급하고자 하였다. 이 작업을 총괄한 인물은 江南西道節度使 曹王 李臯로³⁰⁰⁾, 그가 선택한 운송로는 아래의 인용문과 같다.

당시 남방의 변진이 각각 경계를 단아걸고 스스로 수비하였는데, 오직 조왕 이고만이 수차례 사신을 보내며 길을 열고 공헌하였다. 이희열이 변주·정주를 공격해오자 강회의 길이 끊어졌으니, 조공이 모두 宣州·饒州·荊州·襄州를 통하여 武關에 이르렀다. 이고가 郵驛을 정비하고 길을 정리하니 이로 말미암아 왕래하는 사신들이 통행함에 막힘이 없게 되었다.³⁰¹⁾

296) 『舊唐書』 卷115 「李承傳」, pp.3379-3380.

297)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4.

298) 『舊唐書』 卷128 「顏眞卿傳」, p.3595.

299)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8.

300) 『舊唐書』 卷131 「李臯傳」, p.3638.

이고는 전주·요주·형주·양주를 거쳐 무관에 이르는 운송로를 선택하였는데, 이는 장강과 한수의 수로를 통하여 양주에 다다른 이후 육로를 통하여 무관을 거쳐 장안으로 향하는 강한 조운로이다. 당조는 이에 당장 강남의 물자를 수급받지 못하는 위기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희열이 변주를 점령한 이상 강회 조운로의 활용은 불가능해졌다. 겨우 확보한 강회 조운로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상실할 위기에 처한 당조는 이에 장기적으로 물자 공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였고,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

301) 『資治通鑑』 卷229 「唐紀」45 德宗建中四年, p.7379.

4. 陸贄의 상황 인식과 唐朝의 藩鎮 대책

덕종은 건중 4년(783) 8월 한림학사였던 육지에게 하북·하남·회서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변진과의 전쟁의 이해를 진술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육지는 「論兩河及淮西利害狀」을 지어 덕종에게 올리게 되었다.³⁰²⁾ 해당 문장은 덕종 시기 변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황제의 요구에 응하여 작성된 것이니만큼 건중 연간 관료들이 당시 변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최적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장이 짧지 않은 관계로, 이하에서는 논지 전개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육지의 글을 절록하여 당시 육지는 변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신이 생각건대 幽州·燕州·恒州·魏州의 도적은 기세가 느리고 끼치는 화가 가벼우며, 汝州·洛州·滎州·汴州의 근심은 기세가 급하고 끼치는 화가 무겁습니다... 안록산(胡羯)이 거병하여 맨 처음 薊州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숙종이) 중흥한 이후로도 이들을 쓸어버릴 겨를이 없었던 까닭에 항복한 장수들을 위무하였습니다. 조정이 하삭을 도외시한 것이 거의 30년이니, 일조일석에 급하게 여길 바가 아닙니다... (전열·왕무준·주도는) 겨우 위주의 교외에 이르렀지만 갑자기 다시 자신의 소굴로 돌아가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뜻을 둘 뿐 형세 상 다른 것을 도모할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황하와 太行山이 그 길을 막고 아울러 并州·汾州·洛州·潞州가 그 복심을 압박하니 비록 제멋대로 굴려 하여도 또한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지역의 흉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력으로 억누르는 것이라 급하면 힘을 합치지만 물러나면 뒤에서 미워하니, 이들은 모두 구차한 무리로 해당 지역을 벗어나는 근심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이 말한 ‘유주·연주·항주·위주의 도적은 기세가 느리고 끼치는 화가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회열은 남을 해침에 있어 잔인하고 집어삼킴에 있어 과감하며 蔡州와 許州의 부유하고 온전한 땅에 근거하고 거기에 鄧州와 襄州에서 노획한 물자가 더해졌으니, 뜻함에 있어 만족함이 없고 병사들은 또한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동쪽을 도적질 하면 조운로가 장차 막히게 되며 북쪽을 엿보면 도성이 혹여 위협할 수

302) 『陸贄集』 卷11 「論兩河及淮西利害狀」, p.315.

있습니다. 이것이 신이 말한 ‘여주·낙주·형주·변주의 근심은 기세가 급하고 끼치는 화가 무겁다’는 것입니다.³⁰³⁾

육지는 당시 반란에 가담한 변진을 크게 하북삼진으로 대표되는 하북의 변진들과 하남 인근에 위치한 변진의 두 유형으로 나누어 이해하였는데, 육지가 그 중에서도 특히 위협적으로 여긴 세력은 후자였다. 육지는 하북의 변진들은 당조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어 일거에 소탕하기도 어렵거니와 이들 변진 간의 내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데 급급하며 하북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 때문에 하북의 변진들은 ‘기세가 느리고 끼치는 화가 가볍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하남의 변진, 특히 이회열 세력의 경우 물자가 풍부하며 병사들의 기세 또한 날카로워 동쪽으로 조운로를 침탈하거나 북쪽으로 경사를 직접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육지는 판단한다. 이러한 상황 판단 하에서 육지가 덕종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하북의 변진들과 대처하고 있는 하동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전선을 유지하면서 이회열이 있는 회서 변진을 빠르게 진압함으로써 장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폐하께서 만약 그 완급과 경중을 살피시어 이회광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포위된 양성을 구원하고 李芑(河陽三城節度使)로 하여금 본진으로 돌아가 동도(낙양)를 구원하게 하시면 汝州·洛州가 공고해지고 梁州·宋州 또한 안정될 것입니다... 지금 주도는 달아났고 왕무준은 위축되었으며 오직 전열만이 위태로운 성에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군대가 모두 돌아가더라도 그들은 또한 겨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뿐입니다. 하물며 李抱眞·馬燧를 남겨두면 틈을 보아 토벌하여 제거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³⁰⁴⁾

이에 육지는 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는 양성과 낙양을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하북 변진들의 경우 가급적 최소한의 병력을 두어 대처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그치는 정도가 좋다는 의견을 개진한다. 물론 육지는 틈을 노린다면 하북 변진들까지도 토벌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였지만, 맥락상 이미 30여년에

303) 『陸贄集』 卷11 「論兩河及淮西利害狀」, pp.325-328.

304) 『陸贄集』 卷11 「論兩河及淮西利害狀」, pp.329-332.

걸쳐 도외시해온 하북 번진은 최소한의 병력만을 활용하여 묶어두면서 조운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하남의 번진들을 제압하는 것이 육지의 생각이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 같다. 하남 지역의 번진(특히 회서 번진)을 빠르게 토벌할 경우 조운로와 경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바탕이 마련되어야만 장안의 조정은 조운로를 통하여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반촉지지와의 전쟁을 효율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육지의 판단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다만 육지가 이러한 의견을 개진하기 이전부터 덕종은 강희 조운로의 안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육지가 제시한 이상의 의견이 그의 유별난 탁견이었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조운로의 안정에 대한 덕종의 관심은 이유가 투항한 이래 당조가 서주 일대의 절도사로 누구를 임명했는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조는 건중 3년(782) 이유를 徐·沂·海團練觀察使로 삼았고³⁰⁵⁾, 같은 해 8월 그가 죽자 그의 부장 高承宗을 徐州刺史·徐海沂都團練使로 삼음으로써 부대 지휘 체계에 거의 손을 대지 않으려 하였다.³⁰⁶⁾ 다만 이후에도 이남은 지속적으로 서주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서주 세력은 지속적으로 이남과 군사적 마찰을 빚었다.³⁰⁷⁾ 조운로를 지켜야 하는 조정의 입장에서 해당 지역의 안정화는 중요한 과제로, 조정은 흥원 원년(784) 고승중이 죽자 조정은 그의 아들 高明應에게 서주를 맡긴 것 또한 해당 지역의 안정에는 지휘 계통을 유지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기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³⁰⁸⁾

하지만 고명응에게 서주를 맡긴 선택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필이 덕종에게 건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원 4년(788), (張建封이) 御史大夫·徐泗濠節度使에 임명되었다. 이전에 이유가 서주를 가지고 항복하였는데 이유가 죽자 고승중·獨孤華가 그를 대신하였으나, 그 땅은 도적들과 인접한 지역이라 항상 곤궁하여 지탱하기 어려워하였다. 이에 이필이 건의하여 말하였다. “동남의 조운은 회하에서 뚝 변하에 이르는데, 서주의 埇橋는 강·회의 計口입니다. 지금의

305)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2.

306)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p.334-335. 다만 海州와 沂州는 李納의 관할 영역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李洧 등이 관할한 지역은 徐州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307) 『舊唐書』 卷156 「王智興傳」, pp.4138-4139.

308)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42.

서주자사 고명응은 매우 어리니, 혹여 이남에게 병합되어 餉路가 막히게 된다면 이는 장·회를 잃는 것입니다. 칭건대 장건봉으로 그를 대신하게 하고 濠·泗 2개 주를 더하여 주십시오. 대저 서주의 땅은 중하고 병사들은 굳세니, 만약 절도사 또한 어질다면 곧 淄靑(평로 번진)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황제가 말하였다. “좋다.” 이로 말미암아 서주는 다시금 雄鎮이 되었다.³⁰⁹⁾

이필은 ‘고명응의 나이가 매우 어리’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남의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보다 신뢰할 만한 장수인 장건봉에게 서주의 방어를 맡겨야 한다고 건의한다. 이에 당조는 정원 4년(788) 泗州·濠州와 서주를 총괄하는 서사호절도사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장건봉을 임명함으로써 조운로가 위치한 서주 인근 지역을 안정화시키고자 하였다.

새로이 만들어진 서사호절도사로 임명된 장건봉은 덕종의 깊은 신뢰를 받던 인물이었다. 대종 보응 연간 당시 장건봉은 蘇州·常州 일대에서 군읍을 약탈하던 도적들을 말로 설복하여 항복시킨 전과가 있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진에서 辟召되어 幕職官으로서 활약하였다. 장건봉은 이후 서사호절도사가 된 이후에 홍원 원년(784) 해당 지역의 城池를 수리하면서 민심을 안정시켰을 뿐 아니라, 이희열의 공격을 잘 수비해내는 등 덕종의 인선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된다.³¹⁰⁾ 『全唐詩』에 남아있는 덕종의 작품 가운데 정원 13년(797)에 지은 「送徐州張建封還鎮」이라는 시의 존재 또한 당시의 여러 무장 가운데 장건봉이 덕종의 각별한 신뢰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전당시』에 실린 덕종의 시는 총 15수로, 장건봉에게 건넨 위의 시를 제외한 14수는 모두 中和節·重陽節·元日·中元節(혹은 百中·盂蘭盆節)과 같은 절기나 백료가 모인 연회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읊은 시이다.³¹¹⁾ 반면 “斧鉞을 받아 藩維를 담당하는” 장건봉에게 보낸 해당 시는 특정 개인을 향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여타 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당시 장건봉이 서주로 돌아가게 되자 덕종은 그에게 위의 시를 지어 전별하였는데, 정원 연간에 마수·혼감·유현좌·이포진 등 절도사로서 입조했다가 다시 번진으로 돌아간 이들 가운데 어

309) 『新唐書』 卷158 「張建封傳」, p.4940.

310) 『舊唐書』 卷140 「張建封傳」, pp.3829-3830.

311) 『全唐詩』(彭定求 等 編, 『全唐詩』(全25冊), 北京: 中華書局 1960) 卷4 「德宗皇帝」, pp.44-47.

제시를 받은 사람은 장건봉이 유일하였다.³¹²⁾ 또한 덕종은 서주로 돌아가는 장건봉에게 그의 절개를 칭찬하는 등 장건봉을 유달리 신뢰하는 모습을 보인다.³¹³⁾ 덕종이 서사호절도사를 신설함으로써 과거 서주자사에 비하여 그 힘을 강화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이 이토록 신뢰하는 장수인 장건봉을 임명한 것은 그만큼이나 당시 서주가 당조에 있어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

장건봉을 서사호절도사로 임명하는 조치는 이남을 자극하는 결정이었다. 평로 번진의 이남은 지속적으로 서주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주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고, 덕종은 이러한 서주에 泗州와 濠州 등 강희 조운로가 지나는 영역 상당부를 총괄하는 절도사로 장건봉을 임명함으로써 서주 방어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다. 장건봉의 墓誌銘에 나타난 그의 이후 행보를 확인해보면 장건봉은 서사호절도사로서 정원 16년(800) 병에 걸려 사망하기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¹⁴⁾ 서주 일대는 덕종 이후에도 중요시되었으니, 이후 당조는 이 지역에 武寧軍을 설치함으로써 정원 연간 이후 강희 조운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³¹⁵⁾

다만 당조가 강희 조운로 안정화에 이렇게 공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당조는 번진과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려 덕종이 奉天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고, 이에 덕종은 봉천에서 「罪己詔」를 반포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다. 『陸贄集』은 해당 문장의 말미에 明末清初의 문인인 蔡九霞의 평을 달았는데, 채구하는 덕종의 실패를 당시의 상황을 꿰뚫어본 육지의 현명한 계책을 덕종이 채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돌림으로써 육지를 칭양하고 덕종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³¹⁶⁾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 덕종은 이희열의 반란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강희 조운로의 안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당조는 제국 재건을 위해서는 강희 조운로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고, 덕종이 당시 육지에게 조언을 구한 배경 또한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선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황제가 한림학사에게 현상을 정리 보고하라는 요청이라는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312) 『冊府元龜』卷385「將帥部」褒異11, p.4354.

313) 『新唐書』卷158「張建封傳」, p.4941.

314) 『張建封墓誌銘』(羅火金, 「唐代張建封及其妻墓志考」, 『文物世界』2008-3), p.44.

315) 『舊唐書』卷14「順宗本紀」, p.406.

316) 『陸贄集』卷11「論兩河及淮西利害狀」, p.333.

때문에 채구하의 평가와는 달리 육지의 글은 당시의 정세를 꿰뚫어본 유달리 특별한 제안이라기보다는, 황제가 던진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육지가 한림학사로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고한 조언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온당하다. 오히려 덕종이 봉천으로 피난하게 된 것은 육지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육지도 주장하였으며 당조 또한 촉각을 곤두세웠던 회서절도사 이희열을 제압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회서 번진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당조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희열에 대한 공격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서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소 결

덕종은 즉위 후 토번인 포로 500명을 석방·귀국시키는 등 토번과의 화친 관계 수립에 집중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당조와 토번 간의 관계는 크게 가까워졌다. 양국 간의 공식적인 화친은 건중 4년(783)에 청수에서 회맹을 체결함으로써 맺어지지만, 당시의 맹문에 양국의 화친은 덕종이 즉위 직후 포로를 귀환시킨 데에서 비롯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어, 대종 시기와는 달리 덕종은 즉위 초부터 위구르보다 토번과의 외교 관계에 크게 집중하였으며 그것이 분명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구르가 약체화된 상황에서 토번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당조는 서북 변경에 투입되던 물자와 병력을 제국 내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덕종이 반측지지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건중 원년(780) 경원군의 절도사 교체 시점에서 裨將 유문희가 이회광의 절도사 부임에 반대하며 자신을 절도사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덕종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토번이 유문희의 원군 요청을 거절한 사건이 있었다. 이듬해인 건중 2년(781)에 덕종은 성덕절도사 이보신의 사망 이후 이유악의 절도사 세습 요청을 불허하고, 반측지지와 전쟁에 대비하여 병력을 재배치하면서 토번을 방어하기 위한 병력인 방추병 1만 2천명을 관동으로 이동시키는 등 당조와 토번의 관계 회복은 추후 번진 정책의 전개에 있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유악은 이에 위박·평로·산남동도와 연합군을 형성함으로써 대규모의 반측지지 병력이 당조와 맞서는 형세가 갖추어졌다. 이들은 강회 조운로와 강한 조운로를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수송할 수로를 끊어버렸고, 이로써 여러 번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쓰일 물자를 공급해야 할 장안은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당조는 위기 타개를 위하여 강한 조운로가 지나가는 산남동도의 절도사 양승의를 회유하려 하였으나, 양승의가 이를 거절하자 당조는 산남동도를 공격하여 양승의를 자살로 몰아넣음으로써 강한 조운로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였다. 여기에 같은 해 10월 평로 번진의 영역 가운데 강회 조운로가 지나가는 지역인 서주의 자사 이유가 당조에 귀순하면서 당조는 조운로가 지나는 전역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수세에 몰린 성덕 번진에서 건중 3년(782) 윤정월 왕무준이 이유악을 살해

하고 조정에 투항함으로써 성덕 변진에서의 반란은 일단락되었다. 평로 변진의 이납 등은 여전히 당조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전쟁에서 당조는 점점 우세를 점하였고, 이에 반란군 진영은 조정에 투항한 변진들에 덕종이 과거 반측지지의 절도사들을 모두 내쫓고 문신으로 대체할 것이라며 유세함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과거 성덕 변진의 왕무준과 유주 변진의 주도 등이 이에 응하여 반측지지 진영에 합류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당조를 가장 크게 위협한 존재는 회서절도사 이희열이었다. 이희열은 반란군에 합류한 이후 변주를 공격하여 건중 4년(783) 12월에 이를 점령함으로써 재차 강회 조운로를 단절시켰다. 당조는 이에 강한 조운로를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물자 보급에는 재차 문제가 나타났고, 덕종은 당시 한림학사였던 육지에게 전쟁의 이해를 진술하라고 요구하였다.

육지는 당시 반란에 가담한 변진을 크게 당조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 오래된 하북의 변진 및 평로 변진과 하남 지역에 위치한 회서 변진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전자가 자기 권역을 지키는 데 급급한 상황인 반면 후자는 조운로를 침탈하고 장안을 노릴 수 있는 위협 세력이라 분석하였다. 이에 육지는 하북의 변진은 하동 지역의 최소한의 병력으로 맞상대하면서 회서 변진을 빠르게 진압함으로써 조운로와 장안의 안전을 확보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육지의 주장은 장안과 조운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던 그 이전부터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당조는 평로 변진의 이납과의 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주의 방어를 위하여 덕종이 신뢰하던 장건봉을 서사호절도사로 임명하는 등 강회 조운로의 방어를 대단히 중시하였다.

후대에는 당시 덕종의 실패 요인이 육지의 간언을 채납하지 않은 데 있었다고 평하기도 하지만, 이는 육지가 당시 황제에게 자문하는 한림학사로서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신분이었음을 간과한 기술이다. 육지의 글이 올려지기 전에도 덕종은 이미 장안의 안정과 조운로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회서 변진 공격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한 육지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당조의 주요한 관심은 회서 변진에게서 변주를 되찾는 데에 있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이들이 중요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있던 회서절도사 이희열을 제압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덕종은 결국 장안을 버리고 봉천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

Ⅲ. 貞元 연간 內憂外亂의 극복

1. ‘涇師之變’의 발발과 그 수습

1) 奉天 피난 전후의 武將들의 행보

덕종이 즉위 직후부터 변진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래, 덕종의 신뢰를 얻은 무장은 여럿이 있었다. 각자의 상황이 달랐던 만큼 단순한 유형화는 위험하긴 하지만, 이들을 크게 나누어보면 끝까지 당조에 충순함을 유지하였던 무장과 결국 당조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주살된 무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의 대표로는 李晟·馬燧·渾瑊을 들 수 있고, 후자의 대표로는 朱泚·李懷光·李希烈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이성·마수·혼감은 덕종 시기를 대표하는 무장이다. 당조와 지속적으로 대립하였던 토번의 尙結贊 또한 당의 良將으로는 이성·마수·혼감 3명뿐이며 그렇기에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할 정도였으니³¹⁷⁾, 이들 3명을 당 덕종 시기를 대표하는 명장이라 하는 것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들은 동시에 덕종 시기 재상으로서 가장 오랜 기간 자리를 지킨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성은 흥원 원년(784)에서 정원 9년(793)까지 10년, 마수는 정원 원년(785)에서 정원 11년(795)까지 11년, 혼감은 흥원 원년에서 정원 15년(799)까지 15년여를 재상으로 있었다. 이들은 모두 절도사로서 전장에서 복무하며 거의 명목상으로만 재상 직위를 맡은 이른바 ‘使相’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의 여타 재상과 비교하면 정치에 대한 영향력 자체는 더 약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무장으로서의 전공이 높아 다수의 병력을 지휘하면서도 죽는 시점까지 재상 직을 유지할 정도로 덕종의 신임을 받았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³¹⁸⁾

다만 이들이 덕종의 신임을 받고 중용된 것은 흥원·정원 연간(784-805)에 들어서로, 즉위 초인 건중 연간(780-783)에 덕종이 중용했던 무장들은 이성 등이 아니라 白志貞·朱泚·李懷光·李希烈과 같은 인물이었다. 덕종은 즉위 직후부터 神策軍의 지휘부 교체, 유문희의 반란 진압, 양승의 토벌 등 다양한 군사적인 움직임을 취하였는데, 백지정 등 4명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317) 『資治通鑑』卷232「唐紀」48 德宗貞元二年, p.7473.

318) 『舊唐書』卷134「馬燧傳」, p.3701 ; 『舊唐書』卷134「渾瑊傳」, p.3710.

였다. 물론 정원 2년 尙結贊이 당의 良將을 언급하면서 이들 4명을 언급하지 않은 데서 보듯, 이들은 정원 2년 이전까지 차례차례 덕종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덕종은 초기 구상했던 반측지지에 대한 강경책을 포기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때문에 덕종이 반측지지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4명의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리 출신인 백지정의 본명은 琇珪로, 李光弼 휘하에 있을 시절 이광필의 총애를 받았으며 대종 또한 그의 재능을 높이 사 司農少卿으로 삼은 바 있다. 덕종 또한 그를 소견하여 말을 나누어보고서 그를 神策軍使로 삼고 志貞이라는 이름을 하사할 정도로 백지정을 총애하였다³¹⁹⁾. 덕종이 백지정을 神策軍使로 삼기 전의 신책군사는 王駕鶴으로, 그는 환관으로서 10여 년간 神策軍을 맡아 온 인물이었다.³²⁰⁾ 왕가학 대신 백지정을 신책군사로 삼았다는 것은 덕종이 금군인 신책군을 맡기기에 전대 황제를 시봉하던 환관보다 백지정을 보다 믿음직한 인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이후 번진과의 군사 작전에 신책군을 동원하기에 앞서 덕종은 신책군 병력의 증원을 위하여 백지정을 京城召募使로 삼아 신책군의 강화를 특별히 지원하기도 하였다.³²¹⁾ 요컨대 백지정은 황제의 총애를 받아 장안에서 금군을 통솔하는 황제의 근신으로, 그는 전공보다는 황제의 신뢰를 받아 병권을 잡은 인물이라 할 수 있다.

朱泚는 백지정과 는 계열을 달리하지만, 덕종의 신임을 받은 무장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朱泚는 유주절도사 李懷仙의 經略副使로 본격적인 官歷을 시작하였는데, 대력 3년(768) 이희선을 죽이고서 절도사가 된 朱希彩가³²²⁾ 대력 7년(772) 역시 부하에게 피살되자, 朱泚는 동생 朱滔의 도움으로 權知留後를 거쳐 유주절도사가 되었다. 다만 그는 반측지지인 유주 번진의 절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사가 된 이듬해인 대력 8년(773) 동생 주도에게 병사 2,500명을 이끌고 경사의 서쪽으로 가 防秋하게 함으로써 대종의 환심을 샀다.³²³⁾ 이후 朱泚는 步騎 3,000명을 이끌고 입근하기를 청하여 직접 대종을 알현하였으며, 입근이 끝난 뒤에도 본인은 경사에 머무르며 유주 번진은 동생인 주도를 유후로 삼고 그에게 번진을 맡기는 파격적인 행보를 취하였다. 朱泚는

319) 『舊唐書』 卷135 「白志貞傳」, pp.3718-3719.

320) 『舊唐書』 卷119 「崔祐甫傳」, p.3441.

321) 『舊唐書』 卷135 「白志貞傳」, p.3719.

322) 『舊唐書』 卷143 「李懷仙傳」, p.3896.

323) 『舊唐書』 卷150下 「朱泚傳」, pp.5385-5386.

이후에도 경사에서 군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황제인 대종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표하였으며, 이에 조정은 朱泚에게 동평장사를 拜하고 李抱玉을 대신하여 隴右節度使·權知河西·澤潞行營兵馬事를 맡겼다.³²⁴⁾ 이후 덕종이 朱泚를 유문회 토벌에 투입시켰다는 사실은 앞서 이미 살펴본 바로, 朱泚는 반측지지 출신으로 조정에 귀순한 임물임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그의 군사적 능력과 충성심을 신뢰하였던 존재였다.

이회광 또한 朱泚와 함께 유문회 토벌을 맡았던 무장으로, 이회광이 경사를 토번에게서 방어함에 있어 핵심인 삭방절도사를 맡았다는 사실은 덕종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이회광은 鞞鞫 사람으로, 本姓은 茹이다. 선조가 유주로 옮겨온 이래 그의 아버지 常이 삭방군의 장수로서 전공을 세워 李氏를 하사받았다 한다. 이회광 또한 어려서부터 삭방군에서 종군하였는데, 그의 군사적 재능은 당시 삭방절도사 곽자의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났다.³²⁵⁾ 삭방군 내에서 승진을 계속하던 이회광은 군기를 엄정히 유지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대력 13년(778) 이회광은 邠·寧·慶三州都將이 되어 토번의 침략을 저지하는 등 이후 자신의 군사적 능력을 입증하였으며, 덕종은 즉위 후 곽자의에게서 병권을 회수하면서 이회광을 河中尹·邠州刺史·邠寧慶晉絳慈隰節度使로 삼았다.³²⁶⁾ 건중 2년(781)에 이회광은 삭방절도사와 빈녕절도사를 겸함으로써 토번으로부터 장안을 방어하는 역할을 총괄하게 되었다.³²⁷⁾

이회열은 遼西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평로군에 종군하였다가 이충신을 따라 하남으로 내려온 인물이었다. 보응 초(762) 이충신이 회서절도사가 되자 이회열은 그의 부하장수로서 左廂都虞候가 되었다. 대력 말에 이충신이 회서절도사로서의 소임에 소홀한 채 妹婿 張惠光을 押衙로 임명한 뒤 그에게 업무를 위임하자, 번진 내에서는 이충신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다. 이에 대력 14년(779) 회서 번진에서는 반란이 일어나 장혜광 부자를 살해하고 이충신은 조정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이 당시 조정이 새로운 淮西留後로 임명한 인물이 이회열로, 대신 조정은 회서 번진에서 변주를 떼어 潁滑亳節度使 이면의 관할 영역에 포함시켰다.³²⁸⁾

당조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절도사를 축출하고 해당 번진을 장악한 세력에게

324) 『舊唐書』 卷150下 「朱泚傳」, p.5386.

325)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3491.

326)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p.3491-3492.

327)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3492.

328)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3.

강희 조운로가 지나는 중요 지역인 변주를 맡기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유후 직을 인정받은 이희열 역시 이러한 조치에 큰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덕종이 즉위한 후 대력 14년 9월경 회서절도사에게는 淮寧軍節度使라는 새로운 군호가 내려졌으며³²⁹⁾, 이희열은 초대 淮寧軍節度使에 임명됨으로써 공식적인 회서 번진의 절도사가 되었다.³³⁰⁾ 비록 절도사가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이희열은 이후 산남동도절도사 양승의를 토벌함에 있어 漢北都知諸兵馬招撫處置使를 맡아 산남동도 번진의 제압에 큰 공을 세웠다.³³¹⁾ 육지 또한 덕종에게 올린 글에서 당조는 초기 반측지지와 대치함에 있어 주도·이희열이면 이들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기술함으로써 덕종이 당시 이희열의 능력을 크게 신뢰하였음을 언급한 바 있다.³³²⁾

이들 4명의 무장은 모두 덕종의 신뢰를 얻었지만, 그 출신과 성격에 있어서 각 인물들 간의 차이는 상당히 컸다. 백지정이 덕종이 직접 무장으로 지명하여 금군을 맡길 정도로 황제의 두터운 총애를 받은 인물이라면, 朱泚는 반측지지의 절도사를 지낸 인물이나 조정에 투항한 보기 드문 이력을 지녔다. 이희광은 명신으로 이름난 광자의 휘하에서 그의 신임을 받으며 승진하여 삭방절도사에 이른 무장이었으며, 반면 이희열은 번진 내에서 절도사를 축출한 반란의 주모자로서 조정에게서 유후로 추인을 받아 절도사가 된 이후에 조정의 명을 받들어 각종 군공을 세움으로써 조정의 신뢰를 얻게 된 무장이었다. 이상의 특징들은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무장	직위	등용의 배경	거주	특이 사항
白志貞	신책군사	· 이광필과 대종의 총애를 받음 · 덕종이 직접 신책군을 맡김	장안	서리 출신
朱泚	유주절도사	· 방추병 파견에 적극적 · 대종에게 입근한 뒤 장안에 체류 · 조정이 주도한 군사 업무에 참여	장안	반측지지로 분류된 번진의 절도사
李懷光	삭방절도사	· 광자의 휘하에서 근무, 군사적 능력을 인정받음 · 광자의 이후의 삭방군 총괄자	서북	
李希烈	회서절도사	· 전임 절도사 이충신 축출 후	회서	

329)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23.

330)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3.

331)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3.

332) 『陸贄集』 卷11 「論關中事宜狀」, pp.345-346.

	회서 변진 내에서 추대 · 양송의 토벌에서 공을 세움	
--	----------------------------------	--

<表-2. 건중 연간 중용된 무장들의 특징>

이들 4명은 장안, 하북의 반측지지, 서북 변경, 반측지지와 맞서는 하남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군대의 지휘권을 맡은 인물들로, 이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덕종 초기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하던 변진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당조는 이들을 활용하여 각종 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의 협조 하에 전체적인 전황 또한 유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건중 4년(783) 발생한 ‘경사지변’을 전후하여 차례차례 덕종의 신뢰를 저버리고 심지어는 황제를 직접 공격하기까지 하였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조정에 반기를 든 인물은 회서절도사 이희열이었다. 건중 3년(782) 당조는 이희열에게 반란에 가담한 평로절도사 이정기(곧 이납이 세습)의 토벌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희열은 3만의 군대를 이끌고 許州에 머무르면서 이납을 招諭한다는 명목 하에 실제로는 이들과 밀통하며 병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으며, 이후 주도·전열·왕무준·이납이 각각 왕을 참칭하였을 당시³³³⁾ 이희열이 天下都元帥·太尉·建興王이라 자칭하면서 조정 또한 이희열이 반측지지 세력과 연합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³³⁴⁾

이후 이희열은 여주·변주를 공격하여 조운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였고, 이에 조정은 龍武將軍 哥舒曜를 東都兼汝州行營兵馬節度使로 삼아 이희열을 토벌하게 하였다.³³⁵⁾ 가서요가 이희열의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성에서 포위되자, 이번에는 덕종이 경원군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여 가서요를 돕게 하였다. 하지만 건중 4년(783) 당시 조정은 변주를 상실함으로써 인하여 강회 조운로를 활용할 수 없었기에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수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때문에 경사를 지나가는 경원군에게 충분한 賞賜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원군은 이에 불만을 품고 경사에서 병란을 일으켰으니, 이 사건이 이른바 ‘涇師之變’이다.³³⁶⁾

333) 『舊唐書』 卷124 「李正己傳」, p.3536 ;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5.

334) 『資治通鑑』 卷227 「唐紀」43 德宗建中三年, p.7337

335)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4.

336) ‘涇師之變’이라는 표현은 史料 용어는 아니나, 黃永年이 자신의 연구에서 이 사건을 ‘涇師之變’으로 언급한 이래 여러 연구에서 ‘涇師之變’이라는 표현은 해당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黃永年, 「“涇師之變”發微」, 『唐史論叢』2,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7) 그 외에도 ‘建中之亂’, ‘建中の反亂’, ‘四鎮之亂’등의 표현을 통하

당시 경원군을 이끌던 인물은 涇原節度使 姚令言이었다. 요령언이 이끌던 군사는 5천으로, 경사를 통과하던 10월 병오일(2일)은 그레고리력 기준으로는 11월 5일의 늦가을이었다. 마침 내린 가을비를 맞고 추위를 겪은 경원군은 경사에서의 후한 하사품을 기대하였으나 물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당조는 이들에게 하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식사 또한 현미밥에 채소 반찬만을 제공하게 되었다. 경원군의 군사들은 이에 분노하여 瓊林庫·大盈庫를 습격하여 물자를 취하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에 경원군은 경사를 공격하기로 하였다.³³⁷⁾

경원절도사 요령언은 이러한 경원군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였다. 이에 병란이 일어나자 덕중은 뒤늦게 비단 2 수레를 보내어 경원군을 위무하고자 하였으나, 경원군은 이미 丹鳳闕 밑에 진을 치고 있던 상황이었다. 덕중은 부득이하게 금군인 신책군을 이끌던 백지정에게 이를 막도록 명하였다. 하지만 신책군은 경원군이 투입되기에 앞서 이미 가서요를 구원하기 위해 출병하였고, 그 과정에서 병력에서 큰 손실을 입은 상태였다. 백지정은 이를 덕중에게 奏聞하지 않은 채 경사의 상인들의 이름을 빌려 인원을 채워 넣고 병력 손실을 감추었다.³³⁸⁾ 병적을 허수로 채운 신책군의 소집에 응하는 이는 없었고, 이에 덕중은 겨우 5천에 불과한 경원군을 막지 못하고 화급히 奉天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다.³³⁹⁾

여 해당 사건을 지칭한 연구도 있으나(郁冲聰, 「“建中之亂”始末與德宗朝初年若干藩鎮問題」, 『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2013-5 ; 新見まどか, 「唐後半期における平盧節度使と海商·山地狩獵民の活動」, 『東洋學報』95-1, 2013), 이러한 용어의 경우 唐朝와 藩鎮 간의 전쟁이 貞元 연간까지 계속된 사실 및 2명의 節度使는 皇帝를 僭稱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가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鄭炳俊은 해당 사건에서 여러 藩鎮의 節度使들이 王과 皇帝를 僭稱하였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는 ‘四王二帝의 亂’이라는 표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鄭炳俊,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東洋史學研究』137, 2016) 다만 여러 節度使들이 王과 皇帝를 僭稱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 唐朝가 그들 중 일부는 제압하고 일부는 赦免하는 등 각 藩鎮을 대함에 있어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사실이 갖는 의미는 일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涇師之變’이라는 표현 또한 朱泚가 皇帝를 僭稱하는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진 용어이기 때문에 전체 사실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한 黃永年의 연구가 이후 李懷光과 李希烈의 토벌 시점까지를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 德宗이 「罪己詔」에서 토벌해야 할 대상으로 朱泚를 특기하였기 때문에 전체 전쟁에서도 朱泚의 반란은 특별히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黃永年이 ‘涇師之變’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해당 사건을 다룬 연구가 갖는 연구사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자는 이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涇師之變’이라고 총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37) 『資治通鑑』卷228 「唐紀」44 德宗建中四年, pp.7351-7352.

338) 『舊唐書』卷12 「德宗本紀」上, p.337 ; 『舊唐書』卷135 「白志貞傳」, p.3719.

덕종이 봉천으로 피난한 이후 이듬해인 흥원 원년(784) 7월에야 경사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하여 가장 상세하게 서술한 사료로는 『奉天錄』을 들 수 있다. 『봉천록』의 저자는 趙元一로, 그의 정확한 신상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이 기록한 序를 보면 그는 ‘경사지변’ 당시 덕종 행렬과 함께 이동하며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도하였다고 한다. 서에서 조원일은 당시의 기록에 빠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빠진 부분을 메우기 위해 해당 기록을 작성했다며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³⁴⁰⁾ 『봉천록』의 기록은 이후 『자치통감』에서도 상당부 인용되는 등 그 신뢰성을 일찍부터 인정받은 1차 사료에 해당하며, 『봉천록』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에는 다른 사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기록이 적지 않아 상황을 짐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때문에 『봉천록』은 전부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경사지변’을 논함에 있어 도외시해서는 안 될 사료라 할 수 있어³⁴¹⁾, 이하에서 ‘경사지변’의 상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봉천록』의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다.

경원군은 경사를 점령한 이후 황제가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애초의 목표대로 창고를 습격하였는데, 창고 습격에 禁衛騎士와 못 백성도 함께 참여할 정도로 장안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있었다.³⁴²⁾ 문제는 일단 경원군이 경사를 점령하기는 하였으나, 겨우 5천의 병력만으로 반란을 지속하기는 곤란하였으며 절도사 요령언의 위명 또한 높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란군 중 일부에서는 높은 명성을 지닌 朱泚를 主帥로 모실 것을 제안한다.

어떤 이가 말하였다. “太尉 朱泚는 오랫동안 갇혀있었으니 반드시 다른 뜻을 품었을 것이다. 만약 그를 맞이하여 主帥로 삼으면 상황이 이길 만해질 것이다.” 마침내 招國里에서 예로써 朱泚를 맞이하였다. 朱泚는 간사한 뜻을 쌓고 틈을 엿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뜻을 오래 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았었다. 군도가 이르자 거짓으로 사양하며 따르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명하여 사자들을 위하여 식사를 베풀고 오랫동안 무리의 마음을 관찰하였다.³⁴³⁾

339)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7.

340) 『奉天錄』 「奉天錄序」, p.17.

341) 『奉天錄』, pp.9-10.

342) 『奉天錄』 卷1, p.25.

343) 『奉天錄』 卷1, p.25.

『봉천록』의 기록에 따르면 경원군의 병사들은 朱泚가 오랫동안 갇혀(久囚) 있었다고 표현하며 그가 다른 뜻을 품게 되었으리라 짐작한다. 朱泚가 당시 어떤 뜻을 품고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지만, 이후 朱泚의 행보를 보면 경원군의 병사들이 朱泚에 대해 내린 판단은 정확했던 것 같다. 朱泚는 우선은 六軍을 임시로 장악하는 한편 경원군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본인은 마치 황제가 된 것처럼 含元殿과 白華殿에서 거처하며 조신들을 만나보는 등 반역의 뜻을 내비쳤다.³⁴⁴⁾ 이후 朱泚는 경기 일대의 지방관을 직접 임명함으로써 경기 지역을 장악하였고, 10월 8일에는 마침내 大秦皇帝를 자칭하고 應天이라는 연호를 내걸으로써 공식적으로 당조를 부정하였다.³⁴⁵⁾

봉천에서도 朱泚의 반역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朱泚의 반역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덕종이 봉천에 도착한 이후, 朱泚가 반란군과 함께 쳐들어올 듯하니 방비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자 재상이었던 盧杞가 이를 갈며 “태위의 충정은 조야가 모두 아는 바”라며 자신의 온 집안 식구(百口)를 걸고 朱泚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음을 보증하겠다고 할 정도로 당조의 朱泚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였다.³⁴⁶⁾ 하지만 朱泚는 황제를 참칭하였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10월 10일 봉천을 직접 공격하여 덕종 일행을 포위하기까지 한다.³⁴⁷⁾ 이에 덕종은 장안에서 경원군이 병란을 일으킨 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봉천에서 포위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가서요의 응원군이 되었어야 할 경원의 군대에 쫓겨 덕종이 급히 봉천으로 피난을 감으로써 가서요 또한 응원군 없이 완전히 고립되었고, 이후 가서요는 이회열에게 양성을 빼앗긴 후 낙양으로 도주하고 말았다.³⁴⁸⁾

요컨대 덕종은 백지정·朱泚·이회열이라는 3명의 무장의 탓에 경사를 상실하고 봉천으로 피난을 떠나 그 곳에서 포위된 셈이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삭방절도사 이회광은 여전히 당조에 충순한 모습을 보여 위기에 처한 덕종을 구원하려 15만의 병력 가운데 5만의 병력을 이끌고 봉천까지 출병하여 40여 일간의 포위를 풀어냈다는 점이였다.³⁴⁹⁾ 이회광이 이끄는 삭방군이 덕종을 구원하여 봉천의 포위가 풀리자, 재상 노기는 덕종에게 그들로 하여금 봉천에 머

344) 『奉天錄』 卷1, p.26 ;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7.

345) 『舊唐書』 卷200下 「朱泚傳」, p.5388.

346) 『奉天錄』 卷1, p.26.

347) 『舊唐書』 卷200下 「朱泚傳」, p.5388.

348)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7.

349)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3492 ; 『奉天錄』 卷2, p.39.

무르지 말고 바로 ‘과죽지세를 살려’ 경사를 수복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였고 덕종은 그 요청에 따랐다.³⁵⁰⁾

‘君父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멀리서부터 강행군해온 삭방군으로 하여금 봉천에서의 휴식과 정비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노기와 이회광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³⁵¹⁾ 이회광은 이전부터 노기가 부세를 무겁게 하였다고 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노기는 이회광과 덕종 간의 직접적인 만남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회광은 노기에 대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었고, 덕종은 노기를 新州司馬로 폄직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회광을 달래고자 하였다.³⁵²⁾ 하지만 노기의 의견에 따랐다고는 하나 이회광에게 바로 장안으로 진군할 것을 명령한 것은 결국 덕종이었고, 노기의 폄직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은 이회광의 불만은 자연히 덕종을 향하게 되었다.

노기를 폄직시킨 이후에도 이회광은 그대로 80여 일을 머무르며 진격을 거부하였고, 이에 이회광이 朱泚와 은밀히 연계하여 모반을 꾀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한다.³⁵³⁾ 흥원 원년(784) 2월 덕종은 李昇과 中使 鄧鳴鶴을 파견하여 그에게 철권을 줌으로써 세 번의 死罪를 용서해주겠다며 이회광을 회유하려 하였다.³⁵⁴⁾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이회광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회광은 철권을 땅에 던지며 무릇 인신이 모반하였을 때에 철권을 사여하는 것인데, 지금 자신에게 철권을 내려주는 것으로 보아 조정은 확실히 자신을 叛臣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였다.³⁵⁵⁾ 게다가 앞서 철권을 사여받은 僕固懷恩이나³⁵⁶⁾ 철권의 수령을 거부한 양승의가³⁵⁷⁾ 결국 모두 죽임을 당한 바 있어, 철권은 사죄를 완전히 면해주지 못하는 단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여길 여지 또한 있었다.

철권의 수령을 거부한 이회광은 곧 자신이 朱泚와 연계할 것이니 덕종에게 자신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하여 조정과 맞설 것임을 명시하였고, 이에 덕종은 봉천을 떠나 다시 梁州로 피난하게 되었다. 이회광은 李建徽·楊惠元의

350) 『舊唐書』 卷135 「盧杞傳」, p.3716.

351) 『奉天錄』 卷2, pp.39-40.

352)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3493.

353) 『新唐書』 卷149上 「叛臣傳」上 李懷光, p.6377.

354)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41.

355)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3493.

356) 『舊唐書』 卷121 「僕固懷恩傳」, p.3480.

357) 『舊唐書』 卷121 「梁崇義傳」, pp.3490-3491.

군대를 공격하여 그 병력을 빼앗았고, 상당한 병력을 이끌고 경사와 인접한河中府(蒲州) 일대를 점거하였다.³⁵⁸⁾ 하중부는 絳州·晉州·慈州·隰州 등 장안의 동쪽 지역을 관할하는데, 개원 원년(713)과 대종 대력 연간에는 하중부에 中都를 세우려는 논의가 있었을 정도로 이 지역은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대력 연간에 재상 원재는 대종에게 하중부에 중도를 세울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그는 하중부는 “천하의 목줄을 움켜쥐는” 요지이니 하중부에 중도를 건설하면 장안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논할 정도였다.³⁵⁹⁾ 이처럼 요충지인 하중부를 근거로 이회광이 당조와 적대함으로써 당조는 장안 뿐 아니라 장안 동쪽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강희 조운로를 통한 물자 보급 또한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전황은 당조에게 더욱 불리해졌다.

요컨대 덕종은 자신이 신뢰하던 무장들의 변절을 통하여 봉천으로 피난하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 백지정의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보고를 생략한 사례이기에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朱泚, 이회광, 이회열 등은 높은 신뢰도를 저버리고 당조와 맞서게 된 사례이기에 덕종에게 있어 그 충격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3명의 무장이 결국 당조와 맞서기로 결정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이 자신이 처한 현재 상태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회열의 반란의 배경에는 자신이 결국 문신 관료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朱泚는 경원군의 추대를 받았다고는 하나 상당히 이르게 황제를 참칭할 정도로 표현되지 않았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회광의 경우 朔防軍의 병력을 이끌고 직접 구원하러 온 자신에 대한 대우가 온당치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결국 반란의 사유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들의 반란은 현재 처우에 대한 불만이라는 최소한의 공유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반란을 통해 경사인 장안과 강희 조운로의 핵심 거점인 변주, 그리고 장안 동부의 하중부를 장악하고 당조와 맞섬으로써 당조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 그나마 봉천에서 병력을 장악하고 있던 이회광의 부장 韓遊瓌가 반란을 일으키라는 이회광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를 오히려 덕종에게 密奏하는 한편 삭방군의 본대가 이회광 측에 합류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덕종은 당장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셈이었다.³⁶⁰⁾ 하지만 당조는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의 물자 보급이 어려워진 한

358)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p.3493-3494.

359) 『元和郡縣圖志』 卷12 「河東道」1, pp.323-324.

편 반측지지와의 전선 또한 크게 확장됨에 따라 더 이상 반측지지와의 전면전을 지속하기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다. 번진과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덕종은 반측지지의 절도사들이 지닌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이들을 회유하고 급한 상황을 정리·수습해야만 했으니, 이러한 배경에서 덕종은 이른바 「罪己詔」라고도 불리는 「奉天改元大赦制」(이하 「죄기조」)를 반포함으로써 난국의 타개를 모색하게 되었다.

360)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3493 ; 『資治通鑑』 卷230 「唐紀」46 德宗興元元年, pp.7415-7416.

2) 「罪己詔」의 반포와 藩鎮에 대한 대처

「죄기조」는 흥원 원년(784) 당시 한림학사였던 육지가 작성한 글이다. 육지는 덕종이 처한 현실을 ‘4명의 假王(주도·전열·왕무준·이남)과 2명의 僭帝(朱泚·이희열)를 위시하여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이 이루 셀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면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덕종에게 진언하였다.³⁶¹⁾ 그리하여 작성·반포된 「죄기조」 가운데 사면 대상을 직접 언급하는 부분에는 해당 시기 이후 덕종이 변진에 대응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흥원 원년(784)) 정월 1일 여명 이전까지 大辟罪 이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이하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사면한다. ①-1 이희열·전열·왕무준·이남 등은 충정과 노고로 將相의 임무를 맡았으며, 대대로 공이 있는 집안 출신으로 계속해서 변진을 지켜왔다. ② 짐이 위무하고 다스림에 있어 적절한 방도를 잃어 신의와 정성이 드러나지 않아, (이희열 등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안전하다 느끼지 못하게끔 하였다. 전쟁이 일어난 지 수년이 지나 해내가 騷擾한 것은 모두 위에서 그 도를 잃어 아래에서 그 재앙을 당한 것이니, 짐이 진실로 군주답지 못했던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①-2 이희열·전열·왕무준·이남 및 그들이 관장하는 장사·관리 등은 모두 죄를 씻어주고 각각의 작위를 회복시키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대우하도록 하라... ③ 주도는 비록 역적 朱泚와 연좌되어야 하겠으나 길이 멀어 반드시 함께 모의한 것은 아닐 것이니, 짐은 바야흐로 至誠의 뜻을 넓혀 너그러이 용서함에 힘쓰고자 한다. 만약 效順할 수 있다면 또한 더불어 惟新하라. ④ 하남·하북 여러 군의 병마는 모두 마땅히 각각 자신의 변진에서 굳게 영역을 지킬 것이요, 서로 침범하지 말라. ⑤ 朱泚는 크게 不道를 행하여 의를 버리고 은혜를 멸하며 하늘의 상도를 거꾸로 어기고 名器를 도적질하고 능침을 침범하는 등 차마 말할 수도 없는 바 祖宗에 죄를 지었으니, 짐은 감히 그를 사면할 수 없다. ⑥ 朱泚의 위협을 받아 그를 따랐던 장사·관리·백성 및 각종 사람들은 선동과 유혹을 받

361) 『新唐書』 卷157 「陸贄傳」, p.4919.

고 흉포한 위세에 협박받은 것이니, 진실로 능히 스스로를 새로이 할 수 있다면 모두 용서해야 할 것이다. 관군이 아직 경성에 당도하기 이전에 去逆하고 效順한 경우나 본도로 흩어져 돌아간 자들이라면 모두 赦例에 따라 사면할 것이며 그 죄를 일체 묻지 않을 것이다.(번호 표기를 통한 구분은 필자)³⁶²⁾

덕종은 「죄기조」를 통하여 이희열·전열·왕무준·이납과 그 세력에 대한 사면을 선포함으로써 이유악으로 인해 발발한 기존 번진에 대한 강경책을 거두고 유화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였으며(①-1, ①-2), 심지어는 朱泚의 동생인 주도마저도 조정에 귀순한다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까지 언명하였다. (③) 「죄기조」에 따르면 이러한 大赦를 내리는 이유는 ‘대대로 공이 있는 집안 출신으로 계속하여 번진을 지켜온’ 여러 절도사들을 황제인 덕종이 ‘위무하고 다스림에 있어 적절한 방도를 잃어 그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두려워하게 한’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기 때문이었다.(②) 이는 곧 당시 상황의 원인이 반측지지의 절도사 임의 계승이 아닌 황제의 不道로 인해 절도사들이 불안감을 가지게 된 데에 있다는 뜻으로, 현재 문제의 책임이 황제에게 있다는 조정의 입장 표명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덕종은 이러한 大赦가 각 번진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주변 번진을 공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朱泚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2가지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또한 분명히 하였다. 덕종은 반측지지가 위치해 있던 하남과 하북의 번진에 대해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서로 침범하지 말 것’(④)을 요구하였고, 그러면서 朱泚에 대해 비난함과 더불어(⑤) 朱泚의 부하 가운데서 조정에 귀순하는 이들은 모두 사면할 것임을 약조함으로써 이후로도 朱泚 세력과 연계하는 자는 토벌의 대상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⑥) 환언하자면 덕종은 「죄기조」를 통하여 즉위 이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반측지지 전체를 제압하겠다는 노선을 철회하고, 흥원 원년 정월 1일을 기준으로 朱泚를 제외한 조정과 대립하던 번진의 절도사들의 직위를 보전해주겠다고 약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죄기조」가 반포된 이후, 반측지지의 세력 중 대부분이 당조에 귀순함으로써 덕종의 약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사면을 통해 회유하려 하

362) 『陸贄集』 卷1 「奉天改元大赦制」, pp.6-9.

였던 대상 가운데 왕무준·전열·이남이 「죄기조」 반포 이후 모두 왕호를 버리고 조정에 귀순함으로써 당조는 朱泚 등의 세력과 전쟁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에 덕종은 이들을 즉각 사면하고 귀순 요구를 받아들였다.³⁶³⁾ 물론 이들이 「죄기조」의 내용을 보고서 자신의 반역 행위를 참회하며 당조에 귀순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덕종의 입장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서술일 것이다. 오히려 朱氏 형제가 주도하는 반란 세력 내에서 자신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을 직감한 절도사들에게는 이미 당조에의 귀순을 고민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때마침 내려진 「죄기조」가 이들 절도사에게 당조 귀순의 명분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³⁶⁴⁾ 하지만 반측지지의 절도사들의 내심과는 별개로 이를 통하여 덕종이 「죄기조」 반포를 통하여 목적인 바를 이루어내었다는 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이다.

왕무준 등이 귀순함으로써 인하여 주도와 朱泚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고, 朱泚와 주도 형제는 왕무준 등 조정에 귀순한 반측지지 세력을 공격함으로써 양측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 5월 이포진과 왕무준은 주도의 병력 3만을 참수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고, 주도는 유주로 도망치게 되었다.³⁶⁵⁾ 당조는 이성 등으로 하여금 장안을 공격하게 하였고, 朱泚와 요령언이 장안을 버리고 도망함으로써 당조는 경사를 수복하였다.³⁶⁶⁾ 이에 당조가 토벌해야 할 대상은 「죄기조」에서 지목한 朱泚와 그 외에 귀순을 거부한 이회열·이회광의 셋이 남게 되었다.

이 중 가장 먼저 토벌된 세력은 朱泚와 요령언의 경원군 세력이었다. 경사를 차지하고는 있었다 하나 해당 세력의 핵심은 경원군 5천에 불과하였고, 경사를 빼앗기고 쫓기는 신세가 되자 朱泚 세력은 급격히 위축되었다. 흥원 원년 6월, 요령언과 朱泚가 차례로 패하여 참수당함으로써 경원군 세력은 완전히 무너졌다.³⁶⁷⁾ 하지만 앞서 반란을 일으킨 이회광의 삭방군 세력은 여전히 하중 지역에서 덕종을 위협하고 있었다. 때문에 덕종은 이회광에게 죄를 묻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전에 공신으로서 받은 모든 관봉을 유지시켜주겠다고 회유하였다.³⁶⁸⁾ 이회광은 이를 거부하고 반란을 이어갔으나, 이듬해인 정원 원년

363) 『資治通鑑』 卷229 「唐紀」45 德宗興元元年, p.7393.

364) 鄭炳俊,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pp.32-35.

365)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42.

366)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p.342-343.

367)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43.

368)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p.343-345.

(785) 7월 朔方大將 牛名俊이 이회광을 참하고 그 머리를 관군에 넘겨줌으로써 당조는 하중을 수복하였다.³⁶⁹⁾

정원 원년 7월 시점에서 당조에게 여전히 반기를 든 진영은 이회열의 회서 번진 뿐이었다. 다만 이 시점에 육지는 덕종에게 「收河中後請罷兵狀」을 올려 이회열의 사면을 요청하는데, 육지는 이회열 사면의 필요성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 만약 수레의 방향을 바꾸고 깃발을 옮겨서 다시 회서를 향한다면 곧 회서의 원흉들이 필시 장차 악한 무리들을 속이고 위협하며 새로이 (조정)에 귀부한 장수들에 이간질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봉천에서 군사를 그치겠다고 한 성지(「죄기조」)는 다만 군색하고 다급하여 말한 것이며, 조정이 점차 안정되면 반드시 다시금 주별할 것이다. 이 때문에 朱泚가 멸망하자 이회광이 주륙당한 것이며 이회광이 주륙당하자 이회열이 정벌당한 것이니, 이회열이 혹여 평정되면 그 화는 장차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하삭과 평로(靑齊)는 틀림 없이 이에 호응할 것이니, 건중 연간의 화가 형세 상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³⁷⁰⁾

당조는 분명 「죄기조」에서 이회열에 대한 사면을 천명한 바 있으며, 때문에 육지의 사면 요청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회열은 「죄기조」가 내려진 이후에 楚의 황제를 참칭함으로써 「죄기조」를 통한 회유에 전혀 응하지 않은 바 있었다.³⁷¹⁾ 물론 이회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지가 말한 대로 이미 조정에 귀부한 번진 세력에 이간질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었을 것이나, 이 행동이 곧 「죄기조」에서 이회열을 사면해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는 육지의 설명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같은 해 冬至에 내려진 「貞元元年南郊大赦天下制」에서도 당조가 「죄기조」에서 이회열을 사면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해당 약조는 지켜질 것이라는 맥락의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해당 글에서는 당조는 원칙적으로 참여부도한 이회열을 용납할 수 없지만, 만약 이회열이 항복했을 때 당조

369)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50.

370) 『陸贄集』 卷16 「收河中後請罷兵狀」, p.530.

371) 『新唐書』 卷225中 「李希烈傳」, p.6439.

가 그를 용서한다면 그 이유는 오로지 ‘창생을 가없이 여기는’ 황제의 성스런 덕 때문임을 언급한다.³⁷²⁾ 즉 육지가 「죄기조」에서 이희열을 사면해주기로 했음을 강조한 사실은 오히려 이희열을 사면해서 그의 항복을 받아들이기 위한 구색을 갖추려는 시도에 가까우며, 당조가 이희열을 주살해서는 안될 이유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육지는 이희열의 사면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덕종 또한 이희열에 대한 공격 명령을 내리지 못한 것일까. 필자는 당조의 재정적 곤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당조는 앞서 흥원 원년(784) 7월 계속하여 반란을 이어온 이희광에게 사면해주겠다고 회유를 시도한 바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가뭄과 메뚜기 떼 등으로 인하여 경사를 수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댈 수 없기 때문이었다.³⁷³⁾ 흥원 원년 12월에 내려진 官俸 지급을 명하는 조 또한 당조의 재정 상황을 짐작하게 한다.

흥원 원년 12월, 조하였다. “경사의 백관 및 畿內官들의 봉료를 원래 액수에 준하여 지급하라.” 봉천으로 순행한 이래 전운로가 막히고 끊겨 백관의 봉료도 혹 줄어들거나 끊어졌었는데, 이에 이르러 온전히 지급되었다.³⁷⁴⁾

덕종은 앞서 건중 3년(782) 문무백관의 월봉을 줄이고 그 가운데 1/3을 군비로 전용하라는 칙을 내렸는데³⁷⁵⁾, 해당 조치가 흥원 원년 12월이 되어서야 해제될 정도로 당조는 재화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었다. 물론 관료들의 봉급을 줄이는 긴급 대응의 원인이 되었던 조운로를 수복함으로써 인하여 당조는 다시 관료들에게 정상적인 봉급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되찾을 수 있었겠지만, 잦은 경사를 되찾은 당조가 군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는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정원 원년(785) 7월에는 관중에 대규모 메뚜기까지 발생하여 식량난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듬해 元日의 朝賀까지 파하는 결정이 내려질 만큼 당조는 물자 보급 문제를 쉽사리 해결하지 못했다.³⁷⁶⁾ 덕종이

372) 『唐大詔令集』 卷69 「貞元元年南郊大赦天下制」, pp.353-354.

373) 『舊唐書』 卷121 「李懷光傳」, p.3494.

374) 『唐會要』 卷91 「内外官僚錢」上, p.1969.

375)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31.

376) 『冊府元龜』 卷107 「朝會」, p.1169.

동지에 大赦天下를 선포한 시점에서 당조는 회서 번진을 공격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당조의 재정 위기는 관직에 께석이 생길 경우에도 관원을 충원하지 않은 채 그대로 께석으로 남겨두는, 이른바 ‘사환의 길이 막히는 현상’³⁷⁷⁾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조정의 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군비와 관인의 봉록으로³⁷⁸⁾,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인의 봉록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경우는 간혹 있었다. 하지만 관직의 께석을 채우지 않는 현상은 당대 전체 가운데 덕종 시기에만 나타난다.³⁷⁹⁾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조정 내 각종 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중책을 맡은 中書舍人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서사인의 정원은 6명으로, 이들은 詔旨·制勅·璽書·冊命을 작성함에 있어 典故를 살펴 초안을 작성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존재였다.³⁸⁰⁾ 맡은 바 직무가 중차대한 만큼 중서사인은 문장이 뛰어난 인물만이 맡을 수 있는 영예로운 자리로, 특히 문장력이 관료 내 평가에 있어 보다 중요한 요소로 부상한 당 후기에는 당 전기에 비해서도 선호도가 더욱 높아진 관직이었다.³⁸¹⁾ 중서사인이 재상을 비롯한 고위 관료가 되기 위한 승진 경로인 八儻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당시 중서사인이 선망받는 관직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³⁸²⁾ 이러한 중서사인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께석으로 남겨진 상황이었으니, 다른 관직의 경우 어떤 상황이었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唐會要』의 기록을 살펴보면 중서사인 직에 께석이 생겼음에도 관원을 미충원하는 현상은 정원 연간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377) 『新唐書』卷131「宗室宰相傳」李石, p.4515; 『南部新書』(錢易撰; 黃壽成點校, 『南部新書』, 北京: 中華書局, 2002), p.145.

378) 劉海峰, 「論唐代官員俸料錢的變動」, 『中國社會經濟史研究』1985-2, p.28.

379) 陳文龍, 「釋“貞元中仕進道塞”」,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2010, pp.217-219.

380) 『唐六典』卷9「中書省」, pp.275-276.

381) 陸揚, 「唐代的清流文化——一個現象的概述」, 『清流文化與唐帝國』,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6, pp.238-241. 唐代 文詞를 중시하는 경향은 점차 강해져 科擧制度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河元洙, 『과거제도 형성사 - 황제와 士人들의 줄다리기-』,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pp.412-414) 宰相이었던 源乾曜와 張說이 정해진 品階가 없는 集賢學士가 ‘詞彩와 文學을 겸비’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있다며 正4品の 職事官 禮部侍郎보다 더 ‘아름답다(美)’고 평가한 일화는 唐 中後期の 文學 중시가 후대인의 과장이 아님을 확인시켜준다.(『大唐新語』(劉肅撰; 許德楠·李鼎霞點校, 『大唐新語』, 北京: 中華書局, 1984) 卷11, p.165)

382) 『封氏聞見記』(封演撰; 趙貞信校注, 『封氏聞見記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5) 卷3「制科」, pp.18-19.

정원 초, 중서사인 5명이 모두 결원이 되어 중서성에는 오직 高參 1명이 있었는데, 얼마되지 않아 또한 병으로 인해 면직되었다. 오직 庫部郎中 張濛이 홀로 知制誥를 맡으니, 재상 張延賞과 이필이 누차 재능이 있어 이를 맡을 만한 이들을 上聞하였는데 모두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 달 장몽이 누이의 상으로 인해 휴가를 얻음에 혹 草詔해야 할 경우에는 재상이 다른 관원에게 명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였으니, 중서성에서 案牘이 행해지지 않은 것이 10여일이었다.³⁸³⁾

4년(788) 2월, 한림학사·職方郎中 吳通微, 예부낭중 顧少連,起居舍人 吳通玄, 左拾遺 韋執誼로써 모두 지제고를 맡겼다. 고사에 사인은 6명이었다. (오)통미 등과 고부낭중 장몽까지 더불어 5명 모두 (중서사인이 아닌) 다른 관원으로 지제고를 맡기니, 6명의 중서사인이 모두 이에 결원이 되었다.³⁸⁴⁾

해당 현상은 덕종 재위 후기까지도 계속되었다. 정원 18년(802) 당시 문장으로 이름났던 權德輿는 혼자 중서사인으로 근무하였기에 ‘홀로 금원에 숙직하여 수습 일에 한 번 귀가’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컸다. 이에 그는 중서사인의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덕종은 그와 비견될 인물이 없다는 핑계로 중서사인의 충원을 거절하기도 하였다.³⁸⁵⁾ 덕종 시기 관원의 수는 현종 천보 연간과 비교할 때 1/3이 줄어든 상태였다고도 하는데³⁸⁶⁾, 그 감소폭은 번진에 대한 강경책이 실패함으로 인하여 덕종 시기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는 제국의 영역이 현종 시기에 비하여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작지 않다. 요컨대 관료들의 봉록 감액 조치나 정원 연간 초부터 나타난 관원 미충원 현상은 당시 당조의 재정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드러내주며, 회서 번진에 대한 사면을 통해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육지의 제안 또한 이러한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83) 『唐會要』 卷55 「省號」下 中書舍人, p.1110.

384) 『唐會要』 卷55 「省號」下 中書舍人, p.1110.

385) 『唐會要』 卷55 「省號」下 中書舍人, p.1110 ; 『舊唐書』 卷148 「權德輿傳」, p.4003.

386) 『唐會要』 卷74 「選部」上 論選事, p.1581. 貞元 21년(805) 사망한 蘇冕은 그 이전에 『會要』 40卷을 撰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록이 德宗 貞元 연간의 상황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舊唐書』 卷189下 「蘇冕傳」, p.4977, “冕繼國朝政事, 會要四十卷, 行於時... 貞元二十一年, 卒于家.”)

물론 당조는 흥원 원년(784) 11월 회서 번진에게서 변주를 수복하면서 강회 조운로가 지나는 지역을 다시 회복하였기에³⁸⁷⁾, 시간만 주어진다면 결국 당조의 재정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상태였다. 하지만 5년에 걸친 전쟁을 통해 국력이 크게 소진된 당조가 당장 확보한 물자가 부족하다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장기간의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이라는 문제는 이제 덕종 본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기에 덕종에게는 이희열을 사면해서라도 전쟁을 종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희열이 사망하기 직전인 정원 2년(786) 3월에 일어난 아래의 사건은 당시 덕종이 느꼈던 긴박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당시 관중의 창고가 비어 당조가 신책군에게도 군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병사들은 두건을 벗고 길에서 “우리들을 군에 매어둔 채 군량을 지급하지 않으니, 우리들이 죄인인가!”라며 항명하기에 이르렀다. 덕종은 이에 크게 걱정하다가 韓滉이 미곡 3만斛을 운송하여 섬주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이필에게서 보고받았다. 이에 덕종은 동궁으로 급히 가 태자에게 “미곡이 섬주에 도착하였으니 우리 부자는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외쳤다 한다.³⁸⁸⁾ 이 일화는 이희열이 죽기 직전까지도 당조가 심각한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당조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정원 2년 4월 이희열이 부하 陳仙奇에게 독살됨으로써³⁸⁹⁾ 당조에 반기를 들었던 세력은 일소되었다. 이후 덕종은 번진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약조한 「죄기조」의 기조에 따라 번진에 대한 강경책을 거두고, 주변 번진을 침략하지 않는다면 번진 내에서 절도사를 선정하는 것 또한 사실상 묵인함으로써 즉위 초년의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섰다. 유주절도사 주도가 죽고 번진 내부에서 劉怳를 추대하니 조정은 이를 승인하였고, 이후 유평이 죽자 그 아들 劉濟가 유주절도사 직을 수행한 것 또한 승인한 사건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³⁹⁰⁾

경사와 조운로를 회복한 이후 덕종은 국부를 축적함으로써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진력해야 했으나, 정원 2년에 하북에서 蝗災가 발생하여 쌀값이 한 말에 1,500文에 달하는 등 재정 위기 극복은 결코 쉽지 않았다.³⁹¹⁾ 때문에 당

387)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5.

388) 『資治通鑑』 卷232 「唐紀」48 德宗貞元二年, p.7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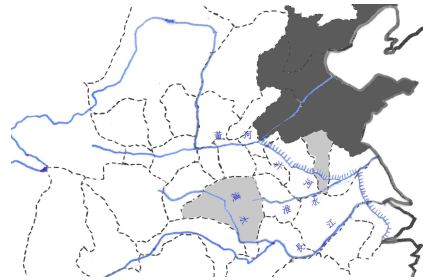
389)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353 ;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5.

390) 『舊唐書』 卷143 「劉怳傳」, pp.3899-3900.

391) 『舊唐書』 卷141 「張孝忠傳」, p.3857. 太宗 貞觀 연간에 쌀은 한 말에 3전이었으며,

조는 반측지와 직접 경계를 접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관이 거둔 세액 가운데 일부를 지방 存留의 잉여분(羨餘)이라는 명목의 ‘進奉’을 거둬으로써 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려 시도하기도 한다.³⁹²⁾ 덕종 시기 진봉으로 유명한 인물로는 江西觀察使 李兼, 劍南西川節度使 韋臯³⁹³⁾, 그리고 江南東道에 위치한 宣州·歙州 지역에서 근무하던 嚴綬를³⁹⁴⁾ 들 수 있는데, 이들의 근무지는 모두 토변과의 화친 관계 하에서 반측지와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직접적인 군사 활동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원 3년(787) 당시 이필은 진봉이 결국 천자가 사적으로 재물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한 바 있으나³⁹⁵⁾,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물자를 징수하려는 시도 자체는 당시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죄기조」의 반포 이후 회서 변진까지 정리하면서 당조가 ‘경사지변’ 이래 당면한 변진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이로써 당조는 장안과 장강 중하류 지역을 연결하는 강회 조운로를 확보하였으며, 세원인 동남 지역의 물자를 안정적으로 정치 중심지인 관중까지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오른쪽 그림에서 옅은 회색으로 표기된 지



■ : 정원 2년 이후에도 반측지인 지역
 ■ : 정원 2년 경 당조가 되찾은 지역
 <圖-6. 정원 2년(786) 전후 반측지 영역의 변화>

현종이 태산에 東封하려 하였을 당시 東郡의 쌀은 한 말에 10전이었으며 靑州와 齊州는 쌀 한 말에 5전이였다. 대종 永泰 원년(765) 장안의 쌀 한 말 가격은 가뭄으로 인하여 1,400전까지 올랐는데, 趙翼이 이 가격을 기재한 이유가 당 전기에 비해 급등한 쌀값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음을 생각하면 정원 2년 당시 한 말에 1,500문에 달한 당시의 쌀값이 얼마나 비싼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만하다.(『廿二史劄記』 卷20 「唐前後米價貴賤之數」, pp.467-468)

392) 『舊唐書』 卷48 「食貨志」上, p.2087. 貞元 3년 당시 德宗은 궁정 경비 부족으로 인하여 進奉을 거두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宰相인 李泌에게 말한 것을 보면 進奉의 상당액은 궁정 경비에 활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資治通鑑』 卷233 「唐紀」49 德宗貞元三年, p.7501) 大澤正昭는 덕종과 현종이 進奉을 변진과의 전쟁에서 쓸 군비로 활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大澤正昭, 「唐末の藩鎮と中央權力 - 德宗·憲宗朝を中心として-」, pp.153-154), 古松崇志의 경우 德宗 시기에 進奉이 구체적으로 藩鎮과의 전쟁에 활용된 내용을 찾기 어렵다며 大澤正昭의 연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古松崇志, 「唐代後半の進奉と財政」, 『古代文化』51-4, 1999)

393)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貞元十二年, p.7572.

394) 『舊唐書』 卷48 「食貨志」上, pp.2087-2088 ; 『舊唐書』 卷146 「嚴綬傳」, p.3960.

395) 『資治通鑑』 卷233 「唐紀」49 德宗貞元三年, p.7501.

역은 덕종이 즉위한 대력 14년(779) 당시에는 반촉지지에 속하였던 산남동도와 서주로, 당조는 해당 지역을 직접 통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강희 조운로와 강한 조운로 모두를 확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물론 덕종은 즉위 직후 하북과 산동에 위치한 변진의 ‘하삭구사’를 부정함으로써 제국 전 영역의 통제권 회복을 꾀하였지만, 재정·군사 방면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죄기조」를 통하여 이들 변진의 ‘하삭구사’를 재인정하였기에 덕종 초기의 변진 대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고 할 수도 있다. 다만 정원 2년 시점에서 반촉지지는 지도에 짙은 회색으로 표시된 황하 이북의 하북삼진과 산동 일대의 평로 변진만이 남게 되었고, 산남동도의 절도사를 조정에서 임명하면서 당조는 반촉지지와는 전선 길이를 적지 않게 줄이는 성과를 거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재정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더 소요될 터였지만 제국의 재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정원 2년에 마련되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닐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 시점에 이르면 당조가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경사지변’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앞서 반란에 가담하였던 삭방군에 대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했다. 절도사 이회광이 반란에 가담한 삭방군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문제는 삭방군이 장안의 서북방에 위치하여 국경 방어의 중책을 맡고 있는 변진이라는 데에 있었다. 삭방군에 대해 강한 징계를 내릴 경우 서북 변경 방어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삭방군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황제의 권위가 손상될 위험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삭방군에 대한 징계 조치는 제국 서북부의 국경 방어 및 변진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라 할 수 있어 이를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朔防軍의 분할과 神策中尉 설치

1) 朔防軍 재분할과 그 문제

반측지지와의 일련의 전쟁이 일단락된 후, 덕종은 변진의 영역과 군사 배치의 변화 등을 통하여 제국의 재정비를 시도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조치는 삭방군의 분할이다. 앞서 삭방절도사 이회광이 반란의 중심에 섰던 만큼 삭방군에 대한 처벌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전 시기까지 삭방군이 장안의 서북 변경 방어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만큼, 삭방군을 분할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조치가 아니었다.

삭방군의 연원은 延載 원년(694) 3월 朔方道行軍大總管의 설치까지 그 연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³⁹⁶⁾ 당시 당조는 默啜可汗(Qapghan Qaghan)을 중심으로 한 돌궐의 재부상을 막기 위한 방책 가운데 하나로 일시적 성격의 行軍으로서 삭방군을 운영한 것이었다.³⁹⁷⁾ 하지만 계속된 돌궐과의 전쟁으로 인하여 삭방군은 常駐軍으로 자리잡게 되었다.³⁹⁸⁾ 이에 개원 9년(721) 정식으로 삭방군절도사가 임명되어 夏·鹽·綏·銀·豐·勝의 6개 州와 東·中·西의 三受降城을 관할하는 삭방군을 총괄하게 되었으니³⁹⁹⁾, 이 시점에 이르러 삭방군은 공식적으로 당조의 서북 변경 방어의 중추로 기능하는 변진이 된 것이다.⁴⁰⁰⁾

이후 삭방군의 관할 영역에는 수차례 변화가 있었지만⁴⁰¹⁾ ‘나라의 북문’으로서의 삭방군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었다.⁴⁰²⁾ 이는 안사의 난 이후 덕종 시기에 이르기까지 1년 이상 절도사를 맡은 인물이 복고회은·곽자의·훈감·이회광 등 당조에서 신뢰하는 무장으로 제한되었다는 사실과도 관련되어 있다. 토번이 지속적으로 당조의 경역을 공격해오던 상황에서 삭방군은 경사를 방어하는 군대로서 그 역할이 중차대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회광이 반란을 일으킨 후, 덕종은 삭방군을 셋으로 나누고 이후

396) 『資治通鑑』卷205「唐紀」21, p.6494.

397) 丁載勳,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 아사나 권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pp.421-424.

398) 李鴻賓, 『唐朝朔方軍研究』, p.73.

399) 『新唐書』卷64「方鎮表」1, p.1761.

400) 『唐大詔令集』卷52「張說兼知朔方軍節度使制」, p.249.

401) 李鴻賓, 『唐朝朔方軍研究』, pp.218-219.

402) 『資治通鑑』卷225「唐紀」41 代宗大曆九年, p.7226.

삭방군 전체를 총괄하는 단일한 통수를 더 이상 임명하지 않았다.

혼감은 하중에 진수하면서 이회광의 무리를 모두 얻었으니, 삭방군은 이로부터 邠·蒲에分居하게 되었다.([細註] 괄자의 이래로 삭방군은 이미 빈·포에 나누어 둔수하긴 하였어도 한 명의 통수가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때 빈주에 거하는 부대는 한유괴를 통수로 삼고 포주에 거하는 부대는 혼감을 통수로 삼게 되어 서로 통속하지 않게 된 까닭에 사서에 서는 이것을 비로소 나뉘었다고 한 것이다.)⁴⁰³⁾

당조는 이 조치를 통하여 삭방군을 靈武軍·振武軍·邠寧軍의 상호 통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3개 군으로 나누고 여기에 빈녕과 하중을 나눔으로써 사실상 4개의 세력으로 분리시켰는데, 그 배경에는 이회광의 반란이 가져다준 충격이 있었다. 삭방군을 분할한 조치는 이유악 사망 후 성덕 변진을 장효충·왕무준·강일지의 3명에게 분할함으로써 개별 변진의 힘을 약화시키려던 시도와도 맥을 같이한다. 삭방군을 4개의 변진으로 분할함으로써 당조는 개별 세력이 갖는 힘을 약화시켰고, 이로 인해 장안의 황제는 적어도 서북방에 위치한 변진의 위협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⁴⁰⁴⁾

문제는 삭방군이 경사의 서북방 변경을 방어하는 중차대한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조치로 인하여 변경 방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로, 육지가 제상으로서 정원 9년(793) 5월에 작성한 「論緣邊守備事宜狀」은 삭방군의 분할로 인한 서북 변경 방어의 약화를 경계한 대표적인 문장이다.

개원·천보 연간에 서북의 兩蕃(토번·돌궐)을 막아냄에 오직 삭방·하서·농우 세 절도사가 있었을 뿐이었는데도, 오히려 권한과 형세가 분산될까 염려하여 혹(한 절도사에게) 다른 절도사 직을 겸하여 통령하게 하였습시다. 중흥 이래로 밖으로 토벌할 겨를이 없어 四鎮을 安定에 僞置하고 농우를 임시로 扶風에 붙였습시다. 서북의 양변을 담당하는 이들은 또한 삭방·경원·농우·하동 네 절도사가 있을 따름으로, 관동의 수졸은 이르면 여기에 배속되었습니다. 비록 위임함에 미쳐 사람을 얻지 못

403) 『資治通鑑』卷232「唐紀」48 德宗貞元元年, pp.7466-7467.

404) 李鴻賓, 『唐朝朔方軍研究』, p.224.

함이 있기는 하였으며, 조치함에는 여전히 典制가 있었습니다. 근래 역적 朱泚가 경원의 무리를 유혹하고 반역도 이회광이 삭방의 군대를 더럽힌 이후로 나뉘고 찢겨 죽임을 당하고 남은 이가 얼마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삭방의 땅을 나누어 3명의 절도사에게 군기를 세우고 부절을 지니게 하였고, 그 외의 여러 군의 숫자도 또한 40에 이르니 이들은 모두 特詔를 받아 위임받았으며 각각 중사(감군사)의 감림을 내려받으니 사람마다 비등한 형국이라 서로 통속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변방의 급보가 이르기를 기다린 연후에야 바야흐로 용병의 방도를 계획할 것을 명령하나, 이마저도 군법으로 내려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객례로 서로를 대합니다. 이는 곧 느긋이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고 예를 차리며 불을 끄는 것이니, 위험이 없게 하고자 하여도 진실로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대저 병이란 기세로써 운용하는 것이니 기가 모이면 곧 성대해지지만 흠어지면 곧 약해지며, 세가 합해지면 곧 위엄이 서지만 나뉘면 곧 약해집니다. 지금의 邊備는 세는 약하고 기도 사그라들었으니, 군을 세움이 이와 같다면 가히 힘이 많은 장수에게 나뉘었다고 할 만합니다.⁴⁰⁵⁾

육지는 이회광이 죽은 이후 서북 변경에서 토번을 방어해야 할 삭방군의 관할 영역이 여러 절도사에게 나누어졌으며, 이들은 각각 환관으로 구성된 감군과 더불어 움직이며 서로 통속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이 글이 작성된 정원 9년(793)은 진선기가 이회열을 독살함으로 반측지지와 전쟁이 일단락된 정원 2년(786) 이후 7년여가 지난 후이다. 육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회광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장에는 삭방군을 여럿으로 나누어 그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당조에 반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안하였더라도, 반란이 진압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만큼 변경 방어에 있어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여길 만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군에서 감림하는 환관들의 존재는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재상인 육지에게는 이들의 영향력도 약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할 법하였다. 육지는 해당 글에서 이상의 문제는 결국 덕종이 자신의 뜻에 맞는 서북 변경 방어의 담당자를 임명한 데에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방어와는 거리가

405) 『陸贄集』 卷19 「論緣邊守備事宜狀」, pp.619-622.

멀다며 아래와 같이 비판한다.

근래 변군의 거취를 재단함이 대부분 황상에게서 결정되고, 장수를 뽑고 배치함에 있어서도 통제하기에 용이한 자를 우선시하여 부대를 많이 만들고 힘을 분산시키고 소임을 가볍게 하여 그 의지를 약화시키니, 비록 징계하는 바가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또한 놓치는 바도 있습니다... 만약 장수를 배치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령을 따르고 거역함이 없는 자들 가운데에서 취한다면 이와 같이 하여도 좋겠습니다만, 흉난을 평정하는 데에 뜻을 두셨다면 이렇게 하셔서 안 됩니다.⁴⁰⁶⁾

그러면서 육지는 문무에 능한 사람 3명을 원수로 임명하여 隴右元帥에게는 경원·농우·鳳翔·長武城·산남서도의 관할 영역 내 병마를 총괄하게 하고 朔方元帥에게는 부방·빈녕·영하의 병마를, 河東元帥에게는 하동·진무의 병마를 총괄하게 하여 지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⁰⁷⁾ 이 글에 대해서 『구당서』에서는 “덕종이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고, 優詔를 내려 그를 칭찬하였다”고 하며⁴⁰⁸⁾, 『자치통감』에서는 “상이 비록 모두 따를 수는 없었으나, 마음으로는 이를 깊이 중시하였다”라고 하여⁴⁰⁹⁾ 덕종이 육지의 해당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였다고 전한다. 하지만 결국 앞서 나뉘어진 삭방군의 영역이 재통합되는 일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덕종이 육지의 위 글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결국 『자치통감』에서 표현한 대로 모두 따를 수는 없었으나 ‘마음으로는’ 해당 의견을 중시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덕종은 왜 육지의 의견을 중시하면서도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것일까.

육지의 글은 朱泚·이회열·이회광의 배반을 겪은 당시 덕종의 심리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준다. 덕종은 정원 2년(786) 이후 반측지지들의 움직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서북 변경 방어에 있어서도 환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이회광과 같이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강대한 절도사의 존재를 다시는 허용하지 않으려 하였다. 육지가 말한 대로 흉난을 평정하기에

406) 『陸贄集』 卷19 「論緣邊守備事宜狀」, pp.624-625.

407) 『陸贄集』 卷19 「論緣邊守備事宜狀」, pp.626-627.

408) 『舊唐書』 卷139 「陸贄傳」, p.3816.

409) 『資治通鑑』 卷234 「唐紀」50 德宗貞元九年, p.7547.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그리 적절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며, 이는 덕종도 육지의 간언을 비록 따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이를 중시한 이유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덕종은 명장들의 변절을 겪은 이후 자신감을 잃고 본인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의 등장을 막느라 토변을 방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대인 삭방군을 약화시킨 용렬한 군주에 불과하며, 육지는 이를 저지하려 한 충심어린 명재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육지의 글이 얼마나 유효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원 9년(793) 당시 당조의 서북 변경에 인접한 토번·위구르에 대해 당조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었는지도 더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덕종이 서북 변경 방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안을 실시하였고 그 조치가 효과를 보았다면, 덕종 입장에서는 굳이 서북 변경에 강력한 절도사를 다시 둘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에서는 神策中尉의 설치와 외교 방면에서 당조가 보인 노력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정원 2년에서 9년경에 이르는 시기 당조의 행보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2) 서북변에서의 神策軍의 역할과 神策中尉

장안으로 돌아온 덕종은 서북 변경 방어를 일부 분담하고 있던 신책군의 힘을 강화하는 한편, 덕종은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환관에게 신책군을 총괄하는 神策軍護軍中尉(이하 神策中尉로 약칭) 직을 맡김으로써 황제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신책군을 통하여 약화된 서북 변경의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덕종 당시 신책군은 황제를 지키는 금군으로, 신책군은 대종 이후 금군이 되면서 장안 인근에 상주하였으며 경사와 그 서북방 방어에도 활용되었다. 다만 대종 이전 시기 금군 제도 하에서 신책군은 경사에 위치한 군이 아니었던 관계로, 신책군에 대하여 자세히 논하기에 앞서 우선 덕종 시기의 금군 제도와 신책군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 같다.

일반적으로 금군이란 천자가 거처하는 금중의 위병을 의미하는 것으로⁴¹⁰⁾,

410) 『新唐書』의 기록에 따르면 禁軍이라는 표현은 唐 前期부터 이미 사용된 개념이지만, 근래 한 연구에 따르면 해당 표현은 唐 德宗 시기의 ‘元從禁軍’에서 비롯된 표현이며 그 이전에는 皇帝의 親衛軍을 禁軍이라 지칭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平田陽一郎, 『皇帝と奴官 -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 『隋唐帝國形成期における軍事と外交』, 東京: 汲古書院, 2021) 해당 연구의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나, 본 논문이 다루는 시대가 마침 唐 德宗 시기인지라 史料에서도

당 전기 금군은 장안성의 북쪽에 주둔하는 北衙와 궁성 남쪽에 주둔하는 南衙로 구성되었다.⁴¹¹⁾ 일반적으로 남아는 경사의 치안을, 북아는 궁성의 방어를 담당하는 형태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이해하는데⁴¹²⁾, 이에 따르면 황제를 지키는 군대라는 ‘狹義의 금군’에 해당하는 것은 北衙禁軍이라고 할 수 있다. 북아금군 제도는 시기에 따라 변화, 현종 시기에는 左·右羽林軍과 左·右龍武軍의 4군 체제로 정리되어 금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⁴¹³⁾ 하지만 안사의 난을 거치면서 당 전기의 금군 체제는 붕괴되었고, 대종 시기 이후에는 신책군이 금군의 핵심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물론 신책군 이외에도 대종 시기 寶應軍과⁴¹⁴⁾ 덕종 시기 左·右神威軍⁴¹⁵⁾ 등이 일시적으로 황제의 친위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활동량에서 신책군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존속한 시기 또한 짧았기 때문에⁴¹⁶⁾ 이하 대종 시기 이후의 금군에 대해 논함에 있어서는 신책군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신책군이라는 이름은 현종 천보 13재(754) 哥舒翰의 奏에서 처음 등장한다. 가서한은 九曲의 땅에 逃陽·澆河 2개 郡과 신책군을 설치하고 臨逃太守 成如璆로 하여금 逃陽太守를 겸직시키는 동시에 神策軍使로 충임하였다고 주하였다.⁴¹⁷⁾ 이는 당시 가서한이 토번에게서 구곡 땅을 확보한 후 해당 영역을 당조의 실질적 지배하에 두기 위한 조치였고⁴¹⁸⁾, 이는 설치 당시의 신책군은 경사의 방어나 금군과는 무관한 존재였음을 의미한다. 이후 안사의 난이 일어나 조정이 서북 변경에 있던 병력들을 대거 안사의 난 진압을 위해 투입하는 과정에서 신책군 역시 경사 인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상원 원년(760) 신책군사성여구는 衛伯玉의 지휘 하에 1,000명을 파견하여 조정을 돕게 하였으나, 직후 성여구가 담당하던 구곡 지역이 안사의 난을 틈탄 토번의 공습에 함락 당하였기에 파견된 위백옥 휘하의 병력은 줄지에 신책군의 본대가 되고 말았다.⁴¹⁹⁾

禁軍으로 지목하고 있는 神策軍을 군이 ‘皇帝親衛軍’이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존재를 재정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때문에 논의의 편의상 唐前期 이래의 皇帝親衛軍을 禁軍으로 표기함을 미리 밝혀둔다.

411) 『新唐書』 卷50 「兵志」, p.1330.

412) 陳寅恪, 『唐代政治史述論稿』(『隋唐制度淵源略論稿·唐代政治史述論稿』, 北京: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2001) 中篇 「政治革命及黨派分野」, p.238.

413) 金滄, 「唐前期의 北衙禁軍」, 『中國學報』56, 2007, p.247.

414) 『新唐書』 卷50 「兵志」, p.1332.

415) 『舊唐書』 卷44 「職官志」3, p.1905.

416) 林美希, 『唐代前期北衙禁軍研究』, 東京: 汲古書院, 2020, pp.156-168.

417) 『資治通鑑』 卷217 「唐紀」33 玄宗天寶十三載, p.6927.

418) 『新唐書』 卷141上 「吐蕃傳」 上, p.6087.

위백옥은 경사로 향하는 도중 相州에서 기타 병력을 수습하여 신책군의 규모는 더욱 커졌으며, 이에 신책군은 觀軍容使 魚朝恩과 함께 陝州의 방어를 담당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⁴²⁰⁾ 위백옥과 신책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조정은 위백옥을 신책군절도사에 임명하니, 이를 통해 신책군은 단일 절도사의 지휘를 받는 부대로 그 위상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⁴²¹⁾ 숙종 상원 2년(761) 위백옥이 섬주를 공격해온 사조의의 공격을 막아내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보인 이후⁴²²⁾ 위백옥을 대신하여 隴右節度使 郭英乂가 일시적으로 신책군절도사를 겸하였다가, 광영예가 僕射가 됨에 따라 신책군은 관군용사 어조은이 통솔하게 되었다.⁴²³⁾

안사의 난이 아직 진행 중이던 이 시점, 당조는 동북쪽의 안사 진영과 더불어 서북방에서 공격해오는 토변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토변은 동북방에 당조의 병력이 집중된 틈을 타 당조의 서북쪽 강역을 적지 않게 점령해가고 있었는데⁴²⁴⁾, 광덕 원년(763) 토변은 涇州·邠州를 점령하고서 涇州刺史 高暉를 향도로 삼아 奉天縣을 함락시키고 장안까지 압박해갔다.⁴²⁵⁾ 대종은 광자의를 보내어 토변에 대항하게 하였지만 토변이 吐谷渾·党項羌의 무리 20여만을 이끌고 공격해오자 광자의는 퇴각하였고, 이에 대종은 장안을 버리고 섬주로 피난하게 되었다.⁴²⁶⁾ 이러한 혼란 가운데 황제를 지켜야할 射生軍⁴²⁷⁾의 장수 王獻忠은 400기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豐王 이하 十王을 이끌고 경사로 돌아갔으며, 이 상황에서 대종을 호종한 것은 섬주를 방어하던 신책군으로 당시 신책군을 통솔하던 사람은 관군용사 어조은이었다.⁴²⁸⁾ 토변이 장안에서 물러나고 대종이 장안으로 돌아올 때 신책군은 대종을 따라 금중에 들어오게 되었고, 영태 원년(765) 토변이 다시 침입하자 어조은은 北苑에 신책군을 주둔시키고 토변의 침략을 방비하였다. 이에 대종은 신책군을 정식으로 천자의 금군

419) 『資治通鑑』 卷221 「唐紀」37 肅宗上元元年, p.7096.

420) 『唐會要』 卷72 「京城諸軍」 神策軍, p.1533.

421) 『資治通鑑』 卷221 「唐紀」37 肅宗上元元年, p.7096.

422) 『舊唐書』 卷115 「衛伯玉傳」, p.3378.

423) 『新唐書』 卷50 「天子禁軍」, p.1332 ; 『唐會要』 卷72 「京城諸軍」 神策軍, p.1533.

424)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5236.

425) 『舊唐書』 卷11 「代宗本紀」, p.273.

426) 『舊唐書』 卷196上 「吐蕃傳」上, p.5237. 吐谷渾과 党項羌은 『舊唐書』에서는 모두 「西戎傳」에 포함되어 있으며(『舊唐書』 卷98 「西戎傳」), 『新唐書』의 경우 따로 立傳하지는 않았다.

427) 『新唐書』 卷50 「兵志」, p.1332 ; 『舊唐書』 卷44 「職官志」3, p.1905.

428) 『舊唐書』 卷11 「代宗本紀」, p.274.

으로 삼았고 신책군을 통솔하던 관군용사 어조은을 神策軍兵馬使로 삼아⁴²⁹⁾ 환관으로 하여금 금군인 신책군을 통솔하게 하였다.



<圖-7. 현종 시기 신책군 城鎮의 분포
(음영 부분은 대력 4년(769)
神策外鎮의 범위)>⁴³⁰⁾

금군이 된 신책군은 장안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편, 일부 토변과 인접한 경사의 서북쪽에 배치되어 해당 지역을 방어하는 역할도 맡았다. 신책군 가운데 장안 외부에 주둔하는 지역은 시기가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여 경조부의 武功縣⁴³¹⁾, 鳳翔府⁴³²⁾와 그 예하의 麟遊縣⁴³³⁾, 隴州⁴³⁴⁾, 夏州⁴³⁵⁾, 深州의 樂壽縣과 博野縣⁴³⁶⁾ 등에는 덕종 시기에 신책군 혹은 神策行營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정원 14년(798) 도합 15만에 달하게 된 左·右 神策軍은⁴³⁷⁾ 경사 인근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여타 지역에 출병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군이었고, 그 관할 영역은 덕종·현종 시기를 거치며 크게 확장되어 마침내는 장안의 서북방 일대를 포괄하게 되었다.

물론 장안 밖에 주둔하는 신책군 가운데 신책중위가 직접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城鎮은 경조부와 빈주, 延州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연구도 있었다. 해당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을 펼친 근거는 상당수의 신책군 부대가 토변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防秋行營이거나 과거 신책군에 소속되지 않았던 부대가 명

429) 『新唐書』 卷50 「天子禁軍」, p.1332.
 430) 黃樓, 『神策軍與中晚唐宦官政治』, 北京: 中華書局, 2019, p.102.
 431)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5255.
 432) 『冊府元龜』 卷52 「帝王部」 崇釋氏2, p.548.
 433) 『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胡戟·榮新江 主編, 北京大學出版社 2012)』 「唐故金紫光祿大夫雅王傅崔君墓誌銘并序」, p.677.
 434)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5254.
 435) 『資治通鑑』 卷232 「唐紀」48 德宗貞元三年, p.7492.
 436) 『新唐書』 卷148 「傅良弼傳」, p.4789.
 437) 『新唐書』 卷50 「兵志」, p.1334.

목상으로만 새로이 신책군에 포함된 ‘遙隸’ 신책군 부대로, 원칙상 신책중위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부대라는 점이였다.⁴³⁸⁾ 하지만 적어도 ‘遙隸’된 신책군의 경우 신책중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웠을 것이라 보는 것은 지휘 계통 문제만 염두에 둔 지나친 견해로 여겨진다.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서는 덕종이 장안으로 돌아온 후 신책군을 어떻게 정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환관으로 구성된 신책중위의 위상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번진과의 전쟁에 있어 신책군의 기능부전을 목도한 덕종은 장안으로 돌아온 후 다시금 전대 황제인 대종과 마찬가지로 환관을 통해 금군인 신책군을 제어하기로 하였다. 무장이 아닌 환관을 중심으로 신책군을 운영하겠다는⁴³⁹⁾ 덕종의 결정의 원인에는 신책군사 백지정에 대한 실망도 있었을 것이다. 덕종은 흥원 원년(784) 竇文場에게 監神策軍左廂兵馬를 맡겼다가⁴⁴⁰⁾ 정원 2년(786) 監句當左·右神策軍 직을 신설하고 환관에게 이를 맡겼으며⁴⁴¹⁾, 정원 12년(796) 두문장과 霍仙鳴을 새로이 설치한 左·右神策軍護軍中尉에 임명하고 특히 두문장에게는 從1品 武散官인 驃騎大將軍을⁴⁴²⁾ 더해 주어 신책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⁴⁴³⁾ 덕종이 환관에게 맡긴 이상의 신책군 내 직무는 그 성격을 같이하는 존재로 보이는데⁴⁴⁴⁾, 환관이 맡은 이들 직무는 구체적인 직명과는 별개로 신책군 내의 감군사 역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술되는 경향이 있다.⁴⁴⁵⁾

438) 李宇一, 「唐代「神策外鎮」再考」, 『史泉』133, 2021, pp.19-22. 李宇一은 그 외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節度使 혹은 都團練使가 통솔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분석, 神策中尉의 통제력 밖에 있는 지역의 神策軍은 在外神策軍 등 다른 호칭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39) 『舊唐書』 卷184 「宦官傳」, p.4754.

440) 『大唐傳載』(唐)佚名, 『全唐五代筆記』3(全4冊), 西安: 三秦出版社, 2008), p.1842.

441) 『新唐書』 卷50 「兵志」 天子禁軍, p.1333.

442) 『舊唐書』 卷42 「職官志」1 從第一品, p.1791 ; 『新唐書』 卷46 「百官志」1 兵部, p.1197.

443) 『舊唐書』 卷184 「宦官傳」, p.4766.

444) 연구자들 가운데에서는 神策中尉를 職事官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杜文玉, 「唐代宦官俸祿與食邑」, 『唐都學刊』1998-2 ; 賈憲保, 「神策中尉與神策軍」 ; 黃修明, 「唐代神策中尉考論」, 『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2-6), 해당 연구에서 인용한 史料를 재검토해보면 神策中尉는 職事官이 아니라 監軍使와 같은 使職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해당 史料의 문맥에 어울린다.(何先成, 『唐代神策軍與神策中尉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1, pp.77-82)

445) 『冊府元龜』 卷153 「帝王部」 明罰第二, p.1707. 貞元 11년 당시 竇文場의 神策軍 내 직위가 監句當神策軍이었음은 명확하므로 해당 史料의 기술은 監句當神策軍이 사실상

당 전반기 감군사는 주로 어사가 맡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종 시기 이후에는 환관이 감군사를 맡는 경우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⁴⁴⁶⁾ 감군사는 임시 使職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직무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당회요』의 六軍辟仗使 관련 서술에 “刑賞의 시행을 감시하고 위법과 잘못을 주찰하니, 外征하는 方鎮의 감군사와 같다.”⁴⁴⁷⁾는 기록이 있어 그 직무가 군에서의 형·상 시행 감시 및 위법과 잘못의 주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군사의 직무는 점차 확장되어 여타 장병들과 협력하여 문제 상황을 처리하거나 구체적인 군사작전을 제시하는 등 각 방면에서 개인적 판단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기도 하였는데, 해당 상황이 종료되거나 개인의 판단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황제에게 이를 보고하는 것 또한 감군사의 직무였다.⁴⁴⁸⁾ 신책중위 또한 품계가 없는 사직으로, 황제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다든 점에서 여타 군의 감군사와 유사한 역할을 신책군 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된 듯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군 내에서 직사관인 무장이 통수로서 활동하며 감군사는 상대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신책군의 경우 신책중위가 무장들까지도 통솔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었다.

신책중위가 여타 감군사와는 달리 신책군을 전적으로 통솔하였다는 언급은 흥원 원년 두문장이 監神策軍左廂兵馬使를 맡은 시점부터 등장한다. 胡三省은 두문장과 王希遷이 각각 監神策軍左·右廂兵馬使를 맡아 금군을 나누어 관장하였다는 『자치통감』의 기록에 주를 달아 이 시점 환관이 신책군의 병권을 잡은 이후 환관들은 병권을 탈취당하지 않았다고 서술하였는데, 이는 司馬光과 호삼성이 경사로 돌아온 덕종이 신책군의 병권을 환관들에게 맡겼다고 이해하였음을 보여준다.⁴⁴⁹⁾ 그렇다면 신책중위와 여타 감군사 간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기에 이들은 환관들이 신책군의 병권을 맡았다고 표현한 것일까? 정원 연간 발생한 신책중위와 神策軍大將軍 간의 사건을 기록한 아래 사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단서를 제공한다.

神策軍의 監軍使로 인식되었음을 뜻하며, 본 기사의 이듬해 설치된 神策中尉의 성격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46) 『通典』 卷29 「職官典」11, p.805.

447) 『唐會要』 卷72 「京城諸軍」, p.1535.

448) 柳浚炯, 「唐代 지방 監軍제도의 변화와 의의」, 『東洋史學研究』123, 2013, pp.286-290.

449) 『資治通鑑』 卷231 「唐紀」47 德宗興元元年, p.7445.

(정원) 8년(792), (柏良器가 신책군)대장군으로 옮겨오고서 사졸 가운데
 市中에서 장사하는 자를 모두 물리쳐 제거하고 용맹한 자를 모집하여 그
 들을 대신하게 하니, 이 때문에 감군에게 미움 받았다. 이듬해 공의 오
 랜 친구가 犯禁하여 望仙門에서 목은 일이 있었는데 위사가 주하여 마
 침내 右領軍衛大將軍으로 진출되었고, 감군은 이에 衙將 魏循을 대신
 장군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군 가운데의 법규가 다시는 장군에 있지 않
 게 되었다.⁴⁵⁰⁾

백량기는 정원 8년 신책군대장군에 임명되었지만, 친구의 범금으로 인하여 탄
 핵당하여 신책군에서 진출되었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감군은 두문장으로⁴⁵¹⁾, 이는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神道碑의 특성상 황제의 총애를 받은 환관에
 대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제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李翱
 (772-841)의 기록에 따르면 신책군의 최고위 무장인 신책군대장군으로 임명된
 백량기가 친구의 죄로 연좌되어 진출된 데에는 신책중위인 두문장의 입김이
 작용하였는데, 이는 저자가 신책군 내에서 신책중위가 신책군대장군을 진출시
 킬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겼음을 보여준다. 물론 죽은 이를 기리
 는 신도비라는 사료가 사태를 중립적으로 묘사한 것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하나, 같은 기사가 『신당서』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
 사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신책군대장군은 정3품에 해당하는 고위 무장으로 신책군의 지휘·통솔을 전
 담하는 관위였다. 하지만 백량기가 진출되는 과정에서 보듯 실질적으로는 신
 책군대장군의 인사 조치에 신책중위가 간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았던 것
 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신책군의 고위 장교들 또한 신책중위의 영향력을 무
 시할 수 없었던 듯하다. 정원 초기 신책군의 지휘 계통으로는 정3품의 대장군
 2명과 종3품의 장군 2명이 설정되었다.⁴⁵²⁾ 이들의 품급은 이전 시기 금군의
 역할을 담당하던 北衙六軍(左·右羽林軍, 左·右龍武軍右, 左·右神武軍)⁴⁵³⁾의 지
 휘관과 동일하게 설정된 것이었는데⁴⁵⁴⁾, 정원 14년(798) 대장군은 정2품, 새로

450) 『李文公集』(李翱 撰, 『李文公集·歐陽行周文集』,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3) 卷13 「
 唐故特進左領軍衛上將軍兼御史大夫平原郡王贈司空柏公神道碑」, p.66.

451) 『新唐書』 卷136 「柏良器傳」, p.4596.

452) 『舊唐書』 卷44 「職官志」3 左右神策軍, p.1905.

453) 『新唐書』 卷50 「兵志」, p.1331.

이 개설된 2명의 統軍은 중3품, 장군은 중5품으로 품급이 조정되었다.⁴⁵⁵⁾ 하지만 이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신책중위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구당서』 「환관전」의 표현과 마찬가지로 금군인 신책군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존재는 좌·우 신책중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책중위는 감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황제의 측근으로, 이를 통해 덕종은 백지정 시기의 실패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금군을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였다. 신책중위는 정원 14년(798) 도합 15만에 달하였던 좌·우 신책군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던 만큼 군사적 능력을 검증 받은 환관만이 신책중위가 될 수 있었다. 신책중위를 역임한 환관들이 일반적으로 지방의 감군사 출신이었던 것은 이 때문으로⁴⁵⁶⁾, 이들 신책중위가 신책군을 장악한 이후 신책군은 현종 시기 對藩鎮政策에 있어서 초기 변진 토벌의 주력군으로 활동, 덕종 시기의 신책군 재편은 전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신책중위는 상기하였듯 사직의 일종인 감군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 권한의 막대함과는 별개로 명시적인 품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최초의 신책중위인 두문장이 신책군을 통솔하기 위해 황제에게 받은 사직 외의 직위는 직사관이 아닌 무산관 중1품으로, 이는 황제의 뜻에 따라 사직의 성격을 지닌 신책중위는 언제나 교체될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신책중위는 이후 좌·우 樞密使와 더불어 「四貴」로 불릴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닌 직위였지만, 이를 보장해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황제 뿐이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신책군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신책중위는 제도적으로 황제에 종속된 존재로 구상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덕종이 구상한 신책중위 제도는 황제 권력의 강화라는 덕종의 또 다른 목적과도 맥을 같이하였다 하겠다.⁴⁵⁷⁾

454) 『舊唐書』 卷44 「職官志」3 左右羽林軍, p.1903.

455) 『新唐書』 卷49上 「百官志」4上, 左右神策軍, p.1291.

456) 陸揚, 「9世紀唐朝政治中的宦官領袖 -以梁守謙和劉弘規爲例-」, 『清流文化與唐帝國』, pp.150-154; 何先成, 『唐代神策軍與神策中尉研究』, p.99.

457) 拙稿, 「唐 後期 宦官의 養子制를 통한 권력 세습과 內諸司使」, p.211. 唐代 宦官은 皇帝의 家奴로서 전적으로 皇帝의 은총에 의해서만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종속적인 존재였다. 憲宗은 神策中尉를 지낸 吐突承璀가 뇌물 사건에 연루되자 그를 淮南監軍으로 좌천시키면서 그는 家奴에 불과하며 문제가 있다면 그를 버리는 것 또한 지극히 가벼운 일에 불과하다고 말할 정도로, 皇帝의 은총을 상실한 宦官은 순식간에 제거될 수 있었다.(『資治通鑑』 卷238 「唐紀」 54 憲宗元和六年, p.7686) 柳浚炯은 지방에 파견된 監軍使 또한 점차 地方官으로서의 성격도 지니는 등 그 역할이 확장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皇帝가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었다고

최초의 신책중위로 임명된 두문장과 광선명은 이러한 덕종의 목적성에 합치되는 인물이었다. 두문장·광선명은 덕종이 동궁에 있던 시절부터 덕종을 섬긴 환관으로, 이들은 ‘경사지변’ 당시 환관들을 이끌고 덕종을 시종하였다. 덕종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이들은 백지정이 신책군사에서 파직된 이후 그를 대신하여 금군을 이끌었으며, 경사로 돌아온 이후에도 금군인 신책군의 통제권을 맡았던 것은 2명의 환관이 덕종에게 얼마나 깊은 신뢰를 받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정원 12년(796) 두문장을 신책중위로 삼을 당시 덕종은 그에게 “짐이 지금 너를 기용함에 사사로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였으며⁴⁵⁸⁾, 정원 13년(797) 광선명이 병에 걸리자 덕종은 병에 걸린 광선명의 쾌유를 위해 불교 승려들에게 기복을 위한 齋를 올리게끔 하였음에도 결국 광선명이 사망하자 그의 주변인들이 그를 독살한 것으로 의심하여 유배시킨 이들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였다.

광선명의 사망 이후에도 신책군과 신책중위에 대한 덕종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광선명의 사망 후 開府內常侍 第五守亮이 그를 대신하여 신책우군중위에 임명되었고, 두문장이 치사를 허락받은 뒤에는 楊志廉·孫榮義 등이 이어서 신책중위가 됨으로써 어쩌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칠 수도 있었을 환관의 신책군 장악은 이후 당말까지 계속되었다.⁴⁵⁹⁾ 이는 덕종이 환관에게 신책군을 맡긴 행동이 다만 두문장과 광선명을 개인적으로 신임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우발적 조치가 아니라, 무장 전반에 대한 불신과 신책중위의 존재가 황권 강화에 유용함을 인지한 결과 취해진 의도적 조치임을 보여준다. 이후 헌종 초에도 명목상 신책군을 이끈 것은 토돌승최이지만 실질적인 지휘권은 헌종에게 있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⁴⁶⁰⁾, 신책중위 제도를 통해 황제가 금군을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덕종의 의도는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신책중위와 감군사 등 환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병권을 장악하려는 덕종의 태도에 신료들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덕종이 봉천으로 피난해 있던 시기, 재상이었던 蕭復은 감군을 직접 거론하며 환관들이 군사와 정사에 깊숙이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재상이었던 노기가 덕종의 뜻을 반영한 대답을 하자, 소복은 정색하며 ‘노기의 말은 옳지 않

분석한 것 또한 宦官이 皇帝에게 종속된 존재라는 인식과 유관하다.(柳浚炯, 『唐代 지방 監軍제도의 변화와 의의』, pp.295-308)

458)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pp.7571-7572.

459) 『舊唐書』 卷13下 「德宗本紀」下, p.386 ; 『舊唐書』 卷184 「宦官傳」, pp.4766-4767.

460) 黃樓, 『神策軍與中晚唐宦官政治』, pp.118-119.

다(不正)'이라 하여 덕종이 경악할 정도였다. 다만 덕종은 환관을 통한 황권 강화라는 본인의 뜻을 뒤집을 생각이 없었다. 덕종은 소복이 물러난 후 좌우 사람들에게 “소복이 자못 짐을 가벼이 여긴다”고 평하고서 그에게 강남의 宣撫를 맡김으로써 재상에서 파직시켰고⁴⁶¹⁾, 환관의 활용이라는 기조는 그대로 이어졌다.

태생적으로 신책중위의 존재가 황제 권력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만큼, 신책중위는 공식적으로는 신책군의 감군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재상과 함께 국가를 지탱하는 대신으로 불리는 위치에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⁴⁶²⁾ 그리고 이러한 신책중위의 특수한 위치로 인하여 신책군은 각종 특혜를 향수할 수 있었다. 신책군에게는 특별히 높은 급여와 질 좋은 장비가 지급되어 주변 부대가 이에 대해 불만을 품을 정도였으며⁴⁶³⁾, 경우에 따라서 신책군의 병사들은 백성들의 물건을 수탈하는 횡포를 부리기도 하였다.⁴⁶⁴⁾ 신책군이 이러한 행보를 취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신책중위에 대한 황제의 은총이 있었으며⁴⁶⁵⁾, 그런 만큼 신책군의 장병들은 신책중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順宗 시기 王叔文이 范希朝를 西北諸鎮行營兵馬使로 삼아 신책군의 통솔권을 환관에게서 탈취하고자 하자, 여러 장수들은 신책중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해당 시도를 무력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⁴⁶⁶⁾ 신책군의 장병들은 신책중위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였으며 황제는 이를 활용하여 금군에 대한 장악력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육지는 앞선 글에서 금군이 아닌 邊軍의 장교들이 아첨하는 글을 올려 신책군에 소속되기를 바라는데, 이는 신책군이 받는 보급품이 그렇지 않은 부대에 비하여 훨씬 많았기 때문이라 지적한 바 있다.⁴⁶⁷⁾ 육지가 이러한 현상을 지적한 것은 신책군과 다른 부대에 대한 보급의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지만, 이 글을 통하여 덕종은 황제가 신책중위를 통하여 강한 장악력을 발휘하는 신책군을 후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인근 부대 또한 신

461) 『舊唐書』 卷125 「蕭復傳」, p.3551.

462) 『玉泉子』((唐)佚名, 『新輯玉泉子』(『奉天錄(外三種)』), 北京: 中華書局, 2014), p.143.

463) 『陸贄集』 卷19 「論緣邊守備事宜狀」, pp.622-623.

464) 何先成, 『唐代神策軍與神策中尉研究』, pp.185-193 ; pp.263-276.

465) 『白居易集箋校』 卷1 「宿紫閣山北村」, pp.25-26.

466) 『新唐書』 卷168 「王叔文傳」, p.5125.

467) 『陸贄集』 卷19 「論緣邊守備事宜狀」, pp.622-623.

책군에 소속되기를 바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북 변경에서의 신책군의 위상 증대가 신책중위를 통한 황제의 신책군에 대한 높은 장악도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본다면, ‘遙隸’된 신책군이 신책중위의 지휘권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이들 양자를 둘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은⁴⁶⁸⁾ 그리 설득력이 높은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덕종은 신책중위를 통하여 황제가 직접 장악하는 신책군을 강화하고,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신책군을 통하여 장안의 서북 변경 방어를 보강하였다고 이해하는 편이 보다 자연스럽다. 그 과정에서 변군의 일부는 자청하여 신책군에 소속되기를 원하게 될 정도로 신책군의 위상은 높아졌고, 이로 인하여 과거 15만여의 병력으로 서북 변방을 방어하였던 삭방군의 힘은 약해졌지만 역시 15만여에 달하는 신책군의 존재감 증가는 이를 보충하는 방편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신책군의 강화에는 ‘경사지변’ 이전에 금군인 신책군이 그 수와 질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대응책이라는 면모도 있었다. ‘경사지변’ 발생에 앞서 段秀實은 금군의 강화가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함(強幹弱枝)’의 의미가 있다며 신책군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었다.⁴⁶⁹⁾ ‘경사지변’ 당시 단수실이 병으로 장안에 남아 있다가 朱泚에게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죽임 당하자 이후 장안으로 돌아온 덕종은 단수실을 太尉로 추증하고 貞烈이라는 시호를 내리는데, 『구당서』에서는 신책군의 강화 조치가 앞서 단수실이 올렸던 충언을 가납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서술한다.⁴⁷⁰⁾ 다만 강화된 신책군의 통솔을 전문 무장이 아닌 환관에게 맡긴 덕종의 결정은 무장 출신인 단수실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장안에 돌아온 후 덕종이 신책군을 강화하면서 신책중위를 통해 이를 통솔하게 한 것은 금군을 강화함으로써 수도 인근의 방어력을 확충하는 조치인 동시에 해당 병력을 무장이 아닌 황제가 직접 통솔한다는 점에서 이중적 의미를 가진 조치라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덕종이 3명의 원수를 돕으로써 서북방 방어를 강화하자는 육지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배경에는 약해진 삭방군 대신 보다 강화된 신책군의 서북변 방어에 있어서의 비중 증가라는 요소가 있었다. 육지는 장수들에게 병권을 일임하고 황제가 직접 변경 방어에 간섭하는 일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

468) 李宇一, 「唐代「神策外鎮」再考」, pp.20-21.

469) 『舊唐書』 卷128 「段秀實傳」, p.3587.

470) 『舊唐書』 卷128 「段秀實傳」, p.3588.

지만, 덕종은 오히려 본인이 장악하고 있는 금군을 적극적으로 서북변 방어에 투입함으로써 본인의 안전과 변경 방어 강화를 동시에 이룩하려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덕종은 이필의 제안을 받아들여 토번의 인접국들과 더불어 토번을 협공하는 새로운 외교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토번의 위협 자체를 감경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서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3. 吐蕃과의 관계 악화와 唐朝의 대처

1) ‘平涼劫盟’과 唐-吐蕃의 관계 경색

덕종 즉위 초 당조와 토번은 화친 관계를 맺었고, 당조가 이를 바탕으로 토번을 방어하기 위하여 꾸려진 방추병의 일부를 내부로 돌려가면서까지 반측하지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다. ‘경사지변’으로 인하여 장안에서 봉천으로 도망친 후 토번은 당조에 지원군을 파견하여 혼감이 토번군과 더불어 朱泚의 군사를 크게 물리칠 정도로 흥원 원년(784)까지 양국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⁴⁷¹⁾ 하지만 정원 2년(786) 이후 당조와 토번 간의 관계는 재차 경색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원 3년(787) 이후 당조는 토번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대신 위구르·南詔·大食·天竺 등과 협의를 통하여 오히려 토번을 협공하는 쪽으로 외교 노선을 전환하였다.

정원 2년 토번은 경주·농주·빈주·寧州를 공격하여 사람과 가축을 약탈하는 등 당조를 도발하였다. 이에 당조에서는 左金吾將軍 張獻甫와 신책군의 장수 李昇曇·蘇清沔을 파견하여 토번의 도발에 맞서게 하였고, 하중절도사 駱元光으로 하여금 이들을 지원하게 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토번은 염주를, 12월에는 하주를 함락시켜 토번의 위협은 더욱 거세졌고⁴⁷²⁾, 이에 당조에서는 토번 측에 崔瀚을 파견하여 공격에 항의 의사를 표하였다.⁴⁷³⁾ 토번 측의 尙結贊은 자신들이 앞서 ‘경사지변’ 당시 병력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조가 이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조의 강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변호하였는데⁴⁷⁴⁾, 尙結贊의 이러한 변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당시 토번군은 함께 전쟁을 치른 혼감이 장안을 공격하자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대 내에 역질에 걸린 자들이 많다는 핑계로 장안 공격에 참여하지 않은 채 급거 귀국해버린 바 있었다. 토번군이 갑작스레 철군한 이후 덕종은 토번군의 공백으로 인하여 장안을 공격함에 있어 병사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여 육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였을 정도로 당시 토번 측의 결정은 당조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다.⁴⁷⁵⁾ ‘경사지변’이 끝난 후

471)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p.5248-5249.

472)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p.5249-5250.

473) 『冊府元龜』 卷997 「怨讎」, p.11542.

474)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5250.

당조가 토변에 원군에 대한 보수를 제공하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당조가 토변의 원병 파견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변의 병력이 당조의 강역을 침범했다는 尙結贊이 주장에 당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당조 측에서는 대신들을 모아 토변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정원 3년(787) 3월 당시 조정 내에서는 토변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여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공격하자는 이성·한유괴·韓滉 등의 강경파와 화친을 주장하는 혼감·마수·장연상 등 온건파가 맞서고 있었다. 양 측은 팽팽히 맞섰으나, 토변과 갈라설 경우 위구르와 연계하여 토변을 압박해야 했던 상황에서 태자 시절 위구르에게 받은 모욕을 잊을 수 없었던 덕종은 일단 토변과 화친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⁴⁷⁶⁾

앞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강변한 토변 측의 尙結贊은 이전에 청수회맹 당시 세웠던 정계비가 넘어졌다면, 양 국의 화호를 갱신하기 위해서라도 재차 회맹을 열어 정계비를 다시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었다.⁴⁷⁷⁾ 토변과 화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상 당조 측에서도 이에 화답해야 했고, 이에 토변과의 화친을 주장했던 혼감을 盟會使로 하고 崔漢衡을 副使로 하는 사절단을 꾸리게 되었다.⁴⁷⁸⁾ 처음에 토변 측은 국경 인접 지역의 절도사인 靈州節度使 杜希全과 涇州節度使 李觀의 회맹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당조 측은 杜希全은 靈州에서 근무하므로 국경을 나설 수 없으며 이관은 이미 벼슬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며 시중인 혼감을 맹회사로 삼은 이유를 설명하며 토변의 청을 거절한다.⁴⁷⁹⁾

토변은 처음에 회맹 장소로 청수를 지목하였다가 청수가 길지가 아니라며 재차 平涼川으로 회맹 장소를 변경하였다. 하지만 해당 회맹 요구는 처음부터 토변 측에서 꾸민 음모였으니, 평량천의 회맹 장소에 도착한 당조의 사절단과 병사들은 토변 측의 급습으로 인하여 살해·포박 당하였으며 사절단의 대표 가운데 혼감은 도망치고 최한형은 사로잡히고 말았다.⁴⁸⁰⁾ 이 사건을 ‘平涼劫盟’이라 표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다만 본래 토변 측에서 의도한바 변경 수비를

475) 『陸贄執』 卷16 「興元賀吐蕃尙結贊抽軍迴歸狀」, pp.480-481.

476) 『資治通鑑』 卷232 「唐紀」48 德宗貞元三年, pp.7482-7483.

477)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5250.

478) 『舊唐書』 卷134 「渾城傳」, p.3708.

479)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p.5250-5251.

480) 『舊唐書』 卷196下 「吐蕃傳」下, pp.5251-5252.

담당하는 주요 인사를 사로잡고 京師를 침범하려던 계획은 실패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번의 계획은 당조를 자극하기만 한 채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⁴⁸¹⁾

이 사건을 계기로 당조의 토번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으며, 서북 변경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또한 높아졌다. ‘경사지변’ 후 덕종이 삭방군을 분할하여 약화시키는 한편 금군인 신책군을 강화하여 서북 변경 방어를 보강한 조치는 이 정도의 병력 배치만으로 장안을 외국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유효한 것이었기에, ‘평량첩맹’으로 인한 양국의 갈등은 당조에게 있어 군사·외교적인 대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토번과 전쟁을 감행한다면, 이를 위한 군비 마련 또한 문제였다. 정원 3년(787) 덕종이 주·현의 관원 수를 대폭 삭감하는 조를 내린 것과 재상 장연상이 여기에 추가로 관원의 봉료를 줄이자고 제안한 것은 모두 토번과의 군비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⁴⁸²⁾, 당시 당조는 토번과의 전면전을 감행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았다. 또 다른 재상 이필은 장연상이 주도한 관원 감축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지만⁴⁸³⁾, 그 또한 덕종과 관중 인근 국경 지역의 병력을 증강시키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경비의 부족을 이유로 들어 불가하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재정 위기는 가볍지 않았다.⁴⁸⁴⁾ 즉 정원 3년의 ‘평량첩맹’은 당조의 군사·재정·외교 전 분야에 걸친 커다란 위협이었던 것이다.

당조는 이에 토번과의 전면전에 나서는 대신, 토번과 인접한 국가들에 사신을 파견하여 토번의 협공을 요청하는 외교적 시도를 감행하였다. 위구르에 대한 증오 때문에 앞서 토번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미온적이었던 덕종을 설득한 인물은 이필이었다. 이필은 위기 극복을 위하여 덕종이 즉위한 이후 적대시해왔던 위구르를 비롯, 雲南(南詔)·大食·天竺과의 화친을 통하여 토번에 대한 외교적 포위망을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하지만 덕종은 토번과의 관계 결렬

481) 현전하는 吐蕃 측 史料에서는 ‘平涼劫盟’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기술한 경우가 거의 없다. 『贊普傳記』의 경우 唐朝의 將相 渾瑊이 이끄는 唐軍을 격파했다는 기사를 실고 있지만(『贊普傳記』, p.167) 해당 전투가 일어난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唐朝 측의 史料에 기반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吐蕃의 의도 또한 唐朝에서 파악·기술한 바에 따라 정리하였음을 밝혀 둔다.

482) 『舊唐書』 卷12 「德宗本紀」上, pp.356-357.

483) 『資治通鑑』 卷233 「唐紀」49 德宗貞元三年, pp.7490-7491.

484) 『資治通鑑』 卷232 「唐紀」48 德宗貞元三年, p.7493.

에도 불구하고 태자 시절 퇴귀 카간에게 당한 수모로 인한 위구르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위구르와의 화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필은 덕종을 능멸한 퇴귀 카간을 처단한 사람이 현재 위구르를 이끌고 있는 알프 쿠틀룩 빌게 카간임을 강조하며 위구르와의 화친과 관련하여 15차례나 덕종에게 간언할 정도로 절실히 요구를 계속하였으며, 해당 요구를 德宗이 받아들이지 않자 재상 직을 내려놓겠다고 할 정도였다.⁴⁸⁵⁾

이에 덕종은 이필에게 자신이 즉위 직후부터 위구르를 원수 보듯 해왔으며, 위구르 또한 근자에 토번이 겁맹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을 터인데 이제 와서 화친을 청하면 오히려 거절을 당하지 않겠냐는 솔직한 걱정을 내비쳤다. 이필이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대답하자 덕종은 4가지의 조건을 달아 위구르와의 화친을 승인하였다. 덕종이 위구르에 요구한 4가지 조건은 ① 가한이 당조에 청신할 것 ② 사절단의 규모가 2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것 ③ 市馬가 1천필이 넘지 않게 할 것 ④ 당나라 사람을 데리고 변경을 나서지 않을 것으로⁴⁸⁶⁾, 해당 조건은 위구르에게 안사의 난 이후 누렸던 대부분의 권익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⁴⁸⁷⁾ 그러나 경제난에 처해 있었던 위구르가 해당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정원 3년(787) 당조는 위구르와 화친을 맺게 되었다.⁴⁸⁸⁾ 당조 측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에는 남조, 대식 등도 당조가 제안한 토번 협공에 응하여 이후 토번의 당조의 서북 변경에 대한 침공은 눈에 띠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특히 “토번군의 태반이 서쪽에서 대식을 막는 까닭에 변경의 환란이 드물어졌으니, 그 힘이 부족해진 것이다”⁴⁸⁹⁾라는 평가가 내려질 정도로 대식의 역할이 컸다는 서술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기에 당조와 토번의 관계가 악화되자 당조가 위구르·남조·대식·천축에 토번을 협공하자고 요청하고 이에 각국이 응하였다는 기술은 유사한 전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갑작스러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당조의 입장에서야 여러 국가와의 외교 교섭 성공으로 인하여 직면했던 군사·재정 위기에서 탈피할 수 있다 하겠지만, 상대 국가들은 왜 이러한 요청에 응한 것일까. 그리고 이필은 어떤 근거로 이 국가들이 토번의 협공에 동참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485) 『資治通鑑』 卷233 「唐紀」49 德宗貞元三年, pp.7501-7502.

486) 『新唐書』 卷217上 「回鶻傳」上, p.6123.

487) 丁載勳, 『위구르 유목제국사 : 744-840』,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p.261.

488) 丁載勳, 「唐 德宗時期(779-805)의 對外政策과 西北民族의 對應」, p.61.

489) 『舊唐書』 卷198 「西戎傳」 大食國, p.5316.

근래 이 사건을 논급한 한 연구에서는 이보다 10여년 뒤인 정원 14년(798) 대식에서 사신이 온 기록 등을 통해 정원 3년 당시의 교섭 시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제시하는 데 그친 바 있다.⁴⁹⁰⁾ 이러한 외교 정책을 제안한 李泌이 이들 국가에 토번 협공을 요청하였던 근거는 무엇이며 당시 해당 국가의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2) 唐朝의 吐蕃 협공 요청과 그 결과

‘평량집맹’으로 인하여 토번과의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자, 당조는 다시금 위구르와의 수호를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덕종은 위구르가 자신의 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지만, 위구르가 해당 조건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덕종은 체면을 세울 수 있게 된 한편 토번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우군을 얻게 되었다. 이어서 당조와 위구르는 덕종의 8녀인 咸安公主와 위구르 가한 간의 혼인을 논함으로써 화친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정원 3년(787) 8월에 시작된 해당 논의는⁴⁹¹⁾ 이듬해인 정원 4년(788) 10월에는 함안공주를 위구르의 가한에게 出降시키고⁴⁹²⁾ 11월에 위구르의 가한을 勇猛分相智惠長壽天親可汗, 함안공주는 孝順端正智惠長壽可敦으로 책하며 덕종이 어제시를 보내는 등⁴⁹³⁾ 양국 간의 화친 관계 강화로 이어졌다.

당시 위구르가 얼마나 약체화되어 있었는지는 함안공주와의 빙례를 위하여 진무군까지 온 위구르의 재상 衆跌都督의 일행이 室韋에 약탈당하고 衆跌都督 본인이 전사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⁴⁹⁴⁾ 위구르는 주변 이민족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졌기에 당조와의 화친과 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물자가 매우 중요했다. 이후 양국 간에는 견마무이 재개되었고, 이후 당조와 위구르의 화친 관계는 武宗 시기 위구르가 몰락하기 전까지 유지되었

490) 菅沼愛語,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 pp.320-328. 위구르와 南詔의 상황에 대해서는 大食이나 天竺보다는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大食과 天竺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소략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菅沼愛語의 서술은 전적으로 唐朝 측의 漢文 史料에만 의존하고 있어, 外交 관계를 지나치게 唐朝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91) 『冊府元龜』 卷979 「和親」2, p.11336.

492) 『冊府元龜』 卷979 「和親」2, pp.11336-11337.

493) 『冊府元龜』 卷979 「和親」2, p.11337.

494) 『新唐書』 卷217上 「回鶻傳」上, pp.6123-6124.

다.⁴⁹⁵⁾ 덕종 또한 위구르를 혐오하던 기존의 태도를 완전히 뒤집어 『令諸道募靈武鎮守人詔』에서 위구르의 九姓可汗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토번은 ‘맹약을 저버린’ 존재로 비난함으로써, 정원 3년(787) 이후 서북 변방에서 당조의 주된 교섭 대상은 토번에서 위구르로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⁴⁹⁶⁾

위구르의 가한은 화친 이후 덕종에게 “폐하께서 만약 토번(西戎)을 걱정하신다면, 아들(子)이 청컨대 병력을 이끌고 그들을 제거하겠습니다”라 하는 글을 올리는데, 이는 당조 측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었던 한편 北庭을 중심으로 한 오아시스 지역을 점령해야 했던 위구르 본인들의 필요를 밝힌 것이기도 했다.⁴⁹⁷⁾ 위구르는 이후 정원 5년(789)에서 정원 7년(791)까지 3차에 걸친 원정을 통하여 북정을 점령하고 오아시스 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⁴⁹⁸⁾ 당조가 위구르 중심으로 외교 노선을 전환함으로써 토번을 압박하려던 시도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다만 위구르가 토번을 꺾고 오아시스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당조와 위구르의 화친 때문만은 아니었다. 위구르가 북방에서 토번을 제압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남쪽에서 남조가 토번을 배신하고 당조와의 화친을 택한 외교 관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앞서 덕종이 이필에게 질문한바 위구르와의 화친을 맺었음에도 추가적으로 운남(남조)·대식·천축과의 연계가 필요한 까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필은 덕종의 질문에 남조는 오랫동안 당조에 신속해 왔었는데 楊國忠 등이 그들을 괴롭혀 일시 반란을 일으켰을 뿐이며, 근래 토번이 남조를 괴롭히자 남조가 다시 당조에 신속하고자 한다고 대답한다. 또한 대식과 천축은 ‘모두 중국을 사모하였고 대대로 토번과 원수이니, 신이 그런 까닭으로 그들을 부를 수 있음을 안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⁴⁹⁹⁾ 이러한 이필의 말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말이었으며, 이런 이필의 요청을 담은 사신은 실제로 파송된 것일까? 이필이 언급한 순서대로 남조·대식·천축의 상황 및 당조와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이를 확인하도록 하자.

이필이 말하였듯 당조의 서남쪽 변경에 인접한 남조와 당조의 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것은 현종 천보 연간(742-755) 이후였다. 천보 7재(748) 雲南王歸義가 죽자 그 아들인 闍羅鳳⁵⁰⁰⁾이 운남왕을 계승하였는데, 당시 검남절도사

495) 李琬碩, 『唐·回紇의 絹馬交易에 관한 研究』, pp.269-278.
 496) 『陸贄集』 卷5 『令諸道募靈武鎮守人詔』, pp.182-183.
 497) 『新唐書』 卷217上 『回鶻傳』上, p.6124.
 498) 丁載勳, 『위구르 유목제국사 : 744-840』, pp.269-282.
 499) 『資治通鑑』 卷233 『唐紀』49 德宗貞元三年, pp.7502-7506.

는 鮮于仲通이었고 雲南太守는 張虔陀였다. 『구당서』의 기록에 따르면 장건타의 뇌물 요구에 각라봉이 응하지 않자 장건타는 각라봉을 옥하며 그의 죄를 상주하려 하였다 한다. 각라봉은 이에 분기를 품고 군대를 일으켜 천보 9재(750)에 장건타를 공격하여 죽였는데⁵⁰¹⁾, 이를 기점으로 당조와 남조의 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듬해인 천보 10재(751) 선우중통이 군대를 이끌고 남조를 공격하자 각라봉은 사신을 보내어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토번에 귀부할 수 있음을 선우중통에게 경고하였다. 그러나 선우중통은 이를 무시하고 남조를 공격하였다가 패배하였고, 남조는 토번에 신속하여 토번이 각라봉을 贊普鍾으로 삼음으로써 남조와 당조의 우호 관계는 파기되었다.⁵⁰²⁾ 이에 천보 12재(753) 검남절도사를 맡고 있던 양국충이 유후 李宓에게 병사를 모아 남조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이 공격 시도마저도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안사의 난이 발생하자 남조는 당조 서남부 변경의 일부 영역을 공격·점령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⁵⁰³⁾ 때문에 안사의 난은 남조가 당조의 지배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기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⁵⁰⁴⁾, 이후 남조와 당조는 외교적으로 대립하게 되었다.

천보 연간 이후 토번과 결맹하면서 당조와 대립하였던 남조의 외교 노선에 변화가 나타난 배경에는 토번-남조 관계의 악화가 있었다. 한문 사료에서는 안사의 난을 전후한 시기 남조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藏文 사료를 보면 각라봉이 토번에 신속한 이후에도 양국 간에는 마찰이 없지 않았던 듯하

500) 『舊唐書』와 『新唐書』는 해당 이름을 閻羅鳳과 閻羅鳳으로 섞어 표기하고 있기 文獻史料의 기록 만으로는 그의 정확한 이름인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도 大曆 연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南詔德化碑」(오늘날 雲南省 大理市 太和村에 위치)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 그의 이름은 閻羅鳳이라고 표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본문에서도 그의 이름은 閻羅鳳이라 표기하도록 하겠다.(『大理叢書·金石篇』(楊世鈺 主編；張樹芳 本編 主編(全10冊),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10, p.3) 한편 『資治通鑑』의 경우 그 이름을 閻羅鳳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胡三省에 의하면 南詔王의 작명법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南詔王은 父子가 서로 계승하는데, 그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號의 마지막 한 글자를 자신의 號 첫 글자로 삼는다. 歸義의 본래 號는 皮邏閣인데, 皇帝께서 歸義라는 이름을 하사하신 것이다. 그 아들의 號 閻羅鳳은 ‘閻’자를 첫 글자로 삼았다. 閻羅鳳의 아들의 號는 鳳迦異로, 이런 까닭에 ‘鳳’자를 첫 글자로 삼은 것이다.”(『資治通鑑』 卷216 「唐紀」32 玄宗天寶七載, pp.6892-6893)

501) 『舊唐書』 卷197 「南蠻傳」 南詔蠻, pp.5280-5281.

502) 『舊唐書』 卷197 「南蠻傳」 南詔蠻, p.5281.

503) 『舊唐書』 卷197 「南蠻傳」 南詔蠻, p.5281.

504) 鄭勉, 『南詔國의 세계와 사람들 - 8~9세기 동아시아의 서남 변방-』, 서울: 선인, 2015, pp.101-108.

다. 『贊普傳記』에 따르면 남조가 白蠻⁵⁰⁵⁾을 자신의 세력 하에 둔 이후 각라봉은 토번에 반역하였으나, 토번은 이를 진압하고 관원 등을 포로로 잡았다고 한다. 각라봉은 이에 다시 貢賦를 바치고 토번에 신속하였다고는 하나, 각라봉 당시에도 토번과 남조 간의 관계는 마냥 평화롭지는 않았던 것이다.⁵⁰⁶⁾

양국 간의 마찰은 대력 14년(779) 남조의 각라봉이 사망한 후 그의 손자 異牟尋이 남조의 왕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이모심은 당조의 검남도 지역을 취하여 ‘東府’로 삼고자 하여 당조와 전쟁을 벌였고, 이러한 남조의 움직임은 토번의 이해관계와도 합치되었기에 토번은 그를 日東王으로 책봉하는 등 양국 간의 우호 관계는 표면상 대종-덕종 교체 시기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⁵⁰⁷⁾ 하지만 남조는 토번이 남조에 대한 부세를 무겁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혐지를 빼앗아 토번의 군영과 초소를 세우는 행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⁵⁰⁸⁾

무거운 부세로 인한 남조의 반발은 각라봉 시기부터 계속된 안전으로, 당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남조와의 외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다. 과거 당조의 관리였던 鄭回가 이모심에게 토번 대신 당조와 화친할 것을 제안하면서 ‘중국은 예의가 있고 강제로 요구하는 것이 적음’을 강조했다라는 기록 또한 토번의 무거운 부세가 남조에게 부담이 되었음을 방증한다. 정원 4년(788)이 되면 검남서천절도사 韋臯 또한 토번과 남조 간의 불화를 알게 되어 이모심과 은밀히 연락하게 된다. 수상한 김새를 알아챈 토번이 남조 대신의 아들을 인질로 잡아가는데, 이로 인하여 토번과 남조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⁵⁰⁹⁾

정원 9년(793), 이모심은 위고에게 당조에 귀부할 뜻을 전하였다. 이모심은 토번에 대한 불만을 전하는데⁵¹⁰⁾, 이를 정리하면 당시 남조가 토번에게 품고 있던 불만은 크게 과도한 재부의 수탈·내정 간섭·병력 요구·이모심을 비롯한 고위층의 신변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조가 토번과의 매개 역할을 맡은 論訥舌과 利羅式에게 품은 불만은 위고가 이모심을 설득할 수 있는 배경으로 기능하였다.

505) 白蠻은 雲南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의 하나로, 南詔는 이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었다. 白蠻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상세히 논한 바 있어 참고가 된다.(鄭勉, 「爨蠻」의 출현과 구성 -‘西爨白蠻’과 ‘東爨烏蠻’의 구분 문제-, 『中國古中世史研究』23, 2010, pp.271-299)

506) 『贊普傳記』, p.167.

507) 『新唐書』 卷222上 「南蠻傳」上, pp.6271-6272.

508) 『新唐書』 卷222上 「南蠻傳」上, p.6272.

509) 『新唐書』 卷222上 「南蠻傳」上, p.6272.

510) 『新唐書』 卷222上 「南蠻傳」上, pp.6272-6273.

당시 토번이 남조 측에 과도하게 병력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토번이 북방에서 위구르와 북정 일대를 놓고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었던 전쟁이 있었다. 이모심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조가 토번과 접한 변경에 군사를 파견하는 외에도 위구르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토번의 힘을 분산’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토번의 힘이 분산되면 남조가 위치한 당조 기준의 서남쪽 변방은 굳이 天兵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공을 세울 수 있으리라는 것으로⁵¹¹⁾, 이는 기본적으로 이필의 구상과 그 맥을 같이한다. 정원 9년(793) 토번은 위구르와의 전쟁으로 인해 병력을 차출하기 위하여 남조로부터 병사 1만 명을 조달하려 하였다. 이에 이모심은 거것으로 토번에 5천 명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허락받은 뒤, 직접 군사 1만을 이끌고 행군하여 神川에서 토번을 대파하였다.⁵¹²⁾ 정원 3년(787) 당조와 위구르 간에 맺어진 화친 관계는 남조가 토번에게서 당조에게로 신속의 대상을 바꿀 수 있게 한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당조는 정원 10년(794) 어사중승 袁滋를 持節冊南詔使로 삼아 이모심을 南詔王으로 책봉함으로써 당조와 남조는 외교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로써 당조는 위구르·남조와 함께 토번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포위망을 형성하게 되었다.⁵¹³⁾ 책봉 당시의 추가 정황은 같은 해 9월 20일 새겨진 것으로 명기된 「袁滋奉旨冊封南詔開石門路題記摩崖」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제기는 오늘날의 雲南省 昭通市 鹽津縣의 豆沙關山路 좌측 절벽에 새겨져 있는데⁵¹⁴⁾, 여기에는 당시 파견된 사절단에 雲南宣慰使 內給事 俱文珍, 判官 劉幽巖, 小使 吐突承璀가 포함되어 있고 부사로는 成都少尹 龐頌가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⁵¹⁵⁾ 헌종 시기 知內侍省事를 지낸 俱文珍과⁵¹⁶⁾ 신책중위를 역임하는 吐突承璀라는⁵¹⁷⁾ 미래의 최고위 환관들이 사절단에 동시에 포함된 사실도 흥미롭지만, 본문에서 해당 사료 가운데 주목하는 부분은 成都少尹까지 사절단에 포함되어 양국 간에 石門路라는 도로를 열고 이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석문로는 南溪路 혹은 南谿路라고도 불리며 石門에서 시작하여 靖州·曲州를 지나 운남에 이르는 길로⁵¹⁸⁾, 천보 10재 당시 선우중통이 남조를 공격할 때 활

511) 『新唐書』 卷222上 「南蠻傳」上, p.6273.

512) 『新唐書』 卷222上 「南蠻傳」上, pp.6273-6274.

513) 『新唐書』 卷222上 「南蠻傳」上, p.6274.

514) 『大理叢書·金石篇』1, p.9.

515) 『大理叢書·金石篇』10 「袁滋奉旨冊封南詔開石門路題記摩崖」, p.5.

516) 『舊唐書』 卷184 「宦官傳」 俱文珍, p.4767.

517) 『舊唐書』 卷184 「宦官傳」 吐突承璀, p.4768.

518) 嚴耕望, 『唐代交通圖考』4,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86, pp.1221-1223.

용하였던 도로라는 점에서 보듯⁵¹⁹⁾ 행군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도로였다. 정원 10년(794) 당조 측은 폐쇄되었던 석문로를 다시 개통함과 더불어 行館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고⁵²⁰⁾, 이후에도 당조는 토번과의 전쟁에서도 석문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도로⁵²¹⁾ 그 전략적 가치는 적지 않았다. 양국 간의 화친은 정원 3년(787) ‘평량첩맹’ 시점 즈음부터 시작되어 6년여에 걸친 外交 교섭 끝에 이루어진 성과였고, 당조는 양국의 화친을 통하여 군사·외교적으로 토번을 압박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위구르와 남조가 당조와 국경을 접한 국가였다면, 대식의 경우 당조와는 직접 국경을 접하지 않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떨어진 나라였다. 덕종 시기에 기록된 대식은 압바스 조(Abbasid Caliphate, 750-1258)를 지칭하는 것으로, 양국 간 최초의 충돌은 천보 10재(751)에 일어난 탈라스(Talas, 怛邏斯) 전투로 알려져 있다. 당시 高仙芝는 安西副都護·四鎮節度使를 맡고 있었는데, 항복한 石國(Tashkent)의 왕을 조정에 압송하자 石國王의 아들은 黑衣大食, 즉 압바스 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두 세력이 충돌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선지는 크게 패하였고⁵²²⁾, 그 과정에서 제지 기술이 압바스 조로 흘러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주지하는 바이다.

탈라스 전투 직후 당조는 안사의 난을 겪으면서 하서 일대의 지배권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그 이후 당조와 압바스 조 간에 직접적인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구당서』·『신당서』 외국전에서도 압바스 조에 대한 기록은 散見되지만, 양국 간 외교와 관련된 기록은 거의 없다. 게다가 당시 토번과 남조가 양국 간의 육로를 차단하고 있었던 만큼, 육로를 통한 두 국가의 직접적인 외교·상업 교류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당조가 압바스 조와 외교 관계를 맺고 토번을 협공하였다는 기사는 일견 의외의 기술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당조와 압바스 조 간의 교류는 안사의 난 이후에도 해로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었다. 해로를 통한 양국 간의 교류에 대하여 가장 명확한 기술을 남긴 이는 덕종의 재위 후기에 재상을 역임한 賈耽이다. 가담은 지리에 밝아 하서·농우 일대의 각종 정보를 담은 『別錄』 6篇과 『河西戎之錄』 4편을 황제에게 바친 바 있고, 그 외에도 『古今郡國縣道四夷述』과 『貞元十道錄』을 편찬한

519) 『蠻書校注』(樊綽 撰 ; 向達 校注, 北京: 中華書局, 1962) 卷1 「雲南界內途程第一」, p.19.

520) 『蠻書校注』 卷1 「雲南界內途程第一」, p.26.

521) 『舊唐書』 卷140 「韋臯傳」, p.3824.

522) 『舊唐書』 卷109 「李嗣業傳」, p.3298 ; 『舊唐書』 卷128 「段秀實傳」, p.3583.

인물이었다.⁵²³⁾ 가담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당조와 외국의 지리 정보에 밝았던 것은 그가 재상을 역임했던 사실과도 유관할 것이다. 그의 지리 관련 저술 또한 기밀에 해당하므로 이후에 전해지기 어려운 성격의 글이었을 것이나, 다행히도 그 내용 중 일부는 오늘날 『신당서』 「지리지」를 통해 전해지며⁵²⁴⁾ 해당 기록 가운데에는 廣州에서 출발한 후 대식국의 여러 도시를 통과하여 縛達城(Baghdad)에 이르는 해로도 있다.⁵²⁵⁾ 이는 덕종 당시 당조와 압바스 조와 해로를 통하여 교류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양국 간 해로를 통한 교류는 杜環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두환은 탈라스 전투에 참여한 인물로, 그는 패배 후 포로가 되었다가 보응 초(762)에 상선을 타고 광주를 통하여 당조로 귀국한 이후에 『經行記』를 저술하였다.⁵²⁶⁾ 두환이 상선을 타고 귀국하였다는 사실은 762년 경 당조와 압바스 조 간에 상선이 왕래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외교 등의 소통이 해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⁵²⁷⁾

물론 당조와 압바스 조 간의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곧 당조에서 압바스 조로 사신을 보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행히도 덕종 시기에 압바스 조(黑衣大食)에 聘國使로 파견되었던 환관 楊良瑤의 神道碑인 「唐故楊府君神道之碑」의 존재가 확인됨으로써 당조가 압바스 조에 사신을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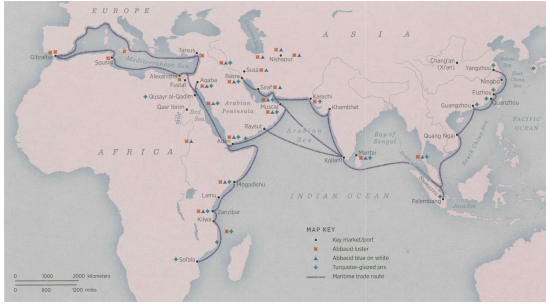
523) 『新唐書』 卷166 「賈耽傳」, p.5084.

524)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羈縻州, p.1146.

525)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羈縻州, pp.1153-1154.

526) 『通典』 卷191 「邊防典」7, p.5199. 오늘날 『經行記』의 完本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 중 일부 내용은 杜佑가 『通典』 내에 注로 남겨놓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

527) 물론 杜環의 정확한 귀국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해당 기록만을 가지고 압바스 조와 당조 간의 직통 해로가 실제로 작동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라 할 수도 있다. 다행히도 1998년 발견된 “벨리통 침몰선(Belitung Shipwreck)” 혹은 “黑石號”라 불리는 침몰선의 존재를 통해 양국 간 직통 해로가 운영되었음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벨리통 침몰선”은 1998년 인도네시아의 벨리통 섬 인근에서 발견되었는데, 인양된 선박의 구조를 통하여 이 선박은 아랍계 다우(dhow)선 계통임이 확인되었다.(Regina Krahl(ed.), *Shipwrecked : Tang treasures and monsoon winds*, Washington, D.C. :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 Singapore : National Heritage Board : Singapore Tourism Board, 2010, p.20) 한 선박 내에서 발견된 도자기 대부분이 중국 湖南省 長沙窯에서 제작되었으며, 그 가운데 바닥에 “寶曆二年(826)七月十六”이라고 적힌 그릇이 있어 해당 배의 침몰 시기 또한 9세기 전반으로 비정할 수 있다.(주경미, 「인도네시아 벨리통 침몰선의 발굴과 연구 현황」, 『해양문화재』8, 2015, pp.248-256) “벨리통 침몰선”의 존재는 9세기에도 당조와 압바스 조 간에 상당한 규모의 무역이 진행되었음을 방증하는 자료로, 이상의 자료를 통하여 덕종 시기 당조와 압바스 조는 해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교류하였을 것임을 상정할 수 있다.



<圖-8. 당조와 압바스 조 간 해상무역로>⁵²⁸⁾

인용되던 양량요의 신도비는 2012년 榮新江과 張建林이 경양현박물관을 방문하여 비의 탁본을 뜨고 榮新江이 같은 해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발표하면서⁵³⁰⁾ 비로소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양량요의 신도비가 이처럼 주목받게 된 것은 아래의 비문 때문이다.

정원 원년(785) 사월, (양량요는) 鯨魚袋를 사여받고 흑의대식으로의 빙국사에 충임되어 관관·內僉을 갖추고 國信과 조서를 받았다. 명을 받아 마침내 가면서 그 먼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해에 이르러 육지를 떠나 배에 올랐다... (정원) 4년(788) 6월, 中大夫로 영진하고 7월 弘農縣 開國男에 봉해지고 식읍 300戶를 받았다.⁵³¹⁾

양량요의 신도비는 당조가 압바스 조 측에 사신을 파견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한문 사료로, 이 신도비가 발견됨으로 인하여 당조가 압바스 조로 토번의 협공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의 신빙성은 크게 높아졌다. 다만 張世民과 榮新江은 모두 당조에서 양량요를 사신으로 파견한 목적이 토번을 협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였으나⁵³²⁾, 정원 3년(787)에야 논의되

528) Regina Krahl(ed.), *Shipwrecked : Tang treasures and monsoon winds*, p.76.

529) 張世民, 「中國古代最早下西洋的外交使節楊良瑤」, 『唐史論叢』7, 1998.

530) 榮新江, 「唐朝與黑衣大食關係史新證 -記貞元初年楊良瑤的聘使大食-」, 『文史』2012-3.

531) 榮新江, 「唐朝海上絲綢之路的壯舉 -再論楊良瑤的聘使大食-」, 『新絲路學刊』9, 2020.

楊良瑤 神道碑의 전문은 2005년에 발표된 張世民의 논문을 통하여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다.(張世民, 「楊良瑤 -中國最早航海下西洋的外交使節-」, 『鹹陽師範學院學報』2005-3) 그러나 張世民의 기록에는 일부 誤字가 있는 관계로, 이를 수정한 榮新江의 연구를 본문에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532) 張世民, 「中國古代最早下西洋的外交使節楊良瑤」, pp.353-354 ; 榮新江, 「唐朝海上絲

는 토번 협공 계획과 그보다 2년 앞선 양량요의 병국사 파견이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없다. 양량요의 귀국 시점은 정원 4년 6월로 추정되는데, 설령 양량요가 정원 3년 5월에 바로 파견되었다 하더라도 만 1년여 만에 바그다드까지 왕복하고 당조의 강역으로 귀환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양량요 신도비의 기록을 정원 3년 당조가 압바스 조로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의 신빙성을 높이는 증거로 이해하되, 양량요 본인이 해당 목적을 수행한 인물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정원 3년에 당조가 압바스 조로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이전 시기 압바스 조와 토번 간에 뚜렷한 분쟁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만큼 굳이 당조가 토번을 포위함에 있어 압바스 조를 끌어들이려 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문 사료에서 ‘대식’의 주요 적국으로 지목한 것은 ‘拂臨國’ 혹은 ‘拂菻國’으로 표기되는 비잔틴 제국이기 때문이다. 大食 혹은 大寔과 비잔틴 제국 간의 갈등을 기록한 한문 사료 가운데 8세기의 자료로는 慧超의 『往五天竺國傳』⁵³³⁾과 앞서 언급한 두환의 『경행기』⁵³⁴⁾를 들 수 있다. 혜초가 해로를 통하여 천축으로 다녀온 시기는 723년에서 727년 사이로⁵³⁵⁾ 혜초가 언급한 大寔은 우마이야 조(Umayyad Caliphate, 661-750)로 보이는 반면, 두환은 압바스 조의 세력에 포로가 되었던 만큼 그가 기록한 대식이 압바스 조를 지칭하는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혜초와 두환의 기록은 대식과 비잔틴 제국 간의 지속되었고 이 사실을 당조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둘의 기록 가운데 대식과 토번의 분쟁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을 보면 적어도 762년 즈음까지 당에서 온 2명의 기록자가 보기에 대식과 토번 간의 갈등은 미미하거나 혹은 대식과 비잔틴 제국 간의 갈등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진 듯하다.

이슬람-기독교라는 종교적 차이를 지닌 인접한 두 세력은 7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였다. 우마이야 조와 비잔틴 제국이라는 두 세력 간의 분쟁은⁵³⁶⁾ 우마이야 조를 대신하여 압바스 조가 성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⁵³⁷⁾

網之路의壯舉 -再論楊良瑤의聘使大食-, pp.3-4.

533) 『往五天竺國傳』(慧超 撰 ; 張毅 箋釋, 『往五天竺國傳箋釋·經行記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0) 「大拂臨國」, p.116.

534) 『經行記箋注』(杜環 撰 ; 張一純 箋注, 『往五天竺國傳箋釋·經行記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0) 「拂菻國」, p.16.

535) 權惠永, 「古代 東아시아인들의 國外旅行記 撰述」, 『東國史學』49, 2010, p.19.

786년 칼리프가 된 하룬 알 라시드(Harun al-Rashid, r.786-809)는 즉위 이후에 지속적으로 비잔틴 제국을 압박하였으며, 그 결과 798년과 806년 압바스 조는 대규모의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비잔틴 제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의 분쟁은 일단락되었다.⁵³⁸⁾

당조가 압바스 조에 토번의 포위 공격을 제안한 정원 3년(787)은 이렇듯 압바스 조가 비잔틴 제국에게서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휴전하는 등 서쪽 변경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던 시기였다. 그렇다면 덕종이 이 시기 압바스 조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정원 2년(786) 재상이 된 한황은 덕종에게 압바스 조와 토번이 상호 마찰을 빚고 있다는 내용을 상언하는데, 이 내용은 정원 3년 당시 압바스 조의 상황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황이 상언하였다. “토번이 하·황을 도적질하여 소유한 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대력 이전에는 중국에 어려움이 많았기에 그들의 침입을 방기하였습니다. 신이 듣기로 근래에 (토번의) 군대가 약해진 것은 서쪽으로는 대식의 강성함에 압박당하고 북쪽으로는 위구르의 무리에 근심하며 동쪽으로는 남조를 방어하는 까닭입니다. 그들이 나누어 진수하는 병력의 나머지를 계산해보면 하·농에 있는 전투 병력은 5-6만 정도 뿐입니다.”⁵³⁹⁾

536) 우마이야 조는 668년 1차 콘스탄티노플 공략에 나선 이후 718년까지 누차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할 정도로 비잔틴 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Hugh Kennedy ; John Haldon, “The Arab-Byzantine frontier in the eighth and ninth centuries: military organisation and society in the borderlands”, *The Byzantine and Early Islamic Near East*, Burlington, VT : Ashgate, 2006. pp.82-83)

537) 780년 압바스 조는 아르메니아 테마(Armeniac Theme. 테마는 軍管區라고 번역하기도 하며, 중세 비잔틴 제국의 대단위 군사·행정 구획)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다.(Harry Turtledove(edited and translated), *The chronicle of Theophanes : anni mundi 6095-6305 (A.D. 602-813)*,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2, p.139) 이어서 압바스 조는 781년 트라케시온 테마(Thracasian Theme)에서 발생한 전투와 782년 크리소폴리스(Chrysopolis) 전투에서 거둔 승리를 통하여 비잔틴 제국에게 조공을 받는 조건으로 3년간 휴전 조약을 맺었다.(김차규, 「비잔틴 女帝 이레네의 정책」, 『西洋中世史研究』 8, 2001, pp.61-62)

538) Hugh Kennedy, “Byzantine-Arab diplomacy in the Near East from the Islamic conquests to the mid eleventh century”, *The Byzantine and Early Islamic Near East*, Burlington, VT : Ashgate, 2006. pp.136.

539) 『舊唐書』 卷129 「韓滉傳」, p.3602.

한황의 상언 내용은 당조에서 토번을 대비함에 있어 대식이 유용할 수 있다는 맥락으로서는 최초의 기록으로, 이후 정원 3년 이필이 덕종에게 제시한 외교 방침의 내용과 그 맥을 같이한다. 한황이 압바스 조와 토번 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원 2년 재상에 오르기 이전 맡았던 관직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한황은 대종 말년 浙江東西都團練觀察使를 역임하였고⁵⁴⁰), 상기한 바 정원 2년 그가 강남의 물자를 섬주까지 운송하는데 성공한 사실에서 보듯 그는 재상이 되기 직전까지도 절강의 관찰사를 맡고 있었다. 그런 한황이 입수할 수 있었던 정보는 해로를 통해 당조로 온 서역 상인들이 전해준 정보일 것으로, 한황은 이를 통하여 토번 서쪽의 대략적인 정세를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황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그가 토번이 ‘근래 서쪽에서 대식의 강성함에 압박당한다’고 말한 내용은 당시 압바스 조가 비잔틴 제국과의 관계에서 우세를 점하며 국력이 신장된 정세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압바스 조의 서쪽 변경이 안정되면 그 공세는 동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 압바스 조의 칼리프인 하룬 알 라시드는 비잔틴 제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압박하기 위하여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Charlemagne, r.768-814)와도 5차례에 걸친 사신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등⁵⁴¹) 전쟁에 있어 국제 외교에 익숙한 인물이었다. 때문에 한황이 전한 대식과 토번 간의 충돌은 단순한 소문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 정보였으리라 생각되며, 당조가 대식에게 토번의 포위를 제안하였을 때 이에 응하였을 개연성 또한 충분하다. 이필은 한황과 ‘당과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⁵⁴²), 이필이 덕종에게 압바스 조에 협공을 요청하자고 제안한 배경에는 이상과 같은 한황의 정보가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필이 정원 3년의 ‘평량점쟁’ 직후 덕종에게 제안한 위구르·남조·대식과 더불어 토번을 협공하자는 전략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것으로, 단순한 수사라거나 막연한 희망에 기댄 제안은 결코 아니었던 셈이다.

다만 앞서 살펴본 3개국과는 달리, 덕종 시기 천축과 당조의 연계가 얼마나

540) 『舊唐書』 卷129 「韓滉傳」, p.3600.

541) Gil Moshe ; Ethel Broido(translated), *A History of Palestine, 634-1099*,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285-289.

542) 丸橋充拓, 『唐代北邊財政の研究』, pp.134-144.

유효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申毒(Sindhu. 梵語로 인더스 강을 지칭)이라고도 불리는 천축은 하나의 국명처럼 통칭되기는 하지만, 8세기 혜초가 지은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서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천축국은 크게 5개의 국가로 이루어져있었다.⁵⁴³⁾ 천축은 불교의 탄생지로 당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법승이 찾아가는 나라이기는 하였으나, 거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당조와 직접적으로 교류할 일은 많지 않았다. 때문에 한문 사료만으로는 천축의 정세를 확연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며, 천축에 직접 방문한 구법승 또한 일차적으로는 종교적 목적으로 방문한 만큼 그들의 기록에서 천축의 정치적 상황을 읽어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게다가 덕종 시기의 당조와 천축 사이에는 교통로 문제도 있었다. 양국 간에는 육로와 해로 모두 있어 구법승들이 누차에 걸쳐 왕래한 바 있으나, 덕종이 천축에 토번과의 공동 연계를 제안한 정원 3년(787) 당시에는 당조가 육로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토번이 하서와 농우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서를 통하는 육로를 사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정원 3년 당시에는 남조 또한 토번에 신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漢代 이래로 사용된 이른바 ‘申毒道’ 혹은 ‘天竺道’ 또한 활용할 수 없었다.⁵⁴⁴⁾ 물론 해로의 경우 당조가 대식으로 가는 노상에 천축이 있었던 만큼 양국 간의 해로를 통한 연락은 가능했을 것이나⁵⁴⁵⁾, 양국 간의 육로가 막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천축이 당조의 요청에 응하였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시 천축이 토번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지와 해당 요청에 응할 개연성이 충분한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8세기 후반 천축의 상황을 살펴보면, 당시 천축이 토번을 공격할 역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 唐代의 천축과 관련하여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는 정관 10년(636)의 기록에서도 이미 천축은 토번에 군사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양측의 관계는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이기 때문이다.⁵⁴⁶⁾ 中天竺의 정치적 혼란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王玄策의 기록은 7세기 당시 토번의 세력은 이미 중천축을 능가하였으며 과거 중천축에 신속하였던 泥婆羅國(네팔) 또한 토번의 명을 받들고

543) 『舊唐書』 卷198 「西戎傳」 天竺國, p.5306.

544) 『新唐書』 卷43下 「地理志」7下 羈糜州, p.1152.

545) 賈耽이 기록한 唐朝와 天竺을 연결하는 陸·海路和 관련해서는 Pelliot의 상세한 연구가 있어 참고할 수 있다.(Paul Pelliot ; 박세욱 譯註, 『8세기 말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두 갈래 여정』,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20)

546) 『舊唐書』 卷198 「西戎傳」 天竺國, pp.5307-5308.

있었음을 알려준다.⁵⁴⁷⁾ 토번은 이후에도 천축에게서 조공을 받는 등 7세기 초에 천축을 압박한 기록이 남아있으며⁵⁴⁸⁾, 이러한 토번과 천축 간의 대립은 8세기 이후에도 지속된 듯하다. 다만 개원 8년(720) 南天竺의 왕 尸利那羅僧伽현종에게 대식·토번 등을 토벌할 것임을 밝히며 군의 명호를 구한 기록이 남아있고⁵⁴⁹⁾, 티송데첸 시기에는 토번이 본래 中天竺의 속국이었던 摩揭它를⁵⁵⁰⁾ 공격하여 점령하기도 하였다.⁵⁵¹⁾ 그런 면에서 8세기에도 천축과 토번이 그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때문에 덕종 시기 당조가 천축에 토번 협공을 요청할 경우 토번과 전쟁을 할 최소한의 동인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다만 792년에서 794년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삼예(bsam yas)사 논쟁’은 790년대에 천축이 토번에 맞서기 위해 당조와 연합하기 보다는 오히려 토번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삼예사 논쟁’은 천축의 학승 까말라쉴라(Kamalasila)가 돈황의 화상 摩訶衍을 쟁론 끝에 굴복시킨 사건으로, 일반적으로 이 사건은 토번의 불교가 큰 발전을 이룩하였다는 맥락에서 서술되는 것이 보통이다.⁵⁵²⁾ 하지만 이는 천축의 불교 세력이 당 측의 불교 세력을 압박함으로써 토번 내에서 우세를 점하려 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⁵⁵³⁾, 이럴 경우 당시 천축은 당조보다는 토

547) 『新唐書』 「泥婆羅傳」에서는 왕현책이 토번에 구원을 요청해오기 이전에 니과라국이 이미 토번에 신속하고 있었음을 언급하는데, 해당 기록은 泥婆羅의 왕자였던 那陵提婆가 吐蕃으로 도망하여 臣屬한 이유를 숙부가 父王을 시해하였기 때문이라 서술한다.(『新唐書』 卷221上 「西域傳」上 泥婆羅, p.6214) 藏文으로 된 『大事記年』의 앞부분에는 나리바바(na ri ba ba, 中譯本에서는 那日巴巴로 기재)를 泥婆羅의 왕으로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大事記年』, p.12) 那陵提婆와 나리바바를 같은 인물로 보는 경우도 있다.(楊銘, 『唐代吐蕃與西域諸族關係研究』,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2014, p.81)

548) 楊銘, 『唐代吐蕃與西域諸族關係研究』, p.83.

549) 『舊唐書』 卷198 「西戎傳」 天竺國, p.5309.

550) 『新唐書』 卷221上 「西域傳」上 摩揭它, p.6239.

551) 楊銘, 『唐代吐蕃與西域諸族關係研究』, p.85.

552) 폴 드미에빌 ; 배재형·차상엽·김성철 譯, 『라싸 종교회의 : 8세기 말 티벳불교의 돈점논쟁』(본문 편), 서울: 씨아이알, 2017, pp.56-57. 이른바 ‘삼예사 논쟁’은 ‘頓’을 강조하는 禪宗 계열의 和尚 摩訶衍과 ‘漸’을 강조하는 天竺 출신의 學僧 까말라쉴라 등이 吐蕃 내에서 벌인 佛教 敎理 논쟁으로, 해당 논쟁은 敦煌에서 출토된 漢文 문서인 P.4646 문서(일반적으로 문서 상단에 표기된 제목인 『頓悟大乘正理決』로 표기)에 기재되어 있다. 다만 해당 문서에는 논쟁이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배경이 되는 장소가 삼예(bsam yas)사라는 사실은 藏文으로 된 문헌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藏文 문헌의 목록은 이하운, 「삼예논쟁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한 사회·사상적 고찰 - 8세기 티베트의 정치변동과 종교사회적 요구를 중심으로-」, 『회당학보』15, 2010, pp.604-611을 참고)

번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물론 천축의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인물들의 의도와 불교계의 행보가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정원 3년(787)에 덕종이 파견한 사신이 이미 천축에 도착했을 시점인 790년대에 토번 내에서 천축의 불교 세력이 당 측의 불교 세력을 몰아붙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당시 천축의 정치적인 결정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위구르·남조·대식과는 달리 천축이 당조와 연합하여 토번을 협공하였을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필에 앞서 덕종에게 토번이 위구르, 남조, 대식을 상대하느라 당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한 한황 또한 천축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⁵⁵⁴⁾ 물론 토번에 대항할 동인이 있는 만큼 천축 또한 당조의 요청에 응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정작 천축이 당조의 요청에 응하였다는 내용이 兩唐書의 「천축전」에도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정원 3년 당시 천축 세력의 동향은 매우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이필이 천축에 토번 협공을 제안하였다는 표현의 실상은 기왕 대식으로 향하는 해로 상에 있는 천축에게도 협공을 제안해보는 정도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컨대 이필이 정원 3년(787) 당시 덕종에게 토번을 압박하기 위하여 위구르·남조·대식·천축과의 연계를 주장하였을 때, 해당 4개 국가는 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조와 더불어 토번을 공격할 필요성이 있었다. 각국이 실제로 토번과 어떤 형태로 전쟁을 펼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토번이 여러 방향에서 협공을 당하게 됨으로써 당조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⁵⁵⁵⁾ 덕종 말년에서 헌종 원화 13년(818)까지 토번의 공격 기록은 그 수가 급감하는데, 덕종 시기 토번에 대한 협공 요청 또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대종에서 덕종 시기 토번을 막기 위해 동원되었던 방추병에 대한 기록이 덕종 이후 거의 사라지는 것 또한 덕종 시기 토번에 대한 협공 시도를 통하여 토번의 변경에 대한 위협을 줄이려 한 시도가 효과를 보았음을 방증한다.⁵⁵⁶⁾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토번군의 태반이 서쪽에서 대식을 막는 까닭에 변경의 환란이 드물어졌으니, 그 힘이 부족해진 것이다”⁵⁵⁷⁾는 사료는 신뢰할만한

553) 폴 드미에빌 ; 배재형·차상엽·김성철 譯, 『라싸 종교회의 : 8세기 말 티벳불교의 둔점논쟁』(본문 편), p.56 ; pp.59-62.

554) 『舊唐書』 卷129 「韓滉傳」, p.3602.

555) 『舊唐書』 卷198 「西戎傳」 大食國, p.5316

556) 曾我部靜雄, 「唐の防秋兵と防冬兵」(下), 『集刊東洋學』43, 1980, p.50.

근거가 존재하며, 이필이 덕종에게 제안한 토번의 국제적 협공 또한 사실일 개연성이 낮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북 변경이 안정된다면 당조는 서북 변방에서의 군비 소모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삭방군을 여러 작은 번진으로 나눔으로써 서북 변경에 황제를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력이 상존하는 위협을 제거하면서도 변경의 평화 또한 동시에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평랑갑쟁’ 이후 당조가 토번과의 화친에 주력하는 방식 대신 토번의 인접국과 더불어 토번을 협공하는 쪽으로 외교 노선을 전환함으로써 당조는 재정과 서북 변경 방어라는 두 가지 문제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다.

여기에서 앞서 언급하였던 덕종에 대한 육지가 간언한 시점을 되짚어보자. 육지는 정원 9년(793) 덕종에게 서북 변경에 3명의 원수를 임명함으로써 방어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나, 덕종은 이를 ‘모두 따를 수는 없었으나 마음으로는 중시’하였다고 기록된 바 있었다.⁵⁵⁸⁾ 남조가 정원 9년 토번을 배신하고 당조에 귀부한 사건⁵⁵⁹⁾ 이후 토번은 동남쪽의 남조와 동북쪽의 위구르를 동시에 신경 써야 했고, 때문에 이를 당조의 서북 변경에 대한 토번의 위협이 약해진 시점이라고 본다면 육지가 해당 문장을 통해 덕종에게 간언했을 무렵에 덕종은 이미 토번의 공격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상태였다. 육지는 “만약 장수를 배치함에 있어서 반드시 명령을 따르고 거역함이 없는 자들 가운데에서 취한다면” 그 당시에 시행하던 서북 변경의 방어 병력을 그대로 배치해도 무방하나 “흉난을 평정하는 데에 뜻을 두셨다면” 3명의 원수를 임명함으로써 서북 변경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였지만⁵⁶⁰⁾, 실상 당시 당조는 외부에서 서북 변경을 침략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집행하는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덕종이 내심 꺼렸던 ‘다수의 병력을 이끄는 명장’을 3명이나 서북 변방에 두자는 육지의 조언을 덕종이 따를 수 없었던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재상으로서 최대한의 효율을 신경써야 했던 육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덕종은 ‘경사지변’ 이후 본인에 대한 위협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북 변경에서의 위협을 조절하려 하였기에 해당 간언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557) 『舊唐書』 卷198 「西戎傳」 大食國, p.5316.

558) 『資治通鑑』 卷234 「唐紀」50 德宗貞元九年, p.7547.

559) 『新唐書』 卷222上 「南蠻傳」上, pp.6273-6274.

560) 『陸贄集』 卷19 「論緣邊守備事宜狀」, pp.624-625.

4. 貞元 15년(799)의 淮西 藩鎮 토벌과 漕運路

1) 吳少誠 토벌 결정의 배경

「죄기조」 반포 이후 덕종은 변진에 대한 유화 노선을 유지하면서 재정 상태 회복 등 내정 운영에 집중하였다. 정원 2년(786) 회서절도사 이희열을 죽이고 조정에 항복한 후 절도사로 임명된 진선기가 淮西兵馬使 吳少誠에 의해 살해당하였으나, 조정은 오소성을 그대로 회서절도사로 추인하면서 진선기를 살해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⁵⁶¹⁾ 정원 8년(792) 변주와 송주를 관할하는 宣武節度使 劉玄佐가 사망한 뒤 조정에서 吳湊를 그 후임으로 임명하려 하였으나 내부에서 병란이 일어나 劉玄佐의 아들 劉士寧을 절도사로 추대하였을 때에도 당조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유사녕을 절도사로 추인하였다.⁵⁶²⁾ 유사녕은 사졸들을 잔인하게 대하여 불만을 샀고, 이에 이듬해인 정원 9년(793) 군 내에서 都知兵馬事 李萬榮을 중심으로 유사녕을 쫓아냈을 때에도 당조는 이를 추인할 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⁵⁶³⁾

이처럼 「죄기조」 이후 당조는 변진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크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는 한편으로는 앞서 살펴본바 절도사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변진 내에서 절도사가 교체되는 사태가 비록 중요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죄기조」에서 천명한 바 자기 변진의 영역을 지키며 주변 변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당조는 변진 내의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것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육지는 이만영이 유사녕을 쫓아내고 자신을 절도사로 추인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당시 황제에게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불충이며 상급자를 내쫓는 것은 불의이니 이만영을 절도사로 정식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으나⁵⁶⁴⁾, 덕종은 이만영이 이미 민심을 얻었다면 親王을 節度大使로 삼고 이만영을 知留侯로 삼아 節度副大使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통제하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었다.⁵⁶⁵⁾ 이러한 덕종의 선택이 과연 적절하였

561) 『舊唐書』 卷145 「吳少誠傳」, p.3946.

562) 『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p.373-374.

563) 『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378.

564) 『陸贄集』 卷20 「請不與李萬榮汴州節度使狀」, p.648.

565) 『陸贄集』 卷20 「請不與李萬榮汴州節度使狀」, pp.646-647.

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덕종이 해당 선택을 내린 근거가 「죄기조」에서 제시한 원칙이라고 한다면 이만영을 절도사로 삼은 결정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덕종이 이 정도로 번진에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기에 정원 15년(799) 덕종이 회서절도사 오소성을 비난하며 여러 반측지지의 병력까지 총동원하여 오소성을 공격하게 한 사건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⁵⁶⁶⁾ 당조가 기존 번진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 대신 강경 진압에 나선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소성의 절도사로 취임한 과정 및 그 이후 당조와 회서 번진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소성은 앞서 언급하였듯 정원 2년(786) 7월 진선기를 죽이고 회서절도사가 되는데, 이는 진선기가 절도사가 된지 불과 3개월 정도 이후였다.⁵⁶⁷⁾ 앞서 살펴보았듯 「죄기조」 반포 이후 당조는 번진 내의 절도사 교체를 묵인하는 경향을 보였긴 하지만, 이 경우 당시 회서 번진 내의 분위기가 이희열을 살해한 진선기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실과⁵⁶⁸⁾ 당조 또한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회서 번진에 무력적 위협을 가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당조가 당시 오소성을 절도사로 추인하는 것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이희열이 절도사로 있을 때와 달리 회서 번진의 영역이 申·光·隋·蔡 4개 州로 축소되어 있어 강희 조운로를 직접 위협할 수 없었다는 사실 또한 오소성을 절도사로 추인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⁵⁶⁹⁾

다만 오소성이 절도사가 된 이후 당조와 회서 번진 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오소성은 절도사가 되고서 성을 손질하고 군량을 모으며 심지어는 방추병을 번진 내로 불러들이는 등 조정과 대치하는 구도를 이어나갔으며⁵⁷⁰⁾, 정원 8년(792) 당시의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되듯 조정에 관내의 貢賦를

566) 『新唐書』 卷7 「德宗本紀」, p.202.

567) 『舊唐書』 卷145 「吳少誠傳」, p.3946.

568) 『冊府元龜』 卷176 「姑息」1, p.1957.

569) 『資治通鑑』 卷232 「唐紀」48 德宗貞元二年, p.7470. 조정에서 吳少誠을 留後로 인정한 당시 虔王 諒을 申·光·隋·蔡節度大使로 임명한 데에서 보듯 처음에 吳少誠이 절도사가 되었을 때에 회서 번진의 영역을 4개 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新唐書』의 기록에 따르면 貞元 14년(798) 당시 淮西 藩鎮의 영역은 申·光·蔡 3개 州로, 隋州는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다.(『新唐書』 卷65 「方鎮表」2, p.1812) 기존의 연구에서도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吳少誠 시기 淮西 藩鎮의 영역은 隋州를 제외한 申·光·蔡 3개 州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淮西 藩鎮의 영역을 申·光·蔡 3개 州로 상정하고 기술하도록 하겠다.(鄭炳俊, 「唐 德宗 貞元 시기 淮西 藩鎮의 성격」, 『東國史學』69, 2020, p.387)

상공하지 않는 등 여타 반측지지와 유사한 태도를 보였다. 정원 8년 여름에 대규모 수재가 발생하여 당조는 산남동도·하남도·회남도·하북도에 각각 宣慰使를 파견하고⁵⁷¹⁾ 부세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⁵⁷²⁾ 다만 처음에 덕종은 회서 번진 관내의 경우 선위사를 파견하지 않으려 했던 듯한데, 이는 그 당시 회서 번진에서는 조정에 부세를 바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⁵⁷³⁾ 당시 재상이었던 육지가 이에 반대 주장을 펴으로써 결국 덕종은 여타 번진과 더불어 회서 번진의 영역에도 선위사를 파견하긴 하였으나, 당시 덕종이 오소성의 행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오소성이 절도사로 있던 시기에 회서 번진은 절도사를 번진 내부에서 선임하고 상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반측지지의 모습을 보였고, 덕종은 어떤 식으로든 이를 언짢아했던 것이다.

하지만 상공하지 않는 회서 번진의 행보에 불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덕종은 정원 14년(798) 2월에 회서 번진에 彰義軍이라는 군호를 내리는 등 최대한 회서 번진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⁵⁷⁴⁾ 이후 오소성이 ‘창의군절도사’라는 직함을 지닌 채 회서 번진 인근의 壽州 霍山을 침범하여 鎮遏使 謝詳을 죽이고 땅 20여리를 확보한 후 병사를 두어 진수하게 하였을 때에도 당조는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⁵⁷⁵⁾, 정원 15년 3월 오소성이 당주를 함락시키고 張嘉瑜와⁵⁷⁶⁾ 감군 邵國朝를 살해하고 거민 천여명을 노략하고 돌아갔을 때에도⁵⁷⁷⁾ 당조는 여전히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조 측에서 회서 번진의 무력 행사에 직접 대응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는 가뭄 문제를 들 수 있다. 정원 14년(798) 겨울에서 15년까지 이어진 가뭄으로 인하여 덕종은 中和節(음력 2월 2일)⁵⁷⁸⁾과 上巳節(음력 3월 3일)⁵⁷⁹⁾의 연회를 취소하는 조칙을 내렸으며, 한편으로는 관리들 뿐 아니라⁵⁸⁰⁾ 陰陽術士·摩尼

570) 鄭炳俊, 「唐 德宗 貞元 시기 淮西 藩鎮의 성격 -吳少誠의 태도를 중심으로-, pp.387-394.

571) 『冊府元龜』 卷162 「帝王部」 命使2, p.1806.

572) 『冊府元龜』 卷491 「邦計部」 蠲復3, p.5565.

573) 『陸贄集』 卷17 「論淮西管內水損處請同諸道遣宣慰使狀」, p.557.

574)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貞元十四年, p.7580.

575)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貞元十四年, p.7581.

576) 『新唐書』 卷7 「德宗本紀」, p.202.

577) 『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390.

578) 『冊府元龜』 卷110 「諸王府」 宴享2, p.1202.

579) 『冊府元龜』 卷110 「諸王府」 宴享2, p.1202.

580) 『冊府元龜』 卷144 「諸王府」 弭災2, p.1617.

帥에게도⁵⁸¹⁾ 기우를 명할 정도로 당시 가뭄은 극심하였다. 같은 해 3월에 덕종이 조를 내려 매년 4~50만석 정도에 불과했던 강희 조운미를 200만석까지 늘리도록 명령한 것 또한 당시의 가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⁵⁸²⁾

상기 배경이 있기에 정원 15년(799) 덕종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회서 번진을 토벌하기로 결정한 것은 더더욱 의외로 여겨진다. 정원 15년 8월에 진허절도사 곡환이 사망하자 오소성은 許州의 臨潁縣을 함락시키고 계속 진군하여 허주를 포위하였다.⁵⁸³⁾ 그러자 덕종은 「죄기조」 이후의 번진에 대한 유화노선을 버리고 여러 번진의 병력을 동원하는 전쟁을 선택하는데, 이는 분명 앞선 수주와 당주에 대한 공격 당시 당조가 보인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료는 오소성의 토벌을 명한 덕종의 조칙인 「討吳少誠詔」이다.

지금 (오소성은) 이웃 번진의 喪事를 다행으로 여기고 탐란한 뜻을 드러내어 군읍을 불태우고 약탈하며 평민들을 해쳤다. 짐은 그가 잘못을 알아채기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치욕을 견디며 조령의 반포를 삼가고 출사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허주를 공격하여 꺾박함에 이르러서는 그 악독한 계책을 늘어놓고 살육을 자행하며 백성을 해쳤다. 악이 여물고 화가 차오르니 人神이 모두 그를 버렸고, 여러 말들이 토벌하자는데 이르고 있어 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마땅히 宣武軍, 河陽三城, 鄭·滑 등의 주가 東都·汝州 등의 군을 節度하고서 앞뒤에서 서로 응하여 함께 申·光·蔡州를 공격하도록 명령한다. 常·冀·幽州·淄·青·魏博·易定·澤潞·太原·淮南 등 주와 徐·泗·山南東道·鄂岳 등 군도 각각 군사와 마필을 징발하여 쫓아가서 기각하여 모두 나아가 함께 토벌하라.⁵⁸⁴⁾

덕종은 자신이 회서 번진의 잘못을 누차 눈감아주었지만 ‘허주를 공격하여 꺾박함에 이르러서는’ 악독함이 지나치게 심해졌기 때문에 강경 대응할 수밖에

581) 『冊府元龜』 卷144 「諸王府」 弭災2, p.1617.

582) 『冊府元龜』 卷498 「邦計部」 漕運, p.5663. 이후 憲宗 元和 초년에도 河陰에 도달하는 江淮米는 50萬石으로 기록되며 元和 6년에도 東渭橋에 도달하는 江淮米는 40萬石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德宗 후기에서 憲宗 초중반까지 長安에서 매년 확보할 수 있었던 江淮米는 대략 40~50萬石 정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583) 『舊唐書』 卷13 「德宗本紀」 下, p.391 ; 『資治通鑑』 卷235 「唐紀」 51 德宗貞元十五年, pp.7583-7584.

584) 『唐大詔令集』 卷122 「討吳少誠詔」, p.578.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만으로는 앞서 오소성이 수주 궤산을 침범하여 진알사 사상을 죽였을 때와 당주를 함락시키고 장가유를 살해하였을 때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당조가 왜 갑자기 그 태도를 일변하였는지를 알기 어렵다.

다만 「토오소성조」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는 당조가 회서 번진을 토벌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허주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당조가 수주·당주를 공격했을 때에도 큰 대응을 보이지 않던 당조가 회서 번진을 공격하게 된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허주 및 허주를 관할하는 진허절도사의 연혁 및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소성이 허주를 공격하기 직전 사망한 곡환은 최초의 진허절도사로, 그는 정원 2년 이희열이 사망할 당시 陳州刺史를 맡고 있었다. 곡환은 진주자사로서 이희열과 군사적으로 직접 맞서고 있었는데, 이희열이 사망하자 당조는 곡환에게 허주자사까지 겸하게 하고 陳許等州節度觀察使를 맡겼다.⁵⁸⁵⁾ 현종 시기 진허절도사가 담당할 병력은 3만 여로 추산되는데⁵⁸⁶⁾, 진허절도사의 관할 영역이 2개 주에 불과함을 감안하면 배치된 병력의 양은 많은 편이었다. 진허절도사가 이렇게 많은 병력을 지닌 이유는 회서 번진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조금 뒤 시기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杜牧은 회서 번진 토벌에 있어 진허(忠武軍)절도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저는 대화 2년(828) 校書郎이 되어 일찍이 회서의 장군 董重質에게 이르러 그들이 3주(申·光·蔡)의 무리만을 가지고서도 4년이나 격파되지 않은 연유를 물었습니다... 비록 당주의 군이 눈으로 인하여 성을 취할 수는 없었다고는 하나, 채주의 事勢와 재력 또한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조정이 만약 악주·수주·당주로 하여금 다만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게 하고 나아가 싸우게 하지 않으면서 다만 진허·鄭滑(義成軍) 兩道の 전 군만을 쓰고 宣·潤의 弩手에게 帖으로 험지를 지키게끔 명령하면서 1년간 출병하지 않았다면 채주(회서 번진)의 회복은 없었을 것입니다.⁵⁸⁷⁾

585) 『舊唐書』 卷122 「曲環傳」, p.3502.

586) 『樊川文集』 卷8 「唐故處州刺史李君墓誌銘并序」, p.130.

587) 『樊川文集』 卷11 「上李司徒相公論用兵書」, p.164.

위의 글은 현종 시기 회서 번진에 대한 토벌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회서 번진을 둘러싼 여러 지역의 병력을 총동원하였기 때문임을 밝히고자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만 진허·정활(의성군) 兩道の 진 군만을 쓰고’라고 표현한 내용에서도 보듯, 회서 번진 토벌의 중추에는 진허절도사와 의성군절도사가 있었다. 반면 앞서 오소성이 침탈한 수주와 당주의 경우 회서 번진에 대처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진허와 의성군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즉 회서 번진에 대한 견제는 진허절도사가 맡은 기본적 직능으로, 진허절도사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된 데에는 진주와 허주가 지리적으로 채주와 조운로의 핵심 지역인 변주를 갈라놓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있었다. 과거 회서절도사 이회열은 허주를 먼저 확보한 이후에야 변주를 공격하면서 천하도원수를 자칭하였는데⁵⁸⁸⁾, 이는 지리적으로 회서 번진이 강회 조운로를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兵强財富’한 세력이 되기 위해서는⁵⁸⁹⁾ 허주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덕종이 회서 번진의 허주에 대한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것이 곧 변주 및 강회 조운로를 위협하는 수순이었기 때문으로, 진허절도사는 회서 번진의 강회 조운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회서 번진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圖-9. 정원 14~15년 회서 번진의 인근 지역 침략>

반면 수주는 당시 淮南節度使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조운로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었다.⁵⁹⁰⁾ 두목의 글에서 수주·당주 또한 현종 시기 회서 번진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 글은 이들이 회서 번진 토벌에 ‘원칙적으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 번진이라기보다는 유사시 자신의 권역을 방어하는

반면 수주는 당시 淮南節度使의 관할 하에 있었으며, 조운로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었다.⁵⁹⁰⁾ 두목의 글에서 수주·당주 또한 현종 시기 회서 번진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위 글은 이들이 회서 번진 토벌에 ‘원칙적으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 번진이라기보다는 유사시 자신의 권역을 방어하는

588) 『資治通鑑』卷227「唐紀」43 德宗建中三年, p.7337.

589) 『資治通鑑』卷229「唐紀」45 德宗興元元年, p.7393.

590) 壽州 또한 지도 상에서 汴河와 인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壽州를 넘어 汴河를 공격하려면 앞서 살펴본 바 있는 徐泗濠節度使와 직접 충돌해야 했다. 徐泗濠節度使가 강회 조운로를 방어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감안한다면, 회서 번진에서 許州를 공격한 사건은 壽州를 공격한 사건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데 집중하도록 설정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회서 번진이 이러한 지역을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당조가 그만큼이나 회서 번진에 대한 전면적 토벌을 주저하였음을 보여준다. 바꾸어 말하면 회서 번진이 수주나 당주를 공격하는 정도로는 덕종이 오소성이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며 치욕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덕종은 회서 번진에 대한 전면적 토벌을 주저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회서 번진이 허주를 차지하면 인접한 변주 또한 반측지지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므로, 오소성의 허주에 대한 공격은 강회 조운로 방면으로의 공격이라는 점에서 당조의 입장에서는 수주 침략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하여 강회 조운미를 늘리는 등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의 물자 수급이 더욱 절실해진 당조의 입장에서 당시 오소성의 허주 공격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에 앞선 정원 15년(799) 2월 선무절도사로서 변주를 관할하였던 董晉이 사망한 뒤 병사들이 군란을 일으켜 동진의 후임으로 지명된 陸長源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당시 변주 일대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다. 육장원은 한황이 절서절도사로 있을 무렵 그의 휘하에서 근무하며 轉運副使를 역임한 바 있고, 이후 萬年縣令과 汝州刺史를 거쳐 宣武軍行軍司馬로서 번진 내 주요 업무를 담당하던 인물이었다. 다만 그는 성격이 방정맞고 말을 쉽게 바꾸며 재능을 믿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던 모양으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동진이 절도사로 있던 시절부터 병사들의 원망을 샀다고 한다. 동진이 사망하자 육장원은 知留後事가 되어 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하는 등 병사들의 분노를 사 살해되고 말았다.⁵⁹¹⁾ 육장원 사망 후 감군사 俱文珍이 오랜 기간 변주에서 복무하였던 송주의 자사 劉逸準을 불러 군란을 정리하였고, 곧이어 조정에서도 유일준을 선무군절도사로 임명하는 한편 全諒이라는 이름을 내리면서 변주의 군란은 일단락된다.⁵⁹²⁾ 육장원의 사망은 번진 내부의 문제로, 「죄기조」 반포 이후 이와 같은 사안에 당조가 크게 간섭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이다. 하지만 이처럼 변주 일대의 상황이 흉흉한 가운데 회서 번진에서 허주를 공격한다면, 번진과 관련된 일에 유화적 태도를 보였던 조정이라 하더라도 강회 조운로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회서 번진의 강회 조운로를 위협하는 행보가 덕종이 토벌을 결정한 직접적

591) 『舊唐書』 卷145 「陸長源傳」, pp.3937-3938.

592) 『舊唐書』 卷13 「德宗本紀」 下, p.389.

인 사유였다면, 회서 번진의 지리적인 입지 또한 당조가 회서 번진의 토벌을 결행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회서 번진은 여타 반측지지와 거리가 떨어져있어 여타 반측지지의 원군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립된 번진으로 평가받는데, 특히 양숭의가 토벌된 이후 회서 번진에 인접한 산남동도까지 조정에 상공하는 지역으로 돌아선 이후 회서 번진은 하북과 산동의 서로 인접한 반측지지와 격절된 상태였다. 정원 15년 당시 재상이었던 崔損·賈耽·鄭餘慶·渾瑊 모두 현재 전해지는 문집이 없는 관계로 당시 재상들과 덕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나누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후 李絳은 헌종 원화 9년(814) 작성한 글에서 회서 번진에 여타 반측지지와 분리되어 있어 공격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⁵⁹³⁾ 이길보 등 당시 여러 신료들의 발언에서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⁵⁹⁴⁾ 물론 정원 15년 회서 번진의 토벌은 1차적으로 조운로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 때문에 결정되었겠지만, 인접한 반측지지가 없어 완전한 포위가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덕종으로 하여금 회서 번진에 대한 전면적 토벌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요소는 당시 반측지지로 분류된 회서 번진 토벌에 대표적인 반측지지로 알려진 하북삼진과 평로 번진의 병력까지 모두 동원되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선 건중 연간 당조와 반측지지가 수년에 걸쳐 전쟁을 벌일 당시 반측지지는 강회·강한 조운로를 동시에 봉쇄하는 등 서로 연합하여 당조와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⁵⁹⁵⁾ 하지만 정작 강한 조운로 봉쇄를 담당했던 산남동도절도사 양숭의가 공격당할 당시 여타 반측지지는 거리가 떨어진 산남동도의 방어에 큰 힘이 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양숭의가 하북삼진과 평로 번진과 함께 혼인을 통한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⁵⁹⁶⁾, 지리적으로 떨어진 양숭의가 체감하는 연합체의 결합력이 서로 인접한 여타 번진의 그것과 같은 수준이었을지는 의문이다.⁵⁹⁷⁾ 회서 번진 또한 반측지지라고는 하나, 자기 권역 외의 침탈로 인해 자초한 조정의 토벌에 여

593) 『李相國論事集校注』卷4「鎮州淮西事宜」, pp.105-106.

594) 『資治通鑑』卷239「唐紀」55 憲宗元和九年, p.7706.

595) 『新唐書』卷53「食貨志」3 漕運, p.1369, “及田悅·李惟岳·李納·梁崇義拒命, 舉天下兵討之, 諸軍仰給京師. 而李納·田悅兵守渦口, 梁崇義搯襄·鄧, 南北漕引皆絕, 京師大恐.”

596) 新見まどか, 「唐代後半期における『華北東部藩鎮連合體』」, pp.22-25. 각 번진 간의 구체적인 혼인 사례에 대해서는 p.25의 [圖-A]를 참고하라.

597) 양숭의는 여타 반측지지와 연합하고 있었으나, 세력 차이 등으로 인해 다른 절도사에게 각별히 공손한 예를 취하였다는 기록 또한 눈여겨볼만하다.(『資治通鑑』卷226「唐紀」42 德宗建中二年, p.7298)

타 반측지지가 반대 의사를 표할 정도로 이들 간의 연합이 공고하였던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회서 변진 토벌에 여타 반측지지가 병력을 동원한 이유를 곧 당조가 「죄기조」에서 천명한 원칙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지나친 면이 없지 않겠지만, 적어도 당조가 자기 변진 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먼저 주변을 침략한 회서 변진에 대해 여타 반측지지가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요컨대 정원 15년(799) 회서 변진의 허주 공격을 당조는 강희 조운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죄기조」 반포 이래 변진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기존의 태도를 일변하여 총 17개에 달하는 변진의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회서 변진에 대한 대규모 토벌을 감행한 원인이 되었다. 다만 다수의 토벌군이 동원되었음에도 당조는 쉽사리 회서 변진을 제압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서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2) 淮西 藩鎮 토벌의 실패와 그 의미

전쟁은 초기에 당조의 우세 속에서 진행되었다. 8월 덕종이 토벌을 천명한 뒤 산남동도절도사 于頔⁵⁹⁸⁾·진허절도사 上官況·安黃節度使 伊慎·수주자사 王宗 등이 오소성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며 토벌군은 회서 변진을 몰아붙였다.⁵⁹⁹⁾ 하지만 이후 토벌군은 회서 변진에 패배하기 시작하는데, 토벌군 전체를 아우를 통수의 부재는 그 원인 중 하나였다.

여러 군이 오소성을 토벌하는데 통수가 없어 출병할 때마다 사람들이 각자 이해를 살폈으므로 진퇴가 일정하지 않았다. 을미, 여러 군이 小股水에서 스스로 궤멸하여 무기와 기계, 물자와 양식을 버리니 모두 오소성의 소유가 되었다. 이에 비로소 招討使를 설치할 것을 논의하였다.⁶⁰⁰⁾

초토사와 같은 전체 병력의 통수를 두지 않은 채 전쟁을 벌이던 토벌군은 이듬해인 정원 16년(800) 정월 恆冀·定州·許·河陽의 4개 부대가 진황이 불리하여

598) 『舊唐書』 卷156 「于頔傳」, p.4130.

599) 『新唐書』 卷7 「德宗本紀」, p.202.

600)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貞元十五年, p.7585.

퇴각하는 등 전황을 뒤집지 못하였다.⁶⁰¹⁾ 다수의 부대가 동시에 참전한 만큼, 건중 2년(781) 여러 번진의 부대를 동원하여 산남동도를 토벌할 때 이희열을 漢北都知諸兵馬招撫處置使로 임명한 것처럼 통수를 두는 편이 지휘에 편했을 수 있으나⁶⁰²⁾, 덕종은 회서 번진 토벌에 있어 통수를 두지 않고 환관이 맡은 감군사에게 토벌군 전반의 조율을 맡겼다.⁶⁰³⁾

물론 감군사에게 문제 상황 처리 및 구체적 군사작전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나, 자신의 판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감군사는 결국 황제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에 지휘관으로서 한계가 분명했다.⁶⁰⁴⁾ 때문에 덕종이 감군사에게 토벌군 전반의 지휘를 맡긴 주요한 원인은 작전상의 효율보다는 오히려 과거 이희열이 양승의를 토벌한 이후 오히려 반측지지와 연계하여 덕종 본인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안전상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감군사에게 토벌군의 통제를 맡길 경우 황제가 토벌군의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쉬워지기에, 이럴 경우 황제 본인의 안전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원화 4년(809) 王承宗 토벌 당시에도 신책중위 吐突承瓘가 토벌군의 통수를 맡은 것에서도 보듯, 환관을 통하여 대규모 토벌군을 통제하려는 황제의 계획은 덕종 이후에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 것 또한 사실이다.⁶⁰⁵⁾

하지만 황제가 감군사를 통해 17개 번진의 군대로 구성된 토벌군을 원격적으로 지휘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라 연달아 패전하게 되었고, 결국 당조는 같은 해 2월 左神策行營·夏綏銀節度等使 韓全義를 蔡州行營招討使로 임명함으로써 토벌군의 통수를 세운다.⁶⁰⁶⁾ 무장으로서의 평이 그리 높지 않았던 한전의가 초토사에 임명된 배경에는 덕종의 신임을 받는 신책중위 두문장의 추천이 있었다.⁶⁰⁷⁾ 한전의를 어려서부터 신책군에서 근무하면서 두문장과 가까워졌는데, 이후 두문장은 신책중위가 되고서 한전의를 중용하였다. 한전의는 이에 정원 13년(797)에 神策行營節度·長武城使가 되었다가 韓潭을 대신하여 夏綏銀節

601) 『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392.

602) 『舊唐書』 卷145 「李希烈傳」, p.3943.

603) 『舊唐書』 卷162 「韓全義傳」, p.4248.

604) 柳浚炯, 「唐代 지방 監軍제도의 변화와 의의」, pp.286-290.

605) 『李相國論事集校注』 卷2 「論中尉不當統兵出征疏」, p.73.

606) 『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392.

607) 『舊唐書』 卷162 「韓全義傳」, p.4248.

度使를 맡게 되었다. 다만 한전 의는 長武城의 병사들에게도 탐욕스러우나 용맹이 없고 아랫사람을 어루만지고 통솔하는 데 미흡한 인물로 인식될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모양으로, 변방의 절도사로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었던 데에는 개인 역량보다 두문장과의 개인적 친분이 더 큰 역할을 하였다.⁶⁰⁸⁾

여러 번진의 병력을 효과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무장을 통수로 삼을 필요가 있었겠지만⁶⁰⁹⁾, 덕종은 그보다는 대규모 토벌군을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의 지휘 하에 두는 것을 더 중요시하였다. 이는 서북 변방 방어에 있어 삭방군을 분할시켜 개별 무장의 힘을 약화시킨 대신 황제 본인의 장악력이 높은 신책군의 비중을 늘린 조치와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해당 결정은 오소성 토벌군에 소속된 여러 번진의 군대가 패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원 16년(800) 5월, 澗水 남쪽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토벌군은 회서 번진의 군대에 대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한전 의가 전투에서의 지휘관으로서뿐 아니라 이후 상황을 수습하고 여러 번진의 병력을 통솔함에 있어 무능하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노출되었다.⁶¹⁰⁾ 덕종이 대신을 소집한 회의에서 재상 가담은 오소성이 퇴각하는 토벌군을 추격하지 않은 것은 조정에서 자신을 용서해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지 한전 의의 공이 아니라며 한전 의의 지휘 능력을 혹평할 정도였다.⁶¹¹⁾

이미 한전 의의 무능이 폭로된 상황에서 덕종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통수를 바꾸어 전쟁을 계속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사를 파하고 오소성을 사면하는 2가지 뿐이었다. 하지만 덕종은 명망 있는 무장으로 통수를 교체함으로써 그에게 회서 번진 토벌군을 모두 맡기는 데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감군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선회하려 하였다. 이 시점에서 韋阜는 덕종에게 묘한 타개책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608) 『冊府元龜』 卷453 「將帥部」 怵愉, pp.5100-5101. 『資治通鑑』에서는 韓全義가 宦官과 결탁하여 大帥가 되었으며, 매년 軍事를 의논할 때마다 宦官으로 구성된 監軍 수습 명이 쟁론하였다고 기록한 바 있다.(『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貞元十六年, pp.7587-7588) 물론 宦官에 대해서는 특히 더 비판적인 어조를 띠는 『資治通鑑』의 특성 상 해당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당시 韓全義가 招討使로 임명된 것이 宦官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만큼은 사실인 듯하다.

609) 『權德輿詩文集』 卷47 「淮西招討使宜藏」, p.744.

610) 『舊唐書』 卷162 「韓全義傳」, p.4248.

611) 『舊唐書』 卷162 「韓全義傳」, p.4248.

그러나 (덕종은) 여전히 환관에게 여러 번진의 군을 감군하게 하였다. 검남의 위고가 상언하여 이는 중신을 통수로 삼는 것만 못하다며 이어서 혼감·가탐을 천거하였다. “폐하께서 만약 원로를 번거롭게 한다 여기 시어 다시 그 다음 방법을 찾으신다면, 곧 신이 청컨대 정예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물길을 따라 荊·楚로 달려가 원흉(오소성)을 물리치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고자 하신다면 그의 請罪를 받아들여 특별히 죄를 용서하고 兩河의 여러 군을 파하는 것이 또한 그 다음입니다...” 황제가 마침내 오소성을 사면하고 그의 관작을 모두 되돌려주었다.⁶¹²⁾

검남서천절도사 위고는 혼감이나 가탐과 같은 재상 급의 중신을 통수로 삼도록 천거하며, 여차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군사를 이끌 의향도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만약 중신을 통수로 삼는 것에 거리낌이 있다면’ 오소성의 청죄를 받아들여 사면하고서 군사를 파하는 것이 그 다음 방법이라고 언급한다. 실제로 덕종은 이후 오소성의 죄를 사면함으로써 위고가 제시한 2번째 방법을 따른 셈이 되었다.

위고의 표현은 상당히 교묘한데, 표면적으로 위고는 재상을 맡은 중신을 통수로 삼거나 자신이 직접 가서 오소성을 토벌할 것을 논하고 있지만 실상 위고는 양자를 모두 꺼리는 덕종에게 ‘오소성의 사면’ 또한 하나의 방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기록은 회서 번진을 굴복시키는 것만큼이나 회서 번진을 무너뜨린 유능한 통수의 등장 또한 막고자 하였던 덕종의 심리를 위고가 꿰뚫어 보았음을 알려주며, 한편 이러한 위고의 발언은 그러한 덕종의 심기를 읽은 인물이 단지 위고 한 명 뿐은 아니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덕종은 회서 번진의 주변 번진 침략이 잘못이었음을 비난하면서도, 오소성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며 올린 表章을 구실로 삼아⁶¹³⁾ 정원 16년(800) 9월 오소성을 사면하고 토벌군을 해산시켰다.⁶¹⁴⁾ 대규모 군사 동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조가 오소성을 사면함으로써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명백한 승

612) 『新唐書』 卷214 「吳少誠傳」, pp.6003-6004. 渾瑊은 그 전해인 貞元 15년 12월에 사망하였다.(『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392) 韋臯의 해당 문장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韋臯가 정확히 德宗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韋臯가 나라의 大臣이었던 渾瑊의 사망을 물렸을 리는 없다고 가정할 때 韋臯의 실제 제안은 渾瑊이나 賈耽 등 宰相 급의 인물을 파견하라는 의미였으리라 짐작된다.

613) 『唐大詔令集』 卷122 「雪吳少誠詔」, p.599.

614) 『舊唐書』 卷13 「德宗本紀」下, p.393.

패는 가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전쟁의 승자가 오소성임은 분명해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 때문에 덕종은 ‘명백하게’ 이 전쟁에서 패하였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 정원 연간 할거 번진의 위세가 조정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⁶¹⁵⁾

다만 앞서 살펴본 위고의 애매한 표현을 통해 볼 때, 오소성이 승자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덕종이 ‘명백한 패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해당 사건 이후 오소성은 표장을 통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시하였고, 실제로 회서 번진은 이때의 대규모 토벌 이후 주변 번진에 대한 무력 침탈을 거의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약조를 이행한다. 애초에 덕종이 회서 번진에 대한 적극적 토벌을 망설였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러한 결말은 덕종에게 있어 썩 나쁘지 않은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이 사건을 통하여 당조는 조운로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고, 반측지지의 병력까지 동원한 대규모 군사 작전의 감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덕종은 회서 번진 토벌 실패 이후에 추가적으로 번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일이 없이 치세를 마감하는데, 덕종의 이러한 만년의 태도는 그에게 번진에 대하여 ‘고식’하였다는 평가를 안겨준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⁶¹⁶⁾ 다만 덕종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정원 15년(799) 회서 번진 토벌의 실패는 당조가 당시 강회 조운로의 안정을 위하여 진력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자기 번진 밖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조운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을 당조가 대규모 토벌군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 참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한 주요 관건인 강회 조운로의 안정, 번진 외부로의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의 확보가 ‘제국 재건’을 위한 전제라고 할 때, 일견 실패로 끝난 듯 보이는 회서 번진 토벌은 다른 각도에서는 덕종 말기에 ‘제국 재건’의 기반이 거의 다져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헌종이 이루어내는 번진 정책의 성과 또한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원화중흥’의 기틀이 이 시기에 거의 다져져 있었다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615) 鄭炳俊, 「唐 德宗 貞元 시기 淮西 藩鎮의 성격 -吳少誠의 태도를 중심으로-」, p.409.

616) 『資治通鑑』 卷235 「唐紀」51 德宗貞元十六年, p.7588.

소 결

덕종이 재위 초기에 중용하였던 무장으로는 白志貞·朱泚·李懷光·李希烈의 4명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서로 각기 다른 형태로 ‘경사지변’ 당시 덕종을 위기에 몰아넣은 인물이기도 했다. ‘경사지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인물은 이회열이었다. 이회열은 반측지지 진영과 합세하여 강희 조운로와 인접한 여주·변주를 공격하였고, 이에 덕종은 가서요를 파견하고 신책군으로 하여금 그를 보좌하게 하였으나 가서요는 패배하고 오히려 양성에서 포위된다. 이로 인하여 강희 조운로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게 되었고, 이는 당조의 재정 운영에도 문제가 생김을 의미하였다. 때문에 덕종은 급히 경원군을 파견하여 가서요를 돕게 하였는데, 장안을 지나는 과정에서 당조가 이들에게 물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상사를 내리지 못하자 경원군은 오히려 병란을 일으켜 장안을 공격하였다. 덕종은 신책군으로 하여금 이들을 막으라 명령하였으나, 신책군은 앞선 가서요 지원 작전에서 큰 병력 손실을 입었고 신책군사 백지정이 군적을 허위로 채워놓은 상태였기에 실제 기용 가능한 병력은 얼마 되지 않았다. 상황의 시급함을 깨달은 덕종은 급히 장안을 탈출하였고, 장안에 남아있던 朱泚는 경원군의 추대를 받아 황제를 참칭하게 되었다.

덕종이 봉천으로 피난하자 朱泚는 병력을 보내어 봉천을 포위 공격하였다. 위기에 처한 덕종을 구원한 것은 삭방절도사 이회광으로, 그는 5만의 삭방군을 이끌고 출병하여 40여일간 포위되었던 덕종을 구원하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덕종이 이회광에게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대로 장안으로 진군하라는 무리한 명령을 내리자 이회광은 이에 불복하였으며, 더 나아가 그는 덕종이 자신이 역심을 품고 있다고 의심한다고 여겨 朱泚와 연합하여 덕종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이회광은 장안의 동쪽 일대를 관할하는 하중부를 중심으로 웅거하니, 이로써 덕종이 재위 초부터 중용하던 무장들은 모두 덕종의 신뢰를 저버린 셈이 되었다. 장안에서 피난한 덕종은 군사·재정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여 더 이상 반측지지와의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니, 이에 덕종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죄기조」를 반포한다.

「죄기조」는 당시 각 절도사들이 일으킨 반란의 원인을 덕종 황제 본인에게 돌리며, 자신이 절도사들을 의심하고 두렵게 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자책한다. 이에 덕종은 이후 주변 번진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朱泚와의 관계를 끊

는다면 어떤 번진의 병력이라도 사면하겠다고 약속한다.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된 이는 장안을 근거로 한 朱泚 뿐으로, 이에 반란군 가운데 왕무준·전열·이납이 귀순하고 朱泚·주도·이회광·이회열은 귀순을 거부하면서 전황이 변화하게 되었다. 당조는 귀순하지 않은 세력들을 차례로 공격하여 朱泚와 이회광 순서로 토벌에 성공함으로써 반란군으로는 이회열이 맨 마지막까지 남게 된다.

당조는 승기를 잡은 입장이었음에도 이회열의 회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데, 그 배경에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던 재정 문제가 있었다. 이회열에게서 변주를 탈환하면서 당조는 강희 조운로가 지나는 전역을 확보하였지만 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물자를 공급받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이에 당조는 관봉을 삭감하고 관원 가운데 결원이 생길 경우 이를 채우지 않는 등 재정 마련을 위하여 애썼으나,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책군이 반기를 들 정도로 당시 당조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였다.

당조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정원 2년 4월에 이회열의 부하 진선기가 이회열을 독살하고서 조정에 투항하면서 당조와 번진 간의 전쟁은 일단락된다. 전쟁에서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로써 당조는 장안과 장강 중하류 지역을 연결하는 강희 조운로가 지나는 전역을 확보하였고 반촉지지 또한 하북과 산둥 일대의 번진만이 남음으로써 진선이 단축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이는 당조가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

당조에게 남은 과제는 반란에 가담했던 삭방군에 대한 적절한 사후처리였다. 삭방군은 서북 변경을 방어하는 핵심 번진으로, 절도사 이회광이 반란에 가담했기에 징계는 불가피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삭방군을 약화시킬 경우 서북 변경 방어가 약화되어 장안이 토번이나 위구르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덕종은 삭방군을 3개의 작은 번진으로 분할함으로써 서북 변경을 방어하는 번진들이 장안에 미칠 수 있는 위협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금군인 신책군 병력의 상당수를 서북 변경 지역에 배치하고 환관들에게 신책군을 총괄할 수 있는 신책중위라는 직을 맡김으로써 서북 변경 방어력의 약화라는 과제를 해결하였다. 신책중위는 황제가 전적인 임명권을 지닌 사직으로, 신책중위가 총괄하는 신책군이 서북 변경 방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곧 많은 병력이 배치될 수밖에 없는 서북 변경의 군사력이 황제에게 위협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짐을 의미하였다.

다만 삭방절도사가 서북 변경 방어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던 과거에 비하여 3개의 번진과 신책군이 서북 변경을 방어하는 체제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었다. 정원 3년 발생한 ‘평량겁맹’은 덕종 즉위 초부터 이어져오던 토번과 당조 간의 화친 관계를 결렬시켰고, 이에 당조는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토번을 협공함으로써 토번의 위협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당조는 당시 경제적 위기 상황이었던 위구르, 토번의 과도한 병력·부세 요구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남조, 서쪽의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이 일단락됨으로써 동쪽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압박을 조, 지속적으로 토번과 마찰을 빚어오던 친축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토번에 대한 협공을 제안하였다. 이 시도는 효과를 보아 덕종 후기로 가면서 토번의 당조의 서북 변경에 대한 위협은 점차 약해졌고, 이로써 덕종은 제국 전역의 번진들을 황제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선에서 통제함으로써 제국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죄기조」 반포 이후 당조는 번진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정원 15년 진허절도사 곡환이 사망한 틈을 타 회서 번진이 허주를 공격하자, 당조는 17개 번진의 병력으로 이루어진 회서 번진 토벌군을 구성하여 회서 번진과의 전쟁을 개시한다. 회서 번진이 허주를 공격하기 이전 주변의 당주·수주를 약탈하였을 때에 당조가 보인 미온적인 반응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규모 토벌군의 동원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정원 15년 당시 당조가 이처럼 반측지지에 강경 대처를 결정한 배경에는 당조가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장악해야 했던 강회 조운로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오소성이 절도사가 되었을 당시 회서 번진의 영역은 申·光·隋·蔡의 4개 州로, 강회 조운로와는 직접 맞닿지 않은 번진이었다. 다만 과거 회서절도사 이희열이 변주를 점령한 데에서 보듯 회서 번진이 북진할 경우 강회 조운로를 직접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직선 거리가 가까운 것은 사실이었고, 이에 당조는 진허절도사를 회서 번진과 강회 조운로 사이에 두어 회서 번진의 북진을 저지하는 기능을 맡겼다. 때문에 오소성이 허주를 공격하였을 때 당조는 이를 곧 강회 조운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당조는 회서 번진에 대한 대규모 토벌군을 일으킴으로써 제국 운영을 위해 있어 핵심적인 강회 조운로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초기에 우세를 점하던 토벌군은 곧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그 원인으로는

전체 토벌군을 지휘할 통수의 부재가 거론된다. 덕종은 환관이 맡은 감군사를 통하여 전황을 통제하려 시도하였지만, 중요한 결정의 경우 황제의 확인을 요하는 감군사는 전체 작전을 지휘할 통수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덕종은 이에 전쟁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한전의를 蔡州行營招討使로 임명함으로써 그에게 작전권을 이임하였는데, 한전의 또한 신책중위 두문장의 추천을 받은 인물로 군사적 능력이 탁월한 인물은 아니었다. 이는 당시 덕종이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병력을 지휘하는 무장의 출현을 꺼렸기 때문이었으나, 한전의의 무능으로 인하여 패전이 지속되자 덕종 또한 한전의를 초토사로 유임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덕종은 오소성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올린 표장을 구실로 삼아 정원 16년 9월에 그를 사면하고 토벌군을 해산시킨다. 분명 조정의 사면을 받은 오소성이 이 전쟁의 승자라 할 수 있지만, 덕종 또한 이 전쟁을 통하여 회서 번진의 강회 조운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여러 번진으로 구성된 토벌군을 동원하는 데 성공하는 등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덕종 말기의 회서 번진 토벌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장안과 강회 조운로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조운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면 반축지로서의 행보 또한 어느 정도 묵인하며, 필요할 경우 대규모 토벌군을 동원해서라도 해당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지만 그 과정에서 황제의 안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선택은 최대한 회피한다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덕종은 이러한 기조 하에서 제국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회서 번진 토벌은 일견 실패로 끝난 듯 보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덕종 시기에 제국 재건을 위한 기초가 거의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평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덕종은 안사의 난이 종식된 이후에 제위에 오른 당의 첫 번째 황제이다. 그는 제국의 재건을 위하여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조정과 반목하는 반측지지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재정 문제의 해결 및 인접한 토번·위구르에 대한 외교·군사 대응 등이 당시의 대표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조는 여러 사안에 대하여 동시적으로 대응해야만 했기에 그 양상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이들 문제는 결국 재정 운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강회 조운로의 확보라는 과제와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다. 당조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동남 지역과 장안을 연결하는 강회 조운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고, 그 이후에야 제국 질서를 재건·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강 중하류 지역과 장안을 연결하는 조운로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당시 재정 문제와 번진 문제가 서로 밀접히 연결된 사안이었음을 보여준다. 인공 수로를 개착함으로써 장강 중하류 지역과 장안을 연결한 것은 수대이지만, 해당 수로를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수송하는 조운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당 현종이었다. 경제적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장강 중하류 지역의 생산력이 이후 당조의 재정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고, 여기에 안사의 난으로 인하여 당조가 하북도·하남도에서 부세를 거두기 어렵게 됨에 따라 당 후기 장강 중하류 지역의 부세는 세입에 있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문제는 당조가 제국의 동남부에서 생산된 물자를 장안으로 수송하는 핵심 수로인 강회 조운로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었다. 반측지지에 의해 강회 조운로가 차단될 경우 당조는 한수를 활용한 강한 조운로를 대체 조운로로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운송비용 문제 때문에라도 당조는 강회 조운로를 장악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대중 또한 이를 인식하고 강회 조운로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지만, 반측지지가 변주·서주와 같은 강회 조운로가 지나는 주요 거점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중 시기까지 당조는 강회 조운로를 완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덕종이 황제가 되는 시점에서 당조에게는 재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번진 문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안사의 난 사후 처리 과정에서 당조가 안록산·사사명 휘하 부장 출신 장수

들을 해당 지역의 절도사로 인정함으로써 하북도와 하남도 일대의 번진들은 반측지지로 남았는데, 이들은 넓은 영역을 차지한 데 반해 번진 내부에서 절도사 및 관리를 자체적으로 선임하고 조정에 호적을 올리지 않고 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하삭구사’를 행사한다. 당조는 이들 반측지지에 대항하기 위한 병력을 하동도·하남도·회남도 일대에 배치하고서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통하여 이들 병력에 대한 보급을 진행하였다. 여기에 인접한 강대국인 토번·위구르를 방어하기 위한 제국의 서부 변경 지역에 위치한 번진들 또한 지속적으로 병력과 물자 보급을 필요로 하였다. 다만 대종 시기까지 조운로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당조의 재정 정책에는 위협성이 상존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토번에게 지속적인 침공을 허용하는 외교·군사 문제도 남아있었다.

당조는 7세기 후반부터 토번과 분쟁을 지속해왔으나, 토번에 비해 명확히 열세에 처하게 된 것은 안사의 난 발발 이후였다. 당조는 반란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북 변경의 병력을 차출하여 동쪽으로 배치해야 했고, 이에 당조 서북 변경의 방어력이 약화되자 토번은 침공을 통하여 농우와 하서 일대를 점령한다. 게다가 당조는 숙종 시기부터 토번에 세폐를 바치고 있었고, 대종이 즉위 이후 세폐 납부를 거부하자 토번은 군사를 동원하여 장안을 점령하는 등 당조를 크게 압박하였다. 대종은 위구르와의 화친을 통하여 토번의 압박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나, 토번의 위협은 계속되었고 당조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추병을 추가적으로 파견하는 등 서북 변경 지역에서 많은 군사력과 물자를 지속적으로 소모하였다. 게다가 견마무역으로 대표되는 양국의 관계는 당조가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종 시기의 당조는 내부의 번진 문제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덕종은 이에 즉위 후 위구르보다 토번과의 화친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당조와 토번은 건중 4년에 청수에서 회맹을 체결하는 등 대종 시기에 비하여 확연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당시 위구르는 약체화되어 당조의 변경을 위협하기 어려웠고, 그런 상황에서 토번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당조는 서북 변경에 투입되던 물자와 병력을 반측지지와 전쟁으로 돌림으로써 내부 번진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덕종이 경원군의 절도사 내부 선임 요구를 거부하고 이를 무력으로 정벌한 사건, 그리고 성덕절도사 이보신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 이유약이 절도사 세습을 요청하자 이를 불허하고 방추병 일부를 하남도에 배치함으로써 성덕 번진과 군사적으로 대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당조와 토번 간 관계의 개선이 있었다. 외교 관계의 변화는 반측지지에 강

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고, 이는 곧 당조의 번진 정책의 집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성덕절도사의 계승 요구가 거절되자 이유악은 위박·평로·산남동도 번진과 연합군을 형성함으로써 반측지지 세력으로써 당조와 맞서는 형세를 구축한다. 반란군은 당조와 직접 군사적으로 충돌하기에 앞서 먼저 강회 조운로와 강한 조운로를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수송할 수로를 끊어버렸다. 조운로가 막힘으로써 당조는 여러 번진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쓰일 물자를 공급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경사인 장안 또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당조에 있어 조운로의 확보는 재정 운영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컸기에 덕종은 먼저 강한 조운로가 경유하는 산남동도의 절도사 양승의를 회유해보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곧장 산남동도를 공격하여 당조는 우선 강한 조운로를 확보한다. 여기에 같은 해 10월 평로 번진의 영역 가운데 강회 조운로가 경유하는 지역인 서주의 자사 이유가 당조에 귀순하면서 당조는 강회 조운로도 확보하였다. 이후 당조는 반측지지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았고, 이에 성덕 번진 내부에서는 병란이 발생하여 왕무준이 이유악을 살해하고 조정에 투항함으로써 성덕 번진에서의 반란은 일단락된다.

성덕 번진이 조정에 투항한 이후에도 평로 번진 등 반측지지와 당조의 전쟁은 이어졌지만, 전황은 당조에게 유리하였다. 이에 반란군 측은 조정에 투항한 번진들에 덕종이 과거 반측지지의 절도사들을 모두 내쫓고 문신으로 대체하려는 생각이라며 유세하였는데, 여기에 회서절도사 이희열을 비롯한 여러 번진의 절도사들이 호응함으로써 당조는 재차 위기를 겪게 되었다. 특히 이희열은 반란군과 합세하고자 변주를 점령하여 강회 조운로를 재차 단절시킴으로써 당조의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였다.

여러 방면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야 했던 당조의 우선순위는 장안의 안전과 강회 조운로의 확보였다. 당조가 서주의 방어를 담당하는 자사 및 절도사의 인선에 신중하였던 데서 보듯 당시 강회 조운로의 유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으며, 이는 당시 육지가 전쟁의 이해를 정리하여 덕종에게 보고한 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육지는 장안과 조운로를 동시에 위협하는 회서 번진 공략을 우선시해야하며 하북도와 하남도의 반측지지와는 현재 전선에서 대치를 이어가는 정도로 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의견은 해당 시기 당조의 정책 기조와도 일치한다. 혹자는 이후 덕종이 장안에서 봉천으로 피난하게 된 이유를 육지의 간언을 덕종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에서 찾기

도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오히려 그 원인은 육지도 언급하였으며 당조 또한 집중하였던 회서 번진에 대한 토벌이 실패로 돌아간 데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희열이 강회 조운로와 인접한 여주·변주를 공격하자 당조는 가서요를 지휘관으로 하는 병력을 파견하여 이에 맞서게 하였지만, 가서요가 패배하고 오히려 양성에서 포위됨으로 인하여 강회 조운로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았다. 강회 조운로의 단절로 인해 당조는 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포위된 가서요를 지원하기 위해 경사를 지나던 경원군에 충분한 상사를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 경원군이 이에 병란을 일으키니 덕종은 급히 장안을 버리고 봉천으로 피난하는 이른바 ‘경사지변’을 겪게 되었으며, 경원군의 추대로 장안에서 황제를 참칭한 朱泚는 덕종이 있던 봉천을 포위하기에 이른다.

삭방절도사 이희광은 봉천에 갇힌 덕종을 구원하였지만, 사후 조치에 있어 불만을 품고 이희광은 오히려 朱泚와 연합하여 덕종을 위협하며 장안 동쪽의 하중부에 웅거하였다. 이로써 당조는 강회 조운로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물자 보급의 중심이 되어야 할 장안마저 빼앗겨 반측지지와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덕종이 「죄기조」를 반포하여 당시 각 절도사들이 일으킨 반란의 원인을 덕종 황제 본인에게 돌리며, 자기 영역 이외의 주변 번진을 공격하지 않고 朱泚와의 관계를 끊는다면 어떤 번진의 병력이라도 사면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당시 당조가 처한 불리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에 반란군 중 일부는 당조에 귀순함으로써 원하던 절도사 자리를 인정받았고, 이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당조는 귀순을 거부한 나머지 반란군을 차례로 진압하였다.

「죄기조」로 인하여 급한 위기는 벗어났지만 당조는 여전히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 때문에 당조는 관봉을 삭감하고 관원 가운데 결원이 생길 경우 이를 채우지 않는 등의 방책까지 동원하여 여유 재정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 때문에 회서절도사 이희열에 대한 사면까지 검토되었으나, 당조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정원 2년(786) 4월에 이희열의 부하 진선기가 이희열을 독살하고서 조정에 투항하면서 당조와 번진 간의 전쟁은 일단락된다. 덕종 즉위 초부터 이어진 번진과의 전쟁 결과 당조는 하북도와 하남도에 위치한 기존 반측지지의 절도사 계승을 모두 추인하였고, 심지어 「죄기조」를 반포함으로써 인하여 추후 이들을 토벌할 수 있는 명분도 상실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 당조는 장안과 장강 중하류 지역을 연결하는 강회 조운로가 지나는 전역을 확보하

였으며 하북도와 하남도 일대 이외의 반축지지를 모두 제압함으로써 변진과의 전선 또한 크게 단축시켰다. 이는 안사의 난 이후 당조가 맞이했던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제국을 재건할 수 있는 조건이 비로소 갖추어져 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덕종 초기 변진과의 전쟁은 온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조에게 남은 과제는 반란에 가담했던 삭방군에 대한 사후처리였다. 삭방군은 서북 변경을 방어하는 핵심 변진으로, 절도사 이회광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삭방군을 약화시키는 것은 자칫 서북 변경 방어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했다. 덕종은 이에 삭방군을 3개의 작은 변진으로 분할함으로써 개별 변진의 힘을 약화시키되, 다수의 신책군 병력을 서북 변경 지역에 배치하고 그 총괄을 환관이 맡은 신책중위에게 맡김으로써 약화된 서북 변경의 방어력을 보강하였다. 신책중위는 황제가 전적인 임명권을 지닌 사직으로, 덕종은 이를 통해 서북 변경의 방어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해당 지역의 변진이 황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또한 해당 조치를 통하여 덕종은 수도 인근의 군사력을 강화시켜 지방 변진의 병력에 맞설 수 있는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는(強幹弱枝)’ 효과 또한 더불어 누릴 수 있었으니, 이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두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덕종의 서북 변경 방어에 대한 구상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존재는 국경을 접한 토번의 존재였다. 정원 3년(787) 발생한 ‘평량첩맹’으로 인해 덕종 즉위 초부터 이어져오던 토번과 당조 간의 화친 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이로 인해 장안은 토번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하지만 당조는 아직 오랜 전쟁으로 인한 재정 파탄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덕종 스스로가 서북 변경 지역의 변진이 강한 군사력을 지니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던 상황이었다. 이에 당조는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 토번을 협공함으로써 서북 변경의 위협을 경감시키려 시도한다. 당조는 당시 경제적 위기 상황이었던 위구르, 토번의 과도한 병력·부세 요구로 인해 부담을 느끼던 남조, 서쪽의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이 일단락됨으로써 동쪽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압바스 조, 지속적으로 토번과 마찰을 빚어오던 천축에게 사절을 파견하여 토번에 대한 협공을 제안하였다. 이 시도는 효과를 보아 덕종 후기로 가면서 토번의 당조의 서북 변경에 대한 위협은 점차 약해졌고, 덕종의 서북 변경 방어에 대한 구상 또한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이후 당조는 번진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정원 15년(799) 덕종은 17개 번진의 병력을 동원하여 회서 번진을 토벌함으로써 그 이전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당조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회서 번진이 강회 조운로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이었다. 회서절도사 오소성이 진허절도사 곡환이 사망한 틈을 타 허주를 공격하자 덕종은 회서 번진에 대한 토벌을 명령하는데, 이는 진허절도사의 기본 직능이 회서 번진의 강회 조운로에 대한 접근을 저지하는 것이었다는 사실과도 유관하다. 직전에 오소성이 주변의 당주·수주를 약탈하였을 때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던 당조는 강회 조운로에 대한 위협이 시작되자 갑자기 대규모 토벌군을 동원할 정도로 강회 조운로의 안전을 크게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다만 덕종은 전체 토벌군을 지휘할 통수를 두지 않은 채 환관이 맡은 감군사를 통하여 전황을 통제하려 시도하였다. 결정권에 한계가 있어 감군사가 전체 작전을 지휘할 통수로는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던 덕종은 전쟁 발발 후 6개월 이후에야 한진의의를 초토사로 임명함으로써 통수로 삼았는데, 한진의 또한 신책중위 두문장의 추천을 받은 인물이었다. 덕종은 효율적인 전쟁 수행이 갖는 장점보다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무장의 출현의 위험성을 더 중시했으며, 이는 서북 변경의 방어 병력 배치에 있어 덕종이 보인 태도와도 일맥상통한다. 이후 한진의의가 군사적 무능을 노출하며 패전을 거듭하자 덕종은 명장을 초토사로 임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소성이 자신의 잘못을 고치겠다고 올린 표장을 구실로 삼아 정원 16년(800) 9월에 그를 사면하고 토벌군을 해산시키는 결정을 내린다. 해당 전쟁에서 덕종이 회서 번진을 토벌하는 데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와중에 당조는 결국 강회 조운로라는 1차 방어 목표를 지켜내는 데에는 성공했으며 이를 위협하는 번진이 있다면 대규모 토벌군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 번진에 과시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견 실패로 보이는 정원 15년의 회서 번진 토벌 과정을 뒤집어보면 덕종 말기에 당 제국의 재건을 위한 기초 작업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덕종이 제국 재건을 위해 시도한 여러 정책은 덕종이 즉위하는 시점과 재위 후기 당 제국의 상황의 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덕종이 즉위했을 당시 당조는 주요 세원인 장강 중하류 지역과 장안을 연결하는 강회 조운로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인접한 도번의 지속적인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내부의 번진 문제에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다. 덕종은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강희 조운로를 확보하여 장강 중하류 지역의 물자를 장안으로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게 하였고 외교 수단을 활용하여 토번의 공세를 크게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반측지지가 조운로를 위협할 경우 당조가 대규모 토벌군을 동원하여 이에 강경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덕종이 거둔 성과가 즉위 초기 자신이 밝혔던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포부에는 미치지 못하였을지 모르나, 덕종 시기에 취한 각종 조치를 통해 당 제국이 ‘재건’되었다고 평가할만한 여러 요소가 갖추어졌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는 육지가 언급한 바 있는 ‘관중 일대의 중요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지방을 통제하는(居重馭輕)⁶¹⁷⁾ 정책적 기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당조는 덕종 시기부터 절도사에 점차 무신보다 문신의 임명 비중을 높임으로써 안사의 난 이후 나타난 변진의 발호를 약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와 더불어 황제가 환관을 통해 직접 장악하는 신책군을 강화시킴으로써 조정의 지방의 변진들과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는 수단 또한 마련하였다. 여기에 강희 조운로의 확보를 통한 재정의 안정화까지 이루어냄으로써 당조는 덕종 시기에 들어 안사의 난 이후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비로소 ‘제국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덕종의 사후에도 당조가 100여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을 존속할 수 있었던 사실은 덕종 시기의 여러 정책이 효과를 보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후 현종을 포함한 덕종 이후의 황제들이 변진 문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덕종 시기는 긍정적으로 재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

617) 『陸贄集』(陸贄 撰 ; 王素 點校, 『陸贄集』(全2冊), 北京: 中華書局, 2006) 卷11 「論關中事宜狀」, pp.336-337.

참 고 문 헌

1. 史料

1) 文獻史料

- 『尙書』(『尙書正義』(十三經注疏),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 『史記』, 『漢書』, 『三國志』, 『宋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舊五代史』, 『宋史』(이상 의 正史類는 모두 中華書局 標點校勘本)
- 『經行記箋注』(杜環 撰 ; 張一純 箋注, 『往五天竺國傳箋釋·經行記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0)
- 『權德輿詩文集』(權德輿 撰, 『權德輿詩文集』(全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 『南部新書』(錢易 撰 ; 黃壽成 點校, 『南部新書』, 北京: 中華書局, 2002)
- 『大唐新語』(劉肅 撰 ; 許德楠·李鼎霞 點校, 『大唐新語』, 北京: 中華書局, 1984)
- 『大唐傳載』((唐)佚名 撰, 『全唐五代筆記』3(全4冊), 西安: 三秦出版社, 2008)
- 『大業雜記』(杜寶 撰 ; 辛德勇 輯校, 『兩京雜記輯校·大業雜記輯校』, 北京: 中華書局, 2020)
- 『唐鑑』(范祖禹 撰 ; 呂祖謙 音注, 『唐鑑』(國學基本叢書), 上海: 商務印書館, 1937)
- 『唐大詔令集』(宋敏求 編 ; 洪丕謨·張伯元·沈敖大 點校, 『唐大詔令集』, 上海: 學林出版社, 1992)
- 『唐六典』(李林甫 等 撰 ; 陳仲夫 點校, 『唐六典』, 北京: 中華書局, 1992)
- 『唐會要』(王溥 撰, 『唐會要』(全2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陶淵明集箋注』(袁行霈,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 『蠻書校注』(樊綽 撰 ; 向達 校注, 『蠻書校注』, 北京: 中華書局, 1962)
- 『明皇雜錄』(鄭處誨 撰 ; 丁如明 校點, 『開元天寶遺事(外七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夢溪筆談』(沈括 撰, 『夢溪筆談』,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2003)
- 『文苑英華』(李昉 等 編, 『文苑英華』(全6冊), 北京: 中華書局, 1966)
- 『文獻通考』(馬端臨 撰, 『文獻通考』(全2冊), 北京: 中華書局, 1986)

- 『白居易集箋校』(白居易 撰；朱金城 箋校,『白居易集箋校』(全6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8)
- 『樊川文集』(杜牧 撰,『樊川文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
- 『封氏聞見記』(封演 撰；趙貞信 校注,『封氏聞見記校注』,北京:中華書局,2005)
- 『奉天錄』(趙元一 撰,『奉天錄(外三種)』,北京:中華書局,2014)
- 『荀子集解』(王先謙 撰；沈嘯寰·王星賢 整理,『荀子集解』,北京:中華書局,2012)
- 『神機制敵太白陰經』(李筌 撰,『神機制敵太白陰經』(叢書集成初編),北京:中華書局,1985)
- 『十七史商榷』(王鳴盛 撰；黃曙輝 點校,『十七史商榷』,上海:上海書店出版社,2005)
- 『顏魯公文集』(顏真卿 撰,『四部備要』第69冊(全100冊),北京:中華書局,1989)
- 『元稹集』(元稹 撰；冀勤 點校,『元稹集』(全2冊),北京:中華書局,1982)
- 『元和郡縣圖志』(李吉甫 撰；賀次君 點校,『元和郡縣圖志』(全2冊),北京:中華書局,1983)
- 『玉泉子』((唐)佚名 撰,『新輯玉泉子』(『奉天錄(外三種)』),北京:中華書局,2014)
- 『往五天竺國傳』(慧超 撰；張毅 箋釋,『往五天竺國傳箋釋·經行記箋注』,北京:中華書局,2000)
- 『容齋隨筆』(洪邁 撰,『容齋隨筆』(全2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
- 『容齋續筆』(洪邁 撰,『容齋隨筆』(全2冊),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
- 『陸贄集』(陸贄 撰；王素 點校,『陸贄集』(全2冊),北京:中華書局,2006)
- 『李文公集』(李翱 撰,『李文公集·歐陽行周文集』,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3)
- 『李相國論事集校注』(李絳 撰；冶艷傑 校注,『李相國論事集校注』,武漢:華中科技大學出版社,2014)
- 『入唐求法巡禮行記』(円仁 撰；小野勝年 譯註,『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全4冊),東京:鈴木學術財團,1964)
- 『廿二史劄記』(趙翼 撰；王樹民 校證,『廿二史劄記校證』(全2冊),北京:中華書局,1984)
- 『資治通鑑』(司馬光 撰；胡三省 音注,『資治通鑑』,全10冊),北京:中華書局,2005.
- 『全唐文』(董誥 等 編,『全唐文』(全11冊),北京:中華書局,1983)
- 『全唐文新編』(周紹良 主編,『全唐文新編』(全22冊),長春:吉林文史出版社,2000)

- 『全唐詩』(彭定求等編,『全唐詩』(全25冊),北京:中華書局1960)
- 『朝野僉載』(張鷟撰;趙守儼點校,『隋唐嘉話·朝野僉載』(唐宋史料筆記叢刊),北京:中華書局,1979)
- 『冊府元龜』(王欽若等編;周勛初等校訂,『冊府元龜(校訂本)』(全12冊),南京:鳳凰出版社,2006)
- 『通典』(杜佑撰,『通典』(全5冊),北京:中華書局,1988)
- 『皮子文藪』(皮日休撰;蕭滌非·鄭慶篤整理,『皮子文藪』,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1)
- 『韓昌黎文集校注』(韓愈撰;馬其昶校注,『韓昌黎文集校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

2) 墓誌, 出土文獻

- 氣賀澤保規編,『新編 唐代墓誌所在總合目錄』,東京:汲古書院·明治大學東アジア石刻文物研究所,2017.
- 洛陽市文物工作隊編,『洛陽出土歷代墓誌輯繩』,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1.
- 唐長孺主編,『吐魯番出土文書』,北京:文物出版社,1992
- 西安碑林博物館編,『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彙編』,北京:線裝書局,2007.
- 昭陵博物館編,『昭陵唐墓壁畫』北京:文物出版社,2006
- 楊世鈺主編;張樹芳本篇主編,『大理叢書·金石篇』(全10冊),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3.
- 趙力光主編,『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彙編』,北京:線裝書局,2007.
- 趙力光主編,『西安碑林博物館新藏墓誌續編』,西安:陝西師範大學出版總社有限公司,2014.
- 周紹良主編,『唐代墓誌匯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2.
- 周紹良主編,『唐代墓誌匯編續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1.
- 胡戟·榮新江主編,『大唐西市博物館藏墓誌』,北京大學出版社2012.

2. 研究書

1) 國文

- 金鐸敏·河元洙 主編, 『天聖令譯註』, 서울: 혜안, 2013.
- 權惠永, 『제당 신라인사회 연구』, 서울: 일조각, 2005.
- 權惠永, 『在唐 韓人墓誌銘 研究』(全2冊),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1.
- 동북아역사재단, 『舊唐書 外國傳 譯註(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0)』下,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 朴根七, 『唐代 官文書와 문서행정 -敦煌·吐魯番 출토문서의 이해-』, 서울: 주류성, 2023.
- 아부 자이드 하산, 가브리엘 페랑 ; 정남모 譯, 『술라이만의 항해기』, 서울: 선인, 2020.
- 陸贄 ; 沈慶昊 등 譯註, 『譯註 唐陸宣公奏議』(全2冊),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2018-2019.
- 李伯重 ; 이화승 譯, 『중국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서울: 책세상, 2006.
- 鄭勉, 『南詔國의 세계와 사람들 - 8~9세기 동아시아의 서남 변방-』, 서울: 선인, 2015.
- 丁載勳, 『위구르 유목제국사 : 744-840』,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5.
- 丁載勳,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 아사나 권력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소멸』, 과주: 사계절, 2016.
- 周振鶴 ; 柳浚炯 譯, 『체국경야의 도 -중국 행정구획의 연혁-』,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17.
- 崔德卿, 『동아시아 농업사상의 뚝 생태학』, 서울: 세창, 2016.
- 폴 드미에빌 ; 배재형·차상엽·김성철 譯, 『라싸 종교회의 : 8세기 말 티벳불교의 돈점논쟁』(본문 편), 서울: 씨아이알, 2017.
- 河元洙, 『과거제도 형성사 -황제와 士人들의 줄다리기-』,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1.
- Paul Pelliot ; 박세욱 譯註, 『8세기 말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두 갈래 여정』,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20

2) 中文

- 賈志剛,『唐代軍費問題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6.
- 賈玉英,『唐宋時期中央政治制度變遷史』,北京:人民出版社,2012.
- 葛兆光,『增訂本中國禪思想史—從六世紀到十世紀—』,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
- 古怡青,『唐朝皇帝入蜀事件研究:兼論蜀道交通』,臺北:五南圖書出版股份有限公司,2019.
- 谷霽光,『府兵制度考釋』,北京:中華書局,2011.
- 丘光明,『中國歷代度量衡考』,北京:科學出版社,1992.
- 鞠清遠,『唐代經濟史』,上海:商務印書館,1940.
- 鞠清遠,『唐代財政史』,長沙:商務印書館,1940.
- 賴瑞和,『唐代高層文官』,臺北:聯經出版公司,2016.
- 譚其驤 主編,『中國歷史地圖集(全8冊)』5,北京:中國地圖出版社,1982.
- 凍國棟,『唐代人口問題研究』,武漢:武漢大學出版社,1993.
- 馬良懷,『士人 皇帝 宦官』,長沙:岳麓書社,2003.
- 謝元魯,『唐代中央政權決策研究』,臺北:文津出版社,1992.
- 徐成,『觀念與制度—以考察北朝隋唐內侍制度為中心—』,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8.
- 楊銘,『唐代吐蕃與西域諸族關係研究』,哈爾濱:黑龍江教育出版社,2014.
- 楊子慧 主編,『中國歷代人口統計資料研究』,北京:改革出版社,1996.
- 嚴耕望,『唐史研究叢稿』,九龍:新亞研究所出版,1969.
- 嚴耕望,『唐代交通圖考』3,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85.
- 嚴耕望,『唐代交通圖考』4,臺北: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1986.
- 余華青,『中國宦官制度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1993.
- 閻步克,『品位與職位』,北京:中華書局,2002.
- 吳廷燮,『唐方鎮年表』,北京:中華書局,1980.
- 王瑞來,『宋代の皇帝權力と士大夫政治』,東京:汲古書院,2001.
- 王壽南,『唐代宦官權勢之研究』,臺北:正中書局,1971.
- 王壽南,『唐代藩鎮與中央關係之研究』,臺北:大化書局,1978.
- 王堯,『吐蕃金石錄』,北京:文物出版社,1982.
- 王堯·陳踐 譯註,『敦煌本吐蕃歷史文書』,北京:民族出版社,1992.

- 王雲·李泉 主編,『中國大運河歷史文獻集成』(全80冊),北京:國家圖書館出版社,2014.
- 廖伯源,『使者與官制演變 -秦漢皇帝使者考論-』,臺北:文津出版社,2006.
- 袁剛,『隋唐中樞體制的發展演變』,臺北:文津出版社,1994.
- 劉玉峰,『唐德宗評傳』,齊魯書社,2002.
- 劉後濱,『唐代中書門下體制研究 -公文形態·政務運行與制度變遷-』,濟南:齊魯書社,2004.
- 劉後濱,『唐代選官政務研究』,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16.
- 陸揚,『清流文化與唐帝國』,北京:北京大學出版社,2016.
- 李錦繡,『唐代財政史稿』(全5冊),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7.
- 李全德,『唐宋變革期樞密院研究』,北京:國家圖書館出版社,2009.
- 李鴻賓,『唐朝朔防軍研究』,長春:吉林人民出版社,2000.
- 林冠群,『唐代吐蕃史論集』,北京:中國藏學出版社,2006.
- 林冠群,『唐代吐蕃宰相制度之研究』,臺北:聯經出版事,2015.
- 張國剛,『唐代官制』,西安:三秦出版社,1987.
- 張國剛,『唐代藩鎮研究』,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2010.
- 張弓,『唐朝倉廩制度初探』,北京:中華書局,1986.
- 全漢昇,『唐宋帝國與運河』,上海:商務印書館,1944.
- 鄭學稼,『中國賦役制度史』,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0.
- 朱俊,『中國運河史料選輯』,北京:中華書局,1962.
- 陳衍德·楊權,『唐代鹽政』,西安:三秦出版社,1990.
- 陳勇,『長江下流經濟發展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2006.
- 陳寅恪,『隋唐制度淵源略論稿·唐代政治史述論稿』,北京:三聯書店,2001.
- 馮金忠,『唐代河北藩鎮研究』,北京:科學出版社,2012.
- 何先成,『唐代神策軍與神策中尉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21.
- 何永成,『唐代神策軍研究 -兼論神策軍與中晚唐政局-』,臺北:臺灣商務印書館,1990.
- 胡可先,『中唐政治與文學 -以永貞革新為研究中心-』,合肥:安徽大學出版社,2000.
- 胡鈞,『中國財政史』,上海:商務印書館,1920.
- 胡平,『未完成的中興:中唐前期的長安政局』,北京:商務印書館,2018.
- 黃樓,『唐宣宗大中政局研究』,天津:天津古籍出版社,2012.

- 黃樓,『碑志與唐代政治史論稿』,北京:科學出版社,2017.
- 黃樓,『神策軍與中晚唐宦官政治』,北京:中華書局,2019.
- 黃日初,『唐代文宗武宗兩朝中樞政局探研』,濟南:齊魯書社,2015.

3) 日文

- 古賀登,『兩稅法成立史の研究』,東京:雄山閣,2012.
- 菅沼愛語,『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唐・吐蕃・突厥の外交關係を中心に-』,廣島:溪水社,2013.
- 堀敏一,『唐末五代變革期の政治と經濟』,東京:汲古書院,2002.
- 氣賀澤保規,『府兵制の研究』,東京:同朋舎,1999.
- 渡邊信一郎 譯,『舊唐書』食貨志譯註』,東京:汲古書院,2018.
- 東洋文庫唐代史研究委員會 編,『唐代詔勅目錄』,東京:東洋文庫,1981.
- 礪波護,『唐代政治社會史研究』,京都:同朋舎,1986.
- 礪波護,『隋唐都城財政史論考』,京都:法藏館,2016.
- 船越泰次,『唐代兩稅法研究』,東京:汲古書院,1996.
- 松本保宣,『唐王朝の宮城と御前會議 -唐代聽政制度の展開-』,京都:晃洋書房,2006.
- 新見まどか,『唐帝國の滅亡と東部ユーラシア』,京都:思文閣出版,2023.
- 日野開三郎,『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1(唐代藩鎮の支配體制),東京:三一書房,1980.
- 日野開三郎,『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3(唐代兩稅法の研究 前篇),東京:三一書房,1981.
- 日野開三郎,『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4(唐代兩稅法の研究 本編),東京:三一書房,1982.
- 林美希,『唐代前期北衙禁軍研究』,東京:汲古書院,2020.
- 諸戶立雄,『中國佛教制度史の研究』,東京:平河出版社,1990.
- 佐伯富,『中國鹽政史の研究』,京都:法律文化社,1988.
- 中國史研究會 編,『中國專制國家と社會統合(中國史像の再構成 I)』,京都:文理閣,1990.
- 中村裕一,『唐代制勅研究』,東京:汲古書院,1991.
- 中村裕一,『隋唐王言の研究』,東京:汲古叢書 2003.

- 千田豊, 『唐代の皇太子制度』,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21.
- 清木場東, 『唐代財政史研究(運輸編)』, 福岡: 九州大學出版會, 1996.
- 清木場東, 『帝賜の構造 -唐代財政史研究 支出編-』, 福岡: 中國書店, 1997.
- 青山定雄, 『唐宋時代の交通と地誌地圖の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1969.
- 丸橋充拓, 『唐代北邊財政の研究』, 東京: 岩波書店, 2006.

4) 英文

- Brandon Dotson, *The Old Tibetan annals :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ibet's first history*, Wien: Verlag der o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9.
- Chiu-Duke, Josephine, *To rebuild the empire : Lu Chih's Confucian pragmatist approach to the mid-T'ang predicament*,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0.
- Gil Moshe ; Ethel Broido(translated), *A History of Palestine, 634-1099*,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Harry Turtledove(edited and translated), *The chronicle of Theophanes : anni mundi 6095-6305 (A.D. 602-813)*,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82.
- Kang Chao, *Man and Land in Chinese History: An Economy Analysi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6.
- McMullen, David, *State and Scholars in T'ang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Pulleyblank, Edwin G., *The Background of the Rebellion of An Lu-Sh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5.
- Regina Krahl(edited), *Shipwrecked : Tang treasures and monsoon winds*, Washington, D.C. : Arthur M. Sackler Gallery, Smithsonian Institution ; Singapore : National Heritage Board : Singapore Tourism Board, 2010.
- Richardson, Hugh, *A corpus of early Tibetan inscriptions*,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1985.
- Twitchett, Denis, *Financial Administration under the T'ang Dynas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3. 研究論文

1) 國文

- 姜敬中, 「당대 하북삼진의 호구문제」, 『인문학연구』 90, 2013
- 高光敏, 「『順宗實錄』의 영정혁신에 대한 기술특징과 의의」, 『中國語文學論集』 36, 2006.
- 權惠永, 「古代 東아시아인들의 國外旅行記 撰述」, 『東國史學』49, 2010.
- 金奎皓, 「唐代的 宦官과 樞密使」, 『東國史學』14, 1980.
- 金正植, 「『神機制敵太白陰經』의 편찬과 露布」, 『中國古中世史研究』62, 2021.
- 金貞姬, 「唐末五대의 假父子結合에 대한 考察」, 『藍史鄭在覺博士古稀記念東洋學論叢』, 서울: 東洋學論叢編纂委員會, 1984.
- 金宗燮, 「唐·五代 幕職官의 임용방식과 역할」, 『東洋史學研究』71, 2000.
- 金宗燮, 「唐 大明宮으로 본 대외 관계 - 정전과 편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77, 2019.
- 金宗燮, 「唐·五代 藩鎮에 대한 인식」, 『中國古中世史研究』63, 2022.
- 金珍佑, 「古代中國 皇帝權力的 '私'와 皇帝의 財庫 -御府의 존재양태와 변화를 중심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27, 2012.
- 김차규, 「비잔틴 女帝 이레네의 정책」, 『西洋中世史研究』 8, 2001.
- 金濤, 「唐代 皇室女性の 生活과 地位」, 『東洋史學研究』97, 2006.
- 金濤, 「唐 前期의 北衙禁軍」, 『中國學報』56, 2007.
- 金濤, 「황제에게 어울리는 이상적인 배우자 -兩唐書 「后妃傳」을 통해 본 唐代 后妃像-」, 『中國史研究』118, 2019.
- 金浩東,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大應」, 『歷史學報』137, 1993.
- 朴根七, 「唐代 戶籍制와 收取制度」, 『魏晉隋唐史研究會會報』2, 1994.
- 朴根七, 「唐 前期 地稅 징수와 靑苗簿 작성의 의미」, 『漢城史學』9, 1997.
- 朴根七, 「唐 前期 西北地域 和糴制의 운영실태와 그 특징」, 『分裂과 統合 -中國 中世의 諸相-』, 서울: 지식산업사, 1998
- 朴根七, 「唐 前期 戶籍檢括策의 財政的 성격 -武周時期 逃戶對策과 관련하여-」, 『歷史學報』157, 1998.
- 朴根七, 「唐 後期 地域 區分과 地方財政의 運營」, 『中國學報』41, 2000.

- 朴根七, 「唐代 財政史 연구성과의 정리」, 『漢城史學』13, 2001.
- 朴根七, 「唐 後期 江淮運河와 新羅人的 活動」, 『漢城史學』19, 2004.
- 朴根七, 「唐 後期 兩稅法 운영과 地稅의 關係」, 『漢城史學』18, 2004.
- 朴根七, 「唐代 宇文融 括戶政策 小攷」, 『漢城史學』21, 2006.
- 朴喜眞, 「南宋代 南方地域 稻麥 二毛作의 發展 情況 -江南의 麥作 擴散을 中心으로-」, 『中國史研究』99, 2015.
- 小宮秀陵, 『新羅·渤海의 對唐藩鎮交涉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4
- 沈祉希, 「正祖의 『御定陸奏約選』 편찬 의도와 그 배경」, 『東洋漢文學研究』38, 2014.
- 廉景伊, 「唐 德宗代, 唐詔關係와 劍南西川節度使의 外交的 役割」, 『中國史研究』114, 2018.
- 禹成旼, 「唐代 赦文의 變化에 關하여 -公文書上 表現된 地位變化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38, 2005.
- 柳浚炯, 「唐代 지방 監軍제도의 변화와 의의」, 『東洋史學研究』123, 2013.
- 柳浚炯, 「唐 文宗 시기 甘露之變에 대한 재고찰」, 『中國古中世史研究』35, 2015.
- 柳浚炯, 「唐代 문서행정 의 一面 : 禁中 문서의 작성과 활용에 對한 試探」, 『大丘史學』122, 2016.
- 柳浚炯, 「唐代 監護의 시행과 변화의 諸측면」, 『中國古中世史研究』43, 2017.
- 柳浚炯, 「唐代 中使의 활동과 그 정치적 의미」, 『역사와 答論』90, 2019.
- 柳浚炯, 「唐 후기 皇位 繼承의 樣相과 宣宗의 즉위 -長子 명분을 中心으로-」, 『中國史研究』123, 2019.
- 李基天, 「8세기 국제 질서의 變化와 唐의 三受降城 운영」, 『東洋史學研究』126, 2014.
- 李成珪, 「中國 古代 皇帝權의 性格」, 『東亞史上의 王權』, 서울: 韓울, 1993.
- 李永哲, 「唐 德宗時期 冬薦의 施行과 藩鎮 幕職官」, 『中國古中世史研究』25, 2011.
- 李琬碩, 「唐·回紇의 絹馬交易에 關한 研究」, 『中國古中世史研究』28, 2012.
- 李侑珍, 「9世紀 在唐新羅人的 活動에 對하여」, 『中國史研究』13, 2001.
- 李俊衡, 「唐 玄宗 時期 運河 利用과 其 性格 -江淮 漕運의 樣相을 中心으로-」, 『中國古中世史研究』27, 2012.
- 이하운, 「삼예논쟁의 背景과 전개과정에 對한 社會·사상적 高찰 - 8세기 티베트 의 정치변동과 종교사회적 要求를 中心으로-」, 『회당학보』15, 2010.

- 임상훈, 「洪武帝, 明代 宦官 外交의 創始者 -洪武帝의 宦官 抑制와 그 實體-, 『東洋史學研究』129, 2014.
- 全淳東, 「明初 宦官의 外交 活動 實態와 그 特性」, 『中國史研究』77, 2012.
- 鄭炳俊, 「『唐會要』·『通典』·『新唐書』의 ‘節度使’ 기사 검토」, 『中國古中世史研究』28, 2012.
- 鄭炳俊, 「德宗의 藩鎮改革 政策과 平盧節度使 李正己」, 『中國史研究』81, 2012.
- 鄭炳俊, 「唐 德宗代 四王二帝의 亂과 그 限界」, 『東洋史學研究』137, 2016.
- 鄭炳俊, 「唐 德宗 貞元 시기 淮西 藩鎮의 성격 -吳少誠의 태도를 중심으로-, 『東國史學』69, 2020.
- 鄭炳俊, 「『舊唐書』 陳少遊·韓滉 列傳」, 『東國史學』71, 2021.
- 丁載勳, 「唐 德宗時期(779-805)의 對外政策과 西北民族의 對應」, 『中國古中世史研究』18, 2007.
- 趙鍾成, 「穆宗-武宗 시기(820-846) 唐朝의 二元的 藩鎮 制御 -河北三鎮과 그 인근 藩鎮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134, 2016.
- 趙鍾成, 「唐 後期 宦官의 養子制를 통한 권력 세습과 內諸司使」, 『中國古中世史研究』61, 2021.
- 주경미, 「인도네시아 벨리퉁 침몰선의 발굴과 연구 현황」, 『해양문화재』8, 2015.
- 최소영, 『15세기 티베트 저작 『漢藏史集(Rgya bod yig tshang)』 譯註와 연구』,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9.
- 崔宰榮,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 新羅人社會 -唐朝의 外래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 『한국고대사연구』35, 2004.
- 崔宰榮, 「隋唐長安의 都城構造와 治安對策의 變化」,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0.
- 崔宰榮, 「『桂苑筆耕集』과 唐後期 進奏院의 기능」, 『震檀學報』112, 2011.
- 夏炎 ; 이규호 譯, 「唐代 都督府와 州의 關係에 대한 試論」, 『東國史學』57, 2014.
- 黃清連 ; 朴根七 譯, 「唐代 黃巢의 亂에 대한 藩鎮의 態度 -高駘의 경우-, 『東亞文化』26, 1988.
- Charles A. Peterson ; 김정희 譯, 「중흥의 완성 : 憲宗과 藩鎮」, 『唐代史의 조명』, 서울: 아르케, 1999.

2) 中文

- 賈憲保,「神策中尉與神策軍」,『唐史論叢』5, 1990.
- 葛承雍,「唐代太倉試探」,『人文雜誌』1985-4.
- 瞿愷,「唐代兩稅法與錢荒」,『思想戰線』1990-2.
- 鞠清遠,「唐代的兩稅法」,『北京大學社會科學季刊』6-3, 1936.
- 冀和,「隋開通濟渠流經區域路線考綜述」,『第二屆淮河文化研討會論文集』, 2003.
- 金寶詳,「安史亂後唐代封建經濟的特色」,『甘肅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1961-2.
- 羅火金,「唐代張建封及其妻墓志考」,『文物世界』2008-3.
- 唐長孺,「唐代的內諸司使及其演變」,『山居存稿』,北京:中華書局, 1989.
- 戴顯郡,「唐代的樞密使」,『中國史研究』1998-3.
- 雷家驥,「唐樞密使的創建與早期職掌」,『國立中正大學學報(人文分冊)』4-1, 1993.
- 賴瑞和,「唐代使職的定義」,『史林』2012-2.
- 凍國棟·黃樓,「唐宦官集團與大中政局」,『武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58-4, 2005.
- 杜文玉,「唐代宦官世家考述」,『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7-2, 1998.
- 杜文玉,「唐代宦官俸祿與食邑」,『唐都學刊』1998-2.
- 杜文玉,「唐代宦官劉光琦家族考」,『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29-3, 2000.
- 杜文玉,「唐代宦官婚姻及其內部結構」,『學術月刊』2000-6.
- 杜文玉,「唐代權閹楊氏家族考」,『98法門寺唐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西安:陝西人民出版社, 2000.
- 杜文玉,「唐代宦官管理制度研究」,『社會科學動態』2017-3.
- 馬良懷,「唐代宦官與皇帝關係考論」,『華中師範大學學報』1987-5.
- 孟彥弘,「“姑息”與“用兵”-朝廷藩鎮政策的確立及其實施-」,『唐史論叢』12, 2010.
- 傅旋琮·施純德,「唐德宗朝翰林學士考論」,『燕京學報』10, 2001.
- 史念海,「論唐代貞觀十道和開元十五道」,『唐代歷史地理研究』,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 史念海,「隋唐時期運河和長江的水上交通及其沿岸的都會」,『中國歷史地理論叢』1994-4.
- 史念海,「開皇天寶之間黃河流域及其附近地區農業的發展」,『史念海全集』3,北京:人民出版社, 2013.

- 岳純之,「唐憲宗新論」,『煙臺大學學報』1996-4.
- 楊海民,「唐代糧食物流活動中的倉廩係統研究」,『貴州民族學院學報』2005-5.
- 葉煒,「信息與權力 -從『陸宣公奏議』看唐後期皇帝·宰相與翰林學士的政治角色-」,『中國史研究(季刊)』2014-1.
- 榮新江,「唐朝與黑衣大食關係史新證 -記貞元初年楊良瑤的聘使大食-」,『文史』2012-3.
- 榮新江,「唐朝海上絲綢之路的壯舉 -再論楊良瑤的聘使大食-」,『新絲路學刊』9, 2020.
- 寧欣,「唐代的選人與官闕」,『人文雜誌(西安)』1991-5.
- 吳麗娛,「也談兩稅的“量出爲入”與“定額給資”」,『中國唐史學會論文集』,西安:三秦出版社,1989.
- 吳偉斌,「元稹與宦官」,『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86-1.
- 吳偉斌,「宦官再三的打擊與元稹一生的貶謫 -再論“元稹勾結宦官”真相-」,『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5-6.
- 吳晗,「歷史上的君權的限制」,『吳晗史學論著選集』2卷,人民出版社,1984.(『歷史的鏡子』,上海:生活書店,1946에 실린 것을 재출간)
- 王德毅,「宋代史家的唐史學」,『文史哲學報』50, 1999.
- 王孫盈政,「試論唐代後期宦官集團對中樞決策權的攫取」,『蘭州學刊』2012-11.
- 王守棟,「唐代宦官專權延續性的原因探析」,『德州學院學報』24-1, 2008.
- 王炎平,「辨李德裕與宦官之關係」,『唐史學會論文集』,西安:陝西人民出版社,1986.
- 王永平,「論樞密使與中晚唐宦官政治」,『史學月刊』1991-6.
- 王藝生,「論二王八司馬政治革新的歷史意義」,『歷史研究』1963-3.
- 王義康,「唐河北藩鎮時期人口問題試探」,『河南社會科學』13-1, 2005.
- 王仲榮,「唐代兩稅法研究」,『歷史研究』1963-6.
- 牛志平,「唐宦官年表」,『唐史論叢』2, 1987.
- 牛志平,「唐代宦官」,『唐史論叢』5, 1990.
- 袁英光·李曉路,「唐代財政中心的南移與兩稅法的產生」,『首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1985-3.
- 郁沖聰,「“建中之亂”始末與德宗朝初年若干藩鎮問題」,『遼東學院學報(社會科學版)』2013-5.
- 劉永強,「唐代宦官來源研究」,『寧波大學學報(人文科學版)』30-2, 2017.

- 柳浚炯,「試論唐五代內職諸使的等級化」,『史學集刊』2010-3.
- 柳浚炯,「儒唐代“知內侍省事”考論」,『國際中國學研究』14, 2011.
- 劉海峰,「論唐代官員俸料錢的變動」,『中國社會經濟史研究』1985-2.
- 劉希爲,「通濟渠流經路線辨析」,『運河訪古』,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6.
- 李樹桐,「唐代帝位繼承之研究」,『唐代研究論集』,臺北:新文豐出版公司,1992.
- 李燕捷,「唐代後期內外官主要經濟收入對比 -唐代內外官輕重問題研究-」,『晉陽學刊』1990-1.
- 李媛媛·肖鵬程,「唐代官服服色變化與政治變遷」,『絲綢之路』2016-12.
- 李全德,「從宦官到文臣 -唐宋時期樞密院的職能演變與長官人選-」,『唐研究』11, 2005.
- 李全德,「晚唐五代時期中樞體制變化的特點及其淵源」,『中國人民大學學報』2005-6.
- 李志賢,「唐建中元年財政改革與黨爭關係新探」,『中國社會經濟史研究』1999-2.
- 林冠群,「吐蕃大論那曩尙結贊拉囊研究」,『歷史學報(臺灣師大)』68, 2020.
- 林韻柔,「唐代社會網絡中的宗教性場域 -以圓仁巡禮行歷中的人物交往為例-」,『駿台史學』149, 2013.
- 林偉洲,「政治沖突與中唐稅收 -以劉晏·楊炎爲中心-」,『中國唐代史論文集』,臺北:臺北文史哲出版社,1991.
- 張昆河,「隋唐河考」1·2·3,『禹公』7-1·2·3, 1937.
- 張文斌,「唐代宦官養子制度探略」,『雲夢學刊』2002-4.
- 張世民,「中國古代最早下西洋的外交使節楊良瑤」,『唐史論叢』7, 1998.
- 張世民,「楊良瑤 -中國最早航海下西洋的外交使節-」,『鹹陽師範學院學報』2005-3.
- 鄭學檬,「唐代德朝黨爭和兩稅法」,『歷史研究』1992-4.
- 齊勇鋒,「“度支使”與“支度使”」,『歷史研究』1983-5.
- 曹鐵圈,「隋唐時期洛陽及其周圍地區倉儲初探」,『中州學刊』1996-5.
- 趙沛,「漢唐時期的宦官養子與宦官世家」,『東岳論叢』26-4, 2005.
- 趙和平,「唐代兩稅法實行後的兩個突出問題」,『唐史學會論文集』,西安:陝西人民出版社,1986.
- 朱德軍,「唐代中原藩鎮軍額與軍費問題初探」,『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40-2, 2011.
- 朱麗雙,「贊普墀松德贊之勳績 -P.T.1287第10節譯釋-」,『敦煌學輯刊』2019-4.

- 周懷宇,「論隋唐淮河流域商業發展」,『安徽大學學報』24-5, 2000.
- 陳明光,「論唐代方鎮“進奉”」,『中國社會經濟史研究』1985-01.
- 陳明光,「論兩稅法與唐朝前後中央與地方財權關係的變化」,『廈門大學學報』1987
增刊.
- 陳明光,「論唐朝兩稅預算的定額管理體制」,『中國史研究』1989-1.
- 陳明光,「試論安史之亂對唐前期國家財政體系崩壞的影響」,『求是學刊』1990-01.
- 陳明光,「“兩稅法”與唐朝財政管理體制變革之我見」,『唐代史研究會報』10, 1997.
- 陳明光,「唐朝中央對地方政府的財政監督述論」,『寧波大學學報』22-2, 2009.
- 陳文龍,「釋“貞元中仕進道塞”」,『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2010.
- 陳峰,「試論唐宋時期漕運的沿革與變遷」,『中國經濟史研究』1999-3.
- 陳寅恪,「順宗實錄與續玄怪錄」,『金明館叢稿二編』,上海:上海古籍出版社, 1980.
- 陳朝雲,「唐代河南的倉儲體系與糧食運輸」,『鄭州大學學報』34-6, 2001.
- 陳仲安,「唐代的使職差遣制」,『武漢大學學報』1963-1.
- 陳仲安,「唐代後期的宦官世家」,『唐史學會論文集』,西安:陝西人民出版社, 1986.
- 胡如雷,「略談唐代宦官濫收假子的現象」,『河北師院學報(社會科學版)』1996-2.
- 何先成,「中晚唐神策中尉制下宦官專權的原因」,『山東農業工程學院學報』33-1,
2016.
- 何燦浩,「『甘露之變』性質的探析」,『寧波大學學報』1990-1.
- 何燦浩,「試論唐代中後期君主對宦官之策的特點及其原因」,『寧波師院學報』
1992-1.
- 何榮昌,「唐宋運河與江南社會經濟的發展」,『運河訪古』,上海:上海人民出版社,
1986.
- 黃修明,「唐代神策中尉考論」,『天津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2-6.
- 黃永年,「唐代兩稅法雜考」,『歷史研究』1981-1.
- 黃永年,「“涇師之變”發微」,『唐史論叢』2, 西安:陝西人民出版社, 1987.
- 黃永年,「論建中元年實施兩稅法的意圖」,『陝西師大學報』1988-3.
- 黃永年,「唐代的宦官」,『唐史十二講』,北京:中華書局, 2007.
- 黃日初,「高力士研究四題 -以高力士及其後嗣的碑志為中心-」,『浙江社會科學』
2008-8.
- 侯怡利,「從『重振朝綱』到『姑息養奸』 -唐德宗時代政局研究-」,『通識研究集刊』
10, 2006.
- 侯曉晨,「唐代藩鎮匿喪相關問題研究」,『唐史論叢』30, 2020.

3) 日文

- 高瀬奈津子, 「楊炎の兩税法施行と政治的背景」, 『駿台史學』104, 1998.
- 古松崇志, 「唐代後半の進奉と財政」, 『古代文化』51-4, 1999.
- 谷川道雄, 「河朔三鎮における節度使權力の性格」,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74, 1978.
- 谷川道雄, 「河朔三鎮における藩帥の承繼について」, 『中國古代の法と社會 : 栗原益男先生古稀記念論集』, 東京: 汲古書院, 1988.
- 堀敏一, 「藩鎮親衛軍の權力構造」, 『東洋文化研究所紀要』20, 1960.
- 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 『東洋學報』44-2, 1961.
- 氣賀澤保規, 「唐代皇后の地位についての一考察 - 則天武后上台の歴史的背景-」, 『明大アジア史論集』8, 2002.
- 吉岡眞, 「八世紀前半における唐朝官僚機構の人的構成」, 『史學研究』153, 1981.
- 金子修一; 林松壽 譯, 「漢唐之際遺詔的變遷及意義」, 『中華文史論叢』2012-1.
- 金子修一, 「德宗朝という時代」, 『國學院中國學會報』65, 2019.
- 大澤正昭, 「唐末の藩鎮と中央權力 - 德宗・憲宗朝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32-2, 1973.
- 大津透, 「唐律令國家の予算について - 儀鳳3年度支奏抄・4年金部旨符試釋-」, 『史學雜誌』95-12, 1986.
- 大津透, 「唐儀鳳3年度支奏抄・4年金部旨符補考 - 唐朝の軍事と財政-」, 『東洋史研究』49-2, 1990.
- 大津透, 「唐律令國家の豫算について - 儀鳳3年度支奏抄・4年金部旨符試釋-」, 『日唐律令制の財政構造』, 東京: 岩波書店, 2006.
- 大川裕子, 「長江下流低濕地における水生植物利用の變遷史」, 『東洋史研究』79-4, 2021.
- 島居一康, 「楊炎兩税法の課税構造 - 日野“六原則”不成立の論証-」, 『唐宋變革研究通訊』5, 2014.
- 渡邊信一郎, 「唐代後半期の地方財政 - 州財政と京兆府財政を中心に-」, 『中國專制國家と社會統合 - 中國史像の再構成 2-』, 京都: 文理閣, 1990.
- 渡邊信一郎, 「定額制の成立 - 唐代後半期における財務運營の轉換-」,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79, 2013.

- 渡邊信一郎,「唐代兩稅法の成立: 兩稅錢を中心に」,『唐宋變革研究通訊』7, 2016.
- 渡邊孝,「魏博と成徳 -河朔三鎮の權力構造についての再検討-」,『東洋史研究』54-2, 1995.
- 末田修一,「唐代藩鎮の出界糧について」,『東洋史論叢 : 鈴木俊教授還暦記念』, 東京: 鈴木俊教授還暦記念會, 1964.
- 妹尾達彦,「唐代河東池塩の生産と流通 -河東塩稅機關の立地と機能」,『史林』65-6, 1982.
- 濱口重國,「唐の玄宗朝に於ける江淮上供米と地稅との關係」,『秦漢隋唐史の研究』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6
- 西岡弘晃,「唐宋期揚州の盛衰と水利問題」,『中村學園大學短期大學部研究紀要』34, 2002.
- 小島浩之,「唐代後半期の官僚人事と八儻」,『明大アジア史論集』18, 2014.
- 小畑龍雄,「神策軍の成立」,『東洋史研究』18-2, 1959.
- 小畑龍雄,「神策軍の發展」,『田村博士頌壽東洋史論叢』, 京都: 田村博士退官記念事業會, 1968.
- 矢野主稅,「使制度の發生について」,『史學研究』12-2, 1940.
- 矢野主稅,「唐末監軍使制について」,『社會科學論叢(長崎大學學藝學部)』7, 1957.
- 新見まどか,「唐代後半期における‘華北東部藩鎮連合體」,『東方學』123, 2012.
- 新見まどか,「唐後半期における平盧節度使と海商・山地狩獵民の活動」,『東洋學報』95-1, 2013.
- 室永芳三,「唐代における詔獄の存在様態(下)」,『長崎大學教育學部社會科學論叢』27, 1978.
- 室永芳三,「唐代内侍省の宦官組織について -高品層と品官・白身層-」,『論集中國社會・制度・文化史の諸問題 : 日野開三郎博士頌壽記念論集』, 福岡: 中國書店, 1987.
- 辻正博,「唐朝の對藩鎮政策について -河南「順地」化のプロセス-」,『東洋史研究』46-2, 1987.
- 安永知晃,「「漢家の制」と皇后・皇太后 -漢代における皇帝支配の確立過程-」,『史林』98-6, 2015.
- 礪波護,「隋唐時代の太倉と含嘉倉」,『東方學報』52, 1982.
- 吳明浩,「楊炎の「量出而制入」と兩稅法の成立再考」,『東洋史研究』78-1, 2019.
- 吳明浩,『唐宋變革期の國家と經濟 -唐代の財政・稅法・貨幣をめぐって-』, 京都大

- 學博士學位論文, 2022.
- 吳志宏, 「唐代左・右藏庫の變容と内庫との關係」,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58-4, 2012.
- 吳志宏, 「唐代延資庫の性格と財政運營」, 『東洋學報』97-1, 2015.
- 玉井是博, 「唐時代の土地問題管見」, 『史學雜誌』33-8・9・10, 1922.
- 外山軍治, 「唐代の漕運」, 『史林』22, 1937.
- 友永植, 「唐宋時代の宣徽院使について -主に五代の宣徽院使の活動に注目して-」, 『北大史學』18, 1978.
- 友永植, 「五代内官考」, 『史學論叢』35, 2005.
- 熊本崇, 「唐宋儲貳問題初探」, 『中國文人の思考と表現』, 東京: 汲古書院, 2000.
- 李宇一, 「唐代「神策外鎮」再考」, 『史泉』133, 2021.
- 趙雨樂, 「唐代における飛龍廐と飛龍使 -特に大明宮の防衛を中心として-」, 『史林』74, 1991.
- 趙雨樂, 「唐代における内諸司使の構造 -その成立時點と機構の初歩的整理-」, 『東洋史研究』50-4, 1992.
- 佐竹靖彦, 「唐代四川地域の軍事構造とその基礎」, 『唐宋變革の地域的研究』, 京都: 同朋舎, 1990.
- 齋木哲郎, 「永貞革新と春秋學 -唐代新春秋學の政治的展開-」, 『鳴門教育大學研究紀要』22, 2007.
- 中砂明德, 「後期唐朝の江淮支配 -元和時代の一側面-」, 『東洋史研究』47-1, 1988.
- 曾我部靜雄, 「唐の防秋兵と防冬兵」(下), 『集刊東洋學』43, 1980.
- 村井恭子, 「九世紀ウイグル可汗國崩壞時期における唐の北邊政策」, 『東洋學報』90-1, 2008.
- 平田陽一郎, 「皇帝と奴官 -唐代皇帝親衛兵組織における人的結合の一側面-」, 『隋唐帝國形成期における軍事と外交』, 東京: 汲古書院, 2021.
- 横山裕谷, 「唐の官僚制と宦官 -中世的側近政治の終焉序説-」, 『中國中世史研究 -六朝隋唐の社會と文化-』, 東京: 東海大學出版會, 1970.
- Denis Twitchett, 「唐末の藩鎮と中央財政」, 『史學雜誌』74-8, 1965.

4) 英文

- Hoeckelmann, Michael, "Celebrate, but Not Childless: Eunuch Military Dynasticism in Medieval China", *Celibate and Childless Men in Power : Ruling Eunuchs and Bishops in the Pre-Modern World*, New York: Routledge, 2018.
- Hugh Kennedy, "Byzantine-Arab diplomacy in the Near East from the Islamic conquests to the mid eleventh century", *The Byzantine and Early Islamic Near East*, Burlington, VT : Ashgate, 2006.
- Hugh Kennedy ; John Haldon, "The Arab-Byzantine frontier in the eighth and ninth centuries: military organisation and society in the borderlands", *The Byzantine and Early Islamic Near East*, Burlington, VT : Ashgate, 2006.
- Lee, John, "The Dragons and Tigers of 792 : The Examination in T'ang History", *T'ang Studies* vol.6, 1988.
- Peterson, C.A., "Court and Province in Mid and Late T'ang",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Rideout, J. K., "The Rise of the Eunuchs During the T'ang Dynasty : Part 1(616-705)", *Asia Major*, new series 1, 1950.
- Twitchett, Denis, "Provincial Autonomy and Central Finance in Late T'ang", *Asia Major* vol.11-2, 1965.

Abstract

State Governance and Reconstruction of the Empire under Emperor Dezong of Tang Dynasty

Cho, Jongsung

Department of Asi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rebellion of An Lushan, Emperor Dezong(德宗) faced various challenges in reconstructing the empire. One crucial task was to secure the Jianghuai(江淮) Canal, which was essential for financial operations and closely related to the post-rebellion state governance.

During the reign of Emperor Xuanzong(玄宗), Tang court actively began utilizing the Canal as a transportation route to transfer goods from Jiangnan region to Chang'an. Subsequently, the steady economic development in Jiangnan region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ang government's finances,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its revenue. However, after the rebellion of An Lushan, Tang Dynasty could not

fully control the Jianghuai Canal, as the rebel-held territories, including Bianzhou(汴州) and Xuzhou(徐州), obstructed the major points along the route. Many of these rebellious fanzhens were led by former generals under An Lushan and Shi Siming's command. Tang Dynasty, unable to suppress them completely, faced opposition and resistance in the Hebei(河北) and Henan(河南) provinces.

To counter the rebel forces, Tang court deployed troops in the regions of Hedong(河東), Henan, and Huainan(淮南) provinces, strategically positioning them to be supplied with provisions through the transportation of goods from Jiangnan region. However, continuous military efforts against the neighboring powerful states of Tubo(吐蕃) Empire and Uyghur Empire resulted in the exhaustion of resources and manpower, making it challenging for Tang Dynasty to confront the rebellious regions fully.

Emperor Dezong focused on establishing peaceful relations with the Tubo Empire instead of maintaining strained relations. This allowed Tang Dynasty to redirect military and material resources from the northwest frontiers to concentrate on internal issues. When the rebellion in Jianzhong(建中) Era escalated, the rebel-held territories blocked both the Jianghuai and Jianghan(江漢) Canal, disrupting the flow of materials to Chang'an. However, through active responses by Tang Dynasty, both transport routes were eventually secured, and the initiative was gained in confronting the rebellious regions.

Meanwhile, an internal uprising occurred in Chengde fanzhen, led by Wang Wujun(王武俊) who assassinated the regional commander Li Weiyue(李惟岳). Wang Wujun defected to Tang government, leading to a favorabl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for Tang Dynasty. In response, the rebellious fanzhens urged Tang government to expel all the regional commanders who had joined them and replace them with

civil officials, as they believed it would be a more loyal and reliable choice. This proposal was received widespread support from the regional commanders including Li Xilie(李希烈) of Huaixi(淮西) fanzhen. He further complicated the situation by teaming up with the rebels and blocking the Jianghuai Canal, making financial operations for Tang Dynasty difficult.

When Li Xilie attacked the areas adjacent to the Jianghuai Canal, Emperor Dezong dispatched troops led by General Geshu Yao(哥舒曜) to counter the rebellion. However, Geshu Yao suffered defeat and was subsequently besieged in Xiangcheng(襄城), posing a significant threat to the safety of the Jianghuai Canal, making it difficult for Tang Dynasty to supply provisions. In an attempt to support the besieged Geshu Yao, the Emperor failed to reward the Jiongyuan(涇原) Army sufficiently, leading to their rebellion. This event, known as the "Jingshizhibian(涇師之變)" had a direct impact on the disruption of the Jianghuai Canal. As a result, Emperor Dezong fled from Chang'an to Fengtian(奉天).

Although Shuofang(朔方) Jiedushi Li Huaiguang(李懷光) rescued Emperor Dezong, he harbored dissatisfaction with the posthumous treatment and eventually aligned with the rebel forces, threatening Emperor Dezong and occupying the Hezhong(河中), effectively causing Tang Dynasty to lose control over the Jianghuai Canal entirely. The center of supply, Chang'an, was taken away, rendering Tang forces unable to wage war against the rebel faction. Emperor Dezong issued the "Decree of self-blame(罪己詔)", attributing the causes of the rebellions by the regional commanders to himself and vowing that if the regional commanders refrained from attacking the areas beyond their jurisdiction and cut ties with Zhu Ci(朱泚), who had proclaimed himself Emperor with the support of the Jiongyuan Army, he would

grant amnesty to their forces. This was an inevitable choice made by Emperor Dezong in the unfavorable situation he found himself in. As a result, some of the rebel forces surrendered to Emperor Dezong and were granted the positions they desired as regional commanders. With the cooperation of these surrendered forces, Emperor Dezong successively suppressed the remaining rebel factions who refused to surrender.

Although the crisis was alleviated with the "Decree of Self-blame," Emperor Dezong still faced financial difficulties. To secure surplus funds, he implemented measures such as reducing officials' salaries and leaving vacancies among officials unfilled. The background behind Emperor Dezong's conciliatory attitude toward the fanzhen was the severe financial crisis. However, by securing control over the entire area through which the Canal passed and subduing all rebel factions outside the Hebei and Henan regions, Emperor Dezong significantly shortened the front lines with the fanzhen. This way, he managed to alleviate some of the challenges faced since the rebellion of An Lushan.

Upon his return to Chang'an, Emperor Dezong sought to diminish the potential threat to the Emperor by dividing the jurisdiction of Shuofang Army that had participated in the rebellion into three smaller fanzhens. However, the Shuofang Army was a crucial faction defending the northwest border, and weakening them could have led to a vulnerability in the defense of the northwest border. To address this concern, Emperor Dezong deployed a considerable number of Shence(神策) Army to the northwest border region, placing them under the command of the Shencezhongwei(神策中尉), who consisted of eunuchs. Shencezhongwei was appointed directly by the Emperor, and Emperor Dezong used this appointment to maintain a certain

level of defense in the northwest border area while reducing the potential threat of the fanzhens in that region. These measures, in conjunction with the reinforcement of military strength near the capital, constituted a dual strategy of 'strengthening the trunk and weakening the branches(強幹弱枝)' to effectively confront the regional forces.

The problem aros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Tubo Empire. Since the 'Surprising raid in Ping-liang Treaty(平涼劫盟)' in 787, the amicable relations between Tang Dynasty and Tubo Empire that had been maintained since Dezong's ascension to the throne were shattered, posing a threat to the safety of Chang'an. However, Tang Dynasty had not yet completely overcome the financial difficulties after the war and was burdened by the issue of the strong military power of Tubo Empire in the northwest border region.

To address this, Emperor Dezong engaged in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Uighur Empire, Nanzhao(南詔), Abbasid Caliphate, and Tianzhu(天竺), aiming to collaboratively suppress Tubo Empire. This approach proved effective, and as the reign of Emperor Dezong progressed, the threat from Tubo Empire to the northwest border of Tang Dynasty gradually diminished. As a result, Tang Dynasty was able to establish a stable foundation for governing the empire.

Afterward, Emperor Dezong maintained a conciliatory attitude toward fanzhens. However, in 799 he took a different approach by mobilizing seventeen fanzhen forces to suppress the Huaixi fanzhen. The reason behind Emperor Dezong's decision was that the Huaixi fanzhen posed a threat to the safety of the Jianghuai Canal. When Chenxu(陳許) Jiedushi Quhuan(曲環) died, Wu Shaocheng(吳少誠), the Huaixi Jiedushi, took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attack Xuzhou

(許州). In response, Emperor Dezong ordered the suppression of the Huaixi fanzhen. This is also relevant to the fundamental duty of the Chenxu Jiedushi, which was to block access to the Jianghuai Canal by the Huaixi fanzhen.

However, during this campaign, Emperor Dezong chose not to appoint an commander in chief for the entire punitive force and instead attempted to control the situation through eunuchs. This attempt was aimed at preventing the establishment of a massive military force that could threaten the Emperor, but the absence of centralized command led to issues with leadership, resulting in continuous defeats for the punitive force.

Later, Han Quanyi(韓全義) was appointed as the Commander for Pacification and Conquest(招討使). However, he, too, was a recommended candidate by Shencezhongwei Dou Wenchang(竇文場) and had limitations in military talent. As Han Quanyi repeatedly suffered defeats, Emperor Dezong decided to pardon Huaixi fanzhen, citing Wu Shaocheng's submission of a petition expressing his willingness to correct his mistakes. In September of 800, Emperor Dezong disbanded the punitive force.

Although the campaign against the Huaixi fanzhen ended in failure, Tang Dynasty was successful in safeguarding the primary defensive objective of the Jianghuai Canal. He also demonstrated to the fanzhen that he was prepared to mobilize a large-scale punitive force should any fanzhen pose a threat to it. Consequently, the failure of the campaign against the Huaixi fanzhen can be estimated as a significant event in the final stages of Emperor Dezong's efforts to reconstruct Tang Empire.

It cannot be claimed that Emperor Dezong completely resolved all the various challenges that were lingering in Tang Dynasty after

the rebellion of An Lushan during his reign. However, it is true that Emperor Dezong laid the foundation for essential conditions for governing the empire, such as securing the Jianghuai Canal,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and preventing the fanzhen from launching incursions outside their territories. In this sense, the reign of Emperor Dezong brought together several elements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reconstruction" of Tang Empire.

The fact that Tang Dynasty persisted for over a hundred years even after Emperor Dezong's reign indicates that his policies had shown effectiveness. The groundwork for subsequent emperors, including Emperor Xianzong(憲宗), to focus on addressing the fanzhen issue was already established during Emperor Dezong's era.

Keywords : Emperor Dezong of Tang, Rebellion of An Lushan, Canal, Lu Zhi, Fanzhen, Finance, Diplomacy, Tubo Empire, Uighur Empire, Eunuch, Shence Army, Reconstruction of the empire

Student Number : 2014-30024